第七篇　文　化

第1章 教 育

第1節 概 說

三國遺事에 記錄된(卷一記異第一古朝鮮條)「昔有桓因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白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神檀樹下 謂之神市」라는 것을 볼 때 弘益人間으로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左右間 古代나 現代나 교육의 이념은 弘益人間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태초부터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실현하기 시작했는지는 알기 어렵고 三國時代부터는 그 교육의 기구나 방법이 대략 문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 삼국시대의 교육

고구려는 제17代 小獸林王 2년(372) 秦나라에서 불교를 들여오면서 최초의 학교제도라고 할 수 있는 太學을 세우고 상류계층의 子弟를 교육시켰고 교육의 서적으로서는 五經 三史 三國誌 晋春秋 등(北史周書 및 唐書中 高句麗傳)을 敎科書로 한것 같다. 또 고구려는 太學이외에 局堂을 세워 庶民의 未婚子弟를 모아 讀書와 射習으로 文武를 가르친 것 같다.

한편 신라에서는 眞興王 37년(576)에 花郎을 창설하여 美貌의 男子를 선발하여 道와 樂을 닦고 武藝를 익혀 朝廷의 인재를 선발하게 하였다.

또 三國을 統一하면서 學校敎育이 正式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眞德女王이 金春秋를 唐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어 그 나라에 國學을 살피도록 하여 돌아온 후에 胎動이 시작되었다.

神文王 2年 6月(682)에 국학을 설치하였고 추후에 점차 補完하여 聖德王 16년에는 唐나라에서 孔子의 十哲 七十二제자의 畫像을 가져다 국학에 봉안하고 釋典의 禮를 行함으로 확고한 학교가 이루어졌다.

이 국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15세부터 30세까지로 大舍이하의 官職급의 사람들이었고 修業年限은 9년으로 하고 또 未熟者 중에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연한을 초과해서도 다닐 수 있게 하였다.(삼국사기 38권 잡지 제 7)

교육의 내용은 論語, 孝經, 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 등이며 교수로는 박사와 조교들이었다. 후에 이 국학을 禮部에 소속시켰다가 경덕왕 때에 태학감으로 했다가 惠恭王에 와서 다시 국학으로 復故했다. 이 국학 이외에 算學, 의학, 천문학, 律學 등을 국학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별도로 설치하여 교육시켰다.

2. 고려시대의 교육

고려 태조가 건국 창업을 이룬 후에 교육진흥에 크게 힘을 기울여 학교와 학원을 세우고 박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六部의 생도를 모아서 교육시켰다. 그러다가 成宗 때

이르러서 교육을 더욱 진흥시켜 모든 州, 郡, 縣의 자제를 뽑아서 서울에 머물러 학습하도록 하더니 11년(992)에 이르러 國子監을 설립하였고 叡宗 4 년(1109)에 들어와서 七齋(呂澤, 待腰, 經德, 求人, 服膺, 養正, 講藝)의 전문 분야를 두어 文武를 겸하여 교육시켰다.

仁宗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學式을 詳定하여 국자학, 대학, 四門學, 서학, 율학 등 6개 학교와 각기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였다. 「十一年 四月 制曰文武兩學 國家敎化之根源」, 「仁宗朝 式目都監 詳定學式國子學生以文武官 三品以上子孫及 勳官二品 帶縣公以上 幷京官四品 帶三品以上勳封者之子. 爲之大學生 以文武官五品以上子孫 若正從三品以上孫及 勳官三品以上 有封者之子 爲之四門學生 以勳官三品以上 無封四品有封及 文武七品以上之子 爲之三學生各三百人」(高麗史 47卷等) 그리고 仁宗 5년(1127)에 국자감을 中央에 두는 반면 各 地方에도 州에는 州學, 府에는 府學, 縣에는 縣學 等으로 하여 州, 府, 縣마다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시켰다고 했으니 지금의 郡單位 학교는 이 때 부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다시 元宗 2 년(1261)에 東西학당을 두고 別監으로 하여금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학당은 후의 지방 향교와 성격이나 내용이 비슷하여 학당의 교육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공양왕 3년에 三部학당을 증설하여 五部학당으로 하고 학풍을 쇄신시킴으로 크게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3. 조선시대의 교육

조선조에 들어와서 초기에 생긴 庶孼의 차등 대우와 더불어 兩班 中人 常人 賤人의 사대계급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처럼 신분의 계층이 분화되면서 士大夫의 자제에 한하여 벼슬을 할 수 있게됨에 따라서 관리의 양성이나 과거에 의한 관리의 등용 역시 이에 따랐기 때문에 학교나 기타교육의 방법과 제한도 두말할 것 없이 이 계층에 따랐다. 또 儒學을 교육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政治와 禮節에 교육을 치중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學科敎材로는 小學,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經, 書經, 周易, 春秋, 禮記 等을 主로 하였다. 중앙에 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 사문학, 잡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으며 私學으로는 中期이후에 書院과 書堂이 있었다.

4. 한말과 개화기의 교육

1800년대에 후반으로 들어서서 구한국은 쇄국적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소용돌이가 시작되었고 더구나 대원군이 실각되면서 그 진전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따라서 敎育的인 면에서도 그 개혁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보게 되고 1876년 이후에는 교육면에서도 국제적으로 전개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러시아와의 사이에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복잡한 정치정세속에서도 문호가 개방되어감에 따라 교육 또한 추세를 같이하였다. 한편 교회의 선교계통으로 인하여 교육의 진전이 더욱 빨라졌던 것같다. 그로부터 學校가 설립되기 始作하고 또 1884년 甲申政變을 계기로 개화파에 의하여 많은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근대식 학교로서는 1883년 외교고문으로 있었던 멜런돌프(P.G.Von

moellendolf)와 할리팍스(T.E.Halifox) 등에 의해 설립된 通辨學校다. 이것이 바로 외국어학교이며 1885년에 선교사 알렌(HoraceN. Allen)이 세운 광혜원이 서양의학을 가르치는 학교였다. 그리고 전문기술의 교육이 아닌 일반 학교로서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이다. 1885년에 배재학당이 세워지고 1886년에 이화학당이 설립되면서 부터 우후죽순으로 여러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1886년에 국립으로서 育英公院을 설립하고 미국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현대적 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이 육영공원은 중요관리들의 子姪 중에서 선발하여 어학과 신학문을 강의했고 內務部 修文司 堂上이 주무를 맡게 하여 說學節目에 따라 左右兩院을 두고 左院에는 年少 과거급제자 중에 영재를 고르고 右院은 15~20세중에 재질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각각 교육을 시켰다. 당시의 교과내용은 독서, 습자, 해자법, 산학, 寫所習算法, 지리 등과 大質法, 外國言語, 역학, 의학, 農理, 天文, 機器, 各國史, 政治 등을 배우게 했다.

卯時에 登校하고 申時에 退校하고 토요일의 오후와 일요일의 全日은 半休日, 休日로 정하고 夏季 冬季에 放學하는 등 완전한 현대식 학교로 운영하였으나 1889년 경부터 국립 육영공원은 그 기능을 점차 잃기 시작하였다.

甲午更張으로 정부의 기구를 완전히 개편하면서 六曹도 따라서 변화되었다. 八衙門을 둘때 學部衙門을 두어 全國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학부아문 안에 총무국, 성균관 향교 서원사무국, 전문학무국, 보통학무국, 사무국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게 하였다. 1895년에 敎育詔書를 公布하였다. 그후 계속하여,

1895. 4.16 한성사범학교 관제
1895. 5.10 외국어학교 관제
1895. 7. 2 성균관 관제
1895. 7.11 소학교령

등 계속해서 학칙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되고 의학교, 상공학교, 농공상학교의 관제와 규칙이 공포되었다. 약 10년간 이같이 발전진행되면서 1905년에 소위 乙巳조약이 체결된 후에 학제를 대폭 개정하여 그 이듬해인 1906에 새 교육법을 개정공포하였다. 勅令 11호로 공포된 사범학교령을 위시하여 20여종의 학칙이 내려졌다. 그러나 乙巳조약 후의 학칙은 거의 일본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우리나라를 점차로 식민지화 하려는 점진계획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정책에 장애를 우려해서 사립학교 역시 사립학교 규칙으로 억압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진학교가 급증하는 한편 조선조에 전통적인 私學방법인 書堂이 계속하여 존속해 오다가 구한말 신학이 발달하면서 거의 빛을 보지 못하더니 일본이 완전히 식민지적 교육방법을 시행하면서 부터 그에 반발하여 전국에 서당이 다시 성행되었으니 여기에서는 배일감정이 치솟은 때문이다. 이 때 여주 관내에는 二個里에 書堂 하나씩은 있었는데 이 서당에서는 개화의 학문이나 경제적 실학을 강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유교적 경전을 가르치는데 불과하였다. 이 서당교육은 계속해서 8.15해방까지 존속하였다.

5. 일제시대의 교육

1910년 소위 庚戌合邦을 이룬 日本은 그 다음해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고 그들의 식민지 교육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리하여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日本語를 국어라고 하여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우리말은 朝鮮語라고 表記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경술합방으로 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사이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우는 사립학교가 증가되지 못했고 일본인과 한국인을 같은 학교에서 교육시키는데도 차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3.1운동이 일기 시작한 후부터 학무국에 편수관 등을 증원하고 학칙을 일부 완화하여 일본사람들과 비등하게 하여 한국인의 불평을 막으려고 하였다. 또 학제일부를 변경하여 보통학교의 수업연한 4년을 6년으로 고치고 학과 내용에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강화하였으며, 또 조선어가 필수 과목이던 것을 수의과목으로 바꾸었다. 1929년 부터 1938년 사이에 1面 1개 학교를 목표하여 모두가 거의 公立학교라 하여 증설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역시 사설학교는 거의 증설을 보지못했다. 倭政 말기로 접어들면서 日本은 소위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三大敎育 방침을 성명하고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을 개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를 尋常小學校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개칭하여 일본의 각급 해당 학교와 통일시켰다. 동시에 皇國臣民誓詞 또 창씨개명이라하여 姓名을 日本과 같이 고쳐 한국전통을 없애도록 하고 그외 神社參拜, 宮城遙拜 勤勞動員 志願兵, 徵兵 등을 강요하면서 朝鮮語使用을 폐지하여 완전히 日本語를 사용토록 하였다.

1941년 국민학교령을 만들어 심상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고 이상과 같은 교육 방법으로 日本이 패망하는 1945년 8월까지 강행한 것이다.

6. 현대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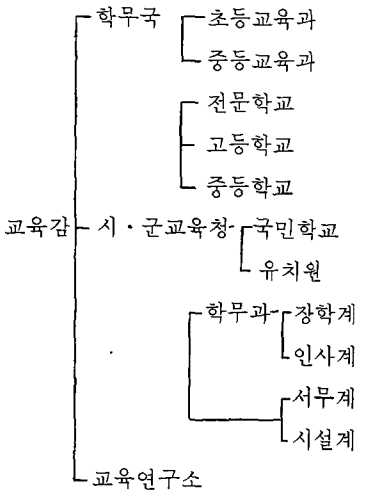
8.15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고 행정기구를 구성하면서 문교부를 두어 전국교육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법률86호로 교육법이 공포되고 다시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교육구는 특별시, 市, 도에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1952년 6월 4일 각급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경기도에도 교육위원회가 생겼으며 도지사밑에 문교사회국장 관할하에 있었다. 郡교육위원회는 읍면의회에서 1명씩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당연직 의장으로서 주재했고, 도교육위원회는 各市郡에서 선출한 1명씩의 위원과 도지사 추천에 의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知事가 당연직 의장이 되었다.

여주군 교육구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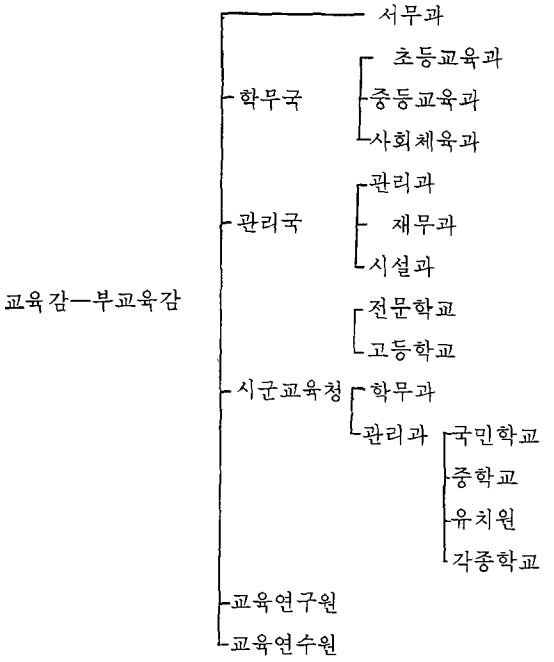
교육감 ┌ 교육장 — 장학사
　　　 └ 사무장

교육위원회 기구편제

(1964.1.1시행)



(1973.2.1시행개정기구)



第2節 鄕 校

鄕校란 地方에 있는 文廟와 이에 附屬한 옛날의 學校로 一名 校宮, 齋宮이라고 한다. 즉 高

麗時代에서 朝鮮時代에 繼承한 地方의 敎育機關이다. 高麗의 敎育制는 唐나라의 制度를 모방하여 中央에는 國子監, 東西學堂을 두고 地方에는 國子監을 축소한 학교를 설치하였다. 즉 고려 인종 5년(1127) 3월에 各州에다 學堂을 세워 널리 道를 가르치라는 詔書에 起因한 것이다. 학교의 제도는 孔子를 제사하는 文宣王廟를 中心으로 하여 강당으로서 明倫堂이 설치되고 있으며 敎師는 助敎라고 하였다. 고려 의종이후에 국정이 문란하고 學制 또한 퇴폐하니 향교 역시 미약해진 상태였다. 그후 忠肅王이 學校를 進興시키려고 李穀으로 하여금 各郡을 巡歷시켜 향교를 부흥시켰다. 조선 太祖 1년(1392)에 각도 按察使(도지사)에게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써 地方官의 考課의 기준을 삼는 法을 만들고 크게 교학에 쇄신을 꾀했다. 이에 각 府, 牧, 郡, 縣에 1개 향교씩 설립을 보게되고 향교에는 문묘, 명륜당을 두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先哲, 先賢을 제사하는 東西兩庶 東西兩齋가 있다. 東西兩齋는 明倫堂(강당)의 전면에 있으며 東齋에는 兩班, 西齋에는 庶類를 두고 보통 內外 兩舍로 갈라진다. 儒生의 수는 府, 牧에는 90人, 都護府에 70人, 郡에 50人, 縣에 30人으로 두고 직원으로는 敎授, 訓導를 各 一人씩 두고 小郡에는 訓導 1人만을 두었다. 또 향교에는 公需를 위하여 政府에서 學田을 7～5結(1結이 지금 1石지기)씩을 주었고 學行에 관한 사항을 守令이 관찰사에게 보고했다. 향교에서 受學한 者가 1차 과거에 합격하면 生員 進士의 칭호를 받고 다시 成均館에 가서 受學하게되며 다시 文科에 급제하면 벼슬에 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朝鮮中期 以後의 향교는 과거 준비장이 되고 書院이 흥발하게 되자 다시 점차로 쇠퇴해지기 시작했다. 조선 高宗 31년(1894)말에 과거 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교는 완전히 이름만 남게되어 文廟를 享祀할 따름이었다. 학교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文廟職員을 명예직으로 군수의 감독하에 두고 향교 재산은 정부 學部의 소관으로 하며 융희 4년(1900) 4월 향교 재산 관리규정을 정하고 부윤과 군수로 하여금 정리케하고 그 수입을 군에서 공립 또는 지정 학교재단의 비용에 충당하고 문묘의 수리나 享祀비로 쓰도록 했다. 그후 재산 관리규정이 변경되어 공립학교 비용은 쓰지 않도록 하고 문묘의 유지와 사회 교화사업에만 쓰도록 했다.

한편, 중앙에는 成均館이라고 불리는 고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이 성균관은 그 명칭이 國學이었는데 고려 충선왕 때 성균관이라고 명칭을 바꾼데서 시작되었고 잠시 공민왕 때는 國子監이라고 부르다가 곧 성균관이라고 바뀌었는데 甲午改革(1894년)까지 조선 全代에 최고교육기관으로 유지되어 왔다. 태조 7년(1398) 崇敎坊(지금 명륜동)에 이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유학을 강의하는 명륜당, 공자를 모신 文廟, 유생들이 거처하는 齋를 두었으며 태종 때는 學田과 노비를 주어 운영토록 하는 한편 왕이 친히 나가서 문묘에 제사를 지내고 왕세자의 입학할 것을 명하니 그후 이것이 상례가 되었고 누대의 왕을 거치는 동안 각지방에 이 성균관 學田土地 등을 만들어 두고 그 경비를 충당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가 성종때까지 계속 확장 보완되었다. 享官廳과 도서를 보관하는 도서고로 尊經閣을 두었으며 현종때에 丕闡堂(과거장), 숙종 때에는 啓聖堂이 세워졌다. 이에 종사하는 관원으로는 총 책임자가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대제학이 겸임하여 知館事가 있었고 그 밑에 同知館事 1명 전임관원으로 大司成 1명, 祭主 2명, 司成 1명, 司藝 2명, 司僕 1명, 直講 4명, 典籍 13명, 博士 3명, 學正 3명, 學錄 3명, 學諭 3명 등인데 그중에 박사급 이하는 정원외에 奉常寺의 관원과 四學의 訓導가 겸직한 것이었다. 入學하는 유생의 정원은 200명으

로 생원이나 진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입학을 허용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四學 生徒中에서 보충하였다. 그후 경비의 부족으로 영조 때에는 정원을 120명으로 줄여오다가 한말기에는 100명으로 줄은 일도 있다. 경술합방후 왜정때는 經學院이라고 칭하였고 명륜당과 그 부속 건물에 明倫專門학교를 세웠는데 8.15 해방 후에 성균관 대학으로 되었다.

Ⅰ. 여주향교의 역사

1. 高麗末期에 稼亭(李穀) 先生이 全國을 巡回하면서 敎育進興의 방안으로 各處에 鄕校를 일으킬 때 馬巖 남쪽 기슭에 文廟와 明倫堂을 짓고 儒生을 가르쳐 오다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加藤淸正이라는 倭將이 인솔하는 倭兵과 驪江을 사이에 두고 大戰이 치열할 때 兵禍로 因하여 燒失되고 말았다. 더우기 1598년 壬辰과 丁酉재란이 끝나기는 했으나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난 후였으므로 民生苦에 허덕이는 탓으로 국가의 모든 문물이 마비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군민으로 하여금 감히 향교를 재건할 여유를 갖지 못하다가 소실된 지 10년째 되던 1601(辛丑)년에 넉넉하지 못하게 옛터에 그대로 세웠으나 허술했던 탓으로 50년만에 지붕이 상하고 재목이 모두 훼손되어 1651년(辛卯・효종 2)에 자리를 여주읍 栢木峴(잣나무 고개)에 옮겨 그해 12월 8일에 上梁을 보았으나 (齋任 具陽晋, 洪聃齡, 有司 柳時稷 禹東漸, 典穀有司 進士 成復曾, 林碩賓, 伐木有司辛柔, 都色 尹商卿 木手 姜成立, 崔億壽等이 주간하여 세움) 역시 민생경제가 여유치 못한 시기에 건립하여 완전하지 못하였다.

위치상으로 보아 山 능선에 세웠기 때문에 좌우가 협소했고 따라서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지대의 굴곡이 심해 聖哲寢廟에 부적합했다. 한편 향교를 잣나무고개로 移建한 후에 주위에 괴질이 유행하여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군민의 원성이 높아 이곳으로 이축한 지 35년만인 1685년(숙종11 : 乙丑)에 향교를 새로 신축, 현재까지 보존되어 왔다. 고려시대 건축이나 임진왜란 후의 신축과 栢木峴의 移建의 記事는 상세하지 않아 이상과 같이 그 대략만을 기록하며 다만 1685년도의 현존 건물을 세울 때의 記錄은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략을 간략하여 기록한다.

1685년(乙丑) 향교移建記事略

1. 5月 1日 향교를 옮겨 새로 건축하자는 의논에 동서재 유림 전원이 동의하여 中央에 건의하는 진정을 올리기로 하고 通文을 초안하다.

2. 5月 25日 동재유생 50명 서재유생 20명 도합 70명이 대회를 열고 上奏文을 작성하고 狀頭에 進士 李百齡, 都有司 鄭言蓂, 掌議 韓汝說, 辛彙, 色掌 辛得說, 禹聖龜, 書院掌議 盧采若, 色掌 洪錫周, 鄭光顯, 鄕校西齋掌議 兪錫朋・權致重, 色掌 柳茂・金萬齡 等 62人 連署로 올리다

3. 6月 20日 경기 감사(鄭載禧)가 이를 접수하여 예조판서에게 올림.

4. 6月 27日 예조판서 金萬重(西浦)이 이를 上啓하여 允許를 받았다.

5. 允許內容 속히 서둘러 시행하라. 여주는 牧이요 道廳所在地가 아니니 마땅히 제사할 位

次는 五聖(孔子 顔子 曾子 子思 孟子) 十哲(閔損子騫, 冉耕白牛 冉雍仲弓 宰豫子我 端木賜子貢 冉求子有 仲由子路 言偃子游 卜商子夏 顓孫師子張)과 宋朝四賢(道國公 周敦頤 洛國公 程頤 豫國公程顥 徽國公 朱熹)과 東邦(우리나라) 儒賢 11位(弘儒侯 薛聰 文昌侯 崔致遠 文成公 安裕 文忠公 鄭夢周 文敬公 金宏弼 文獻公 鄭汝昌 文正公 趙光祖, 文元公 李彦迪 文純公 李滉 文正公 金麟厚 文成公 李珥)=(文簡公 成渾, 文元公 金長生 文烈公 趙憲 文敬公 金集 文正公 宋時烈 文正公 宋浚吉 文純公 朴世采는 以后追配)를 제사토록 하라고 하였다.

6. 7월 15일 地師와 함께 括禮洞(지금 자리)에 가서 聖殿지을 基地의 穴을 정하고 坐向을 잡다.

壬坎龍 艮入首 子坐午向 庚子庚午 分金 未坤 得水 巽 破

7. 8月1日 南村에 사는 進士 李聖奎로 부터 營建할 吉日을 가리고 營建에 必要한 모든 任員을 定하여 牧使의 재가를 받음

都有司 進士 崔夏封 任煦

有司 生員 邊藝胤 李後昇 進士 辛黎
趙宗周 尹彙章 鄭啓友 李百熙
韓相稷 申世壯 尹相殷 尹 洙
申繼壯 金泰相 洪乃澄 尹 濟
成萬祥 李後老 禹碩昌 朴 炫
朴 炫 李敏培 共 屹 宋國彬

典穀有司 韓斗齊 韓泰箕 李尙薹 李世逵 成虎逵 申 植 尹 涉 金嗣遠
韓信楨 申 穆 慶 宿 柳觀和

伐木有司 朴命基 權益衡 李尙友 慶千會
辛 檗 韓汝規 成虎遠 李晩英
成世胄 禹錫夏 柳觀和

8. 같은날 영건함에 소요되는 식량과 비용의 갹출방법에 대하여 郡民을 三等分하여 各己白米로 갹출하되 양반과 中人은 各一斗五升씩 良人은 一斗씩 賤人은 各 5升씩하고 役軍은 工事가 完了될 때까지 各戶가 輪回하여 扶役하고 管內에 정박한 商船에 대하여는 배〔船〕의 大小에 따라 三等分하여 稅를 받고 鹽船에 대하여는 大中小로 三斗二斗一斗씩 醢船(새우젓배)은 每襲(항아리)마다 3升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牧使에게 告하여 監司의 승인을 받아 총 갹출 수합한 物品 白米 298秬 鹽 6秬三斗 醢(새우젓) 1秬 4斗를 각각 비축하고 재목은 헌재목을 모두 쓰고 부족한 재목은 士大夫집 山에서 벌목하였음.

9월 23일 寅時에 新基를 開基
9월 25일 舊聖殿毁撤
10월 6일 定礎
10월 29일 묘시上樑
12月 1日 尊祀廳上樑
12月 10日 神門上樑
12月 15日 廚房祭庫上樑

12月 25日 東齊上樑하고 年末年始일뿐 더러 日氣가 혹독히 추어서 役事를 中斷했다가 1686(丙寅)년 1月 5日役事를 다시 시작하여 本四月에 그 役事를 거의 終了했다.

1686년 윤4月 12日밤(丑時)에 위패(位牌)를 移安하고 같은날 아침(卯時)에 奉安祭를 끝내므로서 향교의 移築과 위패移安을 마쳤다.

현재 境域面積이 2,271평이며 地方建造物 제6호로 指定되었고 위치는 여주읍 校里(향교말)261의 1번지이다.

上樑文

李 여 찬

호는 睡谷·본관은 德水, 숙종조 영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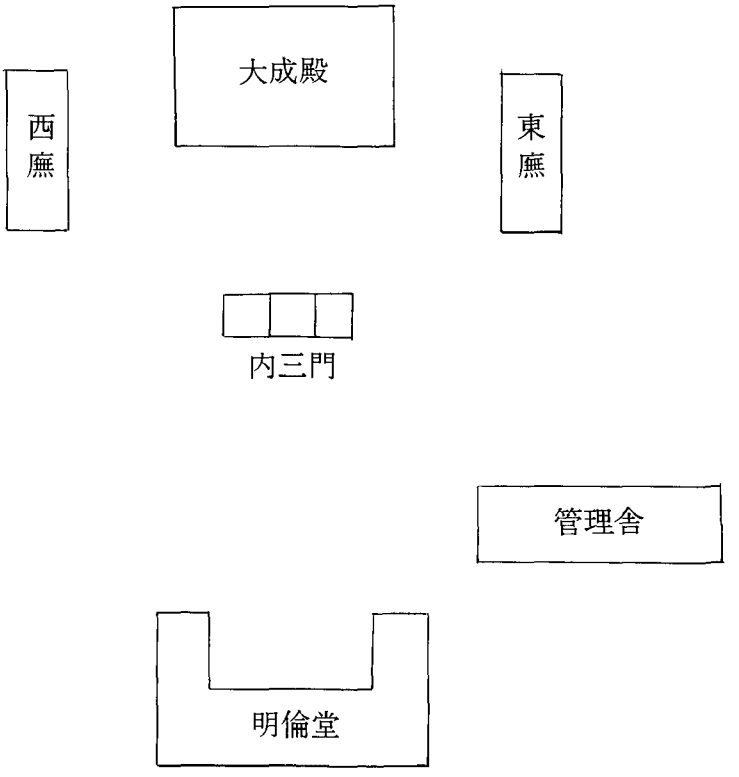
학교가 부흥함으로 三綱五倫의 가르침이 갖추어지고 祭祀하는 禮가 보급됨으로 道가 높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鄒나라 魯나라와 같으며 또 우리 고을은 衣冠고을이라 하였다. 이에 학교를 새롭게 함에 건물을 크게 짓고 나라에 은혜로움을 마음에 크게 새겼다. 대저 백성이 생긴 이래에 夫子의 聖德과 같은 것이 없고 위로 堯, 舜, 禹, 湯, 文, 武임금들의 계통을 이어 여러 성인을 모아 크게 성취하고 아래로 顔, 曾, 思, 孟, 程, 朱자의 傳하심을 펴서 확장하고 따르므로 규모가 지극함에 이르러 그 道가 해와 달같이 밝고 千百代 君王들이 그 풍도를 이어 받고 제도를 빠짐없이 받들게 됨은 비유해 말하자면 여러 갈래의 흐름이 한데 모여 本流에 들어 가는 것 같이 大聖殿은 千萬년이 지나더라도 흩어짐이 없고 제기 예기 등으로 제향하는 예는 널리 海外內에서 함께 높이는 바이니 생각하건데 성조께서 文治를 크게 일으켜 夏, 殷, 周 三代의 제도가 빈번히 빛나고 東西의 담(垣)은 두 丁字의 모양이 많고 성하였다. 국도와 시골 읍들이 이 고을을 둘렀다. 선비들의 모임이 본래 서울에 가까운데 명승지이 고을이 유독 사당의 터가 법도에 어그러짐을 면치못하고 비바람에 棟樑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근심 뿐만 아니라 언덕과 산등성이가 기울고 편협하여 正殿이나 담장에 오르내리기 구차한지라 이는 처음 창건할 때 법도에 잘못되었음을 지금에 와서 감히 고쳐 세우는데 그 제도를 너그러이 하고자 함이라.

一鄕이 같은 소리로 찬성하고 여러 선비들이 글로써 올려 청하고 드디어 풍수로 하여금 터를 가리도록 하여 겨우 소매는 곳을 멀리 하였으니 諸生들은 功을 보이고 서민들은 役事에 나가 三門과 四表(四角담장)가 환하게 되었으니 겹집으로 된 사당과 겹으로 드리운 난간은 나르는듯 옛 모양을 고쳤다. 겨울에는 시를 배우고 여름에는 예를 익히는 일이 여기에 있고 十哲宗師(西聖이 된 스승)가 계신 것 같다. 중국이 전쟁터로 빠져 버렸으니 諸夏(中國의 國名이 華夏이며 中國內에 諸侯國이 많았기 때문에 諸夏라 함)에 임금없는 탄식이 깊다.

돌이켜 보건데 先聖께서 이번 제향에 강령하셔서 흠향할 것이요. 또한 平日에 이 나라에 오셔서 사시고자 했던 마음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江漢이 터져 내리고 가을볕이 쪼임을 막을 수 없듯이 後學으로서 聖靈을 뵐 수는 없을지라도 봄낮에 舞雲에서 바람쐬고 기수(沂水)에서 목욕했다고 故書가 있으니 예와 오늘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기약하는 바는 孔夫

子의 道가 후학의 마음과 같으니 胄子(公鄕大夫 元師의 적자)의 기뻐하는 노래를 채택하여 兒郞(어린이들과 젊은사람들)의 착한 노래를 공손히 드리노라. 兒郞은 크게 대들보 東쪽을 넓히니 주나라 길은 平平하여 우리 서울에 通하였다. 箕子께서 가르침을 드린곳임을 함께 알겠으니 의관은 지금 華夏(中國)의 풍도로다. 兒郞은 크게 南쪽을 넓히니 첩첩청산에 냇물이 맑게 비친다. 스스로 하늘의 이치가 유행하는 곳이 있으니 소리개가 날고 고기가 뛰노는데 나를 참여케한다. 兒郞은 크게 西쪽을 넓히니 陵寢에 花草가 분별없이 가득하도다. 情神과 物質文化를 교화하신 덕택이 오늘까지 남았으니 聖朝가 聖治하는 天運은 밝은 奎星에 부쳐있도다. 兒郞은 크게 北쪽을 넓히니 겹겹이 싸인 官廳앞 나무는 忝差(불규칙하게 크고 작은모양)히 푸르고나, 머리를 들어 장안을 바라보니 길은 멀지 않고 띠처럼 흐르는 한줄기 朝宗의 물은 萬石이 되노라 兒郞은 크게 위를 넓히니 높이 白日 때문에 靑天이 밝고나, 남은빛은 萬古에 많은 어린이를 계몽하니 四海內에 누구든 의앙할 바를 알리라. 兒郞은 크게 아래를 넓히니 물의 근원이 솟구쳐 순서를 따라 쏟아지니 시내 둑이 아득하게 바다까지 이르는 것이 이와 같으니 우러러 생각하건데 上樑후에 百姓은 孝悌를 일으키며 집집마다 詩書를 익히고 鄕里에 人家가 즐비하여 고을을 봉할 수 있고 人材가 줄을 이어 쏟아져나오니 武城(地名)에 글읽는 소리 듣기를 子游(孔子의 제자)가 지날 때 같이 읽을 것이요. 湖學(호파)의 賢能은 安定할 줄을 알 것이니 힘쓸지어다. 우리는 斯文(學問家)을 일으킬 지어다.

향교건물 평면 배치도



2. 鄕校奉安 東國十八賢記略

(1) 東 廡

① 薛聰 : 〔신라〕경덕왕 때의 학자. 자는 聰智, 호는 氷月堂, 慶州薛氏 시조, 元曉大師의 아들, 어머니는 搖石宮公主, 신라 十賢의 한 사람으로 벼슬은 翰林을 지냈고 주로 왕의 정치에 자문 역활을 했다.

儒學과 문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 일찌기 國學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쳐 유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그가 창제한 중국문자에 토를 다는 방법은 당시 중국학문의 섭취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吏讀를 창제했다고 하나 그가 생존하기 전인 眞平王(579-631)때의 薯童謠, 善德女王(632-647)때의 風謠 등이 이두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창제한 것이 아니라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花王戒》로써 신문왕을 충고한 일화가 전한다. 1022년(현종13) 弘儒侯에 추봉되고 文廟에 配享, 경주의 西嶽書院에 祭享

② 安珦 : 1243(고종30)~1306(충렬왕32)〔고려〕명신·학자·초명은 裕, 자는 士蘊, 호는 晦軒 본관은 順興, 密直副使 孚의 아들 1260년(원종11) 三別抄의 난때 江華에 억류되었다가 탈출, 監察御史가 되었다. 1275년(충렬왕11) 尙州判官으로 나갔을때 민중을 현혹시키는 무당을 엄중히 다스려 미신을 타파했고, 版圖佐郎·殿中侍御史를 거쳐 國子司業에 올랐다. 1288년(충렬왕14) 右司議가 되고 左承旨·征東行省員外郎을 거쳐 高麗儒學提擧가 되어 왕과 공주를 호종, 원나라에 들어가 朱子全書를 베껴 쓰고 돌아와 朱子學을 연구했다. 1234년 同知密直으로서 東南道兵馬使가 되어 合浦鎭에 부임했고, 이어 密直司使를 거쳐 1296년 三司左使 僉議參理 世子貳保를 역임했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하자 參知機務行東京留守集賢殿大學士雞林府尹, 僉議參理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가 되고 그해 太上王이 된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충렬왕이 복위한 이듬해 修國史, 1304년 僉議侍郎贊成事判版圖司事가 되었다. 한편 文敎의 진흥을 위해 贍學錢이라는 育英財團을 설치했으며, 國學大成殿을 낙성하여 공자의 초상화를 비치하고 祭器·樂器와, 六經·諸子·史 등의 서적을 사들였다. 密直副使致仕 李嶸과 典法判書 李瑱을 천거하여 經史敎授都監使로 임명케 했다. 이로써 유학이 크게 떨치게 되어 우리나라로 최초의 朱子學者로 지칭된다. 都僉議中贊으로 致仕했다. 文廟 및 長瑞의 臨江書院, 谷城의 晦軒影堂, 順興의 紹修書院에 祭享. 시호는 文成

③ 金宏弼 : 1452(단종2)~1504(연산군10) 조선 학자.

자는 大猷 호는 寒喧堂·蓑翁, 본관은 서흥(瑞興), 司勇 紐의 아들, 漢陽 출신, 金宗直의 문하에서 小學을 읽고 스스로 小學童子라 일컬었다. 1480년(성종11) 司馬試에 합격, 斥佛을 상소했고, 1494년(성종25) 行誼로 추천을 받아 南部參奉이 되고, 이어 典牲署參奉·軍資監主簿·監察 등을 거쳐 1497년(연산군3) 刑曹佐郎이 되었다. 1498년 戊午史禍 때 김종직 일파로 몰려 熙川에 유배, 후에 順川으로 移配되었으며, 1504년 甲子士禍 때 賜死되었다. 평소 六經 연구에 전심, 性理學에 통달했으며, 문하에서 趙光祖·李長坤·金安國 등 학자들이 나왔으며, 그림에도 능했다.

중종 때 우의정에 追贈, 광해군때 전국 儒生의 상소에 의해 鄭汝昌·조광조·李彦迪·李滉

과 함께 文廟에 配享, 牙山의 仁山書院, 서흥의 花谷書院 등에 祭享, 시호는 文敬. 著書 : «寒暄堂集», «家範», «景賢錄».

④ 趙光祖 : 1482(성종13)~1519(중종14)〔조선〕학자

문신. 자는 孝直, 호는 靜庵, 본관은 漢陽, 監察 元綱의 아들, 14세 때 魚川道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가 熙川에 유배중인 金宏弼에게 修學, 이때부터 性理學 연구에 힘써 金宗直의 學統을 이은 士林派의 領袖가 되었다. 1510년(중종 5)進士가 되고, 1515년 造紙署司紙로 謁聖文科에 乙科로 급제, 典籍 監察을 역임하며 왕의 신임을 얻고, 入侍할 때마다 儒敎로써 정치와 敎化의 근본을 삼아 王道政治를 실현해야 한다는 至治主義를 역설했다. 그해 正言으로서, 章敬王后가죽고 중종의 계비 책봉문제가 논의 될 때 朴祥·金淨 등이 앞서 폐위된 愼氏의 복위를 상소하다 대사간 李荇의 탄핵으로 유배되자 상소자를 벌함은 言路를 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다고 주장, 오히려 이행을 파직케 함으로써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을 입증 받았다. 그후 修撰에 이어, 호조·예조의 正郎을 거쳐 1517년 校理로 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을 겸임, 鄕村의 상호 및 부조를 위해 呂氏鄕約을 8도에 실시케 하였다.

이듬해 副提學이 되어 미신타파를 내세워 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청,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를 없애게 했다. 1519년 대사헌에 승진 世子副賓客을 겸했으며, 賢良科를 실시하여 자기 일파의 新進士類, 특히 30대의 소장학자를 요직에 안배하는 한편, 勳舊派를 외직에 몰아냈고, 특히 靖國功臣이 너무 많다하여 削勳을 주장, 전 공신의 4분의 3을 삭제하는 등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마침내 훈구파의 결정적 반발을 야기했다. 훈구파의 洪景舟·南袞·沈貞 등은 敬嬪朴氏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하게 하고,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走肖爲王」이란 글자를 써 벌레가 갉아 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를 따다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는 한편, 밤에 神武門을 통해 비밀리에 왕을 만나서 위협에 가까운 論調로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케 한다고 무고했다. 이에 조광조의 道學的인 언행에 염증을 느껴 오던 왕은 그를 투옥, 영의정 鄭光弼의 변호로 일단 사형이 면제되었으나 綾州에 유배, 훈구파의 끈덕진 공격으로 마침내 賜死되었다. 선조초 伸寃되어 영의정에 追贈, □文廟에 配享되고, 능주의 竹樹書院, 楊州의 道峯書院, 희천의 兩賢祠 등에 祭享, 시호는 文正

著書 : «靜庵集»

⑤ 李滉 : 1501(연산군 7)~1570(선조 3)〔조선〕학자

문신, 초명은 瑞鴻, 자는 景浩, 초자는 季浩, 호는 退溪·陶翁·退陶·淸涼山人, 본관은 眞寶, 進士 埴의 아들, 禮安 출신, 12세때 숙부 李堣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1523년(중종18) 成均館에 입학, 1528년(중종23) 進士가 되었다. 1534년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 副正字, 博士, 典籍, 戶曹佐郎 등을 거쳐 1539년 修撰으로 知製敎, 檢討官을 겸직했다. 이어 正言을 거쳐 형조좌랑으로 承文院校理를 겸직, 1542년 檢詳이 되고 忠淸道 暗行御史를 거쳐 舍人으로서 文學·校勘 등을 겸직, 掌令을 지낸뒤 이듬해 司藝, 弼善, 이어 大司成이 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乙巳士禍때 李芑에 의해 削職당했으나 이어 司僕寺正이 되고 1457년 應敎를 거쳐 이듬해 丹陽과 豐基의 군수, 1552년 대사성에 재임, 1554년 형조·병조의 參議에 이어 僉知中樞府事, 1556년 副提學, 2년후 工曹參判, 1566년(명종21)공조판서, 이어 예조판

서, 1568년(선조1) 右贊成을 거쳐 兩館, 大提學을 지내고 다음해 고향에 은퇴했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대유학자로 李珥와 함께 유학계의 쌍벽을 이루었으며, 誠을 기본으로 일생 동안 敬을 실천하고 면밀 침착히 조목을 따져 깊이 연구 통찰함을 학문의 기본 자세로 했으며 朱子의 理氣二元論을 발전시키고, 理氣互發說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理가 발하여 氣가 이에 따르는 것이 4端이며, 기가 발하여 이가 이것을 타는〔乘〕것이 7情이라고 주장, 四端七情을 주제로 한 奇大升과의 8년에 걸친 유명한 논쟁은 四七分 理氣與否論의 발단이 되었고 그의 학풍은 뒤에 그의 이원론을 반박하고 나선 이이의 畿湖學派에 대하여 嶺南學派를 이루어 뒤의 동서당쟁은 두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이 깊었다. 豐基郡守로 있을 때 교육사업에 관심을 두어 周世鵬이 세운 白雲洞書院에 紹修書院 이라는 사액을 내리게 하여 최초의 賜額書院으로 했고, 또한 陶山書院을 창설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의 연구에 전심하여, 朋堂의 폐해를 상소하는 등 업적을 남겼으나 현실생활과 학문의 세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끝까지 학자적 태도에만 철저했다. 詩文은 물론 글씨에도 뛰어났다. 겸허한 성격의 대학자로서 중종·명종·선조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으며, 특히 명종은 누차의 소명에도 사양하는 그를 그리워하여 그의 居所인 陶山의 경치를 화공에게 摸寫시켜 병풍을 만들어 두르고 바라보았다. 영의정에 追贈, 文廟 및 선조의 묘정에 配享, 단양의 丹巖書院, 괴산의 華巖書院, 예안의 도산서원을 비롯, 전국의 수십개 서원에 제향, 시호는 文純, 著書 : 《退溪全書》《修正天命圖說》, 《聖學十圖》, 《自省錄》, 《朱書記疑》, 《心經釋疑》, 《宋季之明理學通錄》, 《古鏡重磨方》, 《朱子書節要》, 《理學通錄》, 《啓蒙傳疑》, 《經書釋義》, 《喪禮問答》, 《戊辰封事》, 《退溪書節要》, 《四七續編》

⑥ 李珥 : 1536(중종31)~1584(선조17)〔조선〕학자

문신. 아명은 見龍, 자는 叔獻, 호는 栗谷·石潭·愚齋, 본관은 德水, 察訪 元秀의 아들, 어머니는 師任堂 申氏, 江陵 출신. 어려서 어머니에게 학문을 배우고 1548년(영종3) 13세로 進士初試에 합격, 16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9세에 금강산에 입산 佛書를 연구하다가 다시 儒學에 전심하여 23세때 李滉을 찾아가 만났다. 1564년(명종19) 生員試 式年文科에 모두 장원, 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賜暇讀書한 후 戶曹佐郎에 초임, 예조좌랑·正言·이조좌랑·持平 등을 역임했다.

1568년(선조1) 千秋使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副校理로 春秋館記事官을 겸하여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가 이듬해 사직했다. 1571년 청주목사로 복직, 다음해 다시 사직하고 해주에 낙향, 1573년 直提學이 되고, 이어 同副承旨로서 參贊官을 겸직, 다음해 右副承旨·兵曹參知·대사간을 지낸후 병으로 사퇴했다. 그후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사직, 율곡과 석담에서 학문연구에 전심하다가 1581년 다시 불려 대사헌·藝文館提學을 겸임, 同知中樞府事를 거쳐 兩館大提學을 지냈다. 이듬해 이조·형조·병조의 판서, 右參贊을 역임, 1583년 당쟁을 조장한다는 東人들의 탄핵을 받고 사직했다가, 같은해 判敦寧府事에 등용, 이조판서에 이르러 東西分黨의 조정을 위해 힘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조선유학계에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 畿湖學派를 형성했고, 章句의 분석적 해설보다 근본원리를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통찰함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태도로 했으며, 이황의 理氣二元論에 대하여 氣發理乘一途說을 근본사상으로 理通氣局을 주장, 이 사상의 차이가 당쟁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논쟁의 중점이 되었다. 학문을 민생문제와 직결시켰고, 당쟁의 조정, 10

만 군대의 養成 및 大同法과 社倉의 실시에 노력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였다. 글씨에도 능하여 趙子昂의 체를 습득했으며, 그림에 뛰어났다. 문묘에 從祀, 선조의 묘정에 배향, 坡州의 紫雲書院, 江陵의 松潭書院, 豐德의 龜巖書院, 瑞興의 花谷書院, 咸興의 雲田書院, 黃州의 白鹿洞書院 등 전국 20여개 서원에 제향, 시호는 文成.

著書 : 〈栗谷全書〉, 〈聖學輯要〉
〈擊蒙要訣〉, 〈小學集注改本〉, 〈中庸吐釋〉, 〈經筵日記〉 等

⑦ 金長生 : 1548(명종 3)~1631(인조 9) 조선 학자. 자는 希元, 호는 沙溪, 본관은 光山, 대사헌 繼輝의 아들. 宋翼弼·李珥의 문인. 1578년(선조11) 學行으로 천거되어 6품직에 오르고 昌陵參奉·順陵參奉 등을 거쳐 童蒙敎官·定山縣監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戶曹正郎으로 명나라 군사의 군량 조달에 공을 세웠고, 軍資監僉正, 1597년 南陽府使 등을 역임, 이듬해 안성군수로 있다가 柳成龍의 천거로 宗親府典簿가 되었다. 1602년(선조35) 淸白吏에 錄選, 3년후 益山군수를 지내고, 1609년(광해군 1) 淮陽·鐵原의 府使를 역임, 1613년 癸丑獄事에 심문 받았으나 무혐의로 누명을 벗은뒤 관직을 사퇴 連山에 은퇴하여 학문연구에 전심했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掌令에 보직, 司業 尙衣院正 등을 거쳐 이듬해 執義·工曹參議·副護軍을 지냈다. 그후 다시 사퇴, 낙향했다가 특명으로 1625년 同知中樞府事가 되고 다음해 行護軍에 보직,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兩湖號召使로 군량미 조달에 힘쓰며 청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했다. 이듬해 刑曹參判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향리에서 교육에 전심했다. 송익필의 문하에서 禮學을 傳受받고, 후에 이이의 문하에서 性理學을 배웠으며, 禮論을 깊이 연구, 아들 集에게 계승시켜 朝鮮 禮學의 태두로 예학파의 주류를 형성했다. 문하에 송시열(宋時烈)·宋浚吉 등의 유학자를 배출, 西人을 중심으로 한 畿湖學派를 이룩하여 조선 유학계에 嶺南學派와 쌍벽을 이루었다. 1688년(숙종14) 문묘에 배향되고 안성의 道基書院, 連山의 遁巖書院 등 10개 서원에 제향, 시호는 文元. 著書 : «經書辨疑», «近思錄釋疑», «疑禮問解», «書疏雜錄», «家禮輯覽», «喪禮備考», «改葬儀», «祭儀正本», «禮記記疑», «松江行錄», «沙溪筵席問對», «沙溪疏劄», «沙溪語錄».

⑧ 金集 : 1574(선조 7)~1656(효종 7)〔조선〕문신·학자 자는 士剛, 호는 愼獨齋, 본관은 光山, 長生의 아들. 18세에 進士가 되고 1610년 參奉이 되었다가 광해군의 문란한 정치로 은퇴했다. 인조반정 (1623)후 扶餘縣監으로 등용되고, 이어 臨阪縣令·持平·執義·工曹參議 등을 역임, 인조중기 이후 功西가 집권하자 퇴직했다. 효종이 즉위하여 공서의 영의정 金自點 등이 파직되자 淸西의 金尙憲 등과 함께 등용, 禮曹參判·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어 효종과 함께 北伐을 계획했다. 이때 실각한 김자점이 청나라에 이 북벌계획을 밀고함으로써 야기된 청나라의 문책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사임, 그후 대사헌·左贊成을 지내고 判中樞府事로 죽었다. 그는 아버지의 학문을 계승, 이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 禮學의 체계를 세웠다. 文廟 및 효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文敬.

「著書」 : 〈愼獨齋遺稿〉

⑨ 宋浚吉 : 1606(선조39)~1672(현종13)〔조선〕문신. 학자. 자는 明甫, 호는 同春堂, 본관은 恩津, 爾昌의 아들. 어려서 李珥문하에서 공부하고 20세때 金長生의 문하생이 되었다. 1624년(인조 2) 진사가 된 뒤 학행으로 천거받아 洗馬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계속 학업을 닦았

다. 西人중 淸西派였던 그는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 執義로 기용되어 인조말부터 권세를 잡고 있던 功西派 金自點을 탄핵, 파면케 하여 청서파의 집권을 가져오게 했다.

한편 효종과 함께 北伐계획을 적극 추진했으나 김자점이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좌절,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후 吏曹參議 겸 贊善 등으로 여러번 임관되었으나 계속 사퇴, 1657년(효종8) 찬선직에 머무르다가 이듬해 사퇴, 낙향했다. 대사헌을 거쳐 1659년 병조판서가 되어 宋時烈과 함께 국정에 참여하던 중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 慈懿大妃의 服喪問題로 禮訟이 일어나자 송시열과 함께 南人 尹鑴·尹善道 등의 3년(만2년) 제를 반대하여 朞年制(만1년)를 주장,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승리하여 右參贊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곧사퇴했다. 1665년 元子輔養에 대한 건의를 하여 첫번째 보양관이 되었으나 기년제의 잘못을 규탄하는 남인들의 거듭되는 상소로 사퇴했다. 뒤에 左參贊兼祭酒贊善에 이르렀다. 송시열과 학문적 경향이 같은 性理學者로서 특히 禮學에 밝았고 李珥의 학설을 지지했다. 문장과 글씨에도 능했다. 文廟를 비롯하여 公州의 忠顯書院, 沃川의 表忠祠, 懷德의 崇顯書院등에 祭享, 영의정에 追贈, 시호는 文正

「著書 : 〈同春堂集〉, 〈語錄解〉

(2) 西 廡

① 崔致遠 : 857(헌안왕1)~?〔신라〕학자. 慶州崔氏의 시조. 자는 孤雲·海雲, 869년(경문왕9) 당나라에 유학하여 874년 과거에 급제하고, 宣州漂水縣尉가 되고 承務郞 侍御史 內供奉에 올라 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879년(헌강왕5) 黃巢의 난에 諸道行營兵馬都統 高駢의 從事官으로 書記의 책임을 맡았다. 당시의 表狀·書啓·격문은 모두 그의 손으로 지어졌으며 특히 《討黃巢檄文》은 名文으로 알려졌다. 885년에 귀국하여 侍讀 兼 翰林學士 守兵部侍郞 知瑞書監이 되었으나 국정의 문란함을 통탄, 외직을 청원하여 大山·天嶺·富城 등의 太守를 지냈다.

893년(진성여왕7)遣唐使에 임명되었으나 도둑이 횡행하여 가지 못하고 이듬해 時務 10여條를 상소하여 시행케 하고 아찬이 되었다. 그후 亂世를 비관하여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海印寺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특히 글씨를 잘 썼다.

그의 《鸞郞碑序文》은 신라시대의 화랑도를 해설해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려 현종 때 內史令에 추증, 문묘에 배향, 文昌侯에 追封되었다. 조선시대에 泰仁의 武成書院, 慶州의 西嶽書院, 咸陽의 栢淵書院, 永平의 孤雲影堂 등에 제향.

「著書」: 《桂苑筆耕》, 《中山覆簣集》, 《釋順應傳》

② 鄭夢周 : 1337(충숙왕 복위6)~1392(공양왕4)〔고려〕문신. 학자. 초명은 夢蘭·夢龍, 자는 達可, 호는 圃隱, 본관은 延日, 樞密院知奏事 襲明의 후손 云璡의 아들. 永川 출신으로서, 1357년(공민왕6) 監試에 합격한 뒤 1360년 文科에 장원, 藝文檢閱 修撰 등을 거쳐 1363년 郞將 兼 閤門祗候 衞尉寺丞을 역임한 후 이해 東北面都指揮使 韓邦信의 從事官으로 여진족의 토벌에 참가하고, 1364년 典寶都監判官이 되었다. 이어 典農寺丞·禮曹正郞 兼 成均博士·成均司藝 등을 역임하고, 1371년 太常少卿 寶文閣應敎 兼 成均直講 등을 거쳐 成均司成에 올랐으며, 이듬해에 正使 洪師範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던 중 풍랑으로 13일동안

사선을 헤매다가 명나라 구조선에 구출되어 귀국했다. 1376년(우왕 2) 成均大司成으로 李仁任 등이 주장하는 排明親元의 외교방침을 반대하다 彦陽에 유배, 이듬해 풀려나와 사신으로 규우슈우(九州)의 지방장관 이마가와「今川了俊」에게 가서 왜구의 단속을 청하여 응낙을 얻고 왜구에게 잡혀간 고려 백성 수백명을 귀국시켰다. 우산기상시·보문각제학·지제교를 거쳐 1379년 전공판서·진현관제학, 예의판서·예문관제학, 전법 판서·판도판서를 역임, 이듬해 助戰元師가 되어 李成桂 휘하에서 왜구토벌에 참전하고, 이어 밀직제학·상의회의도감사·보문각제학·상호군이 되었다. 1381년 誠勤翊贊功臣에 봉해지고 이듬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다 입국거부로 遼東에서 돌아왔고, 1383년 東北面 助戰元師로서 함경도에 쳐들어온 왜구를 토벌, 다음해 政堂文學에 올라 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歲貢의 삭감과 5년간 이납한 세공을 면제받고 긴장상태에 있던 對明 국교를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1386년 三司左使, 門下贊成事·知書筵事, 이듬해 예문관대제학, 문하찬성사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迎立하고, 1390년 벽상삼한 삼중대왕·수문하시중·판도평의사사병조상서시사·영경령전사·우문관대제학·익양군 충의백이 되었다.

당시 이성계의 威望이 날로 커가서 趙浚·南誾·鄭道傳 등이 그를 추대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 이들을 숙청할 기회를 노리던 중, 1392년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나갔던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낙마하여 황주에 드러눕게 되자 그 기회에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芳遠(太宗)이 이성계를 그날 밤으로 개성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실패, 이어 정세를 엿보러 이성계를 찾아보고 귀가도중 善竹橋에서 방원의 門客 趙英珪 등에게 擊殺되었다. 지방관의 비행을 근절시키고 義倉을 세워 빈민을 구제, 불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유학을 보급했고 性理學에 뛰어나 東方理學의 시조로 추앙되었으며, 朱子家禮를 따라 사회윤리와 도덕의 합리화를 기하며 개성에 5부 學堂과 지방에 鄕校를 세워 교육 진흥을 꾀하는 한편 大明律을 참작, 《新律》을 간행하여 법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에도 관여하여 기울어지는 국운을 바로 잡고자 노력했으나 이성계의 신흥세력에 꺾였다. 詩文에 능하여 시조 丹心歌이외에 많은 漢詩가 전하며, 書畫에도 뛰어났다. 고려 三隱의 한사람으로, 1401년(태종 1) 영의정에 추증, 益陽府院君에 追封되고, 중종때 문묘에 配享, 개성의 崧陽書院 등 11개 서원에 제향, 시호는 文忠, 著書 : 圃隱集

③ 鄭汝昌 : 1450(세종32)~1504(연산군10)〔조선〕문신·학자. 자는 伯昌, 호는 一蠹, 본관은 河東, 함길도 병마우후 六乙의 아들. 함양출신, 김굉필과 함께 金宗直의 문인이 되고, 한동안 지리산에 들어가 3년 동안 五經과 性理學을 연구했다. 1483년(성종14) 進士試에 합격, 成均館 儒生이 되고 1490년에 學行으로 천거되어 昭格署參奉이 되었다. 그해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檢閱을 거쳐 世子侍講院說書·安陰縣監을 지내고, 1498년(연산군 4) 戊午史禍로 鍾城에 유배, 죽은 뒤 1504년 甲子士禍가 일어나자 剖棺斬屍가 되었다. 당시 性理學의 대가로서 經史에 통달하고 力行實踐을 위한 독서를 주로 했다. 庸學註疏·主客問答說·進修雜著 등의 저서가 있었으나 무오사화때 부인이 모두 소각, 지금은 鄭逑가 엮은 文獻公實記 속에 그 遺集이 전할 뿐이다. 中宗때 우의정에 추증, 광해군 때에 문묘에 배향, 나주의 景賢書院, 尙州의 道南書院, 咸陽의 藍溪書院, 陜川의 伊淵書院, 居昌의 道山書院, 鍾城의 鍾山書院 등에 제향 시호는 문헌.「著書」:〈一蠹遺集〉

④ 李彦迪 : 1491(성종22)~1553(명종 8)〔조선〕문신·학자. 자는 復古, 호는 晦齋·紫溪翁, 본관은 驪州, 생원 蕃의 아들. 초명은 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彦자를 더했다. 1514년(중종 9) 생원으로서 別試文科에 乙科로 급제, 校書館正字가 되고, 說書·吏曹正郎·掌令·密陽府使를 거쳐 1530년 司諫이 되었다. 이때 金安老를 등용하려는 논의를 반대하다가 그들 일당에 의해 숙청된 뒤 경주의 紫玉山에 들어가서 性理學의 연구에 전심했다.

1537년 김안로 일파가 거세되자 宗簿寺僉正으로 侍講官에 겸직 발령되고, 校理·應敎 등을 거쳐 1539년에 전주부윤이 되어 善政으로 송덕비가 세워졌고 당시의 災變에 대해 올린 대책문이 뛰어나서 병조참판·동지경연사에 올랐다.

副提學, 이조·예조·형조의 판서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漢城府判尹이 되고 1545년(인종 1) 인종이 죽자 左贊成으로 院相이 되어 國事를 관장했고, 명종이 즉위하자 衛社功臣 3등에 올랐다. 그해 모친의 병이 위독하여 사직했으나 원상으로 있을 당시 大尹인 尹任일파의 처벌에 미온적이었다는 탄핵으로 削職, 1547년(영종 2) 尹元衡 등 小尹 일당이 조작한 良才驛 壁書事件에 연루되어 江界에 유배, 配所에서 죽었다.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로서 이황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유배생활 6년동안 大學章句補遺, 《續或問》, 《求人錄》을 저술했으며 글씨를 잘 썼다.

선조때 영의정에 추증, 광해군때 문묘에 從祀, 시호는 文元, 著者 : 《晦齋集》

⑤ 金麟厚 : 1510(중종 5)~1560(명종15)〔조선〕문신·유학자. 자는 厚之, 호는 河西·澹齋, 본관은 蔚山, 金安國의 제자로 성균관에 들어가 이황과 함께 학문을 닦고, 1540년(중종35)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承文院正字에 등용되었다가 賜暇讀書했다. 후에 正字·博士·說書·副修撰을 거쳐 부모의 부양을 위해 玉果縣令으로 나갔다. 명종이 즉위하고 1545년 乙巳士禍가 일어난 후에는 병을 이유로 고향 長城에 돌아가 성리학의 연구에 정진, 누차 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誠敬의 실천을 학문의 목표로 하고 李恒의 理氣一物說을 반대하여 理氣는 혼합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문·지리·의약·산수·律曆에도 정통했다. 文廟를 비롯하여 長城의 筆巖書院, 남원의 露峯書院, 玉果의 詠歸書院 등에 祭享, 시호는 文正. 著書 : 《河西集》, 《周易觀象篇》, 《西銘事天圖》, 《百聯抄解》

⑥ 成渾 : 1535년(중종30)~1598(선조31)〔조선〕학자 자는 浩原 호는 牛溪·默庵, 본관은 昌寧, 守琛의 아들. 17세때 監試 初試에 합격했으나 신병으로 覆試를 못치르자 과거를 단념, 白仁傑 문하에서 經學연구에 정진했다. 선조 초에 학행으로 參奉·縣監·持平 등에 계속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1580년에는 掌令직을 굳이 거절하자 馬轎를 타고 상경하라는 優禮까지 받았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중에는 세자의 부름으로 右參贊에 오르고, 1594년 左參贊에 이르러 영의정 柳成龍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 파주로 돌아갔다. 일찍부터 이이와 교분이 두터웠으나 학설에 있어서는 이황의 理氣互發說을 지지, 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는 이이와 1572년(선조 5)부터 6년간에 걸쳐 四端七情에 대한 논쟁을 벌여 이이의 학설을 반박, 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이의 문인인 趙憲·韓嶠·黃愼·李貴·鄭曄 등이 그의 문인이 되었으며, 글씨를 잘 썼다. 죽은 후 반대파들에 의해 한때 官爵을 추탈당했다가 인조 초에 復官, 좌의정에 추증, 문묘에

배향되고, 礪山의 竹林書院 창녕의 勿溪書院, 海州의 紹賢書院, 咸興의 雲田書院, 坡州의 坡山書院에 제향, 시호는 文簡. 著書 : «牛溪集», «朱門旨訣», «爲學之方圖»

⑦ 趙憲 : 1544(중종39)~1592(선조25)〔조선〕문신·의병장. 자는 汝式, 호는 重峯·陶原·後栗, 본관은 白川, 應祉의 아들, 이이·成渾의 문인 1567년(영종22)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 定州敎授를 거쳐 1572년(선조5) 校書館正字로 왕이 절에 香을 하사하는 것을 반대하다 削職, 곧 著作에 등용되고, 1574년 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후 호조와 예조의 佐郎, 監察을 역임하고, 通津縣監이 되어 죄인을 엄중히 다스려 濫刑한다는 탄핵을 받고 富平에 유배되었다. 1581년 工曹佐郎으로 기용, 全羅道都事·宗廟署令을 지내고, 1582년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을 자청하여 報恩縣監으로 나갔다. 1586년 學制改編으로 전국에 提督官을 둘 때 공주 제독관에 임명되어, 당시 정권을 잡은 東人이 이이·성혼·등을 追罪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고 고향에 돌아간 사실로 인해 職場을 이탈했다는 죄로 파직당했다. 1589년 동인의 專橫을 공격하는 疏를 올렸다가 길주에 유배, 이해 鄭汝立의 모반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용서받았다. 1591년 일본 사신이 오자 沃川에서 상경, 대궐 앞에서 일본 사신의 처단을 상소하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 국방력의 강화를 주장했으나 용납되지 않았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1천7백여명을 규합, 이해 8월 靈圭등 僧兵과 합세하여 淸州를 수복했다.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고바야까와(小早川隆景)의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으로 향했으나 戰功을 시기하는 官軍의 방해로 대부분의 의병이 해산당하고 불과 7백여명의 의병으로 금산전투에 참가, 끝까지 용전하다 7백 의병과 함께 모두 전사했다.

이이의 문인 중 가장 뛰어난 학자의 한사람으로 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이이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켰다. 영의정에 추증, 문묘에 배향되고, 옥천의 表忠祠, 배천의 文會書院, 금산의 星谷書院, 보은의 象賢書院 등에 제향, 시호는 文烈, 著書 : «重峯集», «重峯東還封事»

⑧ 宋時烈 : 강한사(대로사) 참조

⑨ 朴世采 : 1631(인조9)~1695(숙종21)〔조선〕문신·유학자. 자는 和叔, 호는 玄石·南溪, 본관은 潘南, 校理 錡의 아들, 漢城 출신. 18세때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이이·成渾의 문묘종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을 공격하다가 효종의 꾸지람을 받고는 科擧 공부를 포기, 金尙憲 문하에서 주로 性理學을 연구하고 宋時烈 과도 학문교류를 했다. 28세에 천거로써 翊衛司洗馬가 되고, 1659년 효종이 별세하여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일어나자 南人의 반대를 물리치고 西人으로 송시열과 함께 이를 朞年 : (만1년)으로 정하게 했다. 1674년(숙종즉위) 南人들이 집권하고 서인들이 제거됨에 따라 削官되었으나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자 司業에 기용, 이어 執義·同副承旨 등을 지냈으며 1683년 서인이 老論·少論으로 분열되자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그후 정권은 또 남인의 손에 들어갔으나 1694년(숙종20) 甲戌獄事로 少論이 집권하자 좌의정에 올랐다. 또한 당쟁에는 가담했으나 皇極蕩平說을 주장, 당쟁의 근절에 노력했고, 당대의 儒宗으로서 특히 禮學에 밝았다. 많은 저술 외에 70여권의 文集, 논어·맹자의 纂要, 詩에 관한 要義, 신라·고려·조선에 이르는 儒賢, 들의 師友淵源을 수록한 책 등, 모두 후진들에게 귀중한 문헌을 남겼으며 글씨를 잘 썼다. 문묘와 숙종의 묘정에 배향, 시호는 文純, 著書 : «範學全編», «南溪集», «六禮疑輯», «南溪隨筆錄», «南溪禮

說», «三禮儀», «讀書記», «時務萬言封事», «崇孝錄».

第3節 書 院

書院은 朝鮮中期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民間私學 기관이다. 중국에서(唐나라 현종때) 생긴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內外名賢을 제사지내고 청소년을 모아 인재를 양성하는 사설기관이었는데 원래 고려시대에는 寺院이 있었고 朝鮮에 들어와 寺院을 대신하여 書齋, 書堂, 精舍, 先賢祠, 鄕賢祠 등으로 敎育을 진흥시켰다. 세종대왕에 이르러 이를 장려시켜 賞을 내리는 일이 있었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서원이란 齋와 舍의 두가지 기능을 겸한 것이 못되었는데 1542(중종37년) 풍기군수로 있던 周世鵬이 順興에다 고려의 학자 安珦(安裕)을 모시는 祠堂을 짓고 이듬해 白雲洞書院이라 名稱한 것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서원이 생기게 된 시발점이다.

그후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이 생겼으며 1550(명종5)년에 李退溪의 건의로 임금이 백운동서원에 紹修書院이라고 額(간판)을 내리고 책과 노비, 田結을 하사하여 장려했다. 이것이 賜額서원의 시초가 되었으며 황폐해가는 향교를 대신하여 국가에 보조를 받는 서원이 각지에 설치되었다. 그래서 명종 이전에 생긴 서원이 29개, 선조 때 124개, 숙종시대에 이르러 一個道에 80-90개의 서원이 생겼다.

반면에 서원이 量的으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권층에 들게되어 서원에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租稅를 減免하는 특혜를 받게되고 따라서 良民이 書院의 奴婢가 되어 軍役을 避하는 폐단도 생겼다. 또 유생들은 향교를 나가지 않고 서원으로 나가 학문을 연구하는 대신에 朋黨에 가담하여 당쟁에 골몰하고 심지어 서원을 근거로 양민을 토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처럼 서원의 濫說, 累設로 조정에 크나큰 두통꺼리가 되어 인조22년(1644)부터는 서원을 인가제로 하였고 효종8년(1657)에는 서원을 累設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포고했다. 그후 누대 국왕이 서원정비에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보지못했고 正祖가 서원을 650개만 남겼다.

그후 대원군이 攝政하게되자 1864년(고종1)에 서원에 대한 모든 특전을 철폐하고 累設을 엄금하며 1865년에는 서원중에 대표적인 서원이 되는 만동묘(廟)를 시범으로 폐쇄시켰다. 이와 같이 대원군의 적극적인 폐쇄책으로 辛未년에 거의 폐쇄 또는 정비시키고 세상에 師表가 될 만한 서원 47개만 남겨 놓았는데 대원군이 실각된후 지방유생들이 다시 復設한 곳이 많아졌고 復設하지 못한 서원이 수없이 많으나 1910년(庚戌合邦) 以後로는 인근 선비들이 모여 위패 앞에 향사나 받들뿐 인재를 기르는데는 하등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여주군 관내 각 서원들의 유래는 대략 다음과 같다.

Ⅰ. 沂川書院

기천서원은 조선 宣祖己卯(1579)에 여주목사(朴承任=1562生 1623卒 영의정 밀양부원군)가 지

방 유림들과 논의하여 州內 馬生洞에 祠宇와 강당 6칸을 짓고 마암서원이라고 불렀다가 임진왜란에 소실된 것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宣祖41(戊申＝1608)년에 本部士林의 疏請에 依해서 復元을 도모, 梨浦의 現 位置로 移建하면서 본래에 慕齋 金安國만을 奉安하였던 것을 1611(光海君辛亥)년에 회재 李彦迪 晦齋 洪仁祐를 並享 또는 配享시켰다. 復元役事가 光海君 一年(己酉＝1609)에 크게 시작되어 3년만에 祠宇 3칸과 東西齋 各 5칸이 이룩되고 7년되던(乙卯＝1615)해 강당과 夾室 5칸, 이어서 倉庫, 住舍가 各 2칸 그외 祠三門, 講堂門, 齋門 等을 모두 갖춘 방대한 서원의 규모가 갖추어졌다. 또 이 役事와 工費는 본군출신 在京士大夫와 本鄕 儒林이 能力에 따라 獻金하고 私奴와 관청의 烟戶軍이 合力하였으며 長興寺의 僧侶들의 協力이 컸다. 그리고 役事를 마친후에 官奴 5명과 전답 1결반(약5000여평)을 서원 位士로 하고 奠需費一切를 관청이 부담했었다. 광해군 癸日(1613)에 서원유생 成汝格 등 50여명이 서원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당시 계축옥사가 있던해라 사액을 받지 못하고 仁祖反政후 乙丑(1625)년에 유생 成汝格 등이 다시 상소하여 사액을 청하여 이를 받은 당시의 예조판서 金尙容(安東人＝號 仙源)이 上에게 주청하여 기천서원이라고 사액을 받았다. 그리하여 祠宇는 崇道, 東齋를 輔仁, 西齋를 勸善, 講堂을 敬義, 祠門을 景行, 院門을 入德이라고 하였다 그 후 梧里(李元翼) 선생을 포함한 五賢을 追配하여 모두 8位의 位牌를 모셨다 추후 奉安된 다섯 어른들은 1661(顯宗辛丑)년에 文肅公 鄭曄, 文忠公 李元翼을, 1708(肅宗戊子)년에 忠烈公 洪命耉를, 1802(純祖壬戌)년에 文簡公 洪命夏를 추향했다.

1871(高宗辛未)년에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東國18賢의 祀宇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원을 撤廢할 때 이 서원도 또한 철폐되어 서원의 享祀가 중단되어 오던 중에 1936년(丙子) 洪水 때 五臺山에서 한강으로 떠내려오는 木材를 유렴해 두었다가 그해 九月에 착공하고 八賢의 後孫들과 협력하여 완공을 보았다. 그러나 位田이 없어 고통 중에 當時의 金暎起 郡守가 향교재산 중의 一部를 分割하여 享田으로 쓰도록 하고 慕齋後孫의 享田獻納으로 享田 2312坪이 마련되었다. 大韓光復후 6.25전란에 거의 훼손된 것을 전란후에 儒林의 誠金으로 維持하다가 1978년 都有司 閔達鎭氏에 의해 都費補助를 받고 다시 儒林들의 誠金에 依해 完全改修 復元하고 名稱을 慕賢祀라고 했다.

그후 1987년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등 6천만원을 들여 祠宇 10.21평의 3間퇴로 복원하고, 담장 64.8m, 三門 1棟, 계단을 설치 沂川書院으로 復元 옛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① 李元翼 : 1547(명종2)~1634(인조12)〔조선〕문신. 자는 公勵, 호는 梧里, 본관은 全州 益寧君 秞(太宗의 아들)의 손자, 咸川副守 億載의 아들 1564년(명종19) 生員이되고, 1569(선조2)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承文院 副正字에 初任, 著作·奉常寺直長 등을 역임, 1573년 典籍으로 聖節使의 質正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戶曹佐郎을 지내고, 이듬해 예조와 형조의 좌랑, 황해도도사 등을 역임, 1575년 正言이 되었다. 다음해 持平·형조정랑, 1577년 예조정랑·軍器寺判官, 헌납 등를 거쳐 司諫에 오르고, 1582년 同副承旨·僉知中樞府事·戶曹參議를 역임했다. 이듬해 右副承旨로 都承旨 朴謹元의 죄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1587년(선조20) 安州牧使에 기용되어 1591년 대사헌, 호조·예조·이조의 판서를 지내면서 都摠管·知義禁府事를 겸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平安道 都巡察使가 되어 왕의 피란길을 선도하고 군사를 모아 적군과 싸웠다. 1593년 평양 탈환작전에 공을 세우고 평안도 관찰

사로서 순찰사를 겸하다가 1595년 우의정에 오르고 諸道都 體察使·領元帥府事를 겸직하여 작전의 대임을 맡았으며, 辨誣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1598년 영의정이 되었으나 일본과 화의를 주장한 죄로 北人의 탄핵을 받아 削職된 柳成龍을 변호하다 사직하고 은퇴했다. 이 해 영의정에 재임, 1600년 李恒福이 사직하자 좌의정이 되고 「4도도체찰사」로 나갔다가 병으로 사직, 이듬해 다시 「3도도체찰사」가 되어 전후의 질서회복에 공헌, 1604년 扈聖功臣 2등으로 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1608년(광해군 즉위) 영의정에 재임, 수차사의를 표했으나 허락되지 않던중 1615년 廢母論을 반대하다 홍천(洪川)에 유배, 1619년 풀려나왔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영의정이 되고 仁穆大妃가 광해군의 처형을 명했으나 이에 반대하여 유배에 그치게 했다 이듬해 李适의 난때 왕을 公州에 호종, 1627년 丁卯胡亂이 일어나자 도체찰사가 되어 세자를 전주에 시종, 이어 訓練都監都提調를 지내고 致仕했다. 앞서 1608년 大同法의 실시를 건의하여 경기·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 불합리한 租稅제도를 시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었고, 安州牧使로 있을 때 軍兵防守制度를 개혁, 1년에 3개월 복무를 2개월로 단축, 法制로 채택하게 했다. 淸白吏에 錄選되었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南人에 속했으나 성품이 원만하여 政敵들에게도 호감을 받았고, 庶民的인 인품으로서 「梧里政丞」이란 이름으로 많은 일화가 전한다.

인조의 묘정에 배향, 여주의 沂川書院, 始興의 忠賢書院, 安州의 淸川祠에 祭享 시호는 文忠, 著書 〈梧里集〉 〈續梧 里集梧里日記〉(作品) 雇工答主人歌(歌辭) 文獻·〈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誌狀輯略〉 〈旅軒續錄〉 〈燃藜室記述〉

② 鄭曄 : 1563(명종18)~1625(인조3)〔조선〕문신 자는 時晦, 호는 守夢·雪村, 본관은 草溪, 進士 惟誠의 아들, 영의정 李山甫의 사위. 李珥·成渾·宋翼弼의 문인 1583년(선조16)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承文院에 등용되고, 1587년에 監察·刑曹佐郎을 지냈고 1593년 黃州判官으로 왜군을 격퇴 그 공으로 中和府使가 되었다. 修撰·掌令·서천군수를 역임, 1597년 丁酉再亂 때 禮曹正郎으로 急告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司成이 되고, 水原府使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으나 1602년(선조35) 成渾의 문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鍾城府使로 좌천되었다. 1606년 星州·洪州의 牧使를 역임하고, 광해군 즉위 초 禮曹參議·大司成·承旨·判決事·대사간·충청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1612년(광해군4) 都承旨로 왕을 經筵에 자주 나가도록 했고, 1614년 工曹參判이 되었다. 1617년 廢母論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襄陽府使로 나갔다가 1년만에 사퇴했다. 1623년 仁祖反正 후, 大可成 겸 동지경연·원자사부가되어 學制를 詳定했고, 여러번 타직에 전임되었으나 언제나 대사성을 겸함으로써 이 때부터 대사성을 겸직하게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대사헌을 거쳐 左參贊·左副賓客 등을 지냈다. 시호는 文肅, 著書 : 《守夢集》, 《近思錄釋疑》 文獻 :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誌狀輯略〉

③ 李植 : 1584(선조17)~1647(인조25)〔조선〕문신 자는 汝固, 호는 澤堂, 본관은 德水, 좌의정 荇의 玄孫, 안성의 아들 1610년(광해군2)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1613년 說書를 거쳐 1616년 北評事가 되고, 이듬해 宣傳官이 되었으나 1618년 廢母論이 일어나자 은퇴, 1621년 누차 出仕의 명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왕명을 어겼다하여 한때 구금되었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吏曹佐郎에 등용, 이듬해 副修撰·應敎·司諫·執義를 역임 1625년 禮曹參議·同副承旨·右參贊 등을 지냈다. 다음해 대사간에 승진, 右副承旨·大司成·左副承

旨 등을 역임 1633년 副提學, 1638년 대제학, 예조와 이조의 參判을 지내고 1642년 김상헌과 함께 斥和를 주장한다하여 瀋陽에 잡혀갔다가 돌아올때 다시 義州에서 拘置되었으나 탈출해 돌아왔다. 1643년 元孫輔養官, 대사헌, 형조·이조·예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646년(인조24) 관직이 削奪되었다.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문하에 많은 제자를 배출했고 특히 漢文學에 정통하여 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1686년 (숙종12) 영의정에 追贈, 여주의 沂川書院에 제향, 시호는 문정(文靖). 著書 : «澤堂集», «初學字訓增輯», «杜詩批解「編書」水城志», «野史初本» 문헌 : 〈仁祖實錄〉, 〈畏齋集〉, 〈宋子大全〉

④ 洪命耆 : 1596(선조29)-1637(인조15) 조선시대의 문신. 義士. 자는 元老, 호는 懶齋, 본관은 南陽, 承旨 瑞翼의 아들 1619년(광해군11) 謁聖文科에 장원했으나 大北파의 횡포로 시골에 은거하다가, 1623년 仁祖反正 후에 등용되어 1625년(인조3) 副修撰이 되었다. 1627년 直講, 이어 敎理·吏曹佐郎·左副承旨 등을 지내고, 1633년 右承旨, 1635년(인조13) 대사간·副提學을 거쳐 이듬해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다. 그해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勤王兵 2천명을 거느리고 남하 金化에 이르러 적을 만나 수백 명을 살상하고 전사했다.

여주의 기천서원, 평양의 西山書院에 제향,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旌門이 세워졌다 뒤에 좌의정이 더해졌다. 시호는 忠烈. 문헌 : 〈光海君日記〉.

⑤ 洪命夏 : 1608(선조41)-1668(현종9)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大而, 호는 沂川, 본관은 南陽, 判中樞府事 聖民의 손자, 分兵曹參議 瑞翼의 아들. 1630년(인조8) 生員이 되고 1644년 別試文科에 乙科로 급제, 檢閱을 거쳐 1646년 文科重試에 丙科로 급제한 뒤 奎章閣待敎·正言·校理를 역임했다. 1648년 副修撰·헌납을 지낸 후 이듬해 吏曹佐郎으로 暗行御史가 되어 부정한 관리를 적발하는 데 당대에 이름을 떨쳤으며, 1650년(효종1) 吏曹正郎을 거쳐 1652년 同副承旨에 승진, 이듬해 漢城副右尹이 되었다. 이어 대사간으로 謝恩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후 이조와 예조의 參判·副提學·대사헌·형조판서를 지내고 藥房提調로 1659년 효종이 죽자 削職되었다. 이어 예조·병조의 판서를 거쳐 1663년(현종4) 우의정이 되고, 이듬해 謝恩 兼 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1665년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性理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효종의 신임이 두터워 왕을 도와 北伐計畫을 적극 추진했고, 朴世采·尹拯 등 명신들을 천거했는데 글씨에 뛰어났다. 여주의 기천서원에 제향, 시호는 文簡. 著書 : «沂川集» 문헌 : 〈仁祖·孝宗·顯宗實錄〉

⑥ 金安國 : 1478(성종9)~1543(중종38)〔조선〕문신·학자 자는 國卿, 호는 慕齋, 본관은 義城, 參判 正國의 형 김굉필의 문인 1501년(연산군7) 生員試·進士試에 합격, 1503년 別試文科에 乙科로 급제, 承文院에 등용되고, 이어 博士·副修撰·副校理 등을 역임했다. 1507년(중종2) 文科重試에 丙科로 급제, 持平·掌令·禮曹參議·대사간·공조판서 등을 지내고, 1517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각 향교에 小學을 권하고, 農書·蠶書의 諺解와 «辟瘟方» «瘡疹方»등을 刊印하여 보급하였다. 1519년 己卯士禍때는 전라도 관찰사로 나가 있어서 화는 면하고 파직되었으며 1537년에 다시 기용되어 예조판서·대사헌·병조판서·좌참찬·대제학·贊成·判中樞府事·世子貳師 등을 역임했다. 1541년 병조판서로서 天文·曆法·兵法에 관한 서적의 구입을 상소하고, 水苔와 楮을 화합하여 苔紙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고 이를 권장했다. 趙光祖와 함께 至治主義를 주장했으나 급격한 개혁에는 반대했다. 性理學뿐만 아니라 천

문·주역·농사·국문학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仁宗의 廟庭에 배향, 여주(驪州)의 沂川書院, 利川의 雪峯書院, 義城의 氷溪書院 등에 제향, 시호는 文敬. 著書:《慕齋集》, 《慕齋家訓》, 《童蒙先習》

⑦ 李彦迪:"향교편에 보임"

⑧ 洪仁祐:1515(중종10)~1554(명종 9)〔조선〕학자, 자는 應吉, 호는 恥齋, 본관은 南陽, 僉知中樞府事 德演의 아들 徐敬德·李滉의 문인. 1537년(중종32) 부친의 권유로 司馬試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大科를 단념, 학문에 전심했으며 당시의 巨儒 盧思愼도 그에게 학문을 물었다 만년에 부친이 병들자 醫書를 연구 마침내 약의 처방을 손수 하기에 이르렀다. 아들 進의 공으로 영의정에 追贈. 著書:《關東日錄》, 《恥齋遺稿》

2. 孤山書院

대신면 浦東(지금 甫通里 613번지 이화정 고개 밑)에 있던 서원인데 숙종 병인(1686)년에 세우고 무자(1708)년에 賜額하였다가 고종신미(1871)년에 전국 서원을 일체 훼철할 때 철폐되었고 현재 복원되지 못하여 유허조차 없어졌다. 이 서원에는 石灘 李存吾선생과 晦谷 曺漢英 先生을 모셨던 서원이다. 이 서원 앞을 지날 때 下馬하라는 下馬碑는 지금 그 마을 김영구 가옥 뒤편에 있다.

石灘과 晦谷은 다음과 같다.

① 李存吾:1341(충혜왕 복위 2)~1371(공민왕)〔고려〕문신. 자는 順卿, 호는 石灘·孤山, 본관은 慶州, 1360년(공민왕 9) 文科에 급제, 水原書記를 거쳐 史翰에 발탁, 1366년에 右正言이 되어 辛旽의 횡포를 탄핵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샀으나 李穡 등의 변호로 극형을 면하고 長沙監務로 좌천, 후에 石灘에서 운둔생활을 하다가 울분으로 병이 나서 죽었다. 신돈의 專橫을 풍자한 時調 1수가 전한다. 大司成에 追贈, 驪州의 孤山書院, 扶餘의 義烈祠, 茂長의 忠賢祠에 祭享. 著書:《石灘集》

② 曺漢英:1608(선조41)-1670(현종11) 자는 守而, 호는 晦谷, 본관은 昌寧, 參判 文秀의 아들, 李植·金長生의 문인. 1627년(인조 5) 生員이 되고 1637년 庭試文科에 장원, 1640년 청나라가 명나라 공격을 위해 원병 파견과 元孫을 볼모로 瀋陽에 보내라고 요청하자, 持平으로 이를 반대하는 萬言疏를 올렸다. 이에 排淸派로서 金尙憲·蔡以恒 등과 함께 청나라의 심양에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받고 투옥, 이때 김상헌과 《雪窖集》을 지었으며 1642년 義州에 이감되었다가 석방되었다. 효종때 同副承旨로서 南人인 尹鑴의 등용을 적극반대하다가 면직되고, 현종때 漢城府右尹이 되어 夏興君을 襲封, 형조와 예조의 參判,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漢城府左尹에 이르렀다. 문장이 뛰어났고 時調 2수가 전하며 驪州의 孤山書院에 祭享, 시호는 文忠. 著書:《晦谷集》

3. 玄巖書院

興谷面과 이천군의 경계에 위치하였다하는데 현재 이천군 백사면 內村里에 있었다. 영안부

원군 金祖淳(純祖의 國舅)를 享祀 하던 곳인데 임금의 특명으로 여주목에서 향사를 받들고 祭需를 관장하게 하여오다가 고종신미(1871)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훼철에 의하여 철원되었고 그 유지는 지금 이천군 관할이며 또한 공원이 되고 말았다.

① 金祖淳 : 1765(영조41)~1831(순조31) 〔조선〕문신. 초명은 洛淳, 자는 士源 호는 楓皐, 본관은 安東, 영의정 昌集의 4대손, 府使 履中의 아들. 1785년(정조9) 庭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檢閱·奎章閣待敎를 거쳐 1792년 冬至兼謝恩使의 書狀官으로 北京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와서 直閣, 1798년 吏曹參議, 1800년 承旨가 되었다. 1802년(순조2) 摠戎使·兩館大提學 등을 역임, 그해 딸이 妃(純元王后)로 봉해지자 領敦寧府事가 되고 永安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철종 때의 안동 김씨 世道政治의 기초를 마련했다. 문장에 능하고 竹畫를 잘 그렸다. 정조의 廟庭에 配享, 楊州의 石室書院, 驪州, 利川의 玄巖書院에 祭享, 시호는 忠文. 著書 : «楓皐集».

4. 大老祠(一名 江漢祠)

여주읍 하리 200-1번지에 위치했으며 尤庵 宋時烈 선생을 모신 곳으로 地方有形文化財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정조9년(1785)에 金亮行을 비롯한 유림의 상소에 의하여 건립하고 그해에 賜額 되었다. 고종연간에 와서 江漢祠로 불렀었다. 이 대로사는 고종신미년 서원철회 때 우암선생을 모신 사당은 철폐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훼철되지 않고 그대로 전래된 서원이다.

本殿은 1단의 基壇 위에 正面 3칸(7.5m), 측면 2칸(5.35m), 건평 14평 맞배지붕이며 양편 마구리에 防風板을 부설했고 72㎝정도의 副椽을 걸었으며 前面에 1.6m의 퇴를 연결했고 천정을 연등천정으로 하였으며 앞면 3칸에 분합문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 후면 벽쪽에 감실이 있고 그안에 영정을 모시고 있다. 本殿前方 9.6m지점에 內三門(5.4m×2m)이 있으며 內三門 양측에서 연결하여 內墻이 축조되어 있다. 本殿前方 北側(江쪽)에 강당이 있는데 瞻和堂이라고 편액이 되어있고 그 규모는 正面 5칸, 측면 3칸으로 건평 30평이며 구조는 合閣지붕에 홋처마로 민도리를 얹었다. 전체가 마루인데 동쪽에 온돌방이 1칸 있고 강당전방 24m 지점에 單柱夾門이 있다. 내삼문 35m 지점에 外三門이 있고 外庭은 35m×33m의 垣墻이 둘려있다. 외정 밖에 正祖大王의 御製 御筆로 된 大老祠碑가 있다. 사당은 大老祠라고 편액되어 있는데 이 사당은 다른 사당과 달리 西方으로 되었는데 이는 西쪽에 孝宗大王의 능이 있으므로 尤庵先生의 生存時에 孝宗을 忠心으로 받들고 孝宗 亦是 그를 총애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로사에 모신 송시열의 一生의 略記는 다음과 같다.

⊙ 宋時烈 : 1607년(선조40)-1689(숙종15) 〔조선〕학자. 老論의 領袖, 兒名은 聖賚, 자는 英甫, 호는 尤庵·華陽洞主, 본관은 恩津, 甲祚의 아들 金長生·金集부자의 문인 1633년(인조11) 生員試에 1등으로 합격, 천거로 敬陵參奉이 되었다. 1635년 鳳林大君 (孝宗)의 師傅가 되고 이듬해 丙子胡亂에 왕을 南漢山城에 扈從, 1637년 화의가 성립되자 낙향, 후에 龍潭縣令·持平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 掌令에 등용, 世子侍講院進善을 거쳐 執義가 되었으나, 당시 집권당인 西人 중에서도 淸西派에 속했던 그는 功西派의

金自點이 영의정으로 발탁되자 사직하고 낙향, 이듬해 김자점이 파직된 후 진선에 재임되었다. 1651년 그가 찬술한 長陵誌文에 청나라 年號를 쓰지 않았다고 김자점이 청나라에 밀고하여 그들 사신의 압력에 못이겨 사직하고 낙향, 忠州牧使·執義·副護軍 등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宋浚吉과 서적편찬 및 후진양성에 전심했다. 1658년(효종 9) 贊善에 등용, 이조판서에 승진하여 효종과 함께 군사력의 강화와 軍布의 증액 등으로 北伐計畫을 추진했으나 이듬해 효종이 죽자 북벌계획은 중지되었다. 이때 효종의 葬禮로 慈懿大妃의 服喪問題가 제기되자, 三年說(滿 2 年)을 건의하여 이를 채택케 함으로써 남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 判義禁府事·判中樞府事·左參贊을 역임하는 동안 서인의 지도자로서 활약했다. 1660년(현종 1) 右贊成에 재직중 앞서 효종의 葬地를 잘못 옮겼다는 규탄을 받고 낙향했다. 1668년(현종 9)에 우의정이 되었으나 좌의정 許積과의 불화로 사직했다가 1671년 다시 우의정의 기용,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1674년 仁宣王后의 별세로 다시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가 논의되자, 大功說(9個月)을 주장했으나 남인이 주장한 기년설이 채택됨으로써 실각, 제 1 차 服喪問題 때 기년설을 채택케 한 죄로 이듬해 德源에 流配되고 熊川을 거쳐 1679년(숙종 5) 巨齋에 移配, 이듬해 淸風에 옮겨졌다. 이해 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되자 領中樞府事로 기용, 1683년 致仕하고 奉朝賀가 되었다. 이 무렵 남인에 대한 처벌문제가 논의될 때 과격한 방법으로 숙청을 꾀하던 金錫胄의 태도를 옹호하여 소장파의 비난을 받던 중 그의 제자인 尹拯과의 감정대립이 악화되어 마침내 윤증 등 서인의 소장파를 중심으로한 少論과 그를 영수로 한 노장파의 老論으로 分派되었다. 그 후 정계에서 은퇴하고 청주 華陽洞에 은거 1689년 王世子(景宗)가 册封되자 이를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上疏를 했다가 濟州에 安置되고 이어 鞫問을 받기 위해 상경 도중 남인의 책동으로 井邑에서 賜死되었다. 1694년 甲戌獄事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伸寃되었다. 일생을 朱子學연구에 몰두한 巨儒로 李珥의 學統을 계승 畿湖學派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四端七情論에 있어서 李滉의 二元論的인 理氣互發設을 배격하고 이이의 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 사단칠정이 모두 理라하여 一元論的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禮論에도 밝았다. 성격이 과격하여 많은 政敵을 가졌으나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글씨는 大字를 잘 썼다. 文廟·孝宗廟의 配享을 비롯하여, 청주의 華陽書院, 驪州의 大老祠, 水原의 梅谷書院, 公州의 忠賢書院, 沃川의 表忠祠·龍門影堂, 文義의 龜峯書院, 연산의 遯巖書院, 永同의 草江書院 제주의 橘林書院, 江陵의 五峯書院, 益山의 華山書院, 慶州의 仁山書院, 덕원의 龍津書院 등에 祭享, 시호는 文正이다. 著書 : 《宋子大全》(尤庵集, 朱子大全箚疑, 二程書分類, 朱子語類小分, 論孟問議通考, 心經釋義, 沙溪先生行狀).

5. 慕忠祠

大神面 甫通里180번지에 있다. 祠는 朝鮮 中宗때 文臣 曺繼商(1466~1543)靖國功臣 昌寧府院君 右贊成 諡忠貞)과 그의 5대손이 되는 漢英(인물편 참조) 두 분의 不祧之典을 奉安한 別廟로 禮曹에서 兩位 忌辰日에 致祭하여 왔다. 1592년에 건립 계승하여 왔으나 朝鮮末期에 廢虛化된 것을 1935년 4월 13일 후손 國鉉에 의해 重建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第4節 科 擧

옛날에 官吏를 선발하던 국가시험제도로 과거라는 명칭은 科目에 따라서 선비를 擧用한다는데서 기인하였다. 科目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과목이 아니고 科種(과거의 종류)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元聖王 4년(788)에 讀書出身科가 그 형태의 시작이며 이것은 독서력을 시험하여 상, 중, 하 3품으로 나누어 등용하였으며 그 명칭을 독서삼품과 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규칙이나 제도상으로 살펴볼 때 완전한 형식을 갖춘 과거의 시작은 고려 초기로 부터 시작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과거 제도가 그후 조선 말기까지 정치 문화에 끼친 영향이 극대함으로 그 대략을 약술하여 본다.

1. 高麗時代

後周에서 歸化한 雙冀라는 사람의 건의에 따라 광종 9년(958) 당나라 과거제도를 모방하여 처음으로 과거제도의 법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制述科(進士科라고도 함), 明經科, 醫科, 卜科를 두었는데 그후 과거제도는 점차 발전하여 인종 때에 와서 많은 정비를 했다.

인종 10년(1136) 어명으로 책정된 科別 試驗科目이 ①製述業—經義, 詩, 賦, 頌, 策, 論 등 이며 ②明經業—書, 易, 詩, 春秋, 禮記 등 ③明法業—律, 令 등 ④明算業—九章(算術), 綴述, 三閭, 謝家 등 ⑤明書業—說文, 五經字樣, 眞書, 行書, 篆書, 印文 등 ⑥醫業—素問經, 本草經, 明堂經, 脈經, 針經, 難經, 灸經 등 ⑦呪禁業—醫治種類 등 ⑧地理業—新集地理經, 劉氏書, 地理決經, 經緯令, 地境經, 口示決 등 ⑨何論業—眞書奏章, 何論, 孝經, 曲禮, 律 등 이상 9種의 과거가 있었는데 3번의 明法業以下의 것은 雜科라고 하였다. 이중에서 제술과와 명경과를 제일 중요시 하였는데 특히 제술과의 합격자는 가장 많이 등용되고 선발하는 인원 수도 많았다. 또 제술과를 東堂試라고도 했다.

과거의 시험절차는 중앙과 지방에서 1차 시험을 보았는데 중앙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자를 上貢, 지방에서 합격한 사람을 鄕貢이라 했고 중국인으로 이에 합격한자는 賓貢이라고 했다. 이 三貢은 국립중앙대학의 역할을 하는 國子監에서 재차 간단한 시험을 치룬 다음 여기에 합격자, 국자감에서 3년이상 공부한 학생과 벼슬에 오른지 300일이 지난자를 통틀어 소정 과목에 따라 최종시험을 보게하였다. 이 최종시험을 監試라고 칭하고 제술과는 갑과와 을과 두 가지가 있고 명경과에는 甲, 乙, 丙, 丁의 네 종류가 있었다.

합격자에 정원은 없었으나 중엽 이후에 있어서 대략 33명이 되었고, 처음에는 매년 과거를 치루던 것을 성종때 와서 매 3년에 한번씩 式年試를 실시하였고 현종때에는 한해 건너 한번씩 그후에는 시대의 형편에 따라 매년, 격년으로 하였다. 동당시 경우에 갑과의 1등 합격자를 壯元, 2등 합격자를 亞元 또는 榜眼, 3등 합격자를 探花라고 하였고 빈공에서 합격자를 別頭라고 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감시에 합격한자를 모아서 임금이 다시 詩, 賦, 論으로 다시 친히 시험을 보았는데 이것을 覆試 또는 簾前重試라 하였다. 염전중시의 시험 사무를 관

장하는 관리를 讀券官이라고 했다. 이 시험은 성종때 처음 실시했던 것인데 상례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紅牌를 주었는데 홍패는 붉은 종이에 쓴 합격증이었다. 고급관리의 등용문인 제술, 명경과에는 양반의 자제들만 응시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洲, 郡, 縣의 次官, 副戶長이상의 자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雜科 즉 일종의 기술자를 채용함에는 천민을 제외한 일반 서민도 응시 할 수 있었다.

관리로서의 登龍門인 제술 명경 2 과에 비하여 일종에 소과라고 할 수 있는 國子試와 陞補試가 있었으니 합격자는 국자감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는 자격 또는 하급 관리에 등용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국자시는 덕종(1031~1034)년간에 시작한 바 成均試 또는 南省試라고도 하였다. 시와 부로 시험을 본 바 그후 폐지, 부활이 거듭되었다. 승보시는 의종(1146~1170)년간에 창설한 것으로 시, 부, 경의 세 과목으로 하고 이에 합격한 자를 생원이라 하였다.

의종이후 과거 제도는 문란해지기 시작하여 현종, 문종이 다시 혁신에 노력하였고 공민왕 18년(1369) 李穡은 당시의 知貢擧 李仁復과 의논하여 元나라 제도를 따서 鄕試, 會試(監試), 殿試의 3 단계 제도를 확정하고 시험관인 지공거도 시험 하루전에 임명토록 하였다. 한편 武科는 공양왕 2 년(1390)에 비로소 정식으로 과거의 과목에 들었으나 2 년후 고려가 망하였으므로 사실상 고려에서는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2. 朝鮮時代

조선시대는 대체로 고려시대와 비슷했지만 태조 1 년(1392)에 과거법을 새로 제정하여 서울은 성균관 지방은 각 도에서 經書에 정통한 자들을 추려 성균관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합격자 33명을 吏曺에 보내어 각자 재능에 따라 등용하였으며 의과 음양과 등의 잡과도 두었다. 이듬해인 1393년 식년시 즉 3 년에 한번씩 과거를 보이는 법을 제정하여 子, 午, 卯, 酉년에 실시키로 했다. 이 법을 제정한 해가 癸酉년이라 고려 말기의 제도에 따라 과거를 보였으니 이것이 조선시대 과거의 시초였다. 조선 성종 3 년(1472) 시험기일을 변경하여 초시는 寅, 申, 巳, 夜년 가을에 보고 복시는 子, 午, 卯, 酉년 봄에 보도록 했다. 태종 7 년(1407)에 이미 등용되었던 문신들만 다시 보는 重試制度를 두었었고 다음해에 무과를 다시 설치하여 龍虎榜이라 이름 하였으며 세종20년(1438)에 비로소 式年生員 進士試를 창설하였다.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과목을 문과, 무과의 2 개과와 진사외에 譯科, 의과, 음양과, 律科 등의 잡과가 있었으니 이중에 역과에는 한학과, 蒙學科, 倭學科, 女眞學科(후에는 漢學科에 併合)으로 나누어지고 음양과는 천문학, 지리학, 命課學이 있었다. 이중에서 문과는 문관으로 등용하는 것으로 고려의 예에 따라 東堂試라고도 하며 崇文政策의 영향으로 가장 중시되어 大科라고도 하였으며 반면에 생원, 진사시는 小科라고도 했다.

문과의 초시는 한성부에서 실시하는 한성시,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관시, 각도에서 실시하는 향시 등 3 종류가 있고 이 초시의 합격자를 이듬해 봄에 서울에 모아서 명륜당 및 丕闡堂에서 2 차 시험을 보게 하였으니 이것을 覆試라 했다. 복시에 합격한자에게는 다시 궁궐안 殿庭에서 임금앞에서 친히 시험을 보았으니 이것을 殿試라 한다. 후기에 이르러 전시는 형식

에 그치게 되고 복시에 합격하면 사실상 최종 시험에 합격한 셈이 되었다. 초시와 복시는 다 같이 3場으로 초장, 중장, 종장이었으며 초시 초장에서는 四書五經(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주경, 춘추, 예기)의 疑義와 論중에서 2편, 중장에서는 賦, 頌, 箴, 銘, 記 중에서 1편, 表, 箋 중에서 1편, 종장에서는 對策 1편이었고, 복시초장에서는 사서삼경의 背講 중장과 종장은 초시때의 과목과 같다. 殿試에서는 임금이 친히 나와 대책, 표, 전, 잠, 송, 詔 중에서 1편을 짓게 하였다. 소과인 생원, 진사시는 司馬試 또는 監라고도 부르며 합격자는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되고 하급관리로 등용될 길이 마련되었다.

초시는 성균관 또는 각군의 군수가 실시하는 詔訖講에 합격하여 조흘첩을 가진 15세 이상된자가 볼 수 있다. 조흘강은 일종의 예비 시험이었다. 이 경우에도 한성부에서 실시 하는 것을 한성시 각도에서 실시 하는 것을 향시라고 하였다. 한성시의 장소는 禁衛軍, 三軍府 또는 명윤당 중에서 형편에 의하여 지정했고 향시는 각도의 宣化堂에서 보았다. 역시 가을 초시에 합격한 자를 이듬해 봄에 서울에서 2차 시험인 복시를 보았다. 초시와 복시 다같이 二場이었으니 즉 초장 종장이다. 초시와 복시의 초장은 부1편이고 고시(告試)는 명 잠 중에서 1편 종장에서는 오경의(義), 사서(疑義) 2편을 보았다. 복시초장에 합격한자를 진사, 종장에 합격한자를 생원이라 하였다. 무관은 궁술, 총술, 講書를 시험 과목으로 하여 역시 초시, 복시, 전시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역시 문을 숭상하여 무과는 중요시 하지 않았고 잡과에 속하는 인, 역, 의, 음양, 율(譯, 醫, 陰陽, 律)과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부분에 따라 세분된 바 司譯院, 典醫監, 觀象監, 刑曹등에 근무하는 中人(하급관리)의 자제로 그 분야에 소양이 있는 자들로 모아 각각 해당 하는 분야에 초시 복시의 절차를 시험보았다. 잡과에는 지원자가 적어서 식년시 외에는 增試하지를 않았다. 문과와 무과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인 紅牌를 주고 관직을 내렸으며 생원 진사과에 합격한자에게는 白牌를 내려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며 관리에 등용도 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3년에 한번씩 과거를 보는 式年試가 원칙이었으나 태종1(1401)년에 曾廣試라고 하여 보인 이래 세종11년(1429) 謁聖試, 세조3년(1457)의 別試 등을 비롯하여 外榜別試, 宗親科, 賢良科, 到記試, 黃柑試, 春塘臺試, 耆老科 등 수시로 과거를 보는 풍조가 생겼고 앞에 말한 태종의 重試에서 시작하여 세종11년(1429) 발영시, 登俊試, 세조4년(1458) 簽文試 성종13년(1482) 進賢試, 중종33년(1538) 擢英試 등의 중시가 있어 이미 등용된 중신들에게 임금이 친히 시험을 보여 합격자들을 더욱 重用하였다. 그후에는 과거를 너무 자주보아 합격해도 등용되지 못하고 고관에게 뇌물을 바쳐 등용 운동을 하고 혹은 뇌물로서 과거의 합격여부가 결정되든가 또는 당파의 소속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고 고관의 자제는 저절로 합격이 되는 등 극도로 문란해진 시기도 있었다.

그래서 특히 조선 말기에 와서는 순조18년(1818) 5월 성균관 사성 李瑩夏가 그 폐단의 8가지를 들고 그 8가지를 없애는 방법으로 과거는 직접 면접시험 등을 상소하여 소위 과거의 8폐단을 들기도 했는데 이 8폐단은 ①著述借作(남의 글을 빌어쓰는것) ②隨從挾册(책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일) ③入門蹂躪(시험장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는 일) ④呈券紛遝(시험지를 바꿔 내는일) ⑤外場書入(밖에서 글을 써내는 일) ⑥赫啼公行(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리는 일) ⑦吏卒換面出入(吏卒이 이리저리 바꿔다니는일) ⑧字軸恣意幻弄(試券을 농간하는

일)등을 상소함을 계기로 備邊司에서는 임금에게 건의하여 科場排弊節目의 규정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과거에 응시할 후보생의 명단을 5部官이 만들어 한성부를 경유하여 4館所에 제출하되 반드시 6월말안에 도착하도록 해야하고 지방의 유생은 지방 관원이 명단을 작성하여 監營으로 보내고 이것을 監司가 조사한 뒤에 시험주관처로 보낸다. 面講은 읽는 것보다 글의 내용을 주로한다. 시험관은 시장에 한번 입장하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퇴장하지 못한다. 製述은 제목을 알린 후 3시간 내에 써 내야 한다는 등 규정이 생겼었다. 또 科場易書法이라고 하여 과거를 채점함에 응시자의 글씨체를 알게 되면 私情이 있다하여 일단 거둔 답안지를 다른 시험관의 글씨체로 옮겨써서, 채점하는 방식도 있었으나 폐단이 많아 잠시후 폐지시킨 일도 있다. 이와 같이 과거제도는 오랜역사를 지나는 동안 시대와 형편에 따라 변경된 일이 많았다가 경술합방(1910년) 이후에 朝鮮朝式 과거는 자연 폐지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本郡의 科擧에 특별한 기록은 조선 제9代王 成宗大王이 庚戌(1490)年 英陵에 親祭次 幸行時에 특별히 여주에서 生員試를 取하여 여주에서 三人 利川의 一人을 取한 일이 있고 中宗ㅁ子(1528)년 9月 15일에 王이 英陵에 親히 拜陵次 幸行 할때에 같은날 신하를 보내어 향교에 치제하면서 여주에 科場을 設置하고 인접된 지방(광주, 여주, 이천, 용인, 양지)의 유생을 모아 당일 試題를 내어 試取하고 아울러 武科를 取한 바 있다. 또 顯宗甲寅(1674)년에 顯宗이 그 아버지인 上王(寧陵)을 拜謁하러 親行할 때 당시 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주청에 의하여 여주에 設科하고 中宗때의 예에 의하여 試取한 바 있다. 또 여주 출신으로서 조선조시대에 文科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선 500년간 문과 방목에 의하여 발췌되었으나 或 방목에 住居地가 明示되지 않은 年度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고증이 되는 분은 기록하였으되 추정은 되나 명확히 고증이 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 되었으니 급제자 전체의 명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進士, 生員의 합격자는 그 試取回數가 文獻上 밝혀진 것이 약238회에 달하는데 이는 綜合된 目錄이 傳來되지 않고 每回마다 別介로 그해에 합격자만을 따로 수록한 司馬榜目이 있으나 임진왜란 이전 것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는 司馬名單은 알 수 없으므로 그 名單을 생략한다.(참고 〈조선왕조실록〉, 〈국사대관〉, 〈국조방목〉).

3. 驪州科擧登第者(國朝榜目仁祖以後)

前賢	姓 名	字	生	本貫	父 名	時代	年榜	年代	科	種	歷 官
通德	元萬石	君玉	壬戌	原州		仁祖	己丑	1649	庭 試	丙科	監 司
幼學	元景淳	道以	辛巳	原州	斗杓	英宗	丙辰	1736	慶科庭試	丙科	禮工判諡正憲
副率	元景夏	華伯	戊寅	原州	命稷	英宗	丙辰	〃	〃	甲科	禮兵判號蒼霞
通德	尹光天	浩而	石丑	坡平	命龜	肅宗	丁酉	1707	式年文科	乙科	兵佐都事掌令
進士	尹始榮		乙卯	海平	彙明	當宇	丁亥	1887	庭 試	丙科	
	朴周燮		癸未	密陽	濟翼	純祖	壬申	1812	討逆庭試	丙科	
進士	成始光	元賓	丙戌	昌寧	休揚	純祖	辛未	1811	庭 試	丙科	
幼學	李奎德		甲牛	星州	甲鉉	英宗	己卯	1759	殿 試	丙科	

生員	李魯春	君正	壬申	德水	觀輔	正宗	庚子	1780	式 年	乙科	三司承旨吏議大成
	李祖馨	景述	癸卯	慶州	龍模	純祖	己巳	1809	增廣殿試	甲科	
進士	李魯秉	景禮	庚子	德水	命漢	純祖	辛未	1811	慶科庭試	甲科	
進士	李文馨	居彬	壬寅	慶州	述模	憲宗	丁未	1847	庭 試	丙科	
	李享會	友卿	丁卯	慶州	師漢	哲宗	辛亥	1851	庭 試	丙科	
幼學	李啓弼		庚申	咸平	其厚	當宇	丁亥	1887	慶科庭試	乙科	
縣監	李種元	汝長	己酉	德水	近憲	當宇	戊子	1888	別 試	丙科	
幼學	李種完		甲戌	德水	福永胴永	當宇	壬辰	1892	庭 試	丙科	
	金聖佑	季誠	乙亥	江陵	膝永福永	英宗	己未	1739	謁 聖	丙科	正 言
	金顧亀	禹瑞	癸亥	金海	泰慶	憲宗	丁未	1847	庭 試	丙科	
	金永秀	正夫	戊寅	光山	光植	憲宗	己酉	1849	式年殿試	丙科	
幼學	金鶴洙		己酉	光山	百鉉	當宇	乙酉	1885	合三慶庭試	丙科	
左司禦	金龜洙		己未	光川	永秀	當宇	壬辰	1892	慶科別市	丙科	
幼學	金年圭		己未	安東	永秀	當宇	癸巳	1893	慶科庭試	丙科	試
	姜麟岳		丙牛	晋州	炳集	純祖	丁亥	1827	庭 試	丙科	
	洪正圭		甲申	南陽	壽渭	哲宗	丙辰	1856	別 試	丙科	
幼學	洪啓相	景直	甲子	南陽	鎭燮	肅宗	己亥	1719	年 增 廣	丙科	典籍縣監
	曹遠振	乃心	丙寅	昌寧	聖体	英宗	壬辰	1772	庭 試	丙科	
	閔鍾烈	允如	乙丑	驪興	允國	英宗	丙戌	1766	王世子愚候平復慶	丙科	吏判西伯
前縣監	閔台爀	公紀	丁卯	驪興	百兼	正宗	己亥	1779	親監南漢別試	甲科	資憲陞堂
幼學	閔泳緯	子三	戊寅	驪興	百亨·百宗	憲宗	戊申	1848	增廣別試	甲科	
司果	閔泳穆	石卿	丙戌	驪興	元鏞	當宇	辛未	1871	謁 聖	乙科	
幼學	閔泳一	遠卿	壬子	驪興	泰鏞·達鏞	當宇	庚辰	1880	慶科別試	丙科	
幼學	閔宗植		辛酉	驪興	達鏞	當宇	壬午	1882	慶 別 試	丙科	
縣監	閔致憲	允朝	甲辰	驪興	泳商	當宇	乙酉	1885	合三慶增廣	丙科	
進士	閔泳國		乙巳	驪興	泰顯	當宇	丁亥	1887	慶科庭試	丙科	
進士	閔喜植		甲子	驪興	世鎬·周鎬	當宇	丁亥	1887	慶科庭試	丙科	
幼學	閔厚植		乙丑	驪興	泳和	當宇	戊子	1888	別 試	丙科	
縣監	閔恒植		乙卯	驪興	泳肅·泳弼	當宇	辛卯	1891	增廣別試	丙科	
幼學	閔丙星		癸酉	驪興	泳番·泳學	當宇	壬辰	1892	慶科別試	丙科	
員生	趙錫周	維新	辛巳	白川	廷植	肅宗	庚申	1680	庭 試	乙科	掌令號白野
幼學	韓范齊	一之	申戌	清州	謙行	肅宗	乙卯	1675	乙卯年殿試	丙科	兩司堂上府使
生員	韓商新	德汝	戊寅	清州	致良·壽琦	正宗	癸卯	1783	合三慶庭試	甲科	
通德	權 巘	秀父	庚寅	安東	健維	英宗	丙寅	1746	謁聖文科	丙科	兩司承旨
幼學	權 煌	用光	甲申	安東	楫	正宗	壬子	1792	式 年	進士莊	
	權命周	幼文	壬寅	安東	命寞	憲宗	丁西	1827	式年殿試	丙科	
	權益善	仲兼	庚辰	安東	命寞	哲宗	戊午	1859	式年庭試	丙科	
	洪命夏										
	洪命壽										
	洪致中										

	洪萬植									
	洪英植									
	洪淳穆									
	元萬里									
	元仁孫									
	元景濂									
	元義孫									
	元有朋									
	元翊常									
	丁道明									
	丁道徹									
	李邦彦									
	曹夏望									
	韓熙朝									
	尹澤然									
	沈世遇									
	權 贈									
	柳東垣									
	洪益三									
	朴鳴載									
	李 畬									

丹	名	年 代	分類番號
上之即祚32年甲午司馬式榜目			한 26 29
嘉靖43年甲子 7 月20日司馬榜目		1564	한 26 29 1
隆慶 4 年庚午	〃	1570	〃 〃 〃 2
萬曆元年癸酉	〃	1573	〃 〃 〃 3
〃 4 年丙子	〃	1576	〃 〃 〃 4
(宣祖) 丙子	〃 寫本	1576	〃 〃 〃 5
宣祖36年癸卯	〃	1603	〃 〃 〃 8
萬曆44年丙辰	〃	1616	〃 〃 〃 9
〔仁祖〕癸酉增廣	〃	1633	〃 〃 〃 13
〔仁祖〕乙酉式年	〃	1645	〃 〃 〃 15
〔顯宗〕丙午式年司馬榜目		1666	〃 〃 〃 16
己酉式年	〃		〃 〃 〃 17
甲子式年	〃		〃 〃 〃 18
〔肅宗〕丁卯式年	〃	1687	〃 〃 〃 19
己巳增廣	〃		〃 〃 〃 20
庚午式年	〃		〃 〃 〃 22

〔肅宗〕癸酉式年	〃 〔肅	1693	〃	〃	〃 23
〔肅宗〕己卯增廣	〃	1699	〃	〃	〃 24
壬午式年	〃		〃	〃	〃 25
戊號式年	〃		〃	〃	〃 26
辛卯式年司馬榜目			〃	〃	〃 28
〔肅宗〕癸巳增廣司馬榜目		1713	〃	〃	〃 29
甲午增廣	〃		〃	〃	〃 31
〔肅宗〕丁巳增廣	〃	1677	〃	〃	〃 33
崇禎再甲子式年	〃	·1744	〃	〃	〃 35
崇禎再甲子式		1744	〃	〃	〃 36
崇禎三癸酉式年	〃	1753	〃	〃	〃 38
崇禎三己卯式年	〃	·1759	〃	〃	〃 39
崇禎三己卯式年	〃	1759	〃	〃	〃 40
崇禎三戊子式年	〃	1768	〃	〃	〃 42
崇禎三辛卯式年司馬榜目		1771	〃	〃	〃 56
崇禎三甲午式	〃	·1774	〃	〃	〃 44
崇禎紀元後三甲午慶科增廣司馬榜目		1774	〃	〃	〃 45
癸巳合六慶大增廣	〃		〃	〃	〃 46
聖上元年乙巳增廣別市用即位慶	〃		〃	〃	〃 47
崇禎再丁未合五慶增廣別試	〃 試試試	1727	〃	〃	〃 50
崇禎後再壬子式年退行癸丑	〃	·1732	〃	〃	〃 53
崇禎後再壬子式年退行癸丑	〃	1732	〃	〃	〃 54
崇禎後再壬子式年退行癸丑	〃	1732	〃	〃	〃 55
乙卯增廣	〃		〃	〃	〃 56
崇禎再庚申增廣司馬榜目		·1740	〃	〃	〃 58
崇禎紀元後三丁酉增廣司馬榜目		1777	〃	〃	〃 60
崇禎三庚子式年	〃	1780	〃	26	29 61
崇禎三癸卯春先大王尊爲世室元子定號合		·1783	〃	〃	〃 62
二慶別試增廣司馬榜目			〃	〃	〃
崇禎三癸卯式	〃	1783	〃	〃	〃 64
崇禎三己酉式年	〃	·1789	〃	〃	〃 67
崇禎三己酉式年	〃	1789	〃	〃	〃 69
崇禎三庚戌增廣	〃	·1790	〃	〃	〃 70
崇禎三壬子式年	〃	1792	〃	〃	〃 71
崇禎三戊午式司馬榜目		1798	〃	〃	〃 72
崇禎三辛酉秋式	〃	1801	〃	〃	〃 73
崇禎三癸亥春大殿中宮殿疹疾候平復		·1803	〃	〃	〃 74
合二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	〃	〃
崇禎百七十七年甲子式司馬榜目		·1684	〃	〃	〃 75
崇禎三丁卯式年	〃	·1807	〃	〃	〃 76

崇禎三丁卯式	〃	1807	〃	〃	〃	77
崇禎三丁卯式	〃	1807	〃	〃	〃	78
崇禎三庚午式	〃	1750	〃	〃	〃	80
崇禎紀元後百八十六年癸酉王大妃殿		1633	〃	〃	〃	81
寶齡六旬上候平復王世子册禮王大妃			〃	〃	〃	
殿寶齡周甲合四慶慶科增廣司馬榜目			〃	〃	〃	
崇禎三丙子式司馬榜目		1756	〃	〃	〃	82
崇禎四己卯式	〃	1819	〃	〃	〃	83
崇禎四壬午式	〃	·1822	〃	〃	〃	84
崇禎紀元後四乙酉式司馬榜目		·1825	〃	〃	〃	85
崇禎紀元後四辛卯式	〃	·1831	〃	〃	〃	88
崇禎紀元後四甲午式	〃	·1834	〃	〃	〃	89
崇禎紀元後四乙未慶科增廣司馬榜目		·1835	〃	〃	〃	90
崇禎紀元後四丁酉式	〃	1837	〃	〃	〃	91
崇禎紀元後四庚子式司馬榜目		·1840	〃	〃	〃	92
崇禎紀元後四癸卯式	〃	·1843	〃	〃	〃	93
崇禎紀元後四癸卯式	〃	1843	〃	〃	〃	94
崇禎紀元後四癸卯式	〃	1843	〃	〃	〃	95
崇禎紀元後四丙午式	〃	·1846	〃	〃	〃	98
崇禎紀元後四己酉式	〃	·1849	〃	〃	〃	99
崇禎紀元後四庚戌增	〃	·1850	〃	〃	〃	101
崇禎紀元後四壬子式	〃	1852	〃	〃	〃	102
崇禎紀元後四乙卯式	〃	·1855	〃	〃	〃	103
崇禎紀元後四乙卯式	〃	1855	〃	〃	〃	104
崇禎紀元後四乙卯式司馬榜目		1855	〃	〃	〃	105
崇禎紀元後四乙卯式	〃	1855	〃	〃	〃	106
崇禎紀元後四戊午式年	〃	1858	〃	〃	〃	107
崇禎紀元後四己未增廣	〃	1859	〃	〃	〃	108
崇禎紀元後四年辛酉式	〃	1861	〃	〃	〃	109
崇禎紀元後四甲子式	〃	·1864	〃	〃	〃	110
崇禎紀元後四丁卯式年	〃	1867	〃	〃	〃	111
崇禎紀元後四庚午式年	〃	1810	〃	〃	〃	112
崇禎紀元後五癸酉式	〃	1873	〃	〃	〃	113
崇禎紀元後五甲戌增廣別試	〃	1874	〃	〃	〃	114
崇禎後五庚辰增廣別試司馬榜目		·1880	〃	〃	〃	117
崇禎紀元後五壬午式	〃	·1882	〃	〃	〃	118
崇禎紀元後四壬午增廣	〃	1822	〃	〃	〃	119
崇禎紀元後五乙酉式年	〃	1885	〃	〃	〃	120
崇禎紀元後五戊子式年	〃	·1888	〃	〃	〃	121
崇禎紀元後五戊子式年	〃	1888	〃	〃	〃	122

崇禎紀元後四甲戌司馬榜目	純祖14年	1814
崇禎紀元後四甲午式 〃		1834
崇禎紀元後四庚子式 〃	顯宗6年	1840
崇禎紀元後四庚戌增廣司馬榜目	哲宗1年	1850
崇禎紀元後四庚午式 〃		1810
崇禎紀元後四癸卯式 〃		1843
崇禎紀元後四己酉式 〃		1849
崇禎紀元後四辛卯式 〃		1831
崇禎紀元後四戊子式 〃		1828
崇禎紀元後四戊申增廣 〃	憲宗14年	1848
崇禎紀元後四丙午式 〃		1846
崇禎紀元後四乙卯式 〃		1855
崇禎紀元後四乙未慶科增廣司馬榜目	憲宗1年	1835
崇禎紀元後四壬午增廣司馬榜目		1822
崇禎紀元後五乙酉式年 〃	高宗22年	1825
崇禎百十七年甲子式 〃		1684
崇禎三庚戌增廣 〃		1790
崇禎三癸亥春大殿中宮殿疹候平復合二慶慶科別試增司馬榜目		1803
崇禎三己酉式 〃		1789
崇禎三辛秋式年 〃		純祖1年
崇禎三壬子式年 〃	正祖13年	1792
崇禎後五庚辰增廣 〃	高宗17年	1880
乙酉式年司馬榜目		
乙卯式年司馬榜目		
乙酉式生員四祖		
癸巳合六慶大增廣司馬榜目		
丁酉式年司馬榜目		正祖1年
國朝以後耆老所堂上先生案		
承旨先生案		
清選考		
湖堂先生案		
丙子司馬榜目 榜目		宣祖九年
乙丑增廣司馬榜目		純祖五年
乙酉式年司馬榜目		英祖41年
甲午式年 〃		高宗31年
甲戌增廣 〃		英祖30年
甲戌司馬榜目		純祖14年
己巳增廣司馬榜目		肅宗15年
己酉式年 〃		英祖5年

癸卯式年 〃	顯宗 4 年	
庚寅增廣 〃	肅宗36年	
庚戌增廣 〃	哲宗 1 年	
癸酉式年 〃	英祖29年	
壬午式年司馬榜目	仁祖20年	
增廣司馬榜目	肅宗10年	
戊午式司馬榜目	哲宗 9 年	
生員進士榜	中宗 8 年	
司馬榜目	宣祖12年	
司馬榜目	顯宗14年	
司馬榜目	正祖15年	
司馬榜目	純祖 6 年	
辛丑增廣司馬榜目	顯宗 2 年	
崇禎紀元後四甲子式司馬榜目	高宗1年 1864	
崇禎再庚申增廣司馬榜目	肅宗6年 1740	
崇禎三丙午式年 〃	正祖10年 1786	

第5節 驪州郡 教育 現況

Ⅰ. 우리나라 教育制度의 變遷

1948年 8月 15日 정부가 수립되어 우리의 建國 理念에 부합한 교육의 기본법인 교육법이 제정되어 1949年 12月 31日에 公布되었다. 教育의 이념과 목적, 방침, 행정체계, 學制를 규정한 同法은 憲法의 基本精神을 反映하고 있다.

1950년 3月 10日 學制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6, 3, 3, 4制의 學制가 수립되었으며 1952年 5月 24日에는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各級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郡에는 教育區가 설치되어 일반 행정에서 教育이 독립되었으나 1962年 1月 1日 다시 일반 행정기구에 併合 운영되어 오다가 1964年 1月 1日 교육자치제가 부활되어 특별시와 道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市郡에는 교육청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특별시 및 직할시 교육위원회 밑에 교육구청이 설치되어 있다.)

1980年 9月 教育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시책으로 과외가 빚은 교육의 非理가 일소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었다.

교육과정의 변천을 보면 1954年에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表」를, 1955年에 「教育課程」을 公布하여 教育法上 明示된 教育理念과 새로운 교육사조에서 强調되는 全人的 兒童中心的 이상을 反映하여 學生의 經驗과 生活에서 發見되는 問題를 中心으로 한 폭넓은 領域의 單元을 따라 학습이 전개되도록 지도방법이 모색되었으며 노학교육이 强調되었다. 그러나 外國의 教育思潮를 받아들인 결과 韓國 教育이 당면한 문제를 검토하고 소화시킬 여유도 없이 많은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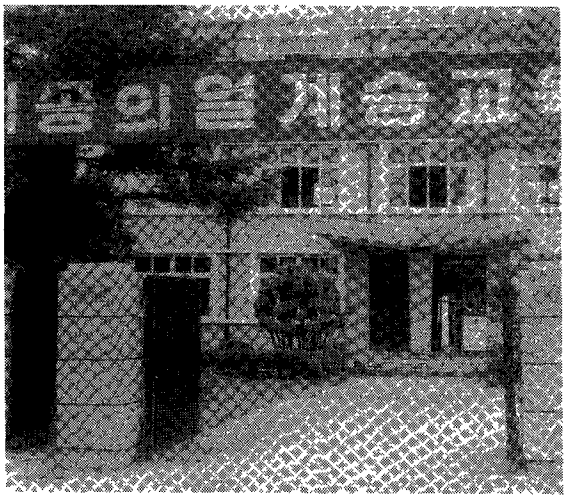
점과 미비점을 남기게 되었다.

1963年에 從前의 「時間配當 基準表」와 「교육과정」을 묶어서 「교육과정」으로 하였고 교과활동과 반공도덕 및 특별활동의 3코오스에서 교육과정의 전체구조를 갖추고 내용에 있어서 自主性,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고 조직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성을 期하고자 하였다. 특히 내용면에 있어서 국가 민족의 自主性을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歷史課程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 개정 교육과정은 國民敎育憲章의 이념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지식과 기술교육의 쇄신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구체화된 학교 교육의 일반목표에서는 自我現實과 국가발전 및 민주적 가치 등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첫째로 교육의 방향에서 국민정신 교육의 强化이며 둘째는 교육의 방법적 원리에서 학문 접근방식을 교육과정의 배경으로 한 것이다.

2. 驪州郡 敎育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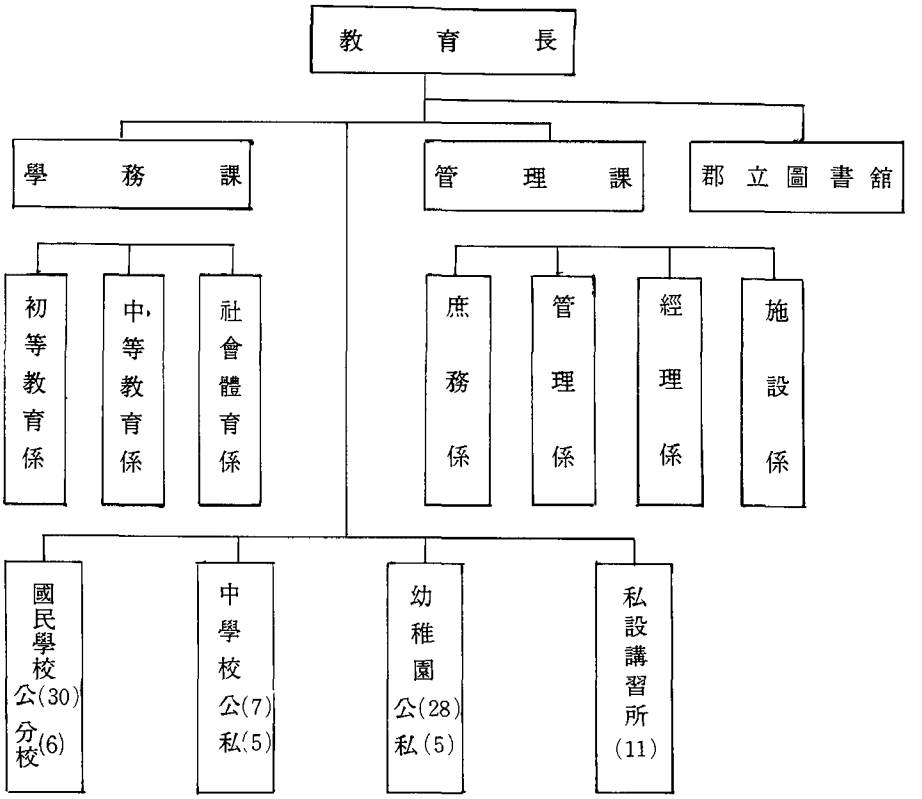
(1) 沿革



여주 교육청

驪州郡 교육청은 1952년 6월 4일 각 邑, 面에 1명씩 교육위원이 선임되어 교육위원회를 구성, 이들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 1953年 1月 1日 初代 李起活 敎育監이 就任 郡 교육업무를 管掌하다가 1962年 1月 1日 군사혁명위원회의 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에 관한 특별조례에 의거 자치제가 폐지되고 교육행정 업무가 군청으로 흡수 되었다가 1963年 12月 5日 교육법이 개정되고 1964年 1月 1日 公布되므로서 敎育自治制가 부활되어 道는 교육위원회를 구성,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選出토록 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군은 교육장이 임명되어 郡 교육업무를 관장토록 되었으며 1964年 3月 20日 初代 강중호 교육장이 就任 현위치인 驪州邑 上里 201番地의 한옥으로 이전개청 하였고, 1967年 5月 31日 철근 콘크리트 3층 슬라브, 연건평 83.56坪의 新廳舍를 신축 하였으며 1973年 1月 31日 교육법이 개정되어 중학교 감독권을 道로부터 위임받아 현재 幼稚園 33, 국민학교 30(分校 6), 중학교 12교를 관장하고있다.

(2) 機 構



(3) 職員現況

職種 區分	合計	別定職				一般職							
		計	教育長	奬學官	奬學士	計	五級	六級	七級	八級	九級	雇傭員	備考
定員	34	9	1	1	7	25	1	4	7	4		9	
現員	34	9	1	1	7	25	1	4	5	3	3	9	
過不足									△2	△1	3		

(4) 歷代教育監 및 教育長 名單

教育監

代順	姓名	在任期間	備考
初代	李起浩	1953. 1. 1～1954. 3. 8	
2代	李瓘夏	1954. 3. 9～1958. 3. 30	
3代	이기섭	1958. 4. 1～1961. 4. 9	
4代	송창섭	1961. 12. 30	

教育長

代 順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初 代	강 중 호	1964. 3. 20~1966. 4. 14	
2 代	韓 善 永	1966. 4. 15~1968. 2. 14	
3 代	韓 學 洙	1968. 2. 15~1969. 8. 31	
4 代	李 瓘 夏	1969. 9. 1~1971. 8. 31	
5 代	洪 起 杓	1971. 8. 31~1976. 2. 28	
6 代	李 炳 求	1976. 3. 1~1977. 10. 31	
7 代	尹 榮 鳳	1977. 11. 1~1978. 11. 2	현직 사망
8 代	閔 榮 駿	1978. 11. 24~1984. 8. 31	
9 代	白 承 權	1984. 9. 1~1986. 8. 31	
10 代	丁 海 福	1986. 9. 1~	

(5) 1986年度 主要業務計劃

教 育 指 標

調和·創造의 愛國人育成

教育行政指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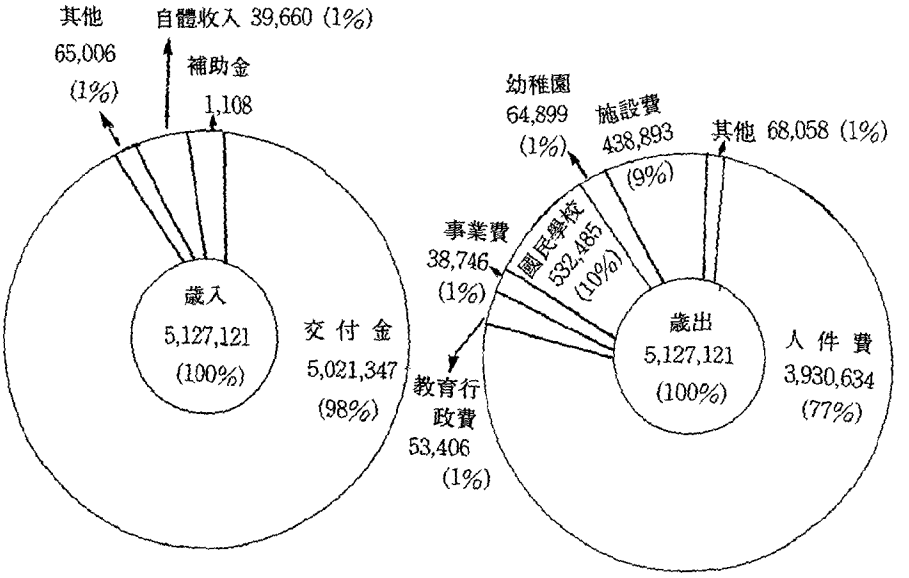
1. 實力있는學生
2. 尊敬받는教員
3. 支援하는行政

教 育 施 策

1. 國民精神教育의 深化
2. 全人教育의 充實
3.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4. 尊敬받는 스승像 定立
5. 教室中心行政強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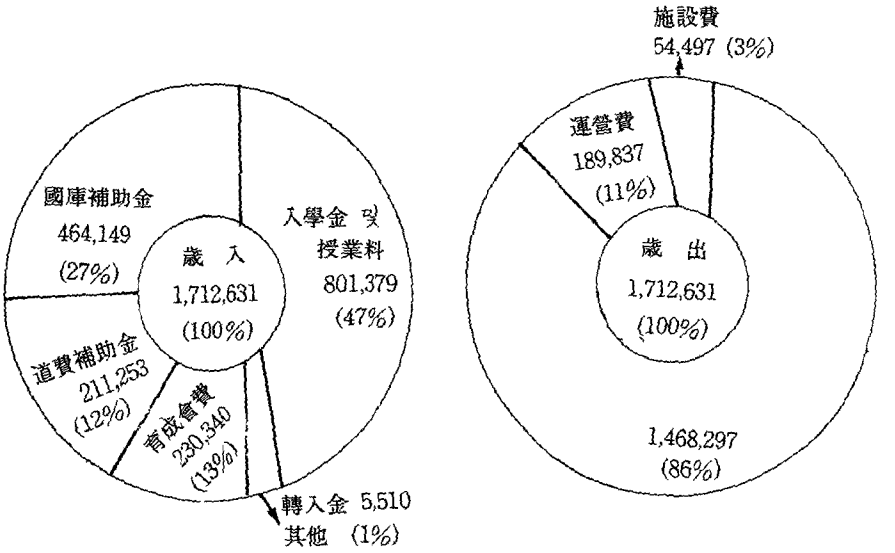
(6) 財政現況

1) 國民學校



※ 學生 1 人當 投資額; 幼 稚 園 : 200, 000
國民學校 : 370, 000

2) 中學校



※ 學生 1 人當 投費額 259,000
學生 1 人當年間納付額 156,000

(7) 力點事業 및 特色事業

1) 力點事業

① 學生活動 爲主의 授業 實施	○ 授業技術研修 徹底 ○ 實驗 및 探究學習方法의 定着 ○ 自律學習方法의 定着 ○ 基礎學力의 責任制 實施
② 사랑과 感化中心의 生活指導	○ 基本生活 習慣指導 ○ 사랑과 感化주기 ○ 教育相談制 運營 充實 ○ 學生事故의 未然 防止
③ 優秀體育 特技者의 育成 指導	○ 科學的인 優秀選手 發掘 指導 ○ 基本運動能力의 均衡的 指導 ○ 體育特記種目 指定 指導 ○ 體育選手育成 底邊 擴大
④ 學徒愛鄕隊運營의 充實	○ 鄕土文化 遺蹟地 巡禮 ○ 고장의 얼 繼承教育 實踐 ○ 愛鄕隊 實踐德目의 生活化 ○ 三愛三行運動의 實踐 ○ 敬老孝親 教育의 深化

2) 特色事業

① 世宗의 얼 繼承教育	○ 世宗의 얼 教科連繫指導 ○ 世宗의 얼 生活實踐 ○ 世宗의 얼 錄化資料製作活用
② 地域奬學 協議會 運營	○ 奬學課題 選定實踐 ○ 地域別 授業研究 實施 ○ 地域別 教育行事推進 ○ 先進學校 優秀事例 一般化
③ 讀書의 生活化 指導	○ 圖書確保 및 讀書施設의 擴充 ○ 多讀 및 速讀을 위한 指導 ○ 教職圖書읽기의 義務化

(8) 驪州學徒愛鄕隊 三愛三行運動

○. 내 고장 사랑 (鄕土愛)
아름다운 고장가꾸기－清潔整頓 잘하기
명랑한 고장가꾸기 －親切하기 禮節지키기
품위있는 생활하기 －秩序지키기 協同生活하기

○. 내 民族 사랑 (民族愛)
이웃 사랑하기 －불우이웃돕기, 인사잘하기
아름다운 전통 이어받기－傳統藝術 배우기
한국인의 긍지 갖기 －文化財保護 가꾸기, 내 나라 내 民族 자랑하기

○. 내 나라 사랑 (國家愛)
國旗, 國家에 대한 禮節지키기－國旗降下式禮節지키기
國旗保存, 愛國歌 바로부르기
貯蓄하기－1人1通帳 갖기, 國産品 쓰기, 物資아껴쓰기
反共精神갖기－防衛誠金보내기, 不穩文書收去하기,
間諜申告하기, 慰問品보내기

(9) 各級學校別 現況

區 分	設立別	學校數	學生數	教員數	備考
計	計	75(6)	19,342	595	
	公	65(6)	16,510	516	
	私	10	2,832	79	
幼稚園	計	33	1,154	25	
	公	28	898	18	
	私	5	256	7	
國民學校	公	30(6)	11,584	384	
中學校	計	12	6,604	186	
	公	7	4,028	114	
	私	5	2,576	72	
私設講習所	私	11	840	32	
高等學校	計	9	5,720	205	
	公	4	2,193	98	
	私	5	3,527	107	

(10) 새마을幼兒園 運營

○ 對 象 —— 41個所 1,160 名
幼兒園 —— 17 〃 727 〃
託兒所 —— 24 〃 433 〃

○ 教師現況

區 分	計	正 教 師	準 教 師	無資格教師	備 考
計	45	15	—	30	
幼 兒 園	21	15	—	6	
託 兒 所	24	—	—	24	

○ 改補修 計劃

事 業 別	對 象 施 設	支 援 額	備 考
建 物 補 修	1 個 所	2,800 千원	

○ 教職員 處遇改善

- 醫療保險惠澤 —— 3名
- 賞與金支給 —— 1回
- 勤續給支給 —— 21名

국민학교 현황

1985. 12. 31 현재

읍면별	구분 학교명	본교	분교	주 소	설립년월일	학급수	학생수	평균인원	보유교실	교직원수 교원	교직원수 사무실	전화번호	비고
여주읍	여 주 교			창 리 15	1909. 4. 5	32	1,666	52.1	29	35	4	여주2021	
	연 라 교			월송리산31-2	1971. 3.14	6	166	27.7	6	8	2	〃 3042	
	여 흥 교			상 리 산110	1965. 3.27	19	955	50.3	19	22	2	〃 2345	
	점 봉 교			점봉리 366	1923. 4.29	13	580	44.6	13	16	2	〃 3033	
점동면	점 동 교			장안리 113	1923. 4.29	12	399	33.3	12	14	2	점동 25	
	당 현 교			당진리 262	1968.12.24	6	126	21	6	8	2	〃 9	
	안 평 교			장안리 480	1942. 4. 2	6	135	22.5	6	8	3	〃 43	
	뇌 곡 교			뇌곡리 172	1939. 5.23	6	198	33	6	8	2	〃 59	
가남면	가 남 교			태평리 73	1921. 7.21	20	989	49.5	20	23	2	가남 77	
	오 산 교			오산리 237	1946.12. 1	8	309	38.6	8	10	2	〃 203	
	금 당 교			금당리 711	1941.12. 2	7	281	40.1	7	9	2	금당 4	
	송 삼 교			송림리 212	1968. 4. 1	6	208	34.7	6	8	2	가남 73	
능서면	능 서 교			신지리 804	1930. 8.22	12	439	36.6	12	14	2	능서 8	
	매 류 교			마래리 144	1958. 4. 1	9	345	38.3	9	11	2	〃 47	
	능 북 교			백석리 11	1964. 4. 7	6	194	32.3	6	8	2	〃 59	
흥천면	흥 천 교			효지리 389	1930. 8.29	12	466	38.8	12	14	2	흥천 25	
	문 장 교			문장리 373	1938. 5. 1	6	253	42.2	6	8	2	〃 104	
금사면	이 포 교			이포리 248	1919. 4. 1	8	300	37.5	8	10	2	이포 17	
	하 호 교			하호리 산 1	1958. 4. 1	6	105	17.5	6	8	2	〃 116	

	상 품 교		상품리 12	1937.10.27	8	294	24.3	8	10	4	상품 77	
		주록	주록리 40	1962. 3.10	2	21	10.5	2	2	1	〃	
	대 신 교		율촌리 384	1927. 4.15	17	663	39	17	20	2	대신 9	
		옥촌	옥촌리 848	1970. 3.13	5	89	17.8	5	5	1	〃 145	
대신면	천 남 교		천남리 103	1935. 4. 7	11	386	35.1	11	13	2	〃 47	
		상구	상구리 13-3	1976. 4.27	2	34	17	2	2	1	〃	
	송 촌 교		송촌리 504	1955. 5. 1	6	191	31.8	6	8	2	〃 203	
	북 내 교		당우리 175	1919.12.28	15	583	38.9	15	17	2	북내 5	
	운 암 교		중암리 634	1969. 3. 1	6	128	15.2	6	8	2	〃 74	
북내면	주 암 교		주암리 174	1934. 4. 1	7	227	21.3	7	9	2	〃 319	
	오 학 교		오학리 105	1958.10. 6	16	693	43.3	16	18	2	여주2663	
		오금	오금리 83	1966.12. 6	2	25	12.5	2	2	1	〃 5257	
	강 천 교		간매리 488	1932.10.22	7	276	39.4	7	9	2	강천 5	
		대둔	대둔리 32	1946. 6.21	3	39	13	3	3	1	〃 309	
강천면	걸 은 교		걸은2리 625	1979. 3.27	6	142	23.7	6	8	2	66 〃 66	
	강 남 교		굴암리 산 14	1971. 3. 1	6	126	21	6	8	2	75 〃 75	
	도전 교		도전2리 177	1948. 4. 1	5	76	15.2	5	5	2	— —	
합 계					324	12,107	37.4	321	389	73		

중 학 교 현 황

1985.12.31 현재 단위 : 명

항 목			주 소	설립년월일	학급수	학생수	보교실유수	교직원		비 고
								교원	사무직원	
공	여주읍	여 주 중	능서면 왕대리 973	1945. 3.31	18	1,151	18	29	4	
		여주여중	여주읍 상리 1445-5	1952. 4.23	17	1,035	17	27	4	
립	점동면	점 동 중	점동면 정안리 산 7	1954. 7. 7	9	519	9	15	2	
중	흥천면	흥 천 중	흥천군 효지리 29-3	1971. 1. 9	6	333	6	11	3	
학		이 포 중	흥천면 계신리 468	1960. 3. 2	6	391	6	10	2	
교	금사면	상 품 중	금사면 상품리 153	1971.12.27	5	216	5	11	3	
	강천면	강 천 중	강천면 간매리 222-	1978. 3. 1	6	301	6	12	3	
소 계			2		67	3,946	67	115	21	
사	대신면	대 신 중	대신면 후포리 164	1953. 7.14	7	410	7	12	4	
립		창명여중	대신면 율촌리 271	1950. 5.20	6	343	6	10	4	
중	가남면	여주동중	가남면 심석리 265	1954. 7.26	12	759	12	18	5	
학	능서면	새 정 중	능서면 매류리 337	1955. 4. 9	6	355	6	11	4	
교	북내면	여 강 중	북내면 신접리 200	1970.11.29	12	660	12	18	5	
소 계					43	2,527	43	68	22	
총 계					110	6,742	110	134	43	

고 등 학 교 현 황

1985.12.31 현재 단위 : 명

항목			주소	설립년월일	학급수	학생수	보유교실수	교직원		졸업생	진학생	신입생	비고
								교원	사무직원				
공립고등학교	여주읍	여주농고	여주읍 하리 산 4	1945. 5.10	15	613	15	36	23	246	1	200	
		여주여종고	여주읍 상리 144-5	1955. 5. 3	17	939	17	31	4	341	83	324	
	점동면	점동종고	점동면 청안리 122	1975.11.14	6	334	6	13	2	117	5	116	
	금사면	이포고	흥천면 계신리 468	1974.12.27	6	341	6	12	2	111	10	114	
소계					44	2,227	44	92	31	815	99	764	
사립고등학교	여주읍	여흥고(인문)	여주읍 흥문리 181	1974. 1. 5	14	808	14	24	6	219	106	293	
	가남면	여주상고	가남면 심석리 265	1968.12. 3	17	962	17	29	6	276	16	350	
	대신면	대신고(인문)	대신면 후포리 164	1955. 2.16	11	552	11	16	2	154	57	220	
		창명여고	대신면 울촌리 271	1774.10.31	10	568	10	16	2	45	19	232	
	북내면	여강종고	북내면 신접리 200	1974. 1.15	9	500	9	26	1	171	10	174	
소계					61	3,390	61	101	17	965	208	1,269	
합계					105	5,617	105	193	48	1,780	307	2,033	

유 치 원 현 황

1985.12.31 현재 단위 : 명

읍면별	공사립별	원명	개원년월일	소재지	학급		학생		교원수	비고
					인가	편성	인가	편성		
여주읍	공립	여주국민학교병설유치원	1982. 2.10	여주읍 창리 15	1	1	40	40	—	
	〃	연라 〃 〃	1983. 3.10	월송리 31-2	1	1	40	22	—	
	〃	여흥 〃 〃	1981. 3.10	상리 110	1	1	40	40	—	
	〃	점봉 〃 〃	1982. 2.10	점봉리 336	1	1	40	38	1	
	사립	여주유치원	1980. 3. 5	창리 68	2	2	80	64	2	
	〃	소화 〃	1984.10. 7	하리 215	2	2	80	80	2	
	〃	아람 〃	1984. 3. 2	상리 319-4	1	1	40	25	1	
	〃	백합 〃	1985. 3. 2	하리	1	1	40	40	2	
점동면	공립	점동국민학교병설유치원	1981. 3.10	점동면 청안리 133	1	1	40	37	1	
	〃	당현 〃 〃	1981. 3.10	당진리 262	1	1	40	18	1	
	〃	안평 〃 〃	1981. 3.10	장안리 480	1	1	40	23	—	
	〃	뇌곡 〃 〃	1981. 3.10	뇌곡리 172	1	1	40	25	1	
가남면	〃	오산 〃 〃	1981. 3.10	가남면 오산리 237	1	1	40	40	—	
	〃	금당 〃 〃	1981. 3.10	금당리 710	1	1	40	34	1	
	〃	가남 〃 〃	1985. 3.12	대평리 74	1	1	40	40	—	
	〃	송삼 〃 〃	1985. 3.12	송림리 212	1	1	40	39	—	
	사립	가남유치원	1981. 3.10	심석리 409	1	1	40	40	1	
	공립	능서국민학교병설유치원	1981. 3.10	능서면 신지리 804	1	1	40	40	1	

능서면	〃	매류 〃	〃	1981. 3.10	마래리 144	1	1	40	42	1	
	〃	능북 〃	〃	1981. 3.10	백석리 11	1	1	40	16	—	
흥천면	〃	흥천 〃	〃	1981. 3.10	흥천면 효지리 389	1	1	40	36	1	
	〃	문장 〃	〃	1983. 3.10	문장리 373	1	1	40	32	1	
금사면	〃	이포 〃	〃	1981. 3.10	금사면 이포리 248	1	1	40	37	1	
대신면	〃	대신 〃	〃	1981. 3.10	대신면 울촌리 384	1	1	40	40	1	
	〃	천남 〃	〃	1981. 3.10	천남리 103	1	1	40	40	1	
	〃	송촌 〃	〃	1983. 3.10	송촌리 504	1	1	40	34	1	
북내면	〃	북내 〃	〃	1981. 3.10	북내면 당우리 173	1	1	40	40	1	
	〃	운암 〃	〃	1981. 3.10	중암리 634	1	1	40	19	1	
	〃	주암 〃	〃	1981. 3.10	주암리 174	1	1	40	19	1	
	〃	오학 〃	〃	1982. 3.10	오학리 105	1	1	40	40	—	
강천면	〃	강천 〃	〃	1981. 3.10	강천면 간매리 488	1	1	40	40	1	
	〃	걸은 〃	〃	1981. 3.10	걸은2리625	1	1	40	11	1	
	〃	강남 〃	〃	1985. 3.10	굴암리 14	1	1	40	7	—	
합 계						35	35	1,400	1,134	25	

사 설 강 습 소 현 황

1985.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 명칭	주 소	개원년월일	시설내역				기정개수	교직원수		수강자수			이수자수			비고
			계	강의실수	사무실수	기타		강사	사무원	계	남	여	계	남	여	
여주주산학원	여주읍 홍문리 105	1968. 1.10	3	2	1	—	3	2		130	21	109	548	130	418	
북내주산학원	북내면 당우리 152-4	1974. 8.21	2	1	1	—	2	1	1	52	20	32	283	83	200	
가남경리학원	가남면 태평리 175	1976. 8.10	3	2	1	—	3	2		731	208	523	413	154	259	
여광직업보도원	여주읍 홍문리 15	1960. 4. 1	16	7	9	—	7	10	5	120	100	20	125	83	42	
여 주 청 도관	여주읍 하리 251-5	1980.11.24	2	1	1	—	1	1		60	060	—	10	10	—	
대정경리학원	여주읍 창리 61-1	1982.12. 9	3	2	1	—	2	3	1	152	47	105	1,536	481	1,055	
여주미술학원	여주읍 하리 288	1983. 8. 9	2	1	1	—	1	2	1	68	27	41	50	21	29	
햇님미술학원	여주읍 창리 74-1	1984. 4.30	2	1	1	—	1	1	1	20	12	8	20	12	8	
여주컴퓨터학원	여주읍 창리 61-1	1984.10. 8	2	1	1	—	1	1	1	29	22	7	60	40	20	
홍익미술학원	여주읍 하리 291-5	1984.12. 4	2	1	1	—	1	2	1	60	27	33	53	22	31	
중앙웅변학원	여주읍 하리 281-15	1985. 3.25	2	1	1	—	1	1	1	40	27	13	33	21	12	
합 계			39	20	19	—	23	26	12	1,462	571	891	3,131	1,057	2,074	

새마을幼兒園 現況

幼兒園名	位置	開設日 當年開園日	園長名 姓名	園長名 年齡	教師名 計	教師名 2級正教師	教師名 準教師	教師名 補助教師	幼兒數 計	幼兒數 男	幼兒數 女
計									727	377	357
여 흥	여주읍 하 리	82. 3. 27 86. 3. 7	김희숙	51	3	이현숙 정재원		김희옥	113	51	64
단 현	〃 단현리	81. 5. 7 86. 3. 8	안병소	41	1	최옥인			24	14	10
능 현	〃 능현리	68. 3. 10 86. 3. 24	전인구	52	1	최인숙			42	23	19
하 거	〃 하거리	81. 5. 19 86. 3. 11	박정심	53	1			권오숙	24	6	18
처 리	점동면 처 리	83. 6. 13 86. 3. 14	임학선	43	1	이재희			20	8	12
백 합	가남면 금당리	80. 3. 11 86. 3. 15	김시윤	30	1 1			원선희	62	30	32
삼 군	〃 삼군리	74. 3. 15 86. 3. 6	최종우	44	1 1 1			김학녀	84	55	29
여 주	능서면 신지리	81. 3. 5 86. 3. 7	송승윤	54	1 1 1	윤희열			40	22	18
신 근	흥천면 신근리	81. 4. 26 86. 3. 10	권태철	54	1	임상선			34	21	13
복 대	흥천면 복대리	81. 5. 16 86. 3. 6	윤헌석	30	1			곽윤희	18	9	9
산 북	금사면 상품리	75. 3. 21 86. 3. 7	김옥순	40	2	임선자		이을순	66	36	30
레 몬	금사면 이포리	81. 6. 4 86. 3. 12	구주순	42	1			유경숙	23	9	14
보 통	대신면 보통리	81. 6. 8 86. 3. 7	김영창	75	1	김복순			13	7	6
대 신	〃 율촌리	81. 5. 21 86. 3. 11	김영차	44	1			김정덕	34	13	21 21
율 촌	〃 율촌리	79. 4. 25 86. 3. 11	김영창	75	1	안명옥			38	20	18 18

벧 엘	〃 하림리	81. 5. 10 86. 3. 10	김정오	31	1	안문금			32	15	17 17
한 강	북내면 현암리	76. 3. 5 86. 3. 6	황재일	41	2	장옥자		주영자	60	31	29 29

3. 國民學校 現況

(1) 驪州國民學校

①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 15번지

② 學校 沿革

○1909. 5.27 : 여주 보통 학교 개교

○1966. 3. 1 : 여흥 국민 학교 10학급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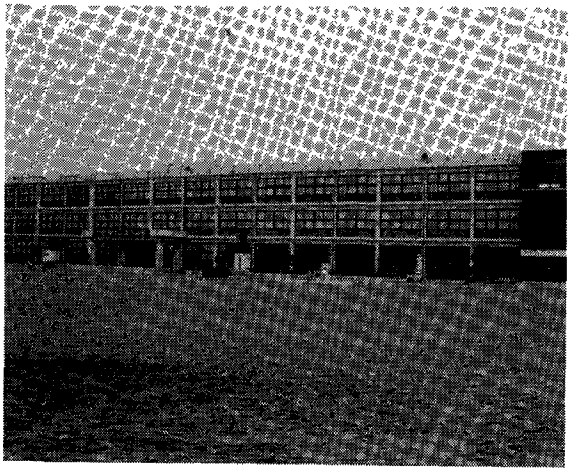
○1976. 3. 1 : 연라 국민 학교 6학급 분리

○1985. 2.15 : 제76회 졸업식(281명)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수

11,950명(남 6,579 여 5,371)

④ 학급 편성 현황



여주국민학교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5		5		5		6		5		6		32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267	139	298	151	272	140	289	146	2,264	141	295	145	1,679	682

⑤ 교직원 수

교원 : 35명 일반직 : 1명 고용원 : 3명 계 : 39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6.25사변시 관련장부소실로 인하여 알 수 없음
2	李 起 浩	~1954 10. 24	
3	金 溶 浩	1954. 10. 25~1957. 2. 9	
4	金 君 三	1957. 2. 9~1959. 3. 27	

5	洪 性 福	1959. 3. 27~1961. 3. 31	
6	金 鳳 鉉	1961. 3. 31~1961. 10. 30	
7	金 八 福	1961. 10. 30~1966. 4. 15	
8	李 晶 秀	1966. 4. 15~1968. 3. 1	
9	高 泰 永	1968. 3. 1~1970. 3. 6	
10	李 錫 潞	1970. 3. 6~1973. 8. 31	
11	李 起 孝	1973. 9. 1~1976. 8. 31	
12	林 演 彬	1976. 3. 1~1980. 2. 29	
13	姜 大 王	1980. 9. 1~1982. 8. 81	
14	李 昇 勳	1982. 9. 1~1982. 現在	

(2) 연라 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산 31번지

② 학교 연혁

○1974.12.11 : 여주국민학교 5개교실 준공

○1975. 3.14 : 여주 국민 학교 연라 분교장 개교식 거행

○1976. 3. 1 : 연라 국민 학교 인가(6학급 편성)

○1976. 5. 8 : 개교식 거행

○1985. 2.15 : 제9회 졸업식 거행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382명(남 208 여 174)

④ 학급 편성 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9	9	21	9	27	15	32	14	27	14	43	18	169	79

⑤ 교직원 수

교원 : 8명 일반직 : 0명

고용원 : 2명 계 : 10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이 병 태	1976. 3. 1~1978. 8. 30	
2	강 덕 률	1978. 9. 1~1982. 8. 30	
3	최 홍 규	1982. 9. 1~ 現 在	

(3) 여흥 국민 학교

①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산 110번지

②學校 沿革

○1965.10.27 : 여흥 국민 학교 인가(10학급)

○1966.10.31 : 8개 교실 신축 낙성 및 개교

○1970. 2.14 : 제1회 졸업식 거행(172명)

○1974. 3. 1 : 특수학급 개설

○1985. 2.15 : 제16회 졸업식 거행(총 2,698명)

○1985. 3. 1 : 19학급 편성

③ 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2,698명(남 1,360 여 1,338)

④ 학급 편성 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3		3		3		4		3		3		19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57	75	157	74	149	63	150	55	157	71	161	80	927	418

⑤ 교직원 수

교원 : 22명 일반직 : 1명

고용원 : 2명 계 : 25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김 만 복	1966. 3. 1~1970. 2. 28	
2	길 현 식	1970. 3. 1~1973. 8. 31	
3	안 성 원	1973. 9. 1~1977. 8. 31	
4	강 대 옥	1977. 9. 1~1980. 2. 28	
5	공 인 규	1980. 3. 1~1982. 2. 28	
6	안 승 근	1982. 3. 1~ 現 在	

(4) 점봉 국민학교

①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336번지

② 학교연혁

○1939. 6. 1 : 점봉공립 국민학교 설립인가

○1939. 9.11 : 신축교사 낙성 이전
○1941. 4. 1 : 점봉 국민 학교로 개칭
○1977.11. 7 : 본관 12개교실 신축 완공
○1982.10. 6 : 도지정 자연과 연구 학교 2년차보고
○1984.10.25 : 군지정 종합시범 학교 공개보고
○1985. 2.15 : 제42회 졸업식
○1985. 3. 1 : 군지정 해양시범 학교 지정

④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3,792명(남 2,097 여 1,695)

⑤ 학급 편성 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2		2		2		2		3		2		13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96	45	95	54	97	45	82	42	110	52	87	47	567	285

⑥ 교직원 수

교원 : 16명 고용원 : 2명 계 : 18명

⑦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신 태 인	1945. 9. 30~1946. 11. 31	
2	김 태 홍	1946. 11. 31~1948. 3. 11	
3	유 인 영	1948. 3. 11~1950. 9. 26	
4	곽 인 환	1950. 9. 26~1952. 1. 19	
5	정 규 상	1952. 1. 20~1957. 4. 12	
6	김 태 홍	1957. 4. 13~1959. 7. 8	
7	채 홍 규	1959. 7. 8~1961. 3. 31	
8	장 홍 근	1961. 3. 31~1965. 3. 1	
9	지 한 영	1965. 3. 1~1969. 3. 1	
10	권 태 성	1969. 3. 1~1970. 2. 3	
11	리 종 국	1970. 3. 1~1980. 9. 1	
12	추 진 호	1980. 9. 1~1982. 9. 1	
13	류 갑 수	1982. 9. 1~1984. 2. 29	
14	임 규 면	1984. 3. 1~ 現 在	

(5) 점동 국민학교

①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17번지

② 학교 연혁

○1923. 4.29 : 점동공립보통학교 개교

○1967. 4.30 : 운동장 확장

○1979. 6.13 : 야외관찰장 설치

○1980.10. 6 : 전관 3 교실 준공

○1981. 8.10 : 전관 3 교실 개축

○1982. 7.20 : 전관 3 교실 2 층 준공

○1984.11.23 : 전관 3 교실 2 층 준공

○1985. 2.14 : 제60회 졸업식 거행(총 4,254)

○1985. 3. 1 : 12학급 인가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총 수 : 4,254명(남 2,433 여 1,864)

④ 학급 편성 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2		2		2		2		2		2		12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60	32	61	27	60	21	69	42	68	37	80	45	398	204

⑤ 교직원 수

교원 : 15명 일반직 : 1 명

고용원 : 2 명 계 : 17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山 本 利 吉	1923. 4. 30~1929. 3. 9	
2	横 見 竹 七	1929. 3. 10~1931. 9. 9	
3	松 本 國 光	1931. 9. 10~1939. 3. 9	
4	中 村 喜 代 松	1939. 3. 10~1945. 8. 15	
5	柳 仁 永	1945. 9. 28~1949. 9. 4	
6	金 泰 興	1949. 9. 5 ~1950. 6. 25	
7	韓 承 運	1950. 10. 10~1952. 7. 17	
8	魯 濟 淳	1952. 7. 18~1953. 4. 14	
9	鄭 寅 哲	1953. 4. 15~1954. 5. 11	

10	柳 寅 穆	1954. 5. 12~1956. 9. 3	
11	張 漢 哲	1956. 9. 4 ~1958. 5. 4	
12	鄭 方 時	1958. 5. 5 ~1960. 6. 28	
13	禹 相 坤	1960. 6. 29~1964. 9. 30	
14	李 志 仁	1964. 10. 1 ~1966. 9. 9	
15	李 光 淵	1966. 9. 10~1972. 2. 29	
16	鄭 聖 國	1972. 3. 1 ~1980. 8. 31	
17	崔 吉 成	1980. 9. 1 ~1981. 11. 30	
18	趙 東 雲	1981. 12. 1 ~1985. 2. 22	
19	姜 泰 熙	1985. 3. 1~ 現 在	

(6) 당현 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 262번지

② 學校 沿革

○1963. 5.18 : 점동 국민 학교 당현분교 설립인가

○1969. 4.10 : 당현 국민 학교 설립인가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613명(남 292 여 321)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6	7	23	12	18	9	21	12	20	10	26	12	124	62

⑤ 교직원 수

교원 : 9명 일반직 : 0명

고용원 : 2명 계 : 11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조 동 운	1969. 3. 1 ~1973. 12. 9	
2	김 창 호	1973. 12. 10~1979. 8. 30	
3	이 기 선	1979. 9. 1~ 現 在	

(7) 안평 국민학교

①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장안리 480번지

② 學校 沿革

○1935. 4.10 : 점동 공립 보통학교 부설 장안 간이학교 설립인가

○1942. 4. 1 : 장안 공립 국민학교로 개칭

○1946. 2. 1 : 안평 국민 학교로 개칭

○1949. 3.24 : 제 1 회 졸업생 배출

○1977. 6. 6 : 급식 조리실 신축

○1977. 9. 1 : 벽지형 급식학교 운영

○1977.12.25 : 급식조리실 4 평 확장

○1983. 7. 5 : 식당준공(42평)

○1984. 7.14 : 2 개교실 개축

○1985. 2.15 : 제37회 졸업식 거행

○1985.12. 2 : 4 개교실 및 사택 1 동 개축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1,460명(남 782 여 678)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8	9	23	11	21	10	24	11	22	13	26	15	134	69

⑤ 교직원 수

교원 : 8 명 일반직 : 1 명

고용원 : 3 명 계12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柳 仁 永	1946. 2. 1 ~1948. 5. 25	
2	韓 承 遠	1948. 5. 26~1950. 2. 26	
3	金 九 煥	1950. 2. 27~1952. 7. 17	
4	嚴 基 燮	1952. 7. 18~1954. 6. 6	
5	朴 昌 遠	1954. 6. 7 ~1957. 4. 12	
6	辛 漢 承	1957. 4. 13~1964. 3. 19	
7	金 萬 福	1964. 3. 20~1966. 2. 28	

8	李 命 浩	1966. 3. 1～1969. 2. 28	
9	李 淳 求	1969. 3. 1～1972. 2. 28	
10	崔 永 軾	1972. 3. 1～1973. 2. 28	
11	張 炳 鎬	1973. 3. 1～1973. 8. 31	
12	李 完 炯	1973. 9. 1～1976. 8. 31	
13	朴 達 泳	1976. 9. 1～1980. 8. 31	
14	金 舜 中	1980. 9. 1～1986. 2. 28	
15	金 文 永	1986. 3. 1～ 現 在	

(8) 뇌곡 국민학교

①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뇌곡리 172번지

② 학교 연혁

○1939. 4. 1 : 점동 공립보통학교 부설 뇌곡간이학교 설립인가

○1939. 5.23 : 개교

○1946. 4. 1 : 점동 공립 국민학교 뇌곡 분교장 인가

○1950. 5. 1 : 뇌곡 국민 학교로 승격인가

○1950. 5. 9 : 제 1 회 졸업식 거행

○1959.10.23 : 교사이전 신축(4 개교실 준공)

○1965. 8.15 : 신축교사(2 개교실)준공

○1968. 7.10 : 교실증축(4 개교실)준공

○1973. 3. 2 : 12학급 인가

○1985. 2.15 : 제36회 졸업식 거행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1,757명(남 920 여 837)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23	8	29	15	29	14	34	18	31	14	49	32	195	101

⑤ 교직원 수

교원 : 8 명

고용원 : 2 명 계 : 10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유 인 형	1939. 4. 1～1948. 4. 22	점동국교교장 겸임
2	김 태 홍	1948. 4. 23～1950. 4. 30	〃
3	한 승 운	1950. 5. 1～1951. 5. 30	〃
4	한 수 표	1951. 6. 30～1953. 4. 4	
5	최 병 수	1953. 4. 5～1956. 1. 30	
6	서 병 길	1956. 1. 31～1957. 2. 8	
7	원 유 각	1957. 2. 9～1958. 6. 9	
8	장 홍 근	1958. 6. 10～1961. 3. 31	
9	박 창 원	1961. 4. 1～1964. 3..19	
10	박 윤 석	1964. 3. 20～1966. 2. 28	
11	우 용 호	1966. 3. 1～1967. 6. 14	
12	최 생 기	1967. 6. 15～1969. 2. 28	
13	안 승 근	1969. 3. 1～1974. 8. 31	
14	추 진 호	1974. 9. 1～1980. 8. 31	
15	방 태 원	1980..9. 1～1986. 2. 28	
16	최 명 진	1986. 3. 1～ 現 在	

(9) 加南 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73번지

② 學校 沿革

○1921. 7.11 : 가남 공립 보통학교 인가

○1922. 1.17 : 개교식

○1968. 5.15 : 본관 10교실

○1968.12. 1 : 본관 2층 10교실 준공

○1969.11. 1 : 본관 2층 8교실 준공

○1983. 7.31 : 강당교실 3개 교실 개축

○1985. 2.15 : 제59회 졸업식 거행

○1985. 3. 1 : 20학급 편성인가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7,162명(남 4,144 여 3,018)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3		3		3		4		4		3		20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65	83	167	76	159	76	166	86	173	80	166	93	996	493

⑤ 교직원 수

교원 : 23명 일반직 : 1명

고용원 : 3명 계 : 27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山本利吉	1922. 12. 24~1925. 3. 25	
2	杉浦逸夫	1925. 3. 26~1930. 4. 30	
3	田清堯本	1930. 5. 8~1930. 12. 23	
4	石原義重	1930. 12. 24~1940. 5. 6	
5	石橋兵矢	1940. 5. 7~1943. 9. 15	
6	松澤篤賓	1943. 9. 16~1945. 8. 14	
7	李起浩	1945. 10. 30~1945. 11. 30	
8	任德宰	1945. 12. 5~1948. 12. 15	
9	尹丁林	1949. 2. 14~1952. 5. 31	
10	李揆燮	1952. 7. 18~1958. 6. 10	
11	鄭禹教	1958. 6. 11~1959. 7. 31	
12	姜桁烈	1959. 8. 1~1963. 4. 2	
13	李炳烈	1963. 4. 3~1967. 2. 28	
14	金商晩	1967. 3. 1~1968. 9. 15	
15	成斗勳	1968. 9. 16~1972. 8. 31	
16	崔弘毛	1972. 9. 1~1977. 8. 31	
17	柳甲秀	1977. 9. 1~1982. 8. 31	
18	姜大玉	1982. 9. 1~ 現 在	

(10) 오산 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가남면 오산리 237번지

② 學校 沿革

○1946.12.11 : 가남 국민 학교 오산분교장 설립인가

○1953. 4.27 : 오산 국민학교로 승격

○1956. 3.15 : 제1회 졸업식 거행

○1970.12.30 : 2층 2개교실 준공(총 13개교실)

○1981. 3.10 : 병설 유치원 개원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1,930명(남 996 여 934)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2		1		2		8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49	26	51	21	47	18	62	40	39	19	55	34	303	158

⑤ 교직원 수

교원 : 10명 일반직 : 0 명

고용원 : 2 명 계 : 12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윤 영 목	1953. 6. 15~1954. 6. 6	
2	김 낙 준	1954. 6. 7 ~1956. 9. 3	
3	정 영 재	1956. 9. 4 ~1963. 2. 23	
4	이 광 연	1963. 3. 1 ~1966. 9. 9	
5	노 재 규	1966. 9. 10~1968. 8. 31	
6	송 하 근	1968. 9. 1 ~1972. 8. 31	
7	최 길 성	1972. 9. 1 ~1974. 8. 31	
8	조 연 휘	1974. 9. 1 ~1980. 8. 31	
9	최 홍 규	1980. 9. 1 ~1982. 8. 31	
10	이 웅 범	1982. 9. 1 ~ 現 在	

(11) 금당 국민학교

①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710번지

② 학교 연혁

○1934. 4. 1 : 금당 간이학교 설립

○1941. 8.11 : 금당국민학교 설립인가

○1941.12. 2 : 금당국민학교개교

○1946. 4.30 : 가교실 1동 증축

○1946. 6.30 : 6학급 증설 인가

○1949.10. 9 : 정규 2교실 증축

○1955.10.30 : 가교실 2교실 증축

○1956.10.21 : 정규 2교실 증축

○1960.12. 4 : 정규 2교실 증축

○1961.10.30 : 숙직실 신축

○1964. 3. 2 : 원승분실 인가
○1965. 6. 7 : 정규 2교실 증축 .
○1965.10. 1 : 원승분실 2교실 신축
○1966. 3. 2 : 원승 분교장 인가
○1967. 3. 1 : 원승 분교 2교실 증축(정규)
○1967.10.13 : 본교 2교실 증축(정규)
○1967.10.13 : 본교 화장실 1동 증축
○1967.12.13 : 원승 분교 송삼 국민학교로 인가
○1970.12. 3 : 교사 2교실 슬라브콘크리트 교실 개축
○1970.12. 3 : 교실 1교실(슬라브콘크리트 2층)신축
○1970.12. 3 : 화장실 1동 슬라브콘크리트 2층)신축
○1977.11.30 : 교실 2교실(슬라브 콘크리트)개축
○1980. 4.15 : 세종대왕 및 이순신 장군 동상 제막
○1981. 3.10 : 금당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개설
○1981. 7. 8 : 목욕실 신축
○1981. 9.18 : 독서상, 이승복 동상 제막
○1981.12.10 : 교문 진입로 19m 포장
○1982. 5. 7 : 창고 19.5평 준공
○1982.10. 2 : 교직원 사택 준공(20평)
○1983.12.20 : 교장사택 개축(대통령 하사금)
○1983.12.20 : 교원 사택 1칸 증축
○1985. 2.14 : 제40회 졸업식(졸업생 총수 2,848명)
○1985. 2.14 : 제4회 유치원 수료식(수료생 총 수 87명)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2,848명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2		1		7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36	20	46	23	47	26	49	30	56	26	44	20	278	145

⑤ 교직원 수
교원 : 10명 일반직 : 0명
고용원 : 12명 계 22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복 조 무 고	1944. 4. 10~1945. 10. 29	
2	유 인 목	1945. 10. 30~1947. 9. 30	
3	윤 정 림	1947. 9. 30~1949. 2. 14	
4	송 창 섭	1949. 2. 15~1950. 11. 30	
5	정 인 철	1950. 11. 30~1952. 7. 18	
6	김 구 환	1952. 7. 18~1955. 10. 26	
7	김 관 수	1956. 2. 7~1958. 3. 28	
8	박 윤 석	1958. 3. 28~1959. 3. 27	
9	이 여 원	1959. 3. 27~1966. 3. 1	
10	김 남 손	1966. 3. 1~1968. 3. 1	
11	안 동 희	1968. 3. 1~1970. 9. 1	
12	이 건	1970. 9. 1~1973. 3. 1	
13	송 구 섭	1973. 3. 1~1977. 9. 1	
14	이 순 교	1977. 9. 1~1980. 9. 1	
15	장 종 훈	1980. 9. 1~ 現 在	

(12) 송삼 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212번지

② 학교 연혁

○1964. 2.15 : 금당 국민학교 원승분교 1학급 인가

○1966. 1.26 : 원승 분교장으로 승격 4학급인가

○1967.12.13 : 송삼 국민 학교로 승격인가

○1968. 4. 1 : 개교식 거행(6학급)

○1971.11.13 : 관리실, 창고 각 1동씩 건립

○1972. 9. 7 : 숙직실 1동 건립

○1985. 2.15 : 제17회 졸업식 거행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714명(남 334, 여 380)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37	21	36	16	33	15	31	12	30	18	34	12	201	94

⑤ 교직원 수

교원 : 8명 일반직 : 0명

고용원 : 2명 계 : 10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박 창 수	1968. 3. 1～1970. 5. 1	
2	성 락 성	1970. 5. 2～1970. 8. 31	
3	강 대 욱	1970. 9. 1～1973. 11. 30	
4	조 동 운	1973. 12. 1～1981. 11. 30	
5	박 희 복	1981. 12. 1～1985. 10. 31	
6	배 봉 진	1985. 11. 1～ 現 在	

(13) 능서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804번지

② 학교연혁

○1931. 4. 2 : 능서국민학교 설립인가

○1956.12. 1 : 매류 분교장 설치

○1964. 3. 1 : 장수동 분교장 설치

○1979. 8.20 : 학교 공원 조성

○1981. 3. 1 : 병설 유치원 개원

○1983. 3. 1 : 12학급 편성

○1985. 2.14 : 제52회 졸업식 및 병설 유치원 제4회 수료식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수

4,626명(남2,920 여1,706)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2		2		2		2		2		2		12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67	28	73	40	71	38	62	33	73	35	86	41	432	215

⑤ 교직원수

교원 : 15명

고용원 : 2명 계 : 17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任期間	備考
1	兪哲鎭	1945. 10. 31~1949. 6. 14	※ 1945. 8. 15 이전은 미상
2	鄭寅哲	1949. 6. 15~1950. 11. 26	
3	朴淳	1950. 11. 27~1952. 1. 31	
4	李昌實	1952. 2. 1~1957. 4. 12	
5	丁奎常	1957. 4. 13~1959. 7. 7	
6	金八福	1959. 7. 8~1961. 10. 9	
7	李佾雨	1961. 10. 10~1964. 3. 19	
8	安承遠	1964. 3. 20~1970. 12. 14	
9	朴章勳	1970. 12. 15~1973. 8. 30	
10	金顯証	1973. 9. 1~1975. 8. 30	
11	崔生基	1975. 9. 1~1980. 8. 30	
12	趙連蘭	1980. 9. 1~現在	

(14) 梅柳國民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능서면 마래리 144번지

②학교 연혁

○1957. 4. 1 : 매류 국민학교 개교

○1959. 3.19 : 제 1 회 졸업식 거행

○1972. 6.29 : 본관 2층 스라브 교실 완공

○1978. 4. 8 : 새마을 교육

○최우수 학교 시상(문교부 장관)

○1985. 2.14 : 제27회 졸업식 거행

○1985. 3. 1 : 제 9 학급 편성

○1985. 3. 1 : 병설 유치원 1 학급 편성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총 수 : 2,544명(남1,309 여 1,235)

④ 학급 편성 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2		2		2		9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51	23	50	24	45	24	62	38	65	34	72	33	345	176

⑤ 교직원수

교원 : 12명

고용원 : 2 명 계 : 14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이 은 영	1958. 4. 3～1960. 6. 8	
2	박 병 희	1960. 6. 9～1961. 10. 11	
3	단 덕 수	1961. 10. 12～1967. 3. 1	
4	김 대 원	1967. 3. 2～1969. 2. 28	
5	최 생 기	1969. 3. 1～1975. 8. 31	
6	경 태 현	1975. 9. 1～1980. 4. 19	
7	이 기 선	1980. 4. 20～1981. 6. 30	
8	김 기 창	1981. 7. 1～1984. 3. 19	
9	전 인 경	1984. 3. 20～1968. 2. 28	
10	전 용 희	1986. 3. 1～ 現 在	

(15) 능북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능서면 백석 1 리 442번지

② 學校沿革

○1956. 4. 1 : 능서 국민학교 장수분실 설치

○1963. 6.13 : 능서 국민학교 능북 분교장 인가

○1964. 4. 7 : 능북 국민학교 개교(7 학급)

○1981. 3.10 : 능북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설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수

1, 379명(남671, 여708)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32	19	32	19	39	18	28	18	36	21	29	14	196	109

⑤ 교직원 수

교원 : 8 명, 일반직 : 0 명

고용원 : 2명, 계 : 10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최 홍 규	1964. 3. 27~1966. 3. 1	
2	박 창 원	1966. 3. 1 ~1973. 2. 28	
3	경 태 현	1973. 3. 1 ~1975. 8. 31	
4	박 경 렬	1975. 9. 1 ~1978. 8. 31	
5	윤 태 직	1978. 9. 1 ~1985. 8. 31	
6	이 종 선	1985. 9. 1~ 現 在	

(16) 興川國民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 389번지

② 學校 沿革

○1930. 8.29 : 흥천 공립보통학교 설립 개교

○1932. 3.25 : 제 1 회 졸업식 거행

○1941. 4. 1 : 수업연한 6 제 인가

○1950. 4. 1 : 흥천 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83. 3. 1 : 12학급 편제

○1985. 2.14 : 제52회 졸업식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4,784명(남 2,771 여 2,013)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2		2		2		2		2		2		12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71	30	72	40	68	33	76	40	84	38	87	44	458	225

⑤ 교직원 수

교원 : 15명 일반직 : 0 명

고용원 : 3 명 계 : 18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金 孝 中	1945. 4. 1～1945. 10. 30	
2	成 寬 植	1945. 10. 31～1950. 9. 23	
3	洪 性 福	1950. 11. 27～1951. 6. 30	
4	李 沃 圭	1951. 7. 1～1961. 8. 16	
5	韓 昌 洙	1961. 8. 16～1967. 3. 1	
6	李 錫 潞	1967. 3. 1～1970. 3. 26	
7	崔 弘 圭	1970. 3. 26～1972. 9. 1	
8	洪 性 秀	1972. 9. 1～1974. 9. 1	
9	安 承 根	1974. 9. 1～1982. 9. 1	
10	秋 珍 鎬	1982. 9. 1～ 現 在	

(17) 文章國民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 373번지

② 학교연혁

○1939. 4.23 : 효지 보통간이학교 인가

○1939. 5. 1 : 동교 개교

○1944. 4. 1 : 문장 국민학교로 승격인가

○1950. 5.23 : 제 1 회 졸업식 거행

○1985. 2.15 : 제36회 졸업식

○1985. 3. 1 : 6 학급편성

○1985. 3.11 : 병설유치원 입원식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2,110명(남1,182 여928)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42	21	37	17	32	14	44	20	41	22	35	18	231	112

⑤ 교직원수

교원 : 9 명 일반직 : 0 명

고용원 : 2명 계 : 11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이 창 실	1944. 4. 1~1951. 6. 29	
2	홍 성 복	1951. 6. 30~1952. 7. 17	
3	이 철 구	1952. 7. 18~1953. 4. 14	
4	정 방 시	1953. 4. 15~1956. 2. 6	
5	최 병 수	1956. 2. 7~1961. 4. 26	
6	김 성 길	1961. 4. 27~1964. 2. 28	
7	이 효 철	1964. 3. 1~1969. 2. 28	
8	이 현 규	1969. 3. 1~1978. 8. 31	
9	이 승 훈	1978. 9. 1~1982. 8. 31	
10	이 순 구	1982. 9. 1~ 現 在	

(18) 梨浦國民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247번지

② 學校 沿革

○1919. 4. 1 : 이포 국민학교 설립인가(4년제)

○1919. 7. 4 : 개교

○1922. 3.31 : 6년제로 승격

○1956. 4. 1 : 하호분교장 하호국민학교로 승격

○1974. 3.11 : 본관 슬라브 2층 10개 교실 개축

○1976. 7.26 : 창고 및 숙직실 준공

○1976.12. 1 : 별관 교실 1동 슬라브 준공

○1982. 6. 8 : 사택 슬라브 콘크리트조 준공

③ 1985년 현재 졸업생 총수5, 582명(남2, 702 여2, 880)

④ 학급 편성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2		1		1		2		8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38	19	41	16	53	35	54	22	46	22	67	35	299	149

⑤ 교직원 수

교원 : 11명 일반직 : 0명

고용원 : 2명 계 : 13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洪 性 福	1945. 10. 1～1950. 11. 26	※ 1945. 8. 15 이전은 미상
2	金 泰 興	1950. 11. 27～1957. 4. 12	
3	洪 性 福	1957. 4. 13～1959. 7. 7	
4	丁 奎 常	1959. 7. 8～1961. 10. 20	
5	金 容 範	1961. 10. 21～1964. 2. 27	
6	洪 性 福	1964. 2. 28～1972. 2. 28	
7	李 淳 求	1972. 3. 1～1982. 8. 31	
8	李 萬 鍾	1982. 9. 1～1984. 8. 31	
9	鄭 盛 和	1984. 9. 1～ 現 在	

(19) 下虎國民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금사면 하호리 산 1 번지

② 學校 沿革

○1951. 4. 1 : 이포 국민학교 하호분실

○1952. 4.30 : 이포 국민학교 하호분교장

○1957.10.21 : 하호 국민학교로 승격

○1958. 4. 1 : 하호 국민학교로 개교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식 총 수1,046명(남567 여479)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7	10	12	6	15	8	13	8	24	14	24	13	105	59

⑤ 교직원 수

교원 : 8명 일반직 : 0명

고용원 : 2명 계 : 10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박 길 원	1958. 6. 10~1961. 4. 26	
2	최 병 수	1961. 4. 27~1963. 2. 27	
3	박 사 구	1963. 2. 28~1965. 2. 28	
4	최 병 수	1965. 3. 1~1968. 7. 24	
5	이 기 봉	1968. 7. 25~1971. 8. 31	
6	정 태 현	1971. 9. 1~1973. 2. 28	
7	박 경 선	1973. 3. 1~1978. 2. 28	
8	이 종 완	1978. 3. 1~1982. 9. 21	
9	정 창 수	1982. 9. 22~ 現 在	

(20) 상품국민학교

① 所在地

여주군 금사면 상품리 12번지(분교 :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55번지)

②學校 沿革

○1937.10.20 : 상품 공립 보통학교 인가

○1950. 4. 1 : 상품 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62. 3.10 : 주록분교 설치

○1974. 3. 1 : 이포국교 주록분교 편입

○1979. 2. 6 : 문교부 지정 시범급식학교(벽지형)

○1985. 2.14 : 제44회 졸업

○1985. 3. 1 : 10학급 편제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2,261명(남1,298 여963)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2		1		2		8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42	19	50	22	41	23	54	28	40	21	61	34	288	147

⑤ 교직원수

교원 : 10명 일반직 : 1명

고용원 : 3명 계 : 14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이 기 호	1937. 10. 20~1941. 7. 29	
2	안 병 일	1941. 7. 30~1945. 7. 30	
3	김 태 홍	1945. 8. 1~1946. 11. 9	
4	이 문 용	1946. 11. 12~1949. 7. 4	
5	최 창 원	1949. 7. 5~1951. 6. 29	
6	최 병 수	1951. 6. 30~1953. 4. 14	
7	한 숙 표	1953. 4. 15~1953. 4. 14	
8	김 용 하	1953. 4. 15~1954. 6. 6	
9	박 재 병	1954. 6. 7~1956. 3. 1	
10	김 낙 준	1956. 3. 2~1958. 3. 27	
11	정 순 모	1958. 3. 28~1961. 5. 4	
12	한 창 섭	1961. 5. 5~1962. 12. 30	
13	이 옥 규	1962. 12. 31~1964. 3. 30	
14	정 의 호	1964. 3. 31~1971. 8. 31	
15	정 순 섭	1971. 9. 1~1978. 2. 28	
16	황 윤 구	1978. 3. 1~1980. 8. 31	

(21) 大神國民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 384번지

② 학교연혁

○1926. 8. 2 : 대신 공립보통학교로 개교

○1941. 4. 1 : 6년제 학제 인가

○1969. 6.26 : 2층 6교실 준공

○1971. 2.12 : 2층 4교실 준공

○1981. 3.10 : 병설 유치원 개원인가(1학급)

○1982. 5. 8 : 동상 제막(8개)

○1983. 3. 1 : 옥촌국교, 대신분교로 편입

○1983. 3. 1 : 특수학급 편성인가(1학급)

○ 1984. 7.18 : 옥촌분교 동상제막(5개)

○1984.12. 5 : 상수도 설치

○1984.12.20 : 사택 1동 신축

○1985. 2.15 : 제54회 졸업식 거행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5, 625명(남3, 140 여2, 485)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2		3		2		4		3		3		17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00	52	113	55	86	49	109	55	117	64	129	74	654	349

⑤ 교직원 수

교원 : 21명 일반직 : 0명

고용원 : 3명 계 : 24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정 형 모	1945. 8. 15~1946. 1. 30	※ 1945. 8. 15
2	이 규 섭	1946. 1. 31~1952. 7. 17	이전은 미상
3	조 국 현	1952. 7. 18~1958. 3. 27	
4	김 관 수	1958. 3. 28~1960. 6. 28	
5	이 범 해	1960. 6. 29~1961. 8. 15	
6	박 동 준	1961. 8. 16~1966. 2. 28	
7	이 여 원	1966. 3. 1 ~1971. 8. 31	
8	유 만 석	1971. 9. 1 ~1973. 8. 31	
9	박 계 도	1973. 9. 1 ~1978. 8. 31	
10	전 창 진	1978. 9. 1 ~1981. 8. 31	
11	정 서 호	1981. 9. 1 ~ 現 在	

(22) 천남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 103번지

② 學校 沿革

○1935. 4.17 : 천남 간이학교 인가

○1944. 4. 2 : 천남 공립국민학교 승격인가

○1967. 3. 1 : 상구분교장 인가(2학급)

○1985. 2.15 : 제37회 졸업

○1985. 3. 1 : 11학급 편성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3,227명(남1,952 여1,275)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2		2		1		2		2		2		11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61	32	58	28	48	17	53	21	75	36	77	39	373	174

⑤ 교직원 수

교원 : 16명 일반직 : 0 명

고용원 : 3 명 계 : 19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곽 인 환	1949. 1. 25~1952. 2. 8	
2	김 관 수	1952. 2. 9 ~1956. 2. 6	
3	정 방 시	1956. 2. 7 ~1959. 9. 29	
4	구 연 철	1959. 9. 30~1961. 8. 30	
5	황 순 상	1961. 8. 31~1964. 3. 19	
6	박 창 원	1964. 3. 20~1966. 2. 28	
7	최 홍 규	1966. 3. 1 ~1970. 3. 31	
8	황 득 일	1970. 4. 1 ~1970. 9. 1	
9	이 원 순	1970. 9. 2 ~1972. 2. 28	
10	신 두 진	1972. 3. 2 ~1982. 2 . 28	
11	신 한 승	1982. 3. 1 ~1984. 2. 28	
12	황 일 청	1984. 3. 1 ~ 現 在	

(23) 松村國民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대신면 송촌리 504번지

② 학교 연혁

○ 1955. 5. 1 : 송촌 국민학교로 승격

○ 1983. 3.10 : 병설 유치원 개원

○ 1985. 2. : 제30회 졸업생 배출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1, 694명(남871 여823)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27	11	30	13	31	17	31	8	27	14	43	18	181	81

⑤ 교직원 수

교원 : 9명 일반직 : 0명

고용원 : 2명 계 : 11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이 종 국	1956. 5. 10~1957. 4. 12	
2	박 장 원	1957. 4. 13~1958. 2. 28	
3	유 붕 상	1958. 3. 31~1963. 3. 9	
4	신 한 승	1964. 3. 20~1967. 2. 26	
5	이 규 환	1967. 2. 27~1970. 2. 28	
6	강 덕 률	1970. 3. 1~1973. 8. 31	
7	방 재 원	1973. 9. 1~1975. 8. 31	
8	김 남 규	1975. 9. 1~1976. 3. 31	
9	신 한 승	1976. 4. 1~1982. 2. 28	
10	오 동 훈	1982. 3. 1~1984. 2. 28	
11	목 영 균	1984. 3. 1~ 現 在	

(24) 北內國民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175번지

② 학교연혁

○1919.10.23 : 북내 공립보통학교 개교

○1981. 3.10 : 병설유치원 개원

○1985. 2.24 : 제65회 졸업식 거행

○1985. 3. 1 : 북내 국민학교 도전분교 편입

○1985. 3. 1 : 20학급 편성 (본교15 분교5)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수6,424명(남3,401 여3,023)

④ 학급편성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2		3		2		2		3		3		15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74	40	102	51	82	35	94	52	116	60	110	58	578	296

⑤ 교직원 수

교원 : 23명 일반직 : 0 명

고용원 : 4 명 계 : 27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日 野 春 吉	1920. 12. 26～1920. 4. 9	
2	駒 田 宗 平	1923. 4. 10～1924. 5. 2	
3	長 崎 狹 作	1924. 5. 3～1926. 9. 27	
4	渋 澤 網 丸	1926. 9. 28～1928. 4. 6	
5	米 山 清	1928. 4. 7～1930. 3. 22	
6	横 田 彦 澈	1930. 3. 23～1939. 4. 7	
7	近 田 彰	1939. 4. 8～1938. 5. 27	
8	野 崎 菊 夫	1938. 5. 28～1941. 8. 22	
9	内 田 勉	1941. 8. 23～1945. 4. 8	
10	外 山 態 市	1945. 4. 9～1945. 10. 30	
11	許 瓊	1945. 10. 31～1946. 2. 28	
12	辛 膺 教	1946. 3. 1～1946. 12. 30	
13	李 鎬 具	1946. 12. 31～1947. 9. 30	
14	昔 仁 成	1947. 10. 1～1948. 5. 6	
15	朴 淳	1948. 5. 7～1950. 11. 26	
16	李 昌 實	1950. 11. 27～1952. 1. 30	
17	郭 仁 煥	1952. 1. 31～1953. 4. 21	
18	劉 章 鎬	1953. 4. 22～1956. 4. 1	
19	李 龍 福	1956. 4. 2～1957. 11. 5	
20	朴 性 峻	1957. 11. 6～1961. 2. 28	
21	洪 成 福	1961. 3. 1～1964. 2. 28	
22	韓 昌 燮	1964. 3. 1～1966. 2. 28	
23	任 鳳 宰	1966. 3. 1～1970. 2. 28	
24	조 언 상	1970. 3. 1～1972. 8. 30	
25	李 起 河	1972. 9. 1～1975. 8. 30	
26	李 仁 鉉	1975. 9. 1～1981. 8. 30	
27	林 圭 冕	1981. 9. 1～1984. 2. 28	
27	呉 東 勳	1984. 3. 1～ 現. 在	

(25) 운암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634번지

② 學校沿革

○1969. 3. 1 : 운암 국민학교 개교

○1969. 6. 7 : 2 개교실 신축

○1970. 7. 1 : 운암국민학교 벽지 학교지정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수578명(남293 여285)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6	6	20	5	13	5	25	7	26	12	31	17	131	52

⑤ 교직원 수

교원 : 8 명 일반직 : 0 명

고용원 : 2 명 계 : 10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學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이 경 희	1961. 3. 1 ~1971. 8. 31	
2	임 충 근	1971. 9. 1 ~1980. 5. 31	
3	이 낙 구	1980. 9. 1 ~1986. 2. 28	
4	박 순 래	1986. 3. 1 ~ 現 在	

(26) 注巖國民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북내면 주암리 174번지

② 學校 沿革

○1934. 4. 1 : 주암 간이 학교 설립

○1941. 4. 1 : 주암 국민 학교 설립인가

○1944. 7. 1 : 개교

○1981. 1.13 : 주암 국민학교 공립부설 유치원 설립인가

○1985. 2.15 : 제37회 졸업식 거행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1,907명(남943 여964)

④ 학급 편성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2		1		7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28	18	25	11	38	16	40	21	57	27	44	24	232	117

⑤ 교직원수

교원 : 10명 일반직 : 0 명

고용원 : 2 명 계 : 12명

⑥ 歷代 學校長

역대 학교장 성명 및 재임기간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허 경	1945. 10. 31~1946. 3. 2	※북내 국민학교
2	신 응 교	1946. 3. 3~1947. 2. 28	주암국교 겸무발령
3	이 호 정	1947. 3. 1~1947. 12. 5	〃
4	석 인 정	1947. 12. 6~1948. 12. 5	〃
5	권 면 수	1948. 12. 6~1949. 4. 20	〃
6	김 구 환	1949. 4. 21~1950. 11. 27	〃
7	최 창 원	1950. 11. 28~1952. 3. 9	주암 국교장 발령
8	김 팔 복	1952. 3. 10~1956. 5. 20	
9	안 붕 수	1956. 5. 21~1965. 2. 20	
10	김 봉 태	1965. 2. 21~1966. 2. 28	
11	김 대 원	1966. 3. 1~1967. 2. 28	
12	이 홍 제	1967. 3. 1~1968. 2. 15	
13	이 종 국	1968. 2. 16~1970. 2. 28	
14	정 성 국	1970. 3. 1~1972. 2. 28	
15	서 상 복	1972. 3. 1~1980. 8. 31	
16	김 정 서	1980. 9. 1~1986. 2. 28	
17	김 진 옥	1986. 3. 1~ 現 在	

(27) 五鶴國民學校

①소재지

여주군 북내면 오학리 105번지

② 학교연혁

○1958.10. 6 : 북내 국민학교 오학분실 개교
○1964. 3. 2 : 오학 국민학교 개교(12학급)
○1966.12. 6 : 오금 분교장 병설(2학급)
○1982. 3. 2 : 병설 유치원설치(1학급)
○1985. 2.15 : 제21회 졸업식 거행
○1985. 3. 1 : 18학급 편성(본교16 분교2)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2,166명(남 1,118 여 1,048)
④ 학급 편성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2		2		3		3		3		3		1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84	43	95	43	108	55	124	57	132	61	141	69	684	328

⑤ 교직원 수
교원 : 20명 일반직 : 0명
고용원 : 4명, 계 : 24명
⑦ 歷代 學校長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조 한 주	1964. 7. 1～1965. 2. 28	
2	이 종 선	1965. 3. 1～1966. 4. 20	
3	김 현 정	1966. 4. 21～1973. 8. 31	
4	강 덕 율	1973. 9. 1～1978. 8. 31	
5	박 계 도	1978. 9. 1～1982. 8. 31	
6	최 한 경	1982. 9. 1～現 在	

(28) 강천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448번지
② 學校 沿革
○1932.10.12 : 강천 공립 보통학교 인가
○1932.12. 1 : 4년제 개교
○1942. 4. 1 : 6년제 개교
○1982. 3. 1 : 대둔국교를 강천국교 분교장으로
○1982. 3. 1 : 병설유치원 개원

○1985. 2.14 : 제48회 졸업식 거행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4,096명(남 2,427 여 1,669)

④ 학급 편성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2		7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38	18	47	25	38	18	36	14	49	18	58	32	266	125

⑤ 교직원 수

교원 : 10명 일반직 : 0 명

고용원 : 2 명 계 : 12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이 호 정	1945. 10. 31~1946. 12. 30	※1945. 8.15 이전은 미상
2	조 중 양	1946. 12. 31~1948. 1. 31	
3	윤 길 섭	1948. 2 . 1 ~1956. 2. 6	
4	김 팔 복	1956. 2. 7 ~1959. 7. 7	
5	김 태 홍	1959. 7. 8 ~1960. 11. 7	
6	성 두 훈	1960. 11. 8 ~1962. 2. 18	
7	이 용 옥	1962. 2. 19~1966. 2. 28	
8	정 순 철	1966. 3. 1 ~1968. 2. 28	
9	김 용 해	1968. 3. 1 ~1970. 4. 30	
10	박 창 수	1970. 5. 1 ~1972. 9. 14	
11	이 치 연	1972. 9.15~ 1976. 2. 29	
12	김 덕 언	1976. 3. 1 ~1982. 3. 19	
13	이 효 금	1982. 3. 20~ 現 在	

(29) 걸은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625번지

② 學校沿革

○1972.11.17 : 강천 국민학교 걸은분교 2학급 편성

○1979. 3. 1 : 걸은 국민학교로 승격

○1980. 3. 1 : 병설 유치원 설치(1학급)

○1985. 2.14 : 제 6 회 졸업식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163명(남92 여71)

④ 학급 편성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8	13	25	12	18	8	26	13	20	8	30	13	137	67

⑤ 교직원 수

교원 : 9명 고용원 : 2명 계 : 11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임 규 명	1979. 3. 1 ~1981. 8. 31	
2	박 원 채	1981. 9. 1 ~1983. 9. 24	
3	성 낙 용	1983. 9. 25~ 現 在	

(30) 강남국민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산14번지

② 學校 沿革

○1971. 3. 1 : 강천 국민학교 강남분교 인가

○1974. 3. 1 : 강남 국민학교로 승격 6학급인가

○1979. 1. 1 : 문교부지정 급식 시범학교 지정

○1984. 2.16 : 제11회 졸업식

○1985. 3. 6 : 병설 유치원 개원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

346명(남187 여159)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23	9	19	10	20	11	24	12	16	9	21	15	123	66

⑤ 교직원 수

교원 : 8명 일반직 : 1명

고용원 : 3명 계 : 12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최 한 경	1974. 3. 1～1982. 8. 30	
2	김 원 배	1982. 9. 1～ 現 在	

4. 中學校 現況

(1) 驪州 中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4번지

② 학교 연혁

○1945. 3.31 : 驪州 公立農業學校 설립인가(4년제)

○1945. 4. 1 : 大老祠에 임시 교사를 정하고 日本人 교장(有里)과 職員 4명 취임

○1945. 5.10 : 개교식(1학년 55명)거행

○1945. 9. : 연초 수납장으로 교사 이전

○1945.10.16 : 해방후 초대 朴榮穆교장 취임

○1947.10.20 : 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驪州 公立農業中學校로 개칭(6년제)

○1951. 8.21 : 제1회 졸업식 거행(4년제 34명, 5년제 75명, 6년제 90명)

○1951. 8.31 : 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주 중학교로 개칭(高校는 驪州 農業高等學校로 하고 中·高 병설운영)

○1962년 9.14 : 단층건물 8교실 준공과 함께 현 위치로 이전

○1973. 9. 1 : 中·高분리

○1983. 9. 1 : 제15대 崔鎭龍 취임

○1986. 2.14 : 제35회 졸업식 거행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8,544명(남8,544명)

④ 학급 편성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6	6	5	17
학생수	417	385	323	1,125

⑤ 교직원 수

교원 : 29명 일반직 : 2 명

고용원 : 4 명 계 : 35명

⑥ 歷代 學校長

順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이 봉 구	1953. 4. 5 ~1954. 4. 3	
2	심 성 택	1954. 4. 4 ~1956. 1. 5	
3	이 희 재	1956. 1. 6 ~1957. 9. 3	
4	장 정 희	1957. 9. 4 ~1959. 5. 21	
5	유 성 형	1959. 5. 22~1961. 3. 30	
6	홍 순 희	1961. 3. 31~1963. 6. 24	
7	윤 석 재	1963. 6. 25~1966. 4. 30	
8	김 형 철	1966. 5. 1 ~ 1969. 3. 14	
9	임 천 순	1969. 3. 15~1973. 8. 31	
10	신 태 열	1973. 9. 1 ~1974. 11. 30	
11	민 영 준	1974. 12. 1 ~1978. 11. 23	
12	이 준 성	1978. 11. 24~1979. 3. 2	
13	박 경 식	1979. 3. 3 ~1981. 2. 28	
14	곽 의 석	1981. 3. 1 ~1983. 8. 31	
15	황 태 홍	1983. 9. 1 ~現 在	

(2) 여주여자중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여주읍 상리 144-5

② 學校 沿革

○1948. 4.23 : 재단법인 기동학원 설립

○1953. 4. 4 : 여주 여자 중학교 개교

○1955. 7.15 :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인가(6 학급)

○1976. 12. 6 : 학칙 변경인가 (18학급)

○1979. 3. 1 :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리

○1985. 12.26 : 동쪽 3 층 5 교실 신축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수5, 413명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6	6	5	17
학생수	352	362	305	1,019

⑤ 교직원 수

교원 : 26명 일반직 : 2 명

고용원 : 2 명 계 : 30명

⑥ 歷代 學校長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이 봉 구	1953. 4. 5 ~1954. 4. 3	
2	심 성 택	1954. 4. 4 ~1956. 1. 5	
3	이 희 재	1956. 1. 6 ~1957. 9. 3	
4	장 정 희	1957. 9. 4 ~1959. 5. 21	
5	유 성 현	1959. 5. 22~1961. 3. 30	
6	홍 순 희	1961. 3. 31~1963. 6. 24	
7	윤 석 재	1963. 6. 25~1966. 4. 30	
8	김 형 철	1966. 5. 1 ~1969. 3. 14	
9	임 천 순	1969. 3. 15~1973. 8. 31	
10	신 대 일	1973. 9. 1 ~1974. 11. 30	
11	민 영 준	1972. 12. 1 ~1978. 11. 23	
12	이 준 성	1978. 11. 24~1979. 3. 2	
13	박 경 식	1979. 3. 3 ~1981. 2. 28	
14	곽 의 석	1981. 3. 1 ~1983. 8. 31	
15	황 태 홍	1983. 9. 1 ~現 在	

(3) 점동중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23번지

② 학교 연혁

○1954. 7. 7 : 점동 중학교 설립인가 11.27초대 김제동 교장 취임

○1971. 2. 3 : 중학교 학급 증설인가(12)

○1986. 2.13 : 제31회 졸업식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3, 901명

④ 학급 편성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3		3		3		9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80	95	174	89	165	78	519	262

⑤ 교직원 수

교원 : 14명, 일반직 : 1명

고용원 : 1명, 계16명

⑥ 역대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김 제 동	1954. 11. 27~1956. 6. 9	
2	최 상 권	1956. 6. 10~1957. 9. 6	
3	김 기 형	1957. 9. 7~1958. 1. 7	
4	이 석 남	1958. 1. 8~1958. 9. 22	
5	노 충 기	1958. 9. 23~1959. 8. 7	
6	이 병 규	1959. 8. 8~1959. 8. 31	
7	김 현 순	1959. 9. 1~1961. 3. 2	
8	홍 기 표	1961. 3. 3~1967. 9. 24	
9	이 찬 호	1967. 9. 25~1970. 3. 5	
10	이 홍 근	1970. 3. 10~1972. 10. 23	
11	송 재 형	1972. 10. 24~1974. 2. 28	
12	조 남 중	1974. 3. 1~1977. 2. 28	
13	안 병 선	1977. 3. 1~1979. 8. 31	
14	정 문 조	1979. 9. 1~1980. 2. 28	
15	김 홍 률	1980. 3. 1~1983. 3. 4	
16	이 찬 조	1983. 3. 5~1984. 2. 28	
17	안 욱 승	1984. 3. 1~ 現 在	

(4) 興川中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26-3

② 학교 연혁

○1970.12.20 : 교실 3실 부속건물 2동 신축

○1971. 1. 9 : 흥천 중학교 설립인가

○1971. 3.10 : 개교

○1972.12.30 : 2층교실 2.5실 신축

○1974. 6. 5 : 다목적 교실 신축

○1975.10.23 : 9학급 인가

○1982. 3. 2 : 6학급인가

○1983.12. 7 : 교장사택 신축

○1985. 8.25 : 특별교실 2실 증축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1,540명(남838 여 702)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2		2		2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17	64	106	49	108	55	331	168

⑤ 교직원 수

교원 : 11명 일반직 : 1명

고용원 : 2명 계 : 14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이 준 성	1971. 3. 1～1974. 2. 28	
2	이 규 원	1974. 3. 1～1976. 2. 28	
3	이 범 승	1976. 3. 1～1977. 10. 31	
4	김 학 칠	1977. 11. 1～1981. 2. 28	
5	박 종 석	1981. 3. 1～1985. 2. 28	
6	류 해 판	1985. 3. 1～1985 現在	

(5) 梨浦中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468

② 학교 연혁

○1960. 3. 2 : 이포 중학교 설립인가

○1960. 4. 9 : 개교 및 입학(신입생 57명)

○1963. 2.12 : 제 1 회 졸업(58명)

○1966.12.10 : 교실 2동 증축

○1969. 7.10 : 교실 2동 증축

○1974.10.15 : 2층 슬라브 교실 증축

○1983.12.20 : 2층 3교실 빙수공사

○1985. 7.10 : 7개교실 개축(고등학교 교실)

○1985. 9. 1 : 현 교사로 이전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2,831名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2		2		2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24	71	130	65		59	381	195

⑤ 교직원 수

교원 : 10명 일반직 : 1 명

고용원 : 1 명 계 : 12명

⑥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노 창 환	1961. 3. 1～1966. 3. 1	
2	염 태 환	1966. 3. 1～1970. 3. 1	
3	조 태 동	1970. 3. 1～1973. 3. 1	
4	임 경 순	1973. 3. 1～1974. 9. 1	
5	이 관 하	1974. 9. 1～1977. 9. 1	
6	이 병 옥	1977. 9. 1～1979. 9. 1	
7	허 영	1979. 9. 1～1980. 9. 1	
8	김 원 홍	1980. 9. 1～1986. 3. 1	
9	강 순 호	1986. 3. 1～現在	

(6) 上品中學校

① 소재지

여주군 금사면 상품리 153

② 학교·연혁

○1971.12.27 : 설립 인가

○1972. 4. : 개교식

○1973. 3 : 2 교실 증축

○1975. 1. : 제 1 회 졸업식

○1978. 1. : 도서실 준공

○1979. 12 : 관사 1 동 증축

○1985. 2.14 : 제11회 졸업식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1,076명(남583 여493)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1		2		2		5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63	27	67	31	78	40	208	98

⑤ 교직원 수

교원 : 10명 일반직 : 1명

고용원 : 2명 계 : 13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남 두 현	1972. 2. 15~1973. 9. 1	
2	이 기 영	1973. 9. 1~1975. 2. 28	
3	김 병 감	1975. 3. 1~1977. 9. 1	
4	나 선 기	1977. 9. 1~1980. 9. 1	
5	정 현 상	1980. 9. 1~1984. 2. 28	
6	최 연 화	1984. 3. 1~1985. 2. 28	
7	최 장 준	1985. 3. 1 ~現 在	

(7) 강천중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268-1

② 學校 沿革

○1977. 4.30 : 9학급 설립인가

○1978. 2.28 : 교실 5, 부속건물 3동 준공

○1978. 3.10 : 개교

○1979.11.30 : 교실 4 증축

○1985. 2.14 : 제5회 졸업식 102명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576명(남298 여278)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2		2		2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98	45	104	50	87	50	289	145

⑤ 교직원 수

교원 : 11명, 일반직 : 1명

고용원 : 2명 계 : 14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김 혁 기	1978. 3. 1~1981. 2. 28	
2	백 용 기	1981. 3. 1~1983. 3. 4	
3	문 태 봉	1983. 3. 5~1984. 2. 29	
4	주 복 임	1984. 3. 1~現 在	

(8) 창명여자중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대신면 울촌리271

② 學校 沿革

○ 1950.11.20 : 상림속성 중학원 설립

○ 1952. 4.26 : 대신 고등 공민학교 설립

○ 1959. 5.12 : 학교법인 인가

○ 1959. 5.20 : 창명여자 중학교 설립

○ 1969. 3.15 : 학교육성회 조직

○ 1974.11.28 : 중학교 학급 증설 인가

○ 1985. 2.10 : 제26회 졸업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2,802명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2	2	2	6
학생수	120	126	95	341

⑤ 교직원 수

교원 : 10명 일반직 : 2명

고용원 : 2명 계 : 14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신 우 범	1950. 11. 20~現在	

(9) 대신중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대신면 후포리 258-1

② 學校 沿革

○1953. 4.30 : 재단법인 대신학원 설립

○1953. 7.14 : 대신 중학교 설립인가(6학급)

○1956. 3. 5 : 후편교사(11교실)준공

○1964. 1.24 : 학교법인 대신학원으로 교칙 변경

○1964.11. 4 : 중학교 3학급 증설(9학급)

○1975. 5.15 : 새마을 교육 최우수교 표창

○1985. 2.14 : 제32회 졸업식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5,316명(남5,187 여189)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2		3		2		7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36		145		129		410	

⑤ 교직원 수

교원 : 12명 일반직 : 2명

고용원 : 2명 계 : 16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임 세 흥	1953. 7. 14~1968. 2. 29	
2	윤 덕 현	1968. 3. 1~1970. 9. 17	
3	박 치 주	1970. 9. 18~1981. 6. 28	
4	허 동 만	1981. 6. 29~現 在	

(10) 여강중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200번지

② 學校 沿革

○1970. 6.23 : 학교법인 금배학원 인가(재단이사장 김이배 취임)

○1971. 1.29 : 여강 중학교 인가 (9 학급)
○1971. 3. 5 : 여강 중학교 개교
○1971. 4. 1 : 중학교 3 학급 증설(12학급)
○1975.10.23 : 학칙 개편인가, 5 학급(전학년15학급)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224명(남127 여97)
④ 학급 편성인가

학 년	1		2		3		계	
학급수	4		4		4		12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223	120	221	106	214	101	658	327

⑤ 교직원 수
교원 : 18명 일반직 : 3 명
고용원 : 2 명 계 : 23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한 군 필	1971. 6. 24~1976. 6. 30	
2	강 인 재	1976. 12. 14~1981. 2. 28	
3	권 영 철	1981. 3. 6~現 在	

(11) 세종중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능서면 매류리 377
② 학교 연혁
○1955. 2.16 : 재단법인 세광학원 설립 인가
○1955. 3.21 : 능서 고등공민학교 제 1 회 졸업
○1955. 4. 9 : 세종 중학교 인가(3 학급)
○1957. 3. 6 : 능서 고등공민학교제 3 회 졸업(능서 고등공민학교 폐쇄)
○1958. 3. 5 : 세종 중학교 제 1 회 졸업
○1962. 9.18 : 학교 본관 4 교실 개축 준공
○1965. 3. 9 : 학급 증설 인가(6 학급)
○1965.10.23 : 교사증축 1 교실
○1968. 4.30 : 교사증축 2 교실
○1971.11.11 : 교사 증축 3 교실 낙성, 교사증축 교실 낙성(제 3 본관, 8 교실)

○1973. 1.11 : 학급 증설 인가(9학급)
○1979.12. 6 : 보통교실 증축
○1985. 2.14 : 세종 중학교 제28회 졸업
○1985.11. 8 : 교사 개축(2교실)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2,999명(남 3,629 여 1,370)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2		2		2		6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110	60	107	51	130	70	347	181

⑤ 교직원 수
교원 : 11명 일반직 : 2명
고용원 : 2명 계 : 15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민 달 호	1955. 4. 9～現 在	

(12) 여주동중학교
① 소재지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265번지
② 學校 沿革
○1954. 4.26 : 재단법인 의성학원 설립인가
○1954. 7.26 : 6학급 설립인가
○1964. 1.24 : 학교법인 의성학원으로 조직변경
○1973. 9.17 : 학교법인 수산학원으로 명칭변경
○1986. 2.12 : 제31회 졸업식
③ 1985년도 현재 졸업생 총 수5,407명
④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4		4		4		12	
학생수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총수	여
	263	146	262	129	266	118	791	393

⑤ 교직원 수

교원 : 19명 일반직 : 3명

고용원 : 2명 계 : 24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안 재 정	1954. 8. 25~1955. 11. 22	
2	김 창 흠	1955. 11. 23~1968. 3. 24	
3	이 경 구	1968. 3. 25~1969.11. 10	
4	최 경 문	1969. 11. 11~1971. 8. 14	
5	조 남 룡	1971. 8. 15~1985. 9.25	
6	김 구 승	1985. 9. 27~ 現 在	

5. 高等學校 現況

(1) 驪州自營農業高等學校

① 所在地

驪州邑 下里 산 4 번지

② 學校 沿革

○1945. 3.31 : 驪州公立農業學校 設立認可(4年制)

○1947.10.20 : 驪州公立中學校로 改正(6년제)

○1951. 3.31 : 驪州農業高等學校로 改正

○1974. 4.10 : 協業農場 開設(10,000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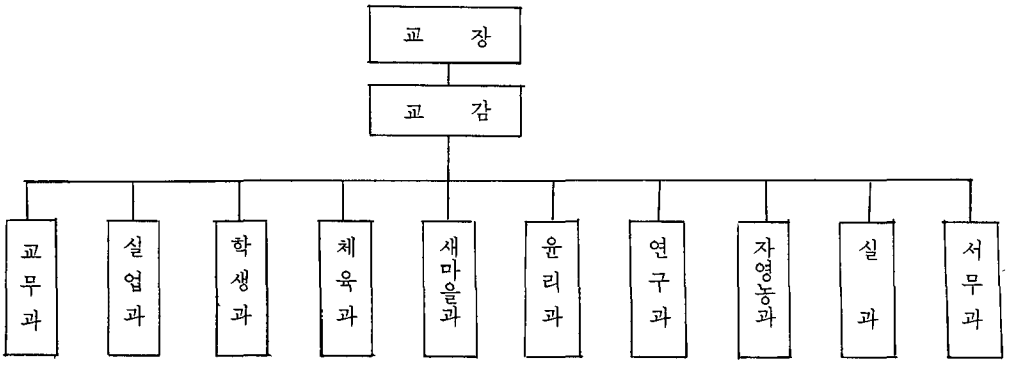
○1984. 3. 1 : 驪州自營農業高等學校로 校名 변경 인가 15學級(自營5)

○1985. 3. 1 : 기숙사 6棟 1,307坪 준공

○1985.11. 1 : 기숙사 4동 2,710坪 강의실 기타 623坪 준공

○1987. 2.16 : 第36回(自營農科 第1回) 卒業 延人員 4,832)

③ 기구표



④ 業務 現況

○企業的 營農後繼者 養成

○1985년 實習 生産物 5億 8千萬원

○學級編成 : 自營農科 15學級 542名

○職員 : 88名(교장 1, 교감 1, 주임 9, 교사36명, 일반직 3 명, 고용원25명, 기타13)

⑤ 歷代 學校長

順	学校長名	在 職 期 間	備 考
1	朴 榮 默	1945. 10. 16~1950. 3. 30	
2	柳 錫 俊	1950. 3. 31~1953. 5. 28	
3	石 成 均	1953. 5. 29~1956. 10. 9	
4	金 錫 信	1956. 10. 10~1958. 3. 30	
5	李 成 龍	1958. 3. 31~1959. 8. 6	
6	李 炳 默	1959. 8. 7~1961. 10. 5	
7	權 赫 鎭	1961. 10. 6~1965. 3. 31	
8	權 秀 遠	1965. 4. 1~1970. 3. 9	
9	洪 基 杓	1970. 3. 10~1971. 8. 31	
10	崔 喜 文	1971. 9. 1~1973. 2. 28	
11	崔 相 岐	1973. 3. 1~1978. 8. 31	
12	韓 東 教	1978. 9. 1~1981. 9. 2	
13	朴 敬 植	1981. 9. 3~	

(2) 여흥고등학교

① 소재지

여주읍 홍문리 183-1

② 학교연혁

○1974. 1. 5 : 학교법인 여흥학원 설립

○1974. 3. 2 : 초대 임창선 교장 취임

○1974.11. 7 : 학칙 변경인가(전학년 12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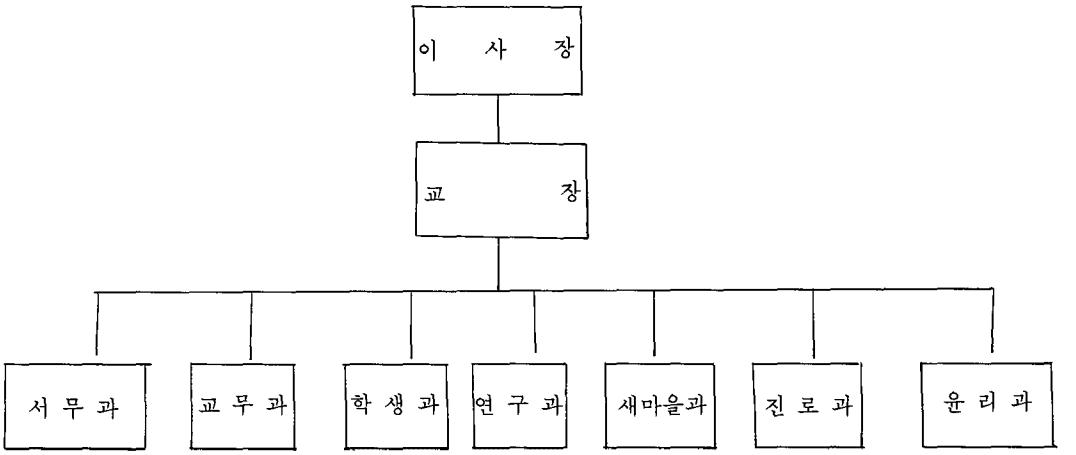
○1980.11. 4 : 학칙변경 인가(전학년 15학급)

○1987. 2.11 : 제11회 졸업(276명) 총 2,173명

③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5		5		5		15	
학생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85		290		295		870	870

④ 기구표



⑤ 교직원 현황

교장 1 명, 주임 6 명, 교사18명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職 期 間	備 考
1	임 창 선	1974. 3. 2～1976. 2. 28	
2	김 석 우	1976. 3. 3～1980. 1. 14	
3	박 영 성	1980. 1. 15～1980. 10. 5	
4	임 천 순	1980. 10. 6～1986. 2. 28	
5	이 병 용	1986. 3. 3～현재	

(3) 驪州女子綜合高等學校

① 소재지

여주읍 상리 144-5

② 학교 연혁

○1955. 5. 3 : 도립 여자 가정고등학교 인가(3 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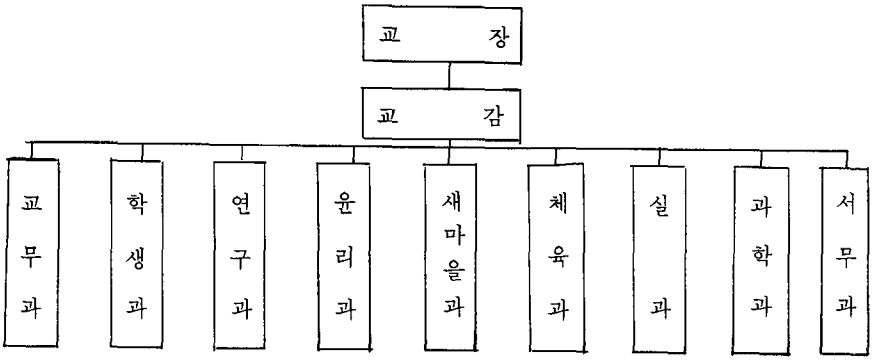
○1969.11.11 : 여주여자 상업고등학교로 학칙 변경 인가(3 학급)

○1972.12.12 : 여주 여자 종합 고등학교로 학칙 변경 인가 (9 학급)

○1980. 3. 1 : 중·고 분리

○1986. 2.13 : 제29회 졸업(졸업생 총수 3,644명)

③ 기구 편성표



④ 역대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職 期 間	備 考
1	이 의 재	1956. 1. 6～1957. 9. 3	
2	장 정 희	1957. 9. 4～1959. 5. 21	
3	유 기 형	1959. 5. 22～1961. 3. 30	
4	홍 순 희	1961. 3. 31～1963. 6. 24	
5	윤 석 재	1963. 6. 25～1965. 4. 30	
6	김 형 철	1965. 5. 1～1969. 3. 14	
7	임 천 순	1969. 3. 15～1973. 8. 31	
8	신 태 열	1973. 9. 1～1974. 11. 30	
9	민 영 준	1974. 12. 1～1978. 11. 23	
10	이 준 성	1978. 11. 24～1983. 8. 31	
11	곽 의 석	1983. 9. 1～	

(4) 占東綜合高等學校

①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122

② 학교 연혁

○1955. 5. 3 : 점동공업고등학교 설립 인가

○1956. 4. 3 : 점동공업고등학교 개교

○1962. 1.23 : 점동공업고등학교 폐교

○1975.11.14 : 점동종합고등학교 설립 인가(3학급)

○1976. 5. 1 : 점동종합고등학교 개교

○1987. 2.13 : 제 9 회 졸업식

③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2		2		2		6	
학생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5	58	59	51	58	52	172	161

④ 1986년도 현재 졸업생 수

967명(남488명 여479名)

⑤ 교직원수

15名

⑥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職 期 間	備 考
1	趙 南 中	1974. 3. 1～1976. 2. 28	
2	이 영 훈	1976. 3. 1～1977. 2. 28	
3	이 종 학	1977. 3. 1～1978. 2. 28	
4	안 병 선	1978. 3. 1～1979. 8. 31	
5	정 문 조	1979. 9. 1～1980. 2. 28	
6	김 홍 률	1980. 3. 1～1983. 3. 4	
7	李 燦 鎬	1983. 3. 5～1984. 2. 28	
8	安 旭 承	1984. 3. 1～현재	

(5) 여주상업고등학교

①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265

② 학교연혁

○1968.12. 3.신성상업고등학교 설립인가

○1969. 3. 1 : 신성상업고등학교 개교

○1971. 5. 5 : 수산개척자회 창립

○1977. 6.10 : 여주상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1986. 2. 7 : 산업체특별학급 설립인가(2학급)

○1987. 2.12 : 제16회 졸업식(졸업생 총3,123명)

③ 학급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9		8		5		22	
학생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2	313	150	238	126	181	468	732

④ 1986년도 현재 졸업 생 수 :

3,123名(남 : 1,712名, 여 : 1,411名)

⑤ 교직원수 : 39名

⑥ 역대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職 期 間	備 考
1	李 景 求	1968. 12. 3 ~1969. 11. 4	
2	崔 景 黨	1969. 11. 5 ~1971. 8. 31	
3	趙 南 龍	1971. 9. 1 ~1985. 7. 3	
4	金 演 洙	1985. 7. 4 ~現在	

(6) 梨浦高等學校

① 소재지 :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468

② 학교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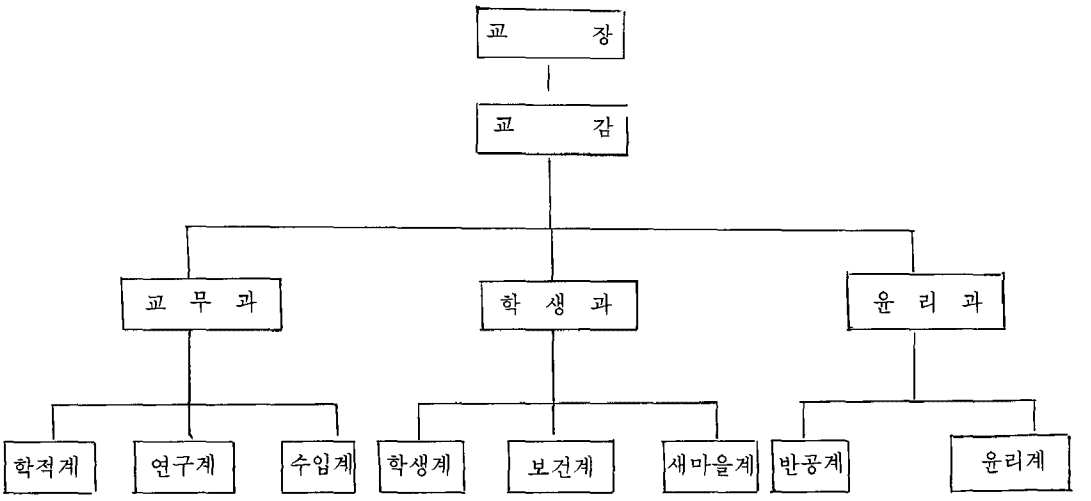
○1974. 7.10 : 2 교실 신축

○1974.12.27 : 이포고등학교 설립 인가(6 학급)

○1975. 3. 5 : 개교 및 입학식(122명)

○1986. 2.14 : 제 9 회 졸업(110명, 총 882명)

③ 기구



④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職 期 間	備 考
1	이 병 옥	1977. 9. 1 ~1980, 8. 31	
2	허 영	1980. 9. 1 ~1981. 8. 31	
3	김 권 홍	1981. 9. 1 ~현재	

(7) 大神高等學校

① 所在地 :

여주군 대신면 後浦里 258-1

② 學校 沿革

○1953. 4.30 : 학교법인 대신학원 설립

○1955. 2.16 : 대신고등학교 설립

③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4(남)	3(남)	3(남)	10
학생수	223	138	167	528

④ 1986년도 현재 졸업생 수 : 3,291名

⑤ 교직원수 : 18名

⑥ 역대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職 期 間	備 考
1	林 世 興	1953. 4. 30~1968. 3. 1	
2	尹 德 鉉	1968. 3. 2~1970. 9. 17	
3	朴 致 疇	1970. 9. 18~現 在	

(8) 창명여자종합고등학교

① 소재지 :

여주군 대신면 울촌리 271

② 학교 연혁

○1950.11.20 : 상림속성 중학원 개원

○1952. 4.26 : 대신 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

○1959. 5.20 : 학교법인 기동학원 설립 인가

○1959. 5.20 : 창명 여자중학교 설립인가

○1974.11.21 : 창명 여자종합고등학교 설립인가

○1979.10.30 : 학급 증설인가(9학급)

○1980.10.30 : 학급 증설인가(12학급)

○1987. 2.13 : 창명 여자종합고등학교 제10회 졸업식 거행

③ 학급 편성 현황

학 년	1		2		3		계	
학급수	4		4		4		12	
학생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28		145		192		565

④ 1986년도 현재 졸업생 수 : 1,317명

⑤ 교직원수 : 교원16명, 직원 2명, 계18명

⑥ 역대 학교장

○ 1대 愼祐範(1975. 3. 1~현재)

(9) 驪江綜合高等學校

①소재지

驪州郡北內面新接里 200

② 학교 연혁

○1970. 6.23 : 학교법인 금배학원 설립인가(김이배, 이사장 취임)

○1971. 1.29 : 여강중학교 설립인가(9학급)

○1974. 1. 5 : 여강상업고등학교 인가(6학급)

○1981. 9.26 : 여강종합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1987. 2.23 : 제11회 졸업

③ 학과 및 학급 편성

학 교 명	학 과 별	학 급 수
여강종합고등학교	상 과	6
	보 통 과	3

④ 학년별 학급별 학생 수

학 년	1	2	3	계
학급수	3	3	3	9
학생수	173	168	169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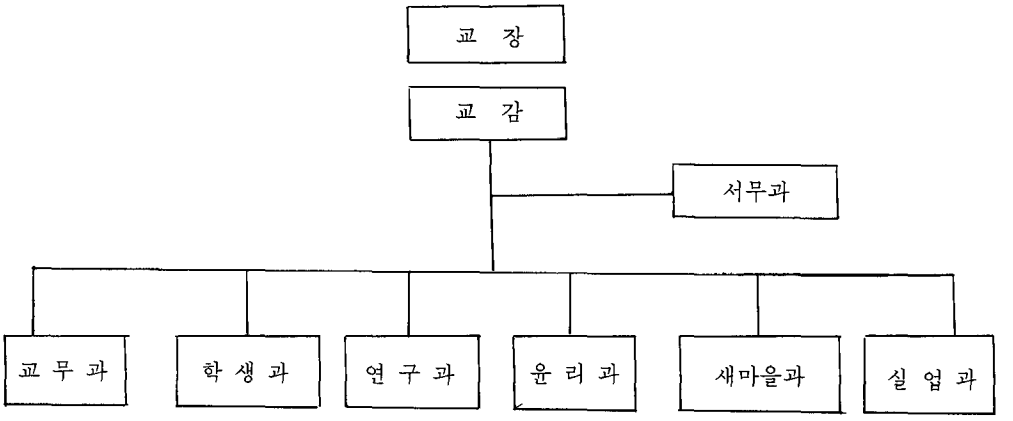
⑤ 교직원 현황

교장 1명(중학교 겸직)

교감 1 명(중학교 겸직)

교사 15명, 일반직 1 명, 고용원 1 명

⑥ 기구표



⑦ 졸업생 수

연 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계
졸업생수	108	107	105	109	115	120	174	170	171	150	173	1502

⑧ 역대 학교장

順	学校長名	在 職 期 間	備 考
1	한 균 필	1971. 2. 1～1973. 10. 30	
2	강 인 제	1973. 11. 1～1981. 2. 28	
3	권 영 렬	1981. 3. 1～1987. 2. 28	
4	이 태 훈	1987. 4. 6～現 在	

第2章 宗 教

第1節 儒 教

孔子를 始祖로 하는 중국 고래의 政敎一致의 학문을 받드는 敎로서 一名 孔敎, 孔子敎라고 하기도 한 유교는 儒學, 儒學思想이라함과 큰차이없는 것으로서 종교라고 보기 어렵다. 곧 仁으로서 모든 도덕을 일관함을 최고 이념으로 삼아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룩함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정치학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수 천년동안 동양민족의 사상을 지배하여 왔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연대는 문헌상 확실히 고증할 길이 없으나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며 우리나라에 國子學을 세운 것으로 보면 三國時代에 이미 儒敎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372년(소수림왕 2)에 太學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고 백제는 285년(고이왕 52)에 論語와 千字文을 전하였으며 신라는 비교적 늦어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을 건립하였다. 당시 유학의 목표는 첫째 경전과 史記에 통달하여 政治나 法律의 제도를 잘 알며 또 그것을 운용할 만한 관리가 되는 것이었고 둘째 詞賦와 文章을 能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 때의 유교는 內求的이 아니고 外求的이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단을 위한 것이었다. 三國時代의 代表的 유가로는 신라의 薛聰과 崔致遠을 들 수 있다. 설총은 方言으로서 九經을 해석하여 뒷사람을 훈도하였으며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討黃巢檄文을 지어 중국에 이름을 떨쳤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쇠퇴하였다가 6대 성종에 이르러 國子監을 설치 經學博士를 두고 유학을 장려하였으나 부흥치 못하고 11대 문종때에 이르러 崔沖이 九齋를 설치하고 후진을 가르치어 유교는 크게 떨쳤다. 그러나 그후 武人의 발호와 전란의 계속으로 유학이 다시 떨치지 못하더니 25대 충렬왕때 安珦이 忠烈王을 따라 燕京에 들어가 朱子全書를 입수하고 돌아온 후 정부에 건의하여 國學을 세우게 하고 文廟를 重修케 하는 등 유학부흥에 큰 공적을 남겼다. 그의 門下에 백이정·우탁·권부가 나왔는데 白頤正은 程朱學을 硏究하고 禹倬은 程朱의 易傳을 연구, 고려에서 처음으로 易理의 學을 傳布하였고 權溥는 朱子全書의 간행을 건의하는 등 程朱學 진흥에 공로가 컸다. 안향의 학문은 李齊賢, 李穡, 鄭夢周, 權近에게 전승되었는데 정몽주는 성리학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道德과 經綸에 있어서도 一家를 이루어 麗祖 마지막을 장식하는 忠臣으로 東方理學의 祖로 불리었다. 이색의 후배인 李崇仁도 정몽주와 함께 태학의 교수로서 유학에 힘을 쏟았다.

조선 초기에 들어서며 經世와 見識, 政治的 수완을 겸비한 鄭道傳은 조선 유교의 기초를 確立한 학자로 佛氏雜辨, 心氣理篇 등의 저서를 통하여 주자학의 입장에서 불교가 종교 및 도덕상으로 배척되지 않으면 안 될 까닭을 규명하는 동시에 유교의 진흥이야 말로 國家百年大計의 至上理念임을 力說했다.

정몽주의 제자 길재는 여말에 登第하였다가 왕조가 바뀌매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절개를 지키며 후진양성에 전력하여 그 문인에 金叔滋와 그 아들 金宗直이 나와 조선성리학의 正統을 이었다. 김종직의 문하에 金宏弼·鄭汝昌이 유명했다. 戊午史禍때 김종직을 비롯 그 문하

인 전부가 화를 당하였다. 김굉필의 문인에 金安國·金正國·李長坤·趙光祖 등이 있어 성리학의 정통을 이어갔다. 조광조는 中宗의 괴임(사랑)을 뒷받침으로 至治主義와 王道政治를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南袞·沈貞의 姦計에 몰려 己卯士禍때 몰락하였다. 기묘사화 이후로 士類는 政界進出을 단념하고 山林에 돌아와 학문에 전심하는 풍조가 일어나서 학문의 경향도 사색과 이론의 방면으로 일변, 徐敬德, 李彦迪 등을 배출하였다.

서경덕은 일생을 학구와 사색으로만 보내어 그가 제창, 관찰한 氣一元論은 가장 창의적인 철학의 하나라고 하며 그 主氣의 학설은 뒤에 李珥의 思想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언적은 다년간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그 主理의 學說은 뒤에 李滉의 思想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이같이 그 경향은 다르다하나 둘이 다 독특하게 精進하여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를 유도하게 되었다.

서경덕·이언적의 뒤를 이어 명종 선조시대에는 많은 유학자가 배출되고 理氣心性의 宋學이 크게 일어나 우리나라 유학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이황과 이이가 가장 뛰어나 우리나라 儒學史上의 代表的인 유자로 존경받았으며 嶺南사람은 이황을 東方의 朱夫子라하고 畿湖사람은 이이를 東方의 聖人이라 하여 그 學風이 後世學者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동서분쟁은 이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황은 성리학을 硏究한 학자 가운데 가장 그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진전을 보인 첫번째 유자로 꾸준히 연구를 쌓아 程朱學의 충실한 후계자가 되었다. 이이는 그 천질이 총명하며 기상이 蕩然하고 胸度가 洞豁하여 經世濟民의 큰 포부를 가져 道學으로 經世家로 혁혁한 공로를 남겼다. 이황의 제자로는 許穆, 李德弘, 鄭逑, 柳成龍, 金誠一이 있었고 이이의 문인으로는 金長生, 鄭曄, 李貴, 趙憲 등이 유명하였다.

선조초 동·서인의 대립이 당쟁으로 격화되어 이황·조식의 계류는 대개 동인으로 이이·성혼의 계류는 서인으로 가담하여 수백년 내려오는 당쟁의 불씨가 되어갔다. 그후 유학은 진도를 바꾸어 禮學 중심으로 변하여 禮訟문제를 자아냈고 慕華思想의 고취로 병자호란때 和·戰 양파로 갈려 三學士의 殉節을 야기하는 모화사상의 도취를 나타냈다. 그래서 孔孟의 王道精神에 입각하여 우리의 실정을 연구하고 利用厚生의 道를 강구하며 經國濟民의 術을 힘쓰자는 實學派가 대두했다. 이 학풍은 처음 柳馨遠이 개척하여 李瀷·安鼎福·申景濬·丁若鏞·朴趾源·洪大容·李德懋·朴齊家 등이 전후하여 일어나 그 학풍과 세력은 대단히 커서 일시 사상계와 학계를 풍미한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 政界의 실권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경제지술을 활용해 보지 못하고 다만 정치, 경제, 사학, 지리 등에 가치있는 연구와 저술을 남겨 문화상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후 실학은 西學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정부의 탄압을 받고 다시 성리학이 고개를 들었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척사운동 이후 유자들은 외세배격을 주장하였으나 그 守舊운동은 개화혁신에 있어서 공적보다는 도리어 장애물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국세가 위급하자 宋秉璿·崔益鉉·趙秉世·閔永煥·李儁·安重根 등 다 유가로 殺身成仁의 大義를 이루었다.

한일합방과 동시에 일본의 문화정책에 따라 일부의 儒學者流가 成均館을 經學院이라 개칭

註^ 四大士禍의 첫사화로 史草문제로 발단되었다고 史禍로 쓰기도 하고 士禍로 쓰기도 한다.

하고 明倫專門學校를 부설하여 功罪 相伴的인 畸型的 敎育을 실시하다가 해방후 전국유림의 총의에 의하여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시키고 1946년 전국 유림의 결합체인 儒道會를 새로 결성하고 성균관대학이 창립되어 유학정신에 의한 새로운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驪州鄕校

여주읍 교리 마을앞 동쪽 300m지점에 있으며 처음 건립된 것은 조선조초 현 여주읍 상리 馬嚴근처였으나 임진왜란 때 타버린 후 여주읍 홍문리 잣나무 고개로 강희 24년(1685) 다시 건립하였다. 후에 부락주민이 자주 희생되어 풍수학상 불리하다하여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건물은 大聖殿 22평과 明倫堂 24평 東庶 8평 西庶 8평 등이고 동무에는 鄭夢周·宋時烈·金麟厚 등을 奉安하고 서무에는 薛聰·安裕 등을 봉안하고 있다. 그밖의 祠宇로는 江漢祠·慕賢祠·梅山書院·孤山書院 등이 있다. (前記 향교·서원편 참조)



여주 향교

2. 儒道會

春秋文廟 奉行과 朔望奉香, 孝子, 孝婦의 發屈 및 表彰, 忠孝道義 宣揚 敎育을 목적으로 하는 유도회는 1957년 10월 1일 창립,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대지부장은 아래와 같다.
1대 : 李熹源 2대 : 貝滋允 3대 : 李圭成 4대 : 崔德重

第2節 佛 敎

B.C 500년경에 인도의 加毘羅國의 太子 싣달다(siddartha-悉達多)가 生·老·病·死의 번뇌에서 解脫코자 오랜동안 修道끝에 覺者(Buddha)가 되어 창설한 종교이다. 그는 人間存在는 욕망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욕망의 근원은 物心에 대한 애착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만물이 고립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인연을 가지고 성립된 존재들로서 이들이 항상 變化·流動하고 있음을 達觀하면



신륵사

스스로가 만드는 고뇌에서 해방되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생활, 고뇌를 초극한 자유의 경지 즉 涅槃에 들어간다고 설법하였다.

이러한것은 八正道를 실천함으로써 달성된다고 說하였고 波羅門 계급에 독점됐던 종교를 만민에 개방했다. 불교는 처음 인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아소카왕의 歸依를 얻어 인도 교외로 퍼져 나가게 되었었다.

그러나 佛陀 入滅後 불교교단은 진보파와 보수파로 대립, 18部니 20派니 하는 수없이 많은 파벌이 발생하였으나, 1세기를 전후하여 敎祖시대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기를 표방하는 정화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은 스스로 大乘이라 칭하고 종래의 部派 불교를 小乘이라 칭하고 종래의 部派 불교를 小乘이라 불렀으며 새로운 經典을 편찬하였다. 이 무렵 희랍文化의 영향 을 받아 佛像이 제작되고 宗敎儀禮나 寺院建築이 급격히 변화·발전했다. 대승·소승불교는 서로 대립하여 전파지역을 확대, 대승불교는 西域의 남부 여러나라와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전파되었으며 소승불교는 세일론 버어마, 타이 등 남방으로 퍼져 나갔다.

또 티베트 지방에는 대승·소승이 함께 전하여져 소위 라마교(喇嘛敎)의 敎圈을 한때는 몽고, 만주까지 확대 해 나갔다.

한편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 6월 秦나라의 順道와 阿道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들어와 省門寺, 伊弗蘭寺 등의 절을 창건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고구려에서는 金剛寺를 비롯한 平壤九寺와 盤龍寺·靈塔 등 유명한 건물을 지어 불교 확장에 힘써 三論宗·살바다종(薩婆多宗)·涅槃宗·天臺宗같은 종파가 생기고 특히 중〔僧〕 義淵은 불교역사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惠便法師·惠慈·隆·雲聰·曇徵·法定 등은 일본에 불교를 전파, 道琳·惠亮法師·德昌·信誠과 같은 중〔僧〕은 軍事力 양성에 공을 세웠다. 이밖에도 詩僧 定法師를 비롯하여 郎大師·實法師·印法師 慧觀·道登·智晃·德普·般若·普德·道顯 등의 고승들이 많이 나와 불교의 융성을 이루었다. 백제에는 고구려보다 13년 후인 384년(백제 침류왕 1)에 인도의 중 摩羅難陀가 晋나라에서 들어와 불교를 펴기 시작하여 후에 戒律宗·三輪宗·成實宗의 3종파가 이루어지고 漢山佛寺·王興寺·彌勒寺·修德寺·景福寺 등의 유명한 절들이 건축되었다. 백제의 불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道藏은 일본成實宗의 開祖가 되고 觀勒은 天文, 地理 등을 전하였으며 惠聰, 道深 등 고승들이 연이어 일본에 들어가 큰 공헌을 하였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여 異次頓의 순교 후 비로소 공인을 받았으나(527 법흥왕)敎學뿐 아니라 사상·문화·정치·생활양식 등 각 방면에 지도이념이 되었다.

唐나라에 유학하는 求法僧이 많아 당대에 완성된 13종을 도입, 발전시켰고 禪宗은 獨自的 발달을 이루어 이른바 九山禪門의 分派를 이루었다. 이와같은 불교의 융성은 건축·공예 방면에도 영향을 미쳐 四天王寺·皇龍寺·奉德寺·佛國寺·海印寺·通道寺 등과 釋迦塔과 多寶塔, 淨惠寺 13層塔과 石窟庵, 皇龍寺 丈六金像, 봉덕사 종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다. 또한 많은 고승들이 나와 신라의 문화와 사상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圓光은 世俗五戒로 국민도의를 확립했고 자장은 국내의 문물제도를 수립, 원효는 80여部의 論疏를 지어 통일불교의 창조에 힘썼다. 특히 慧超는 往五天竺國傳을 지어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고려는 신라의 불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한편 宋의 영향을 받으며 독자적 발달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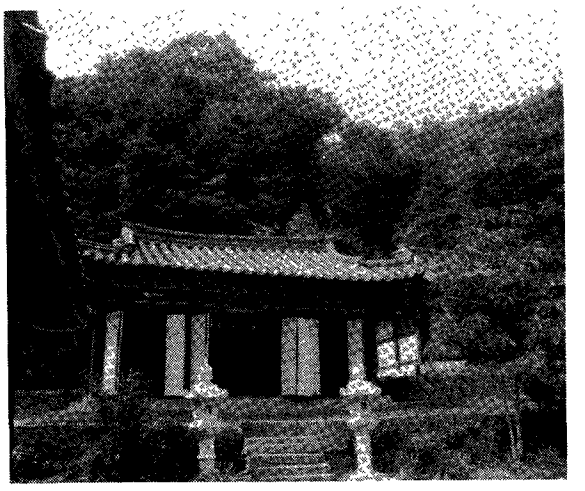
태조는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삼아 燃燈會 八關會 등의 연중행사와 승과를 제정 승려의 신분을 귀족이상으로 대우하였다. 이같은 태조의 숭불정책은 고려 전반에 걸쳐 계승되어 開京의 法王寺·王輪寺 등의 16사를 비롯한 많은 절들을 건축하고 훌륭한 예술품을 완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八萬大藏經이다. 대표적인 승〔僧〕으로서는 大覺國師 의천이 있다. 義天은 문종의 아들로 宋에 유학하고 돌아와 敎藏都監을 設値 續藏經 4천7백 40여권을 刊行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中期의 知訥, 均如, 말기의 懶翁, 普雨, 白雲 등이 이름을 떨쳤다.

이조는 배불정책을 써 불교가 쇠퇴 度牒制를 실시하여 승려의 出家를 억제하고 연산군때는 寺院을 폐지하여 승려를 還俗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지위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세종은 불교종파의 정비를 단행 조계·천태·총남의 3종을 禪宗으로 화엄·자은·시흥·중신의 4종을 敎宗으로 통합하여 선·교兩宗을 성립시켰다. 명승도 많이 배출되어 無學普雨와 임진왜란 때 활약한 西山·泗溟·處英·靈圭 등은 특히 유명하다.

그후 한국불교는 일제의 소위 寺刹令으로 인하여 三十一本寺를 설치 1200여개의 末寺를 두었다가 光復後 全國 승려대회를 열어 敎區制를 정하고 중앙에는 總務院·各道에는 敎務院을 설치 宗憲에 따라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7천여명의 승려와 1200여개의 사찰. 수백만의 신도를 포섭하여 敎化, 敎育, 社會事業에 전념하고 있다. 6.25사변 이후에는 파괴된 백여사원을 중·수축 고문화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佛敎의 大衆化運動을 전개, 한편으로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東國大學校·海印大學·圓光大學·京畿大學과 海東·能仁 등 10여개 고등학교 및 20여개의 중학교를 운영하여 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1954년 이래 比丘·帶妻 두 파의 치열한 분쟁이 있어 분열되었으나 1962년 봄 당시의 文敎部長官 金相滿의 주선으로 통합되어 단일종단을 구성하였다.

驪州 佛敎의 역사는 매우 깊다. 서기764년(신라 경덕왕 23년)에 고달사가 창건되었고 그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신라 때로 건립연대가 추정되는 신륵사가 여주에 세워져 1200여년의 전통에 驕矢를 이룬다.

한편 창리석탑이나 하리삼층석탑, 장흥사지, 정천사지, 상원사지, 흥왕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융성을 짐작할 수 있고 麗末 이름 높은 고승이며 王師였던 懶翁이 神勒寺에서 入寂, 그의 嗣法弟子이며 朝鮮을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無學이 이곳 高達寺에 은거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더욱 신륵사를 유명하게한 것은 조선 예종때 廣州에 있던 英陵을 이곳 驪州로 遷陵, 神勒寺를 英陵의 願刹로 삼아 여러번 重修되었고 그 영향으로 驪州



흥왕사

牧으로 승격되는 行政上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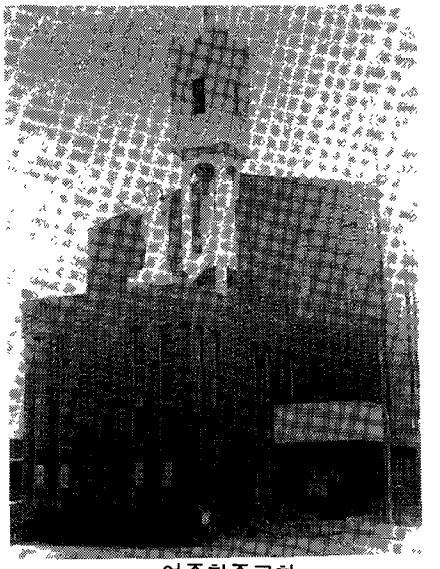
1987년 현재 여주군내의 사찰수는 모두 30개로 이중 등록된 사찰은 14개이며 전체 신도수는 약 4,065명이다. 본군의 사찰현황은 다음과 같다.

불 교 사 찰

명 칭	소 재 지	종 파	대 표 자	창 설 일	신도수 계	신도수 남	신도수 녀
강 덕 사	점동면 덕평 1 리	일 승 종	최 상 윤	1942	50	10	40
경 농 사	대신면 옥촌 1 리	총 화 종	김 영 락	1968. 3	205	25	180
고 달 사	북내면 상교리 419	조 계 종	고 영 식	1973. 12.20	150	20	130
구 곡 사	여주읍 가업리49	조 계 종	김 명 철	1304년 중창1969	170	50	120
구호정사	대신면 율촌2리	총 화 종	마 일 준	1966. 7	110	20	90
극 락 암	대신면 천서1리	태 고 종	윤 복 용	1956. 1	42	7	35
대 법 사	가남면 안금2리	태 고 종	변 남 순	1973.4.10	152	32	120
대 성 사	금사면 의평리	조 계 종	최 주 희	1943	124	54	70
대 성 사	흥천면 율극리		백 동 현		15	5	10
대 왕 사	북내면 당우리	법 화 종	조 점 분	1983.3.14	63	11	52
대 흥 사	점동면 부구리	태 고 종	김 병 제		15	5	10
명 불 사	여주읍 매룡리	조 계 종	손 명 기	1984	160	73	87
모 련 사	금사면 의평리	조 계 종	백 의 언	조선순조8년	40	12	28
미 륵 사	여주읍 창리	조 계 종	김 말 선	1960	124	34	90
백 운 암	대신면 보통2리	총 화 종	이 정 길	1960.5	97	6	91
보 광 사	가남면 안금2리	일 승 종	이 애 기	1946.2.3	79	23	56
봉 암 사	강천면 가야리	일 승 종	이 봉 순	1965.7.15	102	5	97
석 불 암	흥천면 계신리	조 계 종	이 정 자	1961.6.10	50	15	30
성 선 암	금사면 이포리	일 승 종	김 성 복	1920.	48	16	32
송 학 사	강천면 간매리	법 화 종	안 울 녀	1972.3.15	117	12	105
신 륵 사	북내면 천송리	조 계 종	남 궁 혁	신라시대	1500	640	860
약 수 암	흥천면 문장리	조 계 종	박 진 철	1967.11.5	50	15	30
약 천 암	금사면 장흥리	조 계 종	이 희 봉	1986	20	4	16
영 명 사	금사면 하품1리	일 승 종	남 우 령	1976	30	2	28
용 동 사	금사면 이포리	원 효 종	윤 춘 자	1983	30	5	25
운 흥 암	대신면 당남리	총 화 종	나 동 주	1894.3	82	12	70
장 암 사	가남면 금당2리	천 태 종	조 연 구	1971.8.20	52	13	39
정 각 사	점동면 관한1리	조 계 종	이 상 호	1972.9	182	64	118
화 덕 사	대신면 초현1리	조 계 종	유 인 자	1978.5	45	8	37
흥 왕 사	북내면 중암리	조 계 종	권 세 목	미 상	193	42	151

第3節 天 主 教

1. 天主教의 傳來


여주천주교회

天主教는 1世紀初 로마帝國의 영지였던 東方의 팔레스티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創始된 基督教의 源流이다.

聖書에 의하면 예수는 聖靈으로 잉태하였고 출생하면서부터 갖은 受難을 겪었으며 끝내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

이 예수가 創始한 基督教는 그후 300여년 동안 迫害를 받아오다가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皇帝의 公認을 얻어 325年 니케아 宗教會議에서 (萬民이 믿는 宗教)라는 뜻으로 「가톨릭」이라고 教名을 定하고 380年頃부터 帝國의 國教가 되었으니 게르만民族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教和시켜 教組織을 구성하였는데 뒤에 로마 가톨릭 教會와 東方正統教會로 分離되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教會는 1517年 마틴 루터의 宗教改革으로 프로테스탄트가 分離되어나가자 그를 「新教」라 하고 가톨릭을 「舊教」라 부르게 되었는데 오늘날 天主教는 그때의 舊教를 말하는 것이다.

가톨릭教를 天主教라 부르게 된것은 1601年 마테오릿치 神父가 中國에 傳教하면서 漢字로 翻譯 表記한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594年(宣祖27年) 포르투칼神父 세스페데스(G sespèdes)가 壬辰倭亂 당시 日本의 從軍神父로 入國하여 宣教行爲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北京으로 보낸 使節들을 통해 天主教書籍通이 흘러 들어왔고 당시 眞理探求에 熱中하던 學者들의 關心과 好奇心을 사게 되었으며 學問에서 信仰으로 기울어져 갔다.

그뒤 李檗·權哲身·丁若鍾·李承薰 등 많은 人士들이 天主教 書籍을 통해 眞理를 發見하려고 研究했고 그것을 實踐할 責任이 自身들에게 있다고 自認하고 스스로 迷信을 打破하면서 親知들에게 教理를 가르치는 일을 繼續하였으니 이는 世界天主教 布教史上 特異한 것으로 記錄되고 있다.

天主教의 시작은 韓國人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피 흘려가며 成長시켰다.

그래서 世稱 4大教難이라 부르는 辛酉教難(1801年), 乙亥教難(1839) 丙午教難(1864年) 丙寅教難(1866年) 등 百餘年間에 걸쳐 모진 迫害와 禁壓의 길을 밟아왔다.

迫害를 당할 수록 더욱 强하게 일어나 宣教師의 傳道없이 學者들의 研究가 信仰으로 發展

되어 天主敎가 한 獨立된 敎區로 認定되기는 創設된지 46年이 지난 1831年 9月9日이었다.

1836年(憲宗 2年)에는 불란서神父 모방(P Maubant : 羅伯多祿)이 入國하였고 다음해에는 앙베르(Imbert : 范世亨)主敎가 샤스땅(chastan : 鄭牙各伯)神父의 뒤를 이어 入國하였다. 이리하여 敎勢가 다시 擴張되니 당시 信徒數가 9千을 헤아렸다. 朝廷에서는 다시 彈壓을 시작하여 1839年(憲宗 5年) 己亥邪獄이 일어나 3名의 宣敎師와 수많은 신도가 死刑을 당하였다. 그러나 신도의 활동은 계속되어 1845年(憲宗 11年)에는 金大建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의 神父가 되어 傳道에 힘쓰다가 死刑을 당했다.

天主敎가 迫害의 소식이 北京敎區에 알려지자 1846年 (憲宗 12年)에는 佛蘭西 海軍少將 세실(A Cecile)이 군함 3雙을 거느리고 來航하여 宣敎師迫害의 責任을 묻는 글월을 王께 傳하고 다음 해에 回答을 받기로 약속한 뒤에 돌아갔다.

다음해 군함을 보내왔으나 그중 1雙이 좌초되어 英國軍船의 救助를 받고 돌아갔다.

그후 哲宗때 名地의 民亂으로 政府의 탄압이 적어지자 外國宣敎師의 활동이 積極化되어 메스뜨르(Maistre), 베르누(Berneuk), 페롱(Feron) 등이 入國, 敎勢를 擴張하여 1萬 2千餘名의 信徒를 傳道하였으나 大院郡의 執政과 동시에 彈壓은 加一層 심해졌다.

한편 大院郡은 本來 天主敎에 대한 反感은 없었으나 露國의 勢力을 물리치기 위한 佛蘭西 宣敎師와의 交涉이 뜻대로 안되고 趙大妃, 趙斗淳, 金炳學 등의 天主敎 排斥으로 1866年(高宗 3年)부터 彈壓令을 내려 迫害를 加하였다. 그리하여 金長雲, 南鍾三, 丁義培 등 重要人物과 9名의 佛蘭西 神父가 處刑되었다. 迫害는 丙寅洋擾와 南延郡墓 盜掘事件으로 더욱 感情的으로 進展, 1873年(高宗 9年)까지 4百餘名이 희생되었으며 各處에 斥和碑를 세워 宣敎師를 排斥, 天主敎信者로 指目되는 사람은 逮捕, 嚴罰하였다. 그러다 大院君이 실각하고 1882年 (高宗19年)에 美國과 韓美修好通商條約調印을 계기로 斥和碑를 없애고 天主敎活動의 自由를 허용했다.

日帝時代에는 敎會建物의 徵發, 敎會系統 學校의 폐쇄 등 갖은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여 1945年 해방된 해에는 우리나라에 8個 敎區, 7名의 主敎, 2名의 敎區長을 비롯하여 神父로는 韓國人이 128名에 信徒數가 18萬3千餘名을 確保하고 있었다. 1961年에는 京畿道에도 처음으로 仁川敎區가 設定되었고 仁川敎區는 서울大主敎管區에 속한 獨立된 敎區로 되었다.

1963年에는 다시 水原敎區가 設定되었고, 1967年 盧基南 서울敎區長의 隱退로 水原敎區長 尹빅또리노(恭熙)主敎가 서울·水原敎區와 함께 兼任으로 있었다.

1968年敎皇 바오르 6世는 馬山敎區長 金스테파노(壽煥)主敎를 大主敎로 昇格시키는 同時에 首都座인 서울 大敎區長에 任命하였고 1969年 3月 28日에는 金壽煥 大主敎를 樞機卿으로 任命하였다. 이는 韓國 天主敎史上 192年만에 韓國人으로서 최초의 樞機卿이 되었던 것이었다.

現在 18敎區에 樞機卿 1名 大主敎 4名, 主敎 13名, 司祭 800餘名, 修道者 4000餘名, 信徒 1,189,800名을 헤아리게 되었다. 여기서 18敎區中 4敎區는 北韓에 있는 敎區다.

2. 驪州의 天主敎 傳來

驪州의 天主敎 傳來에 대하여는 확실한 기록이 없으나 金沙面 下品里에 走漁寺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200여년 전 한국천주교 창립 聖祖 李檗〔1754(영조30)~1786(정조10)〕과 학자 權哲身, 權日身, 丁若銓, 李承薰 등이 강학회를 수시로 열었다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한국천주교 발상지로 성역화 된 廣州郡 천진암과 앵자봉을 사이에 두고 있어 지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후 1860년대에 形成된 부엉골(일명 부흥골) 교우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박해 초기 부터 많은 信者들이 迫害를 피해 부엉골(現 康川面 釜坪里)을 中心으로 모여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부엉골 교우촌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복음화의 터전인 감곡본당(옛 長湖院本堂)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長湖院 本堂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감곡공동체는 이땅의 교회가 1백여년의 혹독한 박해를 이겨내고 점차 활기를 띄기 시작할 무렵인 1895년 9월 17일 임 가밀로 부이용 신부가 매산 언덕 기슭에 99칸짜리 기와집 터를 사들여 성당을 설립,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감곡공동체는 이렇게 출발했지만 본당의 뿌리는 이 보다 훨씬 전인 1860년대의 부엉골 교우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랑이와 부엉이만이 사는 곳이라고해서 부엉골이라 이름지어진 이곳 부엉골교우촌은 現在 감곡에서 50리가량 떨어져 있는데 강원도와 경기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산세가 험한 지리적 조건으로 박해 초기부터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모여 들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 부엉골(당시 江原道 原州 부엉골이었음)에는 교우촌이 형성되었고 선교사들의 傳敎活動도 活發하여 1885년에는 가톨릭대학의 전신인 예수성심신학교가 설립돼 서울 용산으로 이전할 때까지 운영되는 등, 1894년 임 가밀로부이용신부가 사목활동을 담당했을 때에는 22개공소에 1천2백여명의 신자들이 부엉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부엉골 신자들은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 모든 것을 버리고 모여들었던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깊은 信心의 所有者들이었다. 당시 조선교구장 뮈뗄주교에게 보낸임가밀로부이용신부의 서한에서 보여지듯 「부엉골 신자들은 옹기굽기, 화전생활 등의 궁핍한 생활여건과 동학혁명, 한일합방 등 수많은 격동의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을 꿋꿋이 지켜 나가는 열성을 가짐으로써 후일 감곡본당이 성소의 온상으로 자랄 수 있는 커다란 밑거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천주교세가 타지역보다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부엉골인 강천면 부평리에는 교인이 2가구 살고 있으나 당시 부엉골(마을사람들은 범골이라함)에는 집이 모두 헐렸으며 인근에 道全1, 2, 3, 4里에는 天主敎人 集團村으로 공소가 있으며, 康川面 伽倻1里에도 오감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옛날 옹기를 굽던 곳이며 공소가 있다.

여주 천주교는 앞서 말한대로 長湖院 本堂의 공소였다가 1941년 이천본당이 감곡본당(옛

長湖院本堂)에서 분리되면서 利川本堂 驪州공소가 되었고, 1950년 이천본당에서 여주본당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총 신자수는 2,250명이고, 관할 공소는 16개소이다.

3. 예수성심신학교

1855년 충청도 제천 배론(舟論)(現 忠北 提川郡 鳳陽面 九鶴里)에 신학당을 세워 신학교육에 착수하였으나 1866년의 병인박해로 인하여 폐쇄되었다.

신앙의 자유가 점차 묵인되어 가자 1882년 교회에서는 다시 신학생을 선발하여 말레이반도 페낭(penong)에 소재한 신학교로 교육을 보냈으며, 유학생은 모두 21명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러나 페낭의 기후조건이 한국인에게 맞지 않았고, 또 국내에서도 신앙자유의 폭이 넓어지자 국내에 신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났다.

그 결과 1885년 10월 28일 江原道 原州 부흥골(현 京畿道, 驪州郡 康川面 釜坪里)에 예수聖心神學校를 개교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校名, 교수진, 학생, 설립이념 등을 감안할 때 현 가톨릭대학 신학부의 직접적인 전신이 되고 있다.

예수聖心神學校는 1886年 서울 용산(현 서울 龍山區 元曉路 4가 1번지)로 이전하였고 당시의 교과과정은 성직자에게 필요한 철학, 신학 뿐만 아니라 라틴어, 한문, 역사, 지리, 천문 등을 교육하였다.

天主敎에서는 이곳을 성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부흥골은 옛집터만 남아있고 폐허화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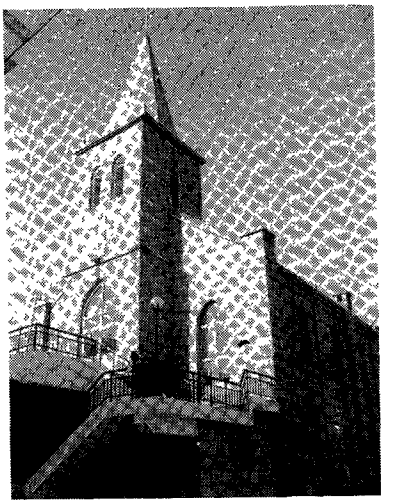
4. 驪州天主敎會

주보로 「성 바울로」를 모신 이 本堂은 1950년 4월 이천본당에서 분리 설정되어, 尹炳熙(바오로)신부가 초대 본당 신부로 부임하였다. 2개월 만에 6.25동란이 일어나 성당을 소실하고, 얼마동안 다시 이천본당에 편입된 파란을 겪었다. 1953년에 崔奭浩(바오로)신부가 2대 본당신부로 부임하자, 한옥을 사들여 임시성당으로 사용하다가 교우들의 열성적인 誠米운동을 기초로 미군부대의 원조를 얻어 여주군 여주읍 하리 215번지에 대지 1,300평을 마련하고 1955년 4월 불록벽돌로 88평의 성당을 지어 축성식을 올리는 한편 80평의 유치원도 지어 개원하였다. 1954년말 총 교세는 602명, 여주본당은 1956년 무렵부터 연례행사로 본당 및 각공소 주일학교 대항 교리 경시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62년 趙昌熙(베네딕토)신부의 재임 중 수원교구로 편입되었다. 현 성당은 徐鍾善(토마스)신부가 부임한뒤, 1981년 9월 구성당을 철거하고, 10월에 착공하여 교우들의 정성으로 모은 2억여원의 공사금으로 고딕양식의 현대 건물을 지어 1982년 10월 20일 축성된 것이다. 현재 신자 총수는 2,250명이고, 관할 공소는 16개소이다.

그동안 여주본당 주임신부는 다음과 같다. 초대 1950년 2월 윤병희, 2대 최석호, 3대 金允相(베네딕토), 4대 趙昌熙(베네딕토), 5대 李鍾淳, 라우렌시오), 6대, 金昌麟(필립보), 7대 金炳烈(보니피시오), 8대 金榮玉(가브리엘), 9대 裵文漢(도미니코), 10대 柳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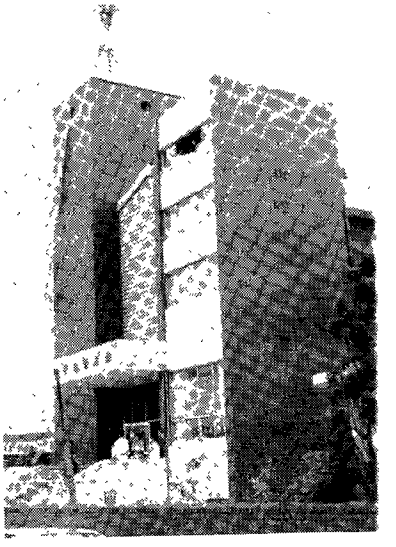
善(레오), 11대 李重鉉(요한), 12대 서종선, 13대 徐範錫 (요셉)
현재 천말라키아, 이 에멜리아케리가 주임으로 있다.

第4節 基 督 敎


1904년에 건립된 여주중앙감리교회

기독교는 독일에 마르틴·루터가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여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의 別派의 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의 시초이다.

우리나라에는 1885년 미국 北長老敎會의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같은 미국의 監理敎宣敎師 아펜젤리(H. D Aptnzeller)에 의해 본격적인 선교사업이 시작되었다. 구교인 카톨릭은 초기부터 박해를 받아 그 선교가 순탄치 못했으나 改新敎는 우리나라가 歐美諸國과 수호조약을 맺은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宣敎는 비교적 순조로왔다. 그래서 성장과 발전이 눈부시게 빨랐고 현재 많은 신도를 가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여주성결교회

한편 성경은 이보다 훨씬 앞서 1816년(순조16년) 미국함장 홀(Basil Hall)에 의해 백령도와 청도에 이미 들어왔으며 50년 후인 1866년(고종 3년) 토마스(Roberr Jemain Thomas)목사가 미국상선 제레네랄 셔먼(Genenal Sherman)호를 타고 평양에 왔을 때 성경을 전하고 순교했다. 임오군란 후 修信使 朴泳孝 일행을 따라 일본에 수학중이던 유학생 李樹廷이 번역한 성경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올 때 가지고 왔으며 1887년 만주에 와 있던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로스(John Ross)목사의 뒷받침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사랑으로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白鴻俊, 李應贊, 李成夏, 金鎭基 등으로 1876년 세례를 받았다.

1887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長老會의 「새문안교회」가 창설되었고 한달 후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가 설립되었다.언더우드는 영국태생으로 미국에 이민와서 대학을 마치고 인도 선교사로 준비를 하다가 마침 조선에 문호가 개방되었음을 보고 한국에 온 것이었으며 그 해에 연희전문학교도 세웠다. 또한 北長老會의 선교사로 언더우드의 뒤를 이어 세일(J. S Cele) 어비슨(obirson)이 서울을 중심으로 선교와 교육과 의료사업을 시작했고 1893년 馬布三悅(A. Moffet)·배위량(W. A Baird)의 두 박사가 평안도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학교도 같이 세웠다.

오스트리아 장로회는 멕켄지(W. Mckenzie)목사가 황해도 장연에서 선교하다가 1년여 만에 죽음으로 1898년 5명의 선교사를 다시 보내 함경도와 만주 간도 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폈다.

이상의 4개 장로파는 1912년 통합, 조선예수교장로회로 발족하였다.

미국의 北監理教는 1885년 4월 의사 스크랜톤(W. B Scranton)과 그의 어머니도 함께 오게 되었는데 스크랜톤의사는 1886년 5월 31일 이 나라의 최초 여성 교육기관인 梨花學堂을 만들었다. 그 후 푸라이(L. E Frey) 등의 우수한 선교사들이 계속 내한하여 경기, 강원, 충청, 황해등지를 중심으로 선교했고 한편 南監理會는 1895년 尹致昊의 청원으로 핸드릭스(E. R Hendrix) 감독과 李德박사를 통하여 경기, 강원, 함경지역에 선교활동을 펴나갔으며 교육, 의료기관도 함께 설립 했다. 1930년 12월 2일 남북감리교회는 총회를 열고 기독교 조선감리교회로 통합했다.

그 외에 浸禮教를 비롯하여 1890년에는 聖公會가 들어왔고 뒤이어 1904년에는 安息教, 1908년에는 求世軍이 들어왔다. 1919년 三·一운동이 일어나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되고 학살당했으며 2차대전까지 탄압은 계속돼 宮城遙拜, 創氏改名, 日語使用, 神社參拜 등을 강요당했고 불응하는 사람은 구실을 붙여 투옥되기도 하고 강제노역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6.25동란으로 서울에서 60여명의 교직자가 체포당하고 40명이 처형되는 등 수 없는 탄압의 일대 수난을 겪었다.

驪州에 基督教가 들어온 것은 1900년 전후로 1904년 감리교인 여주중앙교회와 강천교회가 설립되고 난 뒤부터 본격적인 포교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뒤를 이어 북내중앙교회(1905), 점동 청안교회(1906) 가남 삼군교회(1907) 등이 세워지고 20년 후에 성결교 계통의 장풍교회(1922), 후포교회(1932)가 창설되었다.

장로교도 그때 들어왔겠으나 확실한 史料가 없다. 뒤에 순복음교회, 구세군, 안식일교회, 통일교회 등이 자리잡아 교세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군내 교회수는 92개이며 신자는 8,464명이며 1987년 말 현재 군내 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회 현황(1)

감리교

구분 / 명칭	소속교구명	대표자			창설일	소재지	신도수		
		직책	성명	취임일			계	남	녀
여주중앙교회	대한감리교감리회	목 사	배정길	77. 6. 9	1904.11.24	여주읍 창리68	1000	300	700
여주제일교회	〃	목 사	계강화	86. 8.21	1977. 4.10	여주읍 홍문리 181	150	60	90
여주월송교회	〃	목 사	김희창	87.10. 1	1984.11.28	홍문읍 교리 292	120	40	80
여주소망교회	〃	목 사	명창식	85. 6.15	1915. 8.15	여주읍 점봉리 93	70	30	40
여주점봉교회	〃	전도사	신용대	82.11.21	1969.11.19	여주읍 점봉리 93	130	60	70
여주상거교회	〃	목 사	이현택	82. 4.16	1955. 2.17	여주읍 상거리 250	120	50	70
여주시몬교회	〃	목 사	박영찬	86.12.15	1967. 3. 1	여주읍 연양리산10	60	20	40
여주삼교교회	〃	전도사	조호연	84. 4.13	1904	여주읍 삼교리 18	145	60	85
여주여흥교회	〃	목 사	안병조	85.12.23	1907. 3. 5	여주읍 단현리 226	150	50	100
청안 교회	〃	목 사	박종선	79. 5	1906. 3	점동면 청안리	145	52	93
성신뇌곡교회	〃	전도사	임일우	86. 8	1967. 5	점동면 뇌곡2리	40	52	29
현수교회	〃	전도사	배성봉	87. 1	1959. 3	점동면 현수2리	33	15	18
승안교회	한국크리스트	전도사	황선원	82. 3	1975.11	점동면 장안1리	30	5	25
장안교회	대한기독교감리회	전도사	이영복	86.12	1959. 8	점동면 장안리	51	21	31
삼동교회	〃	전도사	박순자	86.10	1986.10	점동면 삼합2리	20	4	16
혼암교회	〃	전도사	이성희	86.11	1976.10	점동면 혼암리	35	17	18
쳐리교회	〃	목 사	김일배	86. 6	1912.10	점동면 쳐리	82	30	52
상활교회	〃	목 사	이석기	86. 1.19	1953. 7.13	가남면 상활2리	190	70	120
가남교회	〃	목 사	김보섭	83. 3.24	1954. 4.13	가남면 심석1리	430	150	280
삼군교회	〃	목 사	최종우	84. 9. 1	1954. 4.15	가남면 삼군리	100	40	60
오산교회	〃	전도사	이규봉	83. 1.18	1907. 3.20	가남면 오산리	35	50	20
금당교회	〃	전도사	김시윤	84. 8. 9	1984. 8. 9	가남면 금당2리	130	25	80
장수교회	〃	목 사	김희창	54. 4.18	1954. 4.18	능서면 백석2리	49	10	24
양화교회	〃	전도사	김경현	85. 5.14	1976. 1. 1	능서면 양내리	30	25	20
매화교회	〃	목 사	노삼용	83. 3.15	1983. 1. 3	능서면 매화리	60	25	35
매류교회	〃	목 사	김병섭	87. 1. 7	1952. 9. 1	능서면 매류리	80	15	55
동신교회	〃		유병춘			능서면 광대1리	37	57	22
홍천교회	〃	목 사	전종욱	87. 2.10	1967. 6. 8	홍천면 효지리	159	57	102
상백교회	〃	전도사	양금희	80. 4. 1	1976.10.15	홍천면 상백리	41	15	26
신근교회	〃	전도사	황영봉	78.10. 1	1979.10.15	홍천면 신근2리	30	10	20
복대교회	〃	목 사	윤헌석	85.11. 5	1982.11. 5	홍천면복대1리	70	25	45
이포교회	〃	목 사	이영호	87. 9.22	1905. 3	금사면 이포리	30	10	20
하호교회	〃	전도사	박창수	87. 1.13	1952. 2.14	금사면 하오리	20	8	12
전북교회	〃	전도사	정재호	87. 2.13	1977.10	금사면 전북리	20	7	13
하림벧엘교회	〃	전도사	김종오	82. 9	1970. 3	대신면 하림2리	30	13	17

대신제2교회	〃	전도사	장병용	86.12	1981. 5	대신면 보통3리	77	20	57
대신제1교회	〃	목 사	김영창	79. 1	1979. 1	대신면 율촌2리	169	64	105
중앙교회	〃	목 사	김지원	87.12.5	1905. 9. 2	북내면 당우리	110	35	75
학동교회	대한기독교감리회	전도사	이필상	86. 2.10	1986. 2.10	북내면 현암1리	15	3	12
강천교회	〃	전도사	강영구	86. 3.28	1904	강천면 강천리	46	6	40
강남교회	〃	전도사	신현명	85. 9. 4	1979.11.11	강천면 굴암리	45	20	25
은천교회	〃	목 사	유승률	87. 7.28	1975. 7.25	강천면 가야리	40	13	27
간매교회	〃	목 사	민병연	87. 2. 6	1947. 8. 7	강천면 간매리	60	10	50

교회현황(2)

장로교

구분 / 명칭	소속교구명	직책	대표자		창설일자	소재지	신자수		
			성명	취임일자			계	남	녀
동산교회	예수교장로회	목 사	서정수	83. 8.17	1974. 4. 9	여주읍 상리	50	20	30
여주세종교회	〃	목 사	김충수	87. 9. 1	1982. 6.2 2	여주읍 홍문리	100	40	60
제일장로교회	기독교장로회	목 사	박태희	83. 1.11	1969.10. 7	가남면 상승리	40	15	25
소망교회	〃	목 사	김주현	86. 3.11	1986. 3.11	가남면 태평4리	100	30	70
양귀교회	〃	목 사	이훈영	83. 7.23	1983. 7.23	가남면 양귀리	00	40	60
성민교회	예수교장로회	전도사	서용현	80. 4. 1	1984. 7	흥천면 율곡리	26	4	22
외사교사	〃	전도사	임종운	84. 7.6	1984. 7. 6	흥천면 의사1리	45	10	35
성은장로교회	〃	목 사	옥명경	72. 3.10	1972. 3.10	흥천면 신근1리	50	15	35
상백교회	〃	목 사	성호승	76. 8. 3	1976. 8. 3	흥천면 상백리	21	8	13
금사교회	기독교장로회	목 사	오승현	80. 4	1980. 4	금사면 도곡리	20	7	13
금평교회	예수교장로회	전도사	박영숙	76. 5.17	1976. 5.17	금사면 금사1리	15	3	12
상품교회	기독교장로회	목 사	박진철	70. 7.15	1970. 7.15	금사면 상품리	25	12	13
제일교회	〃	전도사	정윤현	85. 3	1985. 3		25	9	16
산북중앙교회	〃	전도사	김한희	82. 1.17	1977. 1.23	금사면 하품1리	15	7	8
송현교회	〃	전도사	김태욱	86. 5	1986. 5	금사면 송현리	18	9	9
송촌교회	〃	전도사	신은섭	84. 2. 5	1984. 7. 5	대신면 송촌1리	46	12	34
천서교회	〃	전도사	한상태	86. 2	1980. 5	대신면 천서1리	30	9	21
당남교회	〃	전도사	홍정수	85.10	1985.10	대신면 당남리	33	10	23
원천교회	예수교장로회	목 사	박치석	85.11.10	1985.11.10	북내면 오학2리	40	12	28
천송교회	기독교장로회	목 사	김진호	86.10.16	1979.11.27	북내면 청송2리	12	4	8
금현교회	예수교장로회	목 사	장병가	83. 3.20	1975. 7. 6	북내면 의룡리	70	30	40
주암교회	〃	목 사	이승율	83.10. 1	1957.10.30	북내면 주암1리	50	15	35
덕암교회	〃	목 사	이만길	81. 9. 2	1959. 1.15	북내면 장암1리	70	30	40
지내교회	〃	목 사	이강화	85. 4.10	1958. 3. 2	북내면 지내리	70	20	5
생수교회	〃	전도사	김한종	87. 6.30	1987. 6.30	북내면 천송1리	20	6	14
걸은교회	기독교장로회	목 사	전형주	84. 5. 7	1969.11. 1	강천면 길은2리	35	5	30

교회현황(3)

(87년말 현재) 성결교회

구분 / 명칭	소속교구명	대표자			창설일	소재지	신도수		
		직책	성명	취임일			계	남	녀
여주중앙성결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	목사	여성삼	82.3.1	1932.5.13	여주읍 하리 282	600	200	400
여주낙원성결교회	〃	목사	원상섭	85.12.19	1985.12.19	여주읍 교3리	40	10	30
여주베들성결교회	〃	전도사	이명순	85.1.14	1971.4.15	여주읍 연라리 589	93	35	58
점동성결교회	〃	전도사	신선범	86.3	1968. 9	점동면 도리	24	3	21
나사렛성결교회	〃	전도사	이정덕	84.1.26	1984.1.26	가남면 태평4리	25	8	17
능서성결교회	〃	목사	문장환	75.2.25	1964.3.8	능서면 신지리	100	40	60
왕대성결교회	절성 〃	목사	허은	77.8.25	1950.9.1	능서면 왕대리	96	30	60
계명현교회	오순절성결교	목사	김창섭	79.4.1	1977.7.5	흥천면 상대리	45	15	30
후포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	목사	안응모	80.7	1932. 9	대신면 후포리	189	57	132
천남교회	〃	목사	신수부	85.2	1973. 7	대신면 천남2리	71	21	50
장풍교회	〃	목사	최하용	81.3	1922. 9	대신면 장풍2리	68	23	45
부촌교회	〃	전도사	이강윤	86.3	1978. 6	대신면 무촌리	25	10	15
대신교회	〃	목사	유사근	86.12	1948. 9	대신면 율촌리1	143	57	86
한강교회	〃	목사	황재일	81.5.23		북내면 현암1리	90	30	60
부흥교회	〃	전도사	윤여성	78.7.14	1974. 3.1	북내면 오금리	27	5	22
운암영생교회	〃	목사	윤방원	86.5.24	1983.6.13	북내면 중암1리	35	10	25

교회현황 (4)

기 타

구분 / 명칭	소속교구명	대표자			창설일	소재지	신도수		
		직책	성명	취임일			계	남	여
여주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	전도사	윤용철	15.11.1	1985.11.1	여주읍 창리 136	80	30	50
여주하나순복음 교회	님의 성회	전도사	박경심	84.11.11	1979.6.6	여주읍 하거리	30	4	26
여주구세군교회	기독교 구세군	교회사관	이봉석	87.6.11	1977.1.1	여주읍 하리 290	30	10	20
여주제칠안식일교회	제칠안식일예수재림 교회	목사	이기명	87.3.1	1964.3.1	여주읍 홍문리	130	54	76
현수안식일교회	〃	장로	이경수	80.4	1972. 11	점동면 현수2리	25	10	15
안식일교회	〃	목사	성병우	85.3.10	1962.3.10	가남면 태평리	130	70	60

第5節 民族系列宗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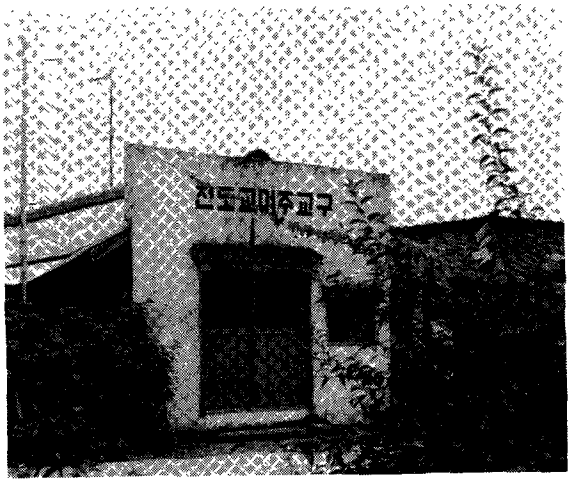
1. 天台宗

大韓佛教 天台宗은 그 기원에 있어서는 1천 4백년전 중국의 智者大師가 天台山에 들어가 9년간 수도하다 깨달아 일으킨 불교운동이나 그후 고려의 大覺國師가 宗旨를 이어 한국에 옮겨왔으며 이조 世宗 6년에 폐합되어 없어진 것을 上月大祖師가 깨달음을 얻어 다시 일으켜 세운 宗團이다. 上月大祖師는 1966년 8월 30일 天台宗의 개창을 선포하고 1967년 1월 24일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발족했다.

教理는 經典 妙法蓮華經을 주축으로 하여 대중불교의 실현, 생활불교의 실천, 애국불교의 건립을 3대 지표로 내세우고 있다. 總本山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救仁寺로서 많은 신도가 기도도장으로 쓰고 있다. 본군에는 가남면 금당2리 장암사가 있다.

現 代表는 宗正 南大忠大宗師이며, 사찰수가 114개소, 신도 회관 85, 승려수 436명, 신도수 1,154,785명이다.(참고문헌 : 姜壽元 外6인<한국종교신상>, 太學堂, 1984).

2. 天道教



천 도 교

天道教는 先天 오만년의 인류역사 시간을 縦으로 하고 억천만겁의 인류문화를 横으로 한 역사적 배경으로 출현한 1860년(포덕 원년)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이다. 創教主 水雲大神師는 1824년 10월 28일 경주 정리에서 태어나, 고행을 하다가 32세에 울산 호암동에서 天書를 받고, 37세인 1860년 4월 5일 天道를 깨닫고 세웠다.

教理는 人乃天을 기본 宗旨로 하고 있다. 天道教는 갑오 동학운동과 갑신혁신운동 新文化運動 그리고 근래에 와서 전위운동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념일로는 매년 4월 5일 天日이라 하여 水雲大神師가 창도한 날을 기리고 8월 14일 地日 12월 24일 人日, 1월 18일 道日로 행사를 한다. 教勢로는 現 代表가 高定勳 教領이며, 교당수가 301개소, 교직자수 4,435명, 신도수가 1,454,172명이다.

驪州에는 天道教 第2世 教祖인 海月神師 崔時亨선생墓가 金沙面 走廋里 산 69의 19에 있

다.

驪州에 天道敎가 들어온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897년 崔時享 外 여러 사람이 驪州郡 康川面 道全里에 피신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여주에는 1906년 1월 4일 天道敎 驪州敎區가 설립되었다.

여주읍 하리 190번지에 敎會가 있고 敎區長은 김학권씨이며 현 신도수는 60명이다.

驪州의 天道敎 聖地

本郡에는 天道敎 聖地가 2곳이 있다. 天道敎 第2世 敎祖 海月神師 崔時享墓所가 金沙面 走鹿里에 있으며 海月神師가 4개월 간이나 머물렀으며 第3世 敎祖인 義菴聖師 孫秉熙에게 道統을 전수하고 최후의 법설을 내린곳이 바로 康川面 道全2里「全巨論」마을이다.

海月神師가 음죽군 앵산동에서 驪州 全巨論으로 피신해 온 것은 1897년(포덕 38) 8월 추석이 지나서 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곳에는 崔時亨 外에 교도들이 같이 있었는데 孫秉熙를 위시한 김연국, 손병흠, 김낙철, 申賢景, 廉昌淳, 李容煥(漢), 李春敬과 崔時亨의 가족도 함께 있었던 것 같다.

이때 海月神師는 71세의 고령으로 병석에 있었으나 大道의 將來를 염려하고 10월 28일 大神師의 탄신일을 맞아 제자들에게 重大한 說法을 내렸는데 이것이 최후의 설법이었다.

그리고 12월 24일 大道의 重責을 孫秉熙에게 전수하니 이가 곧 제3세 敎祖이며 후일 3·1 기미독립운동을 주도하고 「東學」을 「天道敎」라 개칭한 사람이다.

이듬해인 1898년 1월 2일 당시 海月神師는 驪州 全巨論에 있었는데 老患으로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聖師이하 중요 頭目들이 神師를 모시고 그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때 李鐘勳이 驪州에 와서 林淳瀨에게 「지금 權重天의 집에서 오는 길인데 오늘 새벽 官軍이 權重天 형제의 집을 포위하고 權聖佐를 체포하였으니 이리로 오기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林淳瀨은 곧 밤길을 걸어 全巨論으로 가서 崔時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患侯가 심한데다가 날씨도 춥고 폭설이 내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孫秉欽이 피신할 것을 간청했으나 「急則緩」이라 하면서 「일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다만 天命을 기다릴 따름이라」하고 듣지 않았다.

이튿날 (3일) 아침 官軍 20여명이 들이닥쳐 사태가 위급하게 되었다. 이때 海月神師 집에는 孫秉熙를 비롯해서 孫秉欽, 廉昌淳, 林淳瀨등 4인이 있었고 울타리를 사이에 둔 아랫 집에는 金演局, 金洛喆, 金洛鳳등이 살고 있었는데 때마침 모두 출타하고 金洛喆이 혼자 있었다.

병정 1명이 權聖佐를 데리고 들어와서 「崔法軒과 孫應九, 金致九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金洛喆은 「나는 恩律人으로 지나가다가 5. 6일전에 주인인 李某(金演局)가 이곳에서 訓學해 달라고 하기에 머물러 있는 중인데 그런 사람은 모른다」하고 「주인은 再昨日에 省墓次 廣州에 갔다」고 하였다.

한편 神師宅에 들어간 兵丁들은 거칠게 搜索하였다. 이때 孫秉熙가 兵丁에게 말하기를 「士大夫의 집에 함부로 돌입함은 無禮가 아니냐」하니 兵丁이 權聖佐를 가리키며 「이 자는 東學軍으로 자기선생댁이 이 집이라 하기에 東學魁首를 잡으러 왔노라」하므로 孫秉熙가 이에 木枕을 들고 權聖佐를 향하여 「이놈아 너는 어떤놈이관대 士大夫의 집을 東學魁首의 집이라 誣

告하느냐]하고 怒한눈으로 꾸짖으니 權聖佐가 혼비백산하여 병정에게 「내 잘못 보았노라」 하였다.

병정들은 할 수 없이 權聖佐를 앞세우고 笠山 밑에서 글방선생 노릇을 하는 金商律의 집으로 갔다. 權聖佐는 金商律을 가리키며 崔法軒이라고 하자 그를 포박하고 고문을 가하였으나 法軒이 아님을 알고 다시 金演局의 집으로 왔다. 權聖佐는 고문에 못이겨 金洛喆을 崔法軒이라 하였다. 金洛喆은 앞서 병정들이 왔다 갔을 때 피신할 생각이 있었으나 神師의 大道를 위하여 대신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체포되어 갔다.

급습을 간신히 모면한 이날밤 義菴을 비롯해서 孫秉欽, 金演局, 林淳瀨등 제자들이 서둘러 神師를 가마에 태워 집을 빠져나와 砥平郡 葛峴 李康洙의 집과 洪川東面 방아재에 龍汝洙의 집에 당분간 머물렀다가 2월 그믐에 原州郡 송골(原州 好楮面 高山里) 元鎭汝의 집으로 移居하였다.

海月神師는 이곳에서 4월 5일 낮12시경에 끝내 체포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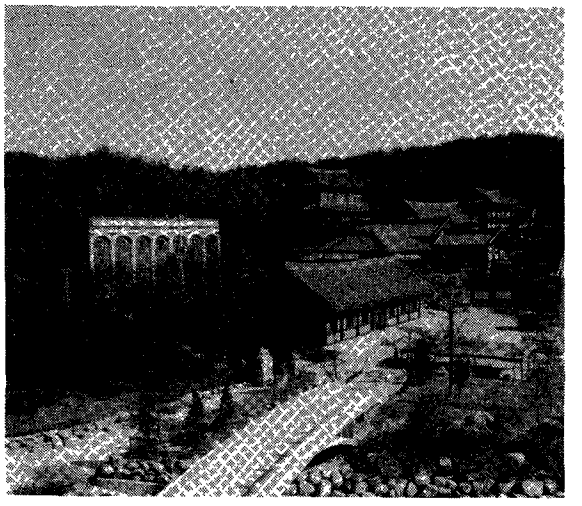
海月神師는 文幕을 거쳐 驪州까지 船便으로 호송되어 일단 수감되었다가 漢江을 따라 서울로 압송되어 6월 2일 (음력)下午2時에 絞刑을 받아 殉道하였으니 享年 72세였다.

神師의 屍體는 李鍾勳이 校卒 金俊植과 밤중에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光熙門밖 共同墓地에서 「東學魁首 崔時亨」이란 팻말을 보고 假埋葬된 屍體를 거두어 斂襲한 後 廣州 松波 李相夏의 산에 葬禮를 지냈다. 本郡 金沙面 走鹿里 天德山으로 移葬한 것은 (포덕 41)年(庚子) 5월 1일 이었다.(참고문헌 : <天道敎 100년史>).

3.大巡眞理會

大巡眞理會는 姜甑山上帝를 信仰의 對像으로 해서 조직된 民族 宗敎團體이다. 創始者 姜甑山 선생은 1860년대의 東學思想과 1870년대의 開化思想으로 근대화를 모색할 무렵 이 강토에 강세 하였다가 일제에 짓밟히기 시작한 1909년에 화천(서거)했다.

大巡眞理會의 기본 敎理는 天地公事에 있으며, 典經으로는 행록 5장, 공사 3장, 교문 2장, 교법 3장, 권지 2장 그리고 제생과 예시 각각 1장이 포함되어 있다. 大巡眞理會의 事業으로는 포덕, 교화, 수도사업과 3대 종단 기본사업으로 구호자선, 사회복지, 사회교육 —대순장학회—사업 등과 육영사업으로는 대진고등학교가 건립중에 있다. 중요 年中行事는 四大節로 降世節(음 9월 19일)—姜甑 山上帝降世日. 化天節(음 6월 24일)姜 甑山上帝化天日, 誕降日(음 12월 4일) —趙鼎山道主의



대순진리회

탄생일, 聖化日을 致誠한다. 종단 代表는 都典 朴漢慶이며 교세는 전국 68만여명, 회관, 회실, 포덕소는 1,500여개소이고 교직자는 2,500여명이 된다.

여주군에는 강천면 가야리 650번지의 2에 대순진리회 여주수도장이 있으며 여주읍 창리에 포덕소가 있으나 신도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大巡進理會 驪州修道場

대순진리회 여주수도장은 1986년 11월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 650번지의 2에 남한강변에 대지 3,949평에 총건평 1,538평으로 본전 정각원, 수강원, 사무실, 생활관, 식당 등 10동 규모의 콘크리트 한옥식 건물로 지어졌다.

이 수도장은 1986년 11월25일부터 개강되었는데 대순진리회 신도 중 교직자와 수도인의 참선과정의 신도를 교육 하고 있다.

교직자 과정은 2박3일로 기별 50명으로 년간 9,000명을 교육하며, 수도인 과정은 4박5일간으로 기별 18명으로 년간 1,620명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68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4.世界基督教 統一神靈會

世界基督教 統一神靈會(統一教라 한다)는 創始者 文鮮明先生이 1954년 5월 1일 서울 성동구에 세운 종교단체이다. 文鮮明先生은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定州郡 德彦面 上恩里에서 태어났다.

教理는 성서를 해석한 原理講論에 있으며 그 6대 신조는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로 믿고, 신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받들고, 예수를 인간의 구주인 동시에 복귀된 신의 조상으로 믿고, 예수가 한국에 재림할 것을 믿고, 인류는 재림 예수를 중심으로 대가족사회가 될 것을 믿고 善과 천국을 세우는 것을 믿는다.

統一教는 世界的인 무대에서 산업, 경제, 과학, 문화, 예술에 걸쳐 크게 활동하고 있다. 現 代表는 김영휘 協會長이고 교회수 521, 교직자수 1,563명, 신도수 416,756명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教勢로는 세계각지에 284만명의 신도가 있다.

여주군에 통일교회가 들어온 것은 1959년으로 관내 통일교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회명	소속교구명	대표자			창설일	소재지	신도수		
		직책	성명	취임일자			계	남	녀
여주통일교회	통일교	목사	유재철	86.6.1	59.12.20	여주읍 홍문리	125	60	65
송림교회	〃	장로	민기식	84.10.3	84.10.3	가남면 송림리	75	30	45

5.韓國佛教能園寺

彌勒正法의 不可思議한 眞理를 體得하여 生活과 直結된 大衆現代 佛教의 具現으로 所願을

成就케 하고 濟世民安과 引法護國함을 목적으로 하는 능원사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502번지에 本寺가 있으며 경전은 彌勒經이고 창시자는 金法光 主持로서 1977년 12월 8일에 개설하였으며 전국신도의 수는 5,000여명이다.

여준에는 북내면 당우리에 布敎所가 있으며 신도수는 500여명 가량이다.

第3章 藝 術

第1節 概 說

藝術이란 創造的·直觀的으로 美的 理念을 表現하는 人類文化의 重要한 現象의 하나로 文學, 美術, 音樂, 演劇, 舞踊, 映畫, 建築, 彫刻 等을 의식적으로 創造해내는 活動으로서 人類歷史와 더불어 生成되어 왔으며 人類文化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本郡은 한글을 創製한 世宗大王陵을 모시고 있어 英陵을 발판으로 5월 15일에는 世宗大王崇慕祭典行事, 10월 8일~10월 9일에는 世宗文化 큰 잔치를 年例的으로 거행하고 있어 郡民들의 自負心은 대단하다. 또한 本郡 北內面 五鶴里, 峴巖里 일대에 傳統陶瓷器인 高麗靑瓷와 李朝白瓷를 傳承, 發展시키는 陶窯村이 形成되어 150여 業體가 陶藝文化를 꽃피우고 있고 全國 陶藝展에서 많은 作家들이 入賞하고 있음은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다.

驪州郡이 낳은 文人으로는 高麗時代에 동국이상국집과 백운소설을 쓴 白雲居士 李奎報를 손꼽을 수 있으며 現代에는 〈朝鮮總督府〉를 쓴 柳周鉉씨가 있다. 그러나 驪州는 首都圈 地域에 위치하고 있어 本郡 出身의 많은 藝術人들이 서울에서 創作活動을 하고 있어 서울의 우산속을 벗어날 수 없는 實情이며 地域特性의 文化를 살리지 못하고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第2節 文化行事

1. 世宗文化 큰 잔치

1962년 10월 9일 한글 頒布 516周年을 맞는 한글날, 京畿道와 再建國民運動 京畿道支部, 그리고 藝總京畿道支部의 共同主催로 제1회 「世宗文化 큰 잔치」를 열었다. 이 「世宗文化 큰 잔치」를 갖게 된 것은 京畿道 나름의 擧道的인 文化行事를 摸索해 오던 중 마침 世宗大王의 陵墓를 모신 英陵이 京畿道 驪州에 位置하고 있는 점에 着眼하여 이를 土臺로 세종대왕의 聖德과 偉業을 追慕하는 한편, 大王이 이룩한 燦爛한 民族文化를 國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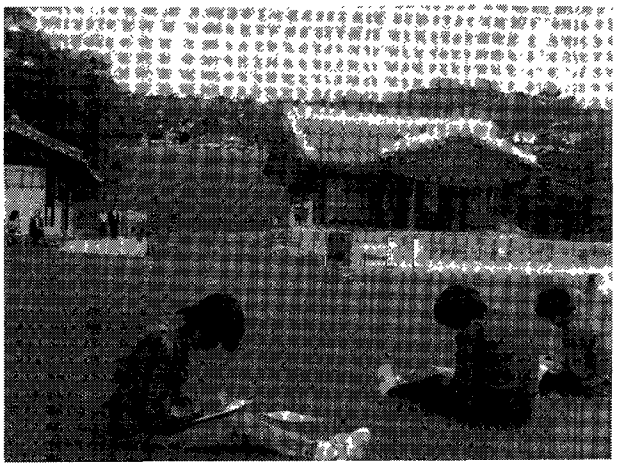


세종문화 큰잔치 (왕후행차놀이)

外에 宣揚하고, 그 傳統에 바탕을 둔 새로운 民族文化 發展에 奇與하자는 目的으로 行事를 갖게 된 것이다.

主催側으로서는 이 행사를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慶州의 新羅文化祭와 晋州의 開天藝術祭, 扶餘, 公州의 百濟文化祭와 같은 規模의 文化行事로 이끌려고 꾀했었다. 따라서 10월 9일 驪州 英陵에서는 陵前 행사로 記念式과 한글白日場을 序幕으로 해서 仁川 水原 등지에서 詩畫展, 美術展, 寫眞展, 音樂發表會, 演藝活動을 갖는 등 多彩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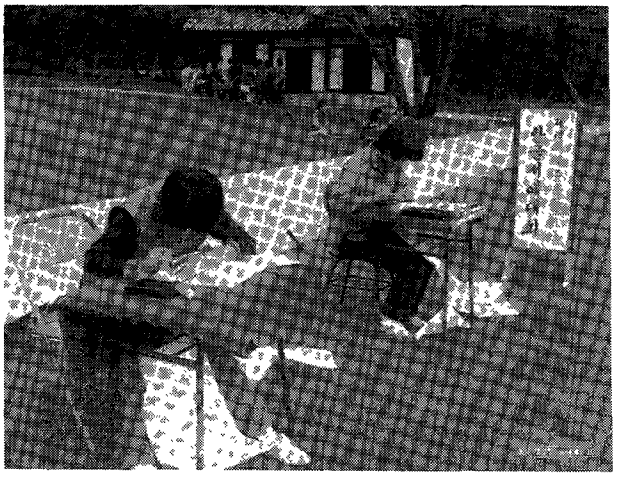
그러나 「世宗文化 큰 잔치」는 京畿道 單一行事로만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마침내는 全國의 여러 都市에서 「世宗文化 큰 잔치」와 類似한 行事들이 亂立, 京畿道만의 主宗行事로서는 問題가 생겨났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同一行事에 쓰여지는 財政的 손실이 크다는 점과 行事의 特性이 없어진 나머지 文化祭로서의 價値評價가 輕減되었다. 뿐만 아니라 陵前行事에만 注力하다 보니 藝總主管行事는 날로 規模가 縮少되었고 마침내는 中斷되는 不幸을 겪어야 했다.



시조백일장

이런 狀況에서도 「世宗文化 큰 잔치」는 1976年 第15회까지 이어 왔지만 1975 朴正熙 大統領의 指示로 시작된 英陵 淨化事業이 마무리 되면서 1977年부터 「世宗大王崇慕祭典」으로 名稱을 바꾸어 文化公報部에서 主催하게 되어 「世宗文化 큰 잔치」는 15年의 자취를 끝으로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세종대왕 숭모제전」행사는 茶禮行事로서 문화제와는 동떨어진 행사였으며, 文化公報部 主管行事로 一般 郡民들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아 文化行事의 가치가 없었다.

5년이나 중단되었던 「세종문화 큰잔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1981년 10월 9일이었다. 당시 驪州文化院長이었던 金德培氏의 노력과 여주군의 지원으로 다시 시작된 「세종文化 큰 잔치」는 여주문화원의 주관으로 그명맥을 이어, 1986년도 제21회 「세종문화 큰잔치」를 거행함으로써 향토文化祭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세종문화 큰 잔치」는 10월 8일



세종문화큰잔치(한글서예대회)

전야제 행사와 10월 9일 문화행사로 2일간 거행된다. 행사 내용을 보면 전야제인 10월 8일에는 神勒寺에서 原刹의 밤 행사로 종 울리기, 복어치기, 탑돌이가 행해지고 신륵사 강변에서 해촌 落火 놀이, 짚덤불 놀이, 한글 자모 28字를 상징하는 訓民正火 올리기, 줄불 띄우기 행사 등이 다채롭게 행해지며, 10월 9일에는 여주의 맥을 이은 여덟 분의 왕비를 추모하는 왕후 행차시연, 여주농고 취타대, 흔암리 쌍용거줄다리기, 지내리 단허리, 농악, 등 다채로운 文化行事가 여주읍시가지와 영능에서 펼쳐진다.

2.世宗大王 崇慕祭典 記念 文化行事

世宗大王 崇幕祭典은 1977年 10月 9日 文化公報部 主管으로 驪州郡 陵西面 旺垈里 英陵에서 처음 擧行되었다.

이 行事는 京畿道와 藝總京畿道支部 主管으로 實施하던 「世宗文化 큰 잔치」를 1977년 9월 14일 世宗大王 遺蹟管理所가 新設(大統領令 第 8692號) 됨에 따라 名稱을 변경, 「世宗大王崇慕祭典」이라 하고 文化公報部가 主管하게 된 것이다. 1981년까지는 10월 9일에 實施하였으나 1982年 第6回부터 世宗大王 탄신일인 5월 15일에 擧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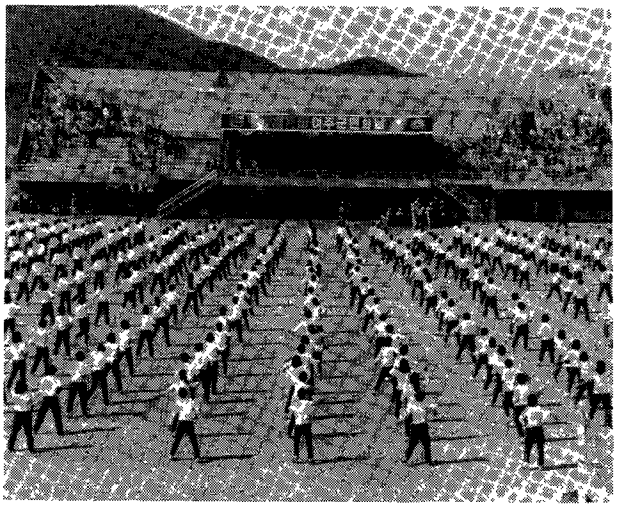
이 行事에는 中央單位 人士와 道, 郡單位 機關長, 全州李氏 宗親代表 등 3百여 명이 參席하는데 世宗大王 遺蹟管理所長이 獻官이 되어 傳統祭禮에 의하여 行해지는 茶禮行祭이다.

이를 記念하기 위한 行事로 驪州文化院이 主管이 되어 文化行事를 해마다 갖는데 이날에는 有名作家의 書畫展, 도자기 展示會, 國立國樂院 招請 公演, 靑少年 文化講座 等이 펼쳐지며, 1986年 부터 世宗벽탑 文化賞을 制定, 驪州郡의 鄕土文化發展에 功이 큰 傳統陶藝部門, 愛鄕奉仕 部門 等 3개분야에 3名을 選拔 施賞하고 있다.

3. 郡民의 날 行事

驪州에서는 1977.9.15조례제506호로 10월 10일을 「驪州郡民의 날」로 정하여 여주군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 하게함을 목적으로 年例的으로 郡民의 날 行事를 열고 있다.

10월 10일을 記念日로 정하게 된 것은 世宗文化 큰 잔치가 1962년부터 10월 9일 英陵에서 열려 사실상 郡民의 날과 다름이 없었는데 1977년부터 세종문화 큰 잔치가 중단되고 대신 세종대왕숭모제전 행사로 명칭을 변경, 문화공보부에서 실시하게 됨에



여주군민의날 행사

따라 군민의 날 제정이 대두되었다. 군민 3백명의 설문과 군정자문위원회에서 10월 9일은 승모제전행사로 군민의 날 행사 거행이 어렵다는 의견의 일치로 10월 10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1988년 현재 제12회째 「여주군민의 날」 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郡民의 날 行事內容은 記念式과 文化行事로 吹打隊, 農樂놀이, 화관무, 매스게임 등이 펼쳐지며, 體育行事로는 축구, 배구, 줄다리기, 궁도, 테니스, 마라톤, 육상 등 읍면대항 체육대회가 펼쳐진다.

第3節 文化團體

Ⅰ. 驪州文化院

文化院은 鄕土文化의 啓發과 정부시책의 홍보, 사회교육,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非營利 社團法人體로 地方文化事業助成法 및 民法 第32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市·郡 단위의 文化團體이다.

우리 나라에서 文化院이 생겨난 것은 대략 1950年代 初期였으며 당시는 文化院이란 명칭 대신 福祉館, 公會堂, 國民文化院, 公報院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財政面에 있어서는 地方自治團體나 美國公報院(USIS), 地方有志들의 성금이나 지원, 또는 院長의 私財 등으로 充當되었다.

이렇게 운영되어 오던 文化院들은 5.16군사혁명 후 국가적인 보호육성이 정상화되어, 1962년 韓國文化院聯合會가 設立되던 해에는 76개소였던 것이 1984년 12월 31일 현재는 145개소로 늘어났다. 財政面에 있어서도 自體資金 외에 매년 文藝振興基金, 郡費의 일부 지원을 받아 활용해오고 있다.

驪州文化院은 1968년 2월 17일 창립하여 2월 26일 발족하였다.

설립 배경은 1967년초에 당시 여주경찰서장 지의택, 김윤선, 함연호, 이범채, 박규대, 이욱재, 안금식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여음회」란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화원 설립이 논의되어 동년 12월 여주복지관에서 문화원 건립을 위한 종합예술제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68년초 안금식, 오대근, 정춘식 등이 수원문화원 김승제 원장과 용인문화원 조구행 원장의 자문을 받아 1968년 2월 17일 여주군청군수실에서 지역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총회를 갖게 되었고 동년 2월 26일에는 여광직업보도원에서 김윤선, 박운한, 정춘식, 임창선, 안금식 등의 이사가 모여 이사장에 김윤선, 원장에는 안금식을 선출하고 당시 직업보조원장 박운한씨의 협조로 여광직업보도원 건물을 임대 여주문화원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지방문화사업 여건 조성을 위해 첫 사업으로 세종운동장(경찰서 운동장)입구 가두에서 수원시내 국민학생들이 한·일 교류전을 가진 바 있는 미술작품등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갖었고, 이어 이일섭, 최진식, 안금식이 주축이 되어 여주읍내 호수다방에서 향우전(여주를 중심으로 그린 그림)을 열어 사무집기를 마련하는 한편, 시화전, 연주회, 강좌 등을 개최하여 지

방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원 사업 시작하였다.

1970년 2월 26일에는 김윤선, 김효정, 안금식, 정춘식, 임창선 등의 이사가 문화공보부 장관의 임원 취임승인을 받아 당시 서울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단법인으로 등기함으로써 법인의 면모를 갖추어 향토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척케 되었다.

安琴植 원장이 3代까지 이끈 이후 金孝正이 4代 원장에 선출되어 원만히 이끌어 가다 1981년 6월 23일 임시 총회를 소집 정재석·허만욱·홍선준·이춘우·김효정·이광호·김홍기·최계남·우종관·박홍수·김정식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이사장에 安琴植, 원장에 金德培를 선임하였다.

김덕배가 원장으로 선출된 후 사무실을 여주중앙감리교회별관으로 옮기고 5년동안 중단되었던 세종문화 큰잔치를 다시 재현하는 등 향토문화 발전에 노력한 결과 문화원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 되었다.

1982년 2월 26일 정기총회를 열어 法人理事에는 李春雨·安琴植·박홍수·박명수·주진호, 運營理事에는 이우영·이상민·조광휘·김효정·유재식·박연기·정용우·우종관·박용기·허창옥·이광호·홍성준·허만묵·문병권·김정식·김홍기·황손돈·박광식·권재성·정재석·김재철·최계남·이성근 등을 운영임원으로 하고 이사장에 李春雨, 院長에 安琴植을 선출 여주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케 했다.

1985년 6월 3일 정기총회에서 원장 안금식 이사장 이춘우 부원장 박광식·정용우 이사에는 임규철·임창선·변수근·이성근·오찬용·황용구·김규현·김용기·김춘국·이홍열·박홍수 등 임원이 선출 되었다.

이와같이 여주문화원이 향토문화의 사랑방으로서 전통문화의 계승, 사회기풍조성, 애향의식고취 등의 지표아래 지난 20년 동안 수행해 온 주요 업적을 살펴보면 세종문화 큰잔치, 향토축제 행사, 흔암리쌍용거출다리기 발굴, 전승보존사업, 해촌낙화놀이, 원부리 얼답교놀이, 마래리 거북놀이 발굴, 신근리 장채놀이 발굴, 여흥별산대놀이 전수를 비롯하여 시조시 백일장(이수자를 비롯한 4명 작가로 등단), 세종국악당 건립 유치, 세종대왕숭모제전기념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 세종벽탑 문화상 제정, 전승도예 문화개발 및 중견작가 배출, 각종문화강좌, 청소년 문학강좌, 청소년 교향악 연주회, 문화예술코너 설치 등 향토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다. 현재 문화원은 여주읍 홍문리 군민회관에 있다.

第4章 言 論

第1節 新 聞

우리나라 新聞의 前史的 현상으로는 《朝報》 또는 《寄別報》를 들 수 있다. 《朝報》는 조선 세조 때부터 承政院에서 취급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520년(중종 15) 史官이 이를 써서 商工 관계자에게 반포하였다는 것과 記錄員을 늘이자는 기록이 있으며 인종 때에도 이러한 기록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조선조에 들어서서 《조보》 발행은 그 궤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承政院에서 처결된 사항을 기록 書寫하여 발행한 것으로 그 내용은 詔勅을 비롯하여 章奏, 廟堂의 결의 사항, 敍任 사령, 그리고 지방관의 狀啓 등이었다. 기록 書寫는 寄別書吏가 주로 맡아 보았고, 그 배달은 六曹判書의 필요에 따라 寄別軍士가 하루에 몇 번이고 돌렸다. 또 이것을 서울에 주재하는 京主人들도 서사하여 각각 자기 고을에 기별하였다.

민간 최초의 《조보》는 1578년(선조 11)에 비롯되었다. 朝廷의 것과 다른 점은 印行(인쇄)으로 날마다 발행하였는데 이는 민간 신문의 초기 형태라 보아진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근세적 신문은 김옥균 등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의 언론 기관으로 창설한 《漢城旬報》인데 이는 비록 관보의영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최초의 보도 기관이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후일 민간 신문이 속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성순보》는 순한문체로 1883년(고종 20) 10월 1일에 발행되었다. 同紙는 外衙門搏文局 발행으로 월 3회에 걸쳐 관보를 제일주의로 하였고, 다음으로 내외의 기사를 겸하여 실었다. 1884년(고종 21) 停刊, 1886년(고종 23년) 金允植이 이를 계승, 국한문 병용의 《漢城週報》를 간행함에 이르렀다. 이는 전자와는 달리 일반인에게도 구독할 기회를 준 최초의 실질적인 민간신문이라 하겠다.

1888년(고종 25) 개화당 일파의 퇴각과 더불어 폐간된 뒤 한동안 잠잠하다가 徐載弼이 미국에서 귀국, 독립협회를 결성함에 따라 1896년(건양 1) 그 기관지 《獨立新聞》을 창간함으로써 본궤도에 올랐다. 제호로부터 3면 전면에 걸쳐 순한글로 된 이 신문은 유럽적인 자유와 민권 사상을 고취하였고, 제4면은 영문란을 두어 논설과 내외국 기사를 수록하였다. 1898년(광무 2)에는 《協成會會報》와 《京城新聞》 《每日新聞》이 창간되었다.

《協成會會報》는 培材學堂 재학 중의 학생회인 협성회의 기관지로 주 1회씩 발행한 것으로 체제는 《獨立新聞》과 거의 같았다. 개화와 계몽의 一念에서 신문제작에 몰두했으나 그 논조가 과격하였으므로 수구파의 책동에 의해 고종의 內命으로 폐간되었다. 그러나 협성회 회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최초의 일간 신문 《每日新聞》을 창간하였다. 당시 이에 가담한 이로는 梁弘默, 李承晩, 柳永錫 등이었다. 《京城新聞》은 鄭海源, 尹致昭, 尹致昊 등이 주재한 순국문지로 주 2회 간행하였다.

그후 兩紙는 개제와 더불어 주재자들도 바뀌어 전자는 《제국신문》으로 후자는 《대한황성신문》, 《황성신문》으로 되었다. 이에 1년 뒤인 1899년(광무 3)에는 《時事叢報》와 《商務時報》가

국한문 혼용으로 갑자기 나타났다.그러나 이 兩紙는 자유 민권 사조에 도전하려는 일종의 수구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이들에게서 특징을 찾자면 지상에 1句를 싣고 지상에 1句를 싣고 그 對句는 현상으로 모집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신문사상 문예 현상 모집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독교 신문으로 감리교 계통의 《조선크리스도인회보》와 장로교 계통의 《그리스도신문》이 있었는데 모두 주간지로 당시로서는 최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독립신문》이 없어진 후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의 양립시대가 왔다. 이들은 당시 신문의 쌍벽이라 일컬어지던 것으로 전 독립협회 멤버와 유림들로 구성된 진용은 《대한황성신문》의 판권을 양도받아 《황성신문》을 창간하였는데 이 신문은 張志淵을 비롯하여 漢學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비로소 신문사업에 진출하여 독자대상도 中流이상에 두었다.

애국적 논필로 1905년 정간됐다가 수개월 후 복간되었다 이에 반하여 《제국신문》은 중류 이하의 대중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국문판 일간지로서 애국적 색채와 자주 독립을 주창하였다. 이 두 신문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될 때까지 서로 자웅을 다투었다.

합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자 이들 신문은 일제히 사실을 속보함과 동시에 비통한 울분을 토로한 나머지 필화 사건으로 구속되는 일은 물론, 이를 계기로 일제의 탄압도 더해갔다. 그 일례로는 신문지법을 강화함으로써 언론 암흑시대를 초래하였다. 이와 때를 전후하여 맹활약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로서 통감부로서는 영국인 사장 베델(E.T.Bethell)과 더불어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통감부는 항일파의 급선봉인 《대한매일신보》 등에는 탄압을 더하는 한편 이완용 내각으로 하여금 새로 신문지법에 의해 민간 신문을 다수 허가토록 하였다. 이것은 극도의 긴장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던 당시의 민심과 지도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희유책이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萬歲報》, 《京鄕新聞》, 《國民新報》, 《大韓新聞》 등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다. 이들 신문은 抗日紙와 親日紙로 양분되어 곧 《國民新報》는 일진회의 기관지로 친일적인 색채를 띠었고 《대한신문》역시 親日이던 《만세보》를 매수, 李人植이 이완용과 가까움을 계기로 이를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로 매국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선전기관 구실을 하였다.

1909년(융희 3) 《大韓民報》가 사장 吳世昌 주재로 창간되었다. 이는 일진회 등 친일파에 대항한 전위적 신문으로 특히 1면에 시사 만화를 연재하여 日人 및 그 走狗들의 난행을 풍자 경고하여 독자의 갈채를 받았는데, 이것이 신문 연재 만화의 효시였다. 40년래에 우리나라 침략, 강점에 성공한 일본은 통감부를 곧 조선총독부로 개칭하면서 일제의 침략 정책도 노골화되었다. 즉 합방과 동시에 새로 총독부령이 제정 공포되어 모든 행정 기구가 일사천리격으로 변경, 또는 개정되었으며 언론 기관의 폐쇄, 結社의 해산, 집회와 민중 운동 등의 일체 금지의 강력한 탄압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신문계에도 일대 선풍이 일어 합방 직전 《대한민보》의 소장 논객인 李鍾麟을 비롯한 20여 명의 신문인이 예비검속을 당하였다. 끝끝내 일제에 항거하였던 《대한민보》는 폐간 직전 2일간 「대한」을 삭제 당하고 다만 《민보》란 제호로 발행하다가 1910년 8월 31일자, 제 357호로써 자진 폐간하였다.

《대한매일신보》 역시 동년 8월 29일자, 제 1,461호로서 강제 매수되어 30일자부터는 《매

일신보»로서 총독부 기관지화되어 1945년 11월까지 존속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황성신문»도 «한성신문», 이완용 내각 기관지 «대한신문»도 «한양신문»으로 改題되었다가 대한제국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3·1운동은 민간 3대지, 즉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의 탄생을 보게 되였다. 이는 오로지 對日 항쟁에서 얻어진 소산이었다. 1926년에 발간된 «中外日報»(뒤에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로 바뀜)와 더불어 이들이 겪은 조난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으나 음양으로 민중의 계몽과 조국 광복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동아, 조선의 2대 일간지는 1940년 8월 10일자로 강제 폐간, 해방과 더불어 복간하였다.

해외에 망명하여 민족 계몽과 독립정신 앙양에 이바지했던 «共立新聞», «신한민보», «시사신보», «國民報», «太平洋週報», «大東共報», «海潮新聞», «獨立新聞» 등의 활약 또한 잊을 수 없다.

解放 後 混亂期에는 左翼系列에서«人民日報»를 내놓았고 靑年同盟이나 婦女同盟, 勤勞大衆, 農民을 背景으로 한 不穩紙나 煽動文이 나돌고 5·16革命 直前에는 «民族日報»가 發刊되어 當場에 南北統一이 이루어질 것 같은 感覺마저 일으키게 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60年 以來 强力한 文敎政治의 施行과 文化公報施策의 發展으로 國民의 防共意識이 鞏固하게 確立되어 左翼紙 등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京畿道에서 최초로 日刊新聞이 나온 것은 仁川에서 日人 靑山好惠가 隔日刊으로 發刊하던 «朝鮮新報»를 1902년 日刊으로 바꾸었고 서울에 通信部를 設置하면서부터였다. 이 신문은 1908년 «朝鮮新聞»으로 改題하고 1920년 本社를 서울로 이전하여 中央紙로 변신했고, 8.15光復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와같이 최초로 地方紙가 發刊된 곳도 仁川이고, 光復 後에最初로 發行된곳도 仁川이었으며 6·25敎發 뒤 1.4後退를 했다가 收復해 와서 다시 發刊된 곳도 仁川이었다. 光復 前부터 根據가 있는 탓이기도 했지만 京畿道에서 가장 人口가 많은 港口都市이며 서울의 關門인 때문이었다.

그러나 仁川만이 唯一하게 地方紙가 發刊되었다고는 하지만 신문 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것은 역시 1.4後退에서 돌아 온 1951년 봄부터의 일이라고 할수 있다. 즉 解放 直後부터 仁川에서 發行해 온 «大衆日報»가 6.25 後 여러 차례에 걸쳐 改題를 하면서 «京畿每日新聞»으로 發展했다. 1954年 3月에, «주간인천»이 발간되어 퍽 재미있는 紙面을 꾸며 왔으나 4.19後에 解體, «인천신문»으로 部分吸收되었다.

«인천신문»은 1960年 8月 15日 仁川市 沙洞 14番地 옛 韓鹽倉庫를 社屋으로 改修하여 創刊됐는데 이 新聞은 鄕土新聞임을 自處하였었다. 그러나 «인천신문»은 1968년에 題號를 «京畿聯合日報»로 改題하고, 1969年 4月 28日에는 水原으로 本社를 옮겼다.

이에 앞서 第3共和國이 수립된 후, «경기일보»가 仁川市 新浦洞 18에 社屋을 마련하고 1966年 2月 22日 創刊되니 仁川에는 놀랍게도 日刊紙가 3個社로 늘어나는 新聞 飽和時代를 맞았다.

1960年 9月 末 仁川市 公報係에 登錄된 言論機關만도 130個所였고 4個月 뒤인 1961年 末頃에는 26個所가 증가된 156個所였으며 여기에 從事하는 記者만도 600名을 헤아릴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言論機關 및 記者의 沙汰를 이룬 때가 있었다.

이렇듯 雨後竹筍처럼 발호하던 言論機關은 5.16軍事革命 後 軍政布告令에 의해, 新聞製作施設基準에 該當하는 機關을 除外하고는 모두 整理되었다. 1973년 9월 1일부터 京畿道內에서 唯一한 地方紙로 存在하게 된 《京畿新聞》(《京仁日報》로 改題)은 《京畿每日新聞》, 《경기일보》, 《聯合新聞》의 京畿 3社 統廢合이 이루어짐으로써 탄생했다. 現在 《京仁日報》는 명실상부한 京畿道 地方紙로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本郡에서도 郡民의 文化生活 向上으로 新聞愛讀者가늘어나 《京仁日報》 等의 地方紙와 서울, 東亞, 朝鮮, 京鄕, 中央, 韓國 等 中央紙가 1986년말 현재 總 21,585家口에 9,359部가 購讀되고 있으며 7個所의 보급소와 地方紙의 駐在記者 1名이 常駐하고 있으면서, 이 고장의 言論暢達과 民主市民의 敎養向上에 貢獻 하고 있고, 聯合通信, KBS 放送局 駐在記者가城南市에 常駐하며 本郡의 地方時事 報道에 萬全을 期하고 있다.그후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魯泰愚 대표위원의 6.29선언으로 언론의 자율화가 이루어져 1988년 11월말 현재 中央紙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京畿·仁川지역에 「京畿新聞」「畿湖新聞」「仁川新聞」등 地方紙가 새로 창간되어 4개 지방지 記者가 주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週間紙로 「産業環境新聞」·「檢察新聞」등이 창간되어 本郡에 支社를 두고 記者들이 駐在하고 있다.

한편 文學雜誌와 一般敎養書籍, 産業經濟書籍 및 宗敎紙 等이 널리 愛讀되고 있다.

第2節 放 送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방송국이 설치 된 것은 1926년 11월로 체신국 청사의 방 한칸을 빌려 社團法人 경성방송국을 조직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듬해 2월 16일부터는 정식으로 방송이 시작되었으나 당시의 방송은 아주 미미한 것이어서 한사람이 편성, 연출, 방송을 도맡아 보았으며 出力은 1kW, 청취자 수는 겨우 5천에 불과했다. 방송 내용도 뉴스, 강연, 음악 등 간단한 것이었으며 방송 시간의 대부분을 토쿄 방송의 중계에 할당하였다.

그러다가 1932년 4월 조선방송협회가 설립되고 다음해 2월부터는 출력을 10kW로 강화, 지방방송의 조직망도 확충되어 1934년에는 부산, 1935년에는 평양, 1936년에는 청진, 이듬해에는 함흥, 이리, 1938년에는 대구, 광주, 1941년에는 대전, 춘천, 목포, 마산, 청주, 강릉 등에 방송국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청취자의 수도 1940년에 20만, 해방 직전에는 35만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방송의 내용은 대부분이 소위 皇國臣民, 內鮮一體를 강화하는 방침하에 편성되었으며 일제 말기에는 일본말을 보급시킨다는 명목으로 이중 방송을 실시하였다.

해방이 되자 방송프로의 개편을 단행, 한글강좌와 국사의 이해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해설과 교양강좌에도 주력하였다. 당시 방송협회는 진공상태에 빠져 사회의 혼란한 틈을 타서 한때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방송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분규가 있었으나, 결국 군정청 공보부에 소속되어 방송 업무를 담당하다가 정부수립 후 公報處(후의 공보실)에서 관리케 되었다.

放送協會는 聽取料로 유지되어 오다가 해방 후 방송의 대중화와 청취자의 증가로 청취료의 징수는 사실상 폐지되고 6.25사변 후에는 청취료제도마저 폐지 되었다.

우리나라의 방송은 6.25사변을 당하여 서울 貞洞 송신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크게 손실을 입었으나 1951년에는 대부분이 복구되고 1955년에는 延禧洞에 100kW, 수원에 단파 100kW, 중파 100kW의 송신소가 각각 준공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최초의 민간방송국인 기독교 방송국이 설립되고, 1959년 남산에 현대식 방송국의 준공을 본 방송의 확장에 따라 KBS는 제 1 방송, 제 2 방송, 제 3 방송으로 구분되며, 1972년 16개 지방 방송국과 32개의 중계소를 갖게 되었고 對北放送이 1972년 11월 11일 0 시를 기하여 폐지되었다.

1962년 이후 문화방송국의 개국으로 상업방송이 활발해져 민간방송 CBS가 5 개국의 지방망을 가지고 있으며 MBC가 20개국, TBC가 3 개국, DBS가 1 개국의 지방 방송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民放공동 출자로 남산에 건립한 높이 232m의 종합 송신탑이 1971년 12월에 준공되어 보다 넓은 지역을 송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네번째로 시작한 TV는 1972년 10만대를 돌파하여, 國營. 民營의 9 국이 전국을 관장하여 국내는 물론 위성통신 지구국을 통해 전세계에 크고 작은 일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本郡은 首都圈 地域이면서도 放送의 난시청 지역에 속한다. 라디오 放送은 그런대로 청취되지만 TV는 3 放送이 고루 나오지 않아 난시청 해소를 위해 有線放送 施設이 생겨 邑內에 3 천여 가구가 이에 加入하고 있다. 그러나 江原道와 인접된 本郡은 江原道 放送이 청취되어 KBS 2 TV와 MBC TV의 지역 뉴스시간에 江原 뉴스가 방영된다.

首都圈放送 文化에 침식되어 京畿道에는 地方放送局이 없어 道民들이 수도권 뉴스시간 대에 잠깐동안의 지역 뉴스를 접하고 있어, 앞으로 地方自治制를 앞두고 京畿道 地方放送局 設立이 要望되고 있다.

第5章 體 育

第1節 韓國體育의 發達

1. 부족국가시대의 體育

유사 이래 운동이란 맹수의 습격이나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수단과 세력을 확장하여 유리한 여건을 차지하려는 상반되는 입장 속에 발전되어 왔다. 부족국가 시대에는 좋은 생활환경을 따라 이동하던 시기였으므로 집에 항상 무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타부족의 습격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무예나 무기가 발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활을 잘 만들어서 고구려의 貊弓과 부여의 檀弓은 중국에 수출했다.

2.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體育

삼국시대에는 고대국가로서의 틀이 잡혀가고 사회가 안정되던 시기였으므로 활쏘기와 말타기 이외에 자신을 잘 보호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태권도의 출현이다. 唐手. 空手라고 불리며 생겨난 이 무예는 신라 진흥왕 때 태견이라 하여 화랑도가 심신을 수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이 시대에 불교가 들어와 문물제도가 개화되고 예술이 발흥되어 태권도도 무술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禪이 가미되어 고차원적인 무예로 발전되어 갔다. 또한 이 시대에 시작된 운동으로는 격구가 있으며 그외에도 弓射, 投壺, 蹴鞠, 씨름〔脚戱〕, 鞦韆, 風鳶, 竹馬, 圍碁 등이 유행했다.

3. 고려시대의 體育

통일신라가 망하고 새로 등장한 고려는 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청신한 정치를 베풀었으나 후기에 유학이 들어오고 불교의 지나친 숭상으로 文弱의 폐단이 크게 나타났다. 이 시대에 태권도와 함께 널리 행해진 체육행사로는 격구가 있었다. 杖치기 또는 棒球라고도 불렀던 이 행사는 단오절의 국가적인 일대행사로서 제후와 젊은 무인들의 체력을 단련하는 큰 몫을 해내었다. 격구는 기마와 보행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몽둥이로 공을 쳐서 구문을 통과시켜 많은 쪽이 이겼다. 특히 이 경기는 당시 봉건사회였음에도 아녀자들 사이에 유행하였던 것은 주목 할 만하다. 후에 말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나친 문약으로 무인을 경시하던 위정자들은 무인들의 반감을 사 마침내 무인정권이 들어서 사회의 질서가 문란해졌다. 그러나 자기 체제의 수호를 위해 사병을 기르고 무예를 단련하던 이 시대에 체육은 일시에 부흥을 맞았다. 그

시기는 길지 못하여 무신의 횡포가 문신등보다 더욱 심하였으므로 각 지방에는 민란이 일어나고 혼란에 빠짐에 따라 무예는 쇠퇴기를 맞게 되었다. 이 시대에 유행하던 유희오락으로는 弓術, 槍術, 手搏, 騎射, 木戱, 石戰, 씨름, 鞦韆 등으로 삼국시대와 별반 차이는 없다.

4. 조선시대의 體育

조선시대는 유교가 정치의 지도이념이 됨에 따라 불교가 쇠퇴하여 극도의 문치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체육은 침체기를 맞았으나 임진, 병자의 양란을 통하여 모든 체제가 전시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선조 26년 8월 훈련도감을 두어 각도의 장정을 뽑아 포수, 사수, 살수의 무예를 가르쳤고 지방에도 哨官 또는 東五軍을 두어 군사훈련을 시켰다. 또한 양난 때 수난을 당한 국민들의 적개심도 고조되고 애국심이 각성됨으로써 도처에 의병이 봉기하는 등 쇠잔했던 무예가 부활되기도 하였다.

격구는 1425년(세종 7년) 3월 구장30을 훈련원에 두어 병마조교에 명하여 부흥시키고 이조 중엽까지 시험과목의 하나로 채택되었고 정조 때에는 이십사반무예의 하나로 정하였으나 이후 소멸되었다. 그외의 다른 무예 및 체육으로는 씨름, 윷놀이, 줄다리기, 널뛰기, 연날기, 수렵 등이 있었다.

5. 근대 體育

한국에 근대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려든 것은 1876년경 丙子修好條約 이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近代化된 나라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근대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886년 美國 선교사 언더우드(H.G.Underwood)가 언더우드학상(儆新學校)을 창설하고 教科目에 오늘날 체육에서 유희로 생각되는 娛樂이라는 시간을 두어 가르쳤다. 그뒤 1891년에는 교과목을 개편정리하여 현재의 교육과정에 손색이 없는 과목을 마련하고 매일 제1교시에 30분씩 체조시간을 할당하였다. 이와 같이 언더우드학당의 開校를 비롯하여 培材, 梨花, 貞信 등이 설립되면서 근대적인 교육, 문화발전의 여명을 가져왔다.

정부에서도 甲午更張(1894년)의 庶政刷新으로 교육정책을 개혁함으로써 근대적인 학교가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체육도 체조를 교과목으로 채택하게되고 학교에서 운동회를 갖게 됨으로써 근대 체육이 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의 운동회가 개최된 것은 1896년 영국인 교사 허치슨의 지도하에 시작된 것이 최초로 그후 각급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906년 3월 11일에는 근대체육 단체로 大韓體育俱樂部가 결성되었다. 그후 산발적으로 체육단체가 나타나 운동시합을 가졌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조약을 조인, 총독부를 설치하고 가혹한 무단식민정치를 실시하여 언론, 출판, 結社 등을 억제하는 한편 우리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감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시련에 처해 있던 당시의 애국투사들은 장기적인 抗日 투쟁과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있어서는 강건한 신체와 민족적정신의 함양 및 국민적 단결이 선결 문제라고 생

각하였다. 여기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1920년 7월 13일에 항일투쟁의 수단으로 **朝鮮體育會**가 조직되어 우리의 체육계는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후 우리의 체육은 날로 성장하여 전일본 스포츠계를 육박하면서 급속히 군림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체육은 그 민족성의 우열을 가름하고 민족운동의 일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전국 각지에서 사회단체, 청년회의 주도하에 조직적인 체육대회를 열게 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진전하였고 체계적으로 융성하였다.

이렇듯 조선 체육의 진출과 우위를 두려워한 日帝는 1936년 伯林 올림픽대회의 마라톤 우승자 孫基禎의 가슴에서 **日章旗**를 도려낸 소위 **日章旗抹刹事件**을 계기로 《동아일보》를 폐간하고 1938년 7월 4일에는 조선체육회 (대한체육회 전신)를 일본인 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통합시키고 말았다. 또한 日帝는 1942년 2월 14일에 조선체육진흥회라는 체육통제기관을 만들어 전쟁 목적을 위한 **國防競技**라는 것을 등장시켜 전력증강운동 같은 특수한 운동을 강제로 시키므로써 우리의 체육은 8.15광복 때까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5년 8.15光復과 더불어 우리나라 체육은 군국주의적 체육에서 탈피하여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보건·체육을 필수과정으로 하였고 대학에서는 교양 과목으로서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한편 체육과 또는 체육대학 등을 신설하였다. 또 체육은 체조, 스포츠, 유희 등을 종합하여 **調和的 人間像**을 추구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체육의 새로운 변천과 더불어 사회체육면에 있어서도 1945년 9월 **朝鮮體育會**의 부활과 함께 체조, 스포츠, 유희 등 각 분야의 체육 단체의 탄생을 보게 됨으로써 획기적이고 새로운 체육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리하여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우리의 체육도 명실공히 세계체육의 대열 속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하던 체육도 1950년대에 6.25동란 등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체육계 마저 정치성을 띠게 되어 체육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학생들의 심신 양면에 걸쳐 건전한 발육을 위하는 한편 각급 학교 입시전형에도 체능시험을 포함시켜 학교체육교육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86아시아 경기대회와 제24회 '88 서울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體育部**가 신설되었다.

6. 全國體育大會

매년 10월이면 우리나라 **體育**의 대잔치인 **全國體典**이 열린다. 약진의 힘찬 율동과 함께 타오르는 **聖火**가 켜지고 꺼지기를 60여년, 이제 우리의 **全國體典**도 **回甲**을 넘었다.

이 **體育**의 성전은 1920년에 **朝鮮體育會**가 창립된 후의 첫 행사였던 제1회 **朝鮮野球大會**를 **起點**으로 하고 있다. 그후로 축구, 정구 등 각종 경기별 대회가 열리다가 1929년에 비로소 **全朝鮮綜合競技大會**가 열렸는데 이것이 종합경기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행사였다. **全國體育大會**를 계산할 때 1920년 제1회 조선야구대회를 제1회로 기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이 대회는 日帝의 탄압으로 조선체육회가 해산을 당함에 18회로 끝을 맺고 그로부터 한

때 이 民族의 잔치는 異民族의 손에 의해 7회를 가산하면서 제 모습을 잃었다.

1945년 8월 15일에 민족의 光復을 맞이하자 우리의 체육도 소생하여 1945년 10월 27일부터 자유해방 경축 全國綜合體育大會라는 이름 아래 全國體育大會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26회 全國體育大會로 계승된 것이다. 이 대회에서는 육상을 비롯하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정구, 럭비풋볼, 사이클, 탁구, 馬術 등 10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 되었다. 이 해가 해방된 우리 체육계의 再建着手의 해라면 1946년의 제 27회 대회는 각 競技團體들이 整備期에 들어선 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제28회 대회가 열린 1947년은 大韓體育會의 각 加盟團體가 國際聯盟에 加入하여 올림픽 참가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이때부터 모든 경기단체가 서서히, 그러나 힘차게 발전을 계속하여 제30회 大會가 열린 1949년에는 각종 경기들이 거의 完熟된 樣相을 보이게끔 되었다.

이렇듯 차차 질서가 잡히고 발전의 一步를 내딛게 되었을 때 닥쳐온 수난이 1950년의 6.25 사변이었다. 그리하여 전국체육대회도 一時 중단의 비운을 피할 수 없이 제31회 대회는 끝내 열리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受難 속에서도 민족의 체육잔치는 다시 빛을 보게 되어 1951년에는 피난지인 全南 光州에서 제32회 대회를 개최하여 體育人들의 정열을 돋보이게 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順坦大路라 할 수 있었으나 그 동안 大會가 서울에서만 계속 열려왔으므로 지방과 中央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으로 순회 개최하게 되어 당초에 뜻한 체육의 균형적 발전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평가 되었다.

1966년에 제47회 대회가 5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열리자 대회규모의 질적인 면에서 크게 發展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다음 해의 제48회 대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카드섹션은 스포츠 예술을 체육대회에 도입했다는 관점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또한 제49회 때부터 入場행진의 美와 秩序를 살리고자 大統領賞을 마련한 것도 大會의 質的 向上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69년 제50회 대회부터는 종전의 聖火行事를 進一步시켜서 全國一周를 시작했으며 이해부터 以北 5道 선수단을 入場式에 참가하게 하여 國土統一의 결의를 다짐하도록 하였다.

1972년 제53회 대회를 전환점으로 해서 전국체육대회는 체질을 개선하였으니, 이 해에 전국스포츠少年大會가 그 첫 대회의 幕을 올림으로써 국민학교부와 중학교부가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어 그간 全國體育大會의 肥大化에 따른 地方開催의 난점이 해결되어 제54회 때는 부산에서 그 幕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전국체육대회의 지방개최를 제56회부터는 계속하여 대구, 부산, 光州, 인천에 이어서 60회 대회를 大田에서 개최하였다.

그 동안 海外同胞 선수단의 대회참가도 눈에 띄는 발전사의 한 章을 이루어 왔다. 처음에는 在日同胞뿐이었으나 국력의 伸張에 편승하여 在美, 在카나다, 在西獨 同胞들이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在사우디, 1979년에는 在쿠웨이트, 在홍콩의 僑民選手團도 참가하게 되었으니 대견한 일이었다.

이상과 같이 全國體典을 총괄해 보면 京畿道 選手團은 제32회부터 제61회에 이르기까지 종합 1위 3번(58회—光州, 59회-仁川, 61회-全州), 2위 3번(45회-仁川, 57회-釜山, 60회-大田), 그리고 3위는 8번(36회-서울, 46회-서울, 48회-서울, 50회-서울, 52회-서울, 54회-부

산, 55회-서울, 56회-서울) 計 13번의 上位 메달권 입상을 유지, 확보한 저력이 있다.

60년을 치른 전국체육대회는 온 겨레의 소망에 부응하여 비약적인 단계를 높여 화려하고 성대하게 계속 幕을 올릴 것이다. 겨레나 임원이나 모든 선수가 이 大會를 가일층 빛내기 위하여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第2節 驪州의 體育

한국 근대 체육은 1894년(甲午更張) 이후 설립된 각 학교의 교육제도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대식 체제를 갖추었던 학교는 1895년 4월 16일에 설립된 漢城師範學校이다. 여주에는 1909년 4월 5일 驪州邑에 여주보통학교(現 驪州國民學校)가 설립되었고 1919년 4월 1일 梨浦普通學校가 發足되었다. 여주보통학교 시대부터 體操가 학과목으로 실시케 됨으로써 근대체육이 驪州에서도 싹트기 시작하였다.

Ⅰ. 체육 종목별 학교 지정 현황

(1) 양궁

남자부-여주국민학교, 여주중학교

여자부-여흥국민학교, 여주여자 중학교,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2)배드민턴

남자부-이포국민학교, 대신국민학교, 강남국민학교, 여주동중학교

여자부-이포국민학교, 대신국민학교, 창명여자중학교, 여주동중학교

(3)씨름

남자부-여주국민학교, 능서국민학교, 능북국민학교, 하호국민학교, 대신국민학교, 세정중학교

(4)핸드볼

남자부-금당국민학교, 문장국민학교, 점동중학교

여자부-흥천국민학교, 흥천중학교

(5)배구

남자부-연라국민학교, 매류국민학교, 천남국민학교, 오학국민학교, 강천국민학교, 세정중학교,

여자부-천남국민학교, 오학국민학교, 여주여자중학교

6)탁구

남자부-당현국민학교, 뇌곡국민학교, 오산국민학교, 송삼국민학교, 홍천국민학교, 상품국민학교, 송촌국민학교, 주암국민학교, 운암국민학교, 홍천중학교, 강천중학교

여자부-안평국민학교, 오산국민학교, 상품국민학교, 송촌국민학교, 주암국민학교, 걸은국민학교, 홍천중학교

7)농구

남자부-가남국민학교, 이포중학교

여자부-가남국민학교, 이포중학교

8)유도

남자부-대신국민학교, 대신중학교

9)테니스

남자부-점봉국민학교, 점동국민학교, 여강중학교

여자부-점봉국민학교, 상품중학교

10)연식정구

남자부-북내국민학교, 여강중학교

여자부-북내국민학교

2. 각급학교별 체육대회 참석 입상자 현황

학교명	대 회 명	출전종목	일시(기간)	입 상 자 명	학년	수상종별	비 고
여흥국교	전국육상경기	800M	85. 7.10	변 호 섭	6	교육감(1위)	
	시도대항육상경기	〃	86. 7.26	〃	6	〃 (3위)	
	소년체전평가	양 궁	86. 7.23	강 경 옥	5	(1위)경기양궁협회	
	〃	〃	〃	단 체 전		〃 (3위)	
	(제11회)학도애향대	〃	86.10.11	여1진(단체)		교육감(2위)	
	〃	〃	〃	여2진(단체)		〃 (3위)	
	〃	100M	86.10.11	김 은 영	5	〃 (3위)	
	〃	마 라 톤	〃	변 호 섭	6	〃 (3위)	
	〃	800M	〃	〃	6	〃 (1위)	
	〃	60M	〃	김 은 영	5	〃 (1위)	
	〃	100M	〃	〃	5	〃 (1위)	
	〃	던 지 기	〃	이 택 수	5	〃 (2위)	
	양궁평가전	양 궁	87. 2.28	강 경 옥	6	경기양궁협회 (1위)	
	제5회 경기도지사기 대회	축 구		단 체	5.6	3 위	

	제7회회장기쟁탈	씨 름		〃	4.5	장 려 상	
	도내장사씨름대회		87.10.24	단 체	5		
	〃	〃	〃	최 동 철	5	준 우 승	
	〃	〃	〃	원 종 수	〃	3 위	
	교육감기쟁탈	탁구단체	86. 3.20	박광배, 길병욱			
			~3.22	지현철, 변인섭	6	남자단체3위	
				김영문			
				김남순, 이명미			
홍천	〃	〃	〃	이계순, 배현녀	6	여자단체3위	
국민				서혜신, 장미정			
		〃	〃	박광배, 길병욱	6	개인남국복식3위	
학교		〃	〃	이영미, 김남순	6	여국개인복식3위	
	소 년 체 전	탁 구	86.5.4-5.9	길 병 욱	6	혼성단체3위	
	대한탁구연맹회장	탁 구	87. 7.28	양 희 석	4남	개인3위	
	탈학년별탁구대회		30~ 7.3				
	87학년도체육대회	탁 구	87.10.20	양희석외6명	4남	단체1위	
		〃	10.23	이종일외4명	6남	단체3위	
		〃	〃	정혜영외5명	6여	단체3위	
		던 지 기	〃	경 승 호	4남	3 위	
가남국	학도애향대체육대회	농 구	87,10.23	박명선, 김오복	4	도 3 위	여자부
민학교				김희정, 이성애			2진 출전
				이현자, 전영아			
				김영란, 박수희			
				한경애, 장순미			
당현국	도 학도 체육대회	높이뛰기	86.	황 영 희	4	도 6위	
민학교							
여 주	제15회전국	양 궁	86.5.20~	강 성 윤	3		경 기
중학교	소년 체육 대회		25(6일간	이 호 경	2	전국 단체1위	(혼성)
					3	경 기 도	
〃	제16회소년체전경	〃	〃	강 성 윤	2	단체2위	
	기도1차평가전			이 호 경	2		
				변 찬 오			
	제13회전국		86.7.27~	강성윤, 주창수	3		
〃	중·고연맹회장기	〃	7.30	변찬오, 이호경	2	전국 단체1위	
	쟁탈양궁대회		(4일간)	남채성	1		
	제12회전국체육부	〃	86.7.27~7.	남 채 성	1	전국 개인1위	
	장관기쟁탈양궁대회		30(4일간)			(30m 싱글)	
〃	제16회소년체전경			이 호 경	2	개인2위	이 호 경
	기도2차평가전검	〃		남채성, 이용인	1	개인3위	개인2위
	학도			엄형철, 원종찬	6	단체2위(1진)	원 종 찬
						단체1위(2진)	개인3위

	제16회소년			이 호 경	2	개인1위	이 호 경
〃	체전경기도3차평	〃		남채성, 이용인	1	단체2위	개인1위
	가전			엄형철, 원종찬	6		
	제14회전국 중·고		87. 7.26	이 호 경	3		
〃	연맹회장기쟁탈양	〃	~8. 1	남채성, 이용인	2	전국 단체2위	
	궁대회		(7일간)	엄형철, 원종찬	1		
	전국 비호기 쟁탈	육 상	87.7.15~	서연식, 김종현	2	경기도(3위)	
	경기도 예선		16(2일간)	홍수용, 원호권	1	400m 계주	
	제8회전국화랑기쟁	양 궁	87. 9.	남 채 성	2	전국 단체2위	경기혼성
	탈시도대항양궁대회						
	제12회경기도학도	〃	87.10.22~	남채성 (1진)	2	개인종합1위	
	애향대체육대회		26(6일간)	엄형철 (2진)	1	개인종합1위	
				남채성, 이용인	2	단체2위	
				원종찬	1		
				엄형철	1	단체1위	
				이상원, 이재정	6		
여 주	체육부장관기	양 궁	87. 7.27	김 미 자	3	단체3위	
여 중			~31	주 옥 례	2		
				양 승 숙	2		
				이 희 정	1		
				김 경 숙	1		
	한국 중·고 연맹	양 궁	87. 7.27	김 미 자	3	단체3위	
	회장기 쟁탈기		~31	주 옥 례	2		
				이 희 정	1		
				김 경 숙	1		
				김 은 희	1		
	소년체전 최종 평	육 상	87.3.12	구 수 경	3	원반1위	
	가전(제16회)		~13	황 미 자	3	포환2위	
홍 천	도 학도 체육대회	탁 구	87.10.21	남 자	1·2	3 위	
중학교			~10.23				
		〃	〃	여 자	1	3 위	
		핸 드 볼	87,10.28	여 자	1	3 위	
			~10.30				
이 포	제11회 경기도 학	농 구	86.10. 6	단 체 전	1·2	3 위	
중학교	도애향대체육대회		~8				
	제12회경기도애향	농 구	87.10.22	단 체 전	1·2	남1,2진:3위	
	대 체육대회		~10.24			여1진 : 3위	
						여2진 : 2위	
여 주	제12회 경기도 학	배드민턴	87.10.23	간 창 호	2	3 위	남
동 중	도애향대체육대회			이 상 래	2	〃	〃
				양 성 모	2	〃	〃

	〃	〃	〃	단 체	6	〃 (2위)	
	소 년 체 전	〃	87. 5.25	강 경 옥	6	대한체육회	
	시도, 비호기	400MR	87. 8.22	김 은 영	6	육 상 연 맹	
	(전국)시도비호기	400MR	87. 9.12	김 은 영	6	〃	
	전국소년체전도평가전	궁 도	86. 3. 7	단 체	6	1 위	
	〃	〃	〃	엄 형 철	〃	1 위	
	〃	〃	〃	원 종 찬	〃	3 위	
	제14회교육감기대회	축 구	7. 6	단 체	5.6	우 승	
	〃	〃	〃	이 봉 우	6	최우수선수	
여주	한전유소년전국축	〃	9.12	단 체	5·6	우 승	
국민	구대회도예산대회	〃	10.11	〃	5		
학교	제11회경기도학도체육대회	궁 도	〃	윤 정 호	5	1 위	
	〃	〃	〃	이 재 경	5	2 위	
	〃	〃	〃	이 상 원	5	3 위	
	〃	〃	〃	정 희 철	4	1 위	
	〃	〃	〃	김 교 신	4	3 위	
	〃	〃	〃	단 체	5	1 위	
	〃	〃	〃	〃	4	1 위	
	〃	육 상	〃	김 학 표	3	3 위	
	〃	〃	〃	〃	3	3 위	
	제 2 회전국시도대항	궁 도	10.21	원 종 찬	6	3 위	
	제16회소년체전최종평가전	〃	87. 2.28	단 체	5	1 위	
	〃	〃	〃	이 재 정	5	1 위	
	〃	〃	〃	윤 정 호	5	2 위	
	〃	〃	3.13	이 재 정	5	1 위	
	〃	〃	〃	윤정정 호	5	2 위	
	제16회경기도축구	축 구	5.25	단 체	5·6	우 승	
	협회각기대회			이 봉 우	6	최우수선수상	
	제17회전국소년체	궁 도	7.18	단 체	5	1 위	
	전 1 차선발대회	〃	〃	정 희 철	5	3 위	
	제16회 소년체전		87.2.22~	이 호 경	2	경기도 단체1위	엄 형 철
	경기도 4 차평가전	〃	2.26	남채성, 이용인	1	개인 1 위	개인 1 위
			(5 일간)	엄형철, 원종찬	6	(엄형철)	
	제16회전국		87.5.20~5.	이 호 경	3		(경기
	소년체육대회	〃	25(6일간)	남 채 성	2	전국 단체1위	혼성)
	제17회 전국 소년			남채성, 이용인	2	경기도단체2위	남 채 성
	체육대회경기도 1	〃	87. 7	엄형철, 원종찬	1	개인 2 위	개인 2 위
	차 평가전						

				길 찬 식	2	〃	〃
				이 기 정	1	〃	〃
				김 남 기	1	〃	〃
				최 정 희	1	〃	여
				이 영 선	1	〃	〃
				김 영 주	1	〃	〃
	태권도종별선수권대회	태권도(핀급)(핀급)	87.4.25~28	김 미 순	1	3 위	여
세종중	경기도 제14회 육상연맹회장기쟁탈	육 상	86.11. 5~11.8	전 제 복	3	높이뛰기 은 메 달	
	제12회 경기도 학도애향대체육대회	구 기	87.10.21~10.24	윤덕상, 장가중 홍현기, 한성희 이형규, 유연학 최우영	1·2	배 구 동 메 달	
이포고등학교	제11회 경기도 학도애향대체육대회	씨 름	86.10. 8~10.10	단 체 전	1·2 3	씨름단체 2 위	
	제3회 학교감 경기대회	육 상	87,10.24~10.25	이 경 은	1	높이뛰기 3 위	

3. 京畿道體育會

(1)沿革

1946. 2.15 경기도 체육회 창립
1959. 3. 14개 경기단체 조직
1961. 7.15 사무국을 인천으로 이전
1963. 3. 13개 시·군체육회조직. 22개 경기단체 조직
1964. 3. 22개 시·군체육회 조직, 28개 가맹경기단체 조직
1964.10. 제45회 전국체전 인천에 유치, 2위로 준우승
1968. 8.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방침에 따라 학교체육위원회 조직
1977.10. 제58회 전국체전(광주)에서 우승
1978.10. 제59회 전국체전(인천)에서 우승
1980.10. 제61회 전국체전(전주)에서 우승
1981. 7. 1 인천 직할시 승격 분리
1981. 7.13 28개 가맹경기단체 재구성
1981. 7.25 사무국을 수원시로 이전
1983. 3.17 30개 가맹경기단체 조직

1984. 3. 32개 가맹경기단체 조직
1985. 4. 34개 가맹경기단체 조직

(2)歷代 會長

京畿道體育會의 歷代 會長은 아래와 같다.

1代 具滋玉(1946. 2.15~1950. 7)
2代 李海翼(1950.10.13~1952. 9.12)
3代 金英基(1952. 9.12~1953.11.23)
4代 李益興(1953.11.23~1956. 5.21)
5代 崔獻吉(1956. 5.26~1960. 4.30)
6代 崔文卿(1960. 5.12~1960.10. 7)
7代 丁龍福(1960.10. 7~1961. 5.24)
8代 朴昌源(1961. 5.24~1963.12.16)
9代 李興培(1963.12.16~1964. 7. 8)
10代 朴泰元(1964. 7. 8~1968. 9. 4)
11代 南鳳振(1968. 9. 4~1971. 6.12)
12代 金泰卿(1971. 6.12~1972. 6.30)
13代 孫守益(1972. 6.30~1973. 1.16)
14代 趙炳奎(1973. 1.16~1976.10.12)
15代 孫在植(1976.10.12~1980. 1.17)
16代 金周南(1980. 1.17~1980. 9. 9)
17代 廉普鉉(1980. 9. 9~1983.10.15)
18代 金泰鎬(1983.10.15~1984.10.10)
19代 李海龜(1984.10.10~1986. 1. 9)
20代 金庸來(1986. 1. 9~1987.12.28)
21代 任仕彬(1987.12.29~현재)

4. 驪州郡 體育會

郡民의 體育 진흥과 和合, 團結을 위해 1947년 10월 지역 유지 李鳳九씨를 비롯한 유지들에 의해 민간조직인 여주군 체육회가 조직되었다. 이 당시 10월 10일을 기하여 여주읍 하리 市場에서 「읍·면 대항 시민운동회」란 명칭으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제1회 시민운동회는 1947년 10월 10일에 개최되었으며 경기종목은 축구, 배구, 마라톤, 이어달리기, 씨름, 넓이뛰기, 높이뛰기, 자전거 빨리달리기, 자전거 천천히 달리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등과 농악놀이 등 체육과 민속경연이 다채롭게 개최되어 군민의 체력향상과 화합 단결을 다지는 거대한 축제행사 였었다.

그후 1954년에는 체육대회 명칭을 「市民體育大會」에서 「英陵奉贊體育大會」로 바꾸고 10월

9일과 10월 10일 2일 동안 여주경찰서 마당에서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1962년 10월 9일 한글반포 516주년을 맞는 날 제1회 「세종문화 큰 잔치」가 驪州 英陵에서 京畿道와 예총 경기도지부의 주관 아래 열리게 됨에 따라 體育大會 명칭을 「世宗文化 큰 잔치 郡民體育大會」로 바뀌게 되었다.

1963년 3월 驪州郡 體育會는 民間人 體育會長에서 당연직으로 郡守가 임용되도록 하였다.

1976년까지 경기도에서 주관해 오던 「세종문화 큰잔치」는 15년의 연혁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고, 1977년부터는 「세종대왕숭모제전」으로 명칭을 바꾸어 문화공보부에서 주최하게 되었다. 이로서 「세종문화 큰 잔치 군민체육대회」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77년 10월 10일 「군민의 날」이 제정되고 체육대회도 「군민의 날」행사와 병행하게 됨으로써 명칭도 「여주 군민 체육대회」로 바뀌었다.

1987년 말까지 제11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종목은 초창기와는 달리 도체육대회 출전 종목과 맞도록 조정하여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국궁, 태권도, 마라톤, 육상, 줄다리기 등으로 조정되었다.

1983년 4월 군 체육회 산하에 사회체육위원회와, 학교체육위원회가 조직되어 학교체육, 학교보건, 사회교육, 보이스카웃 육성업무에 임하고 있다.

여주군 체육회 역대 회장은 다음과 같다.

1代 李載德(1963. 2.12～1964.10. 1)
2代 李炳達(1964.10. 1～1967.12.10)
3代 禹光暻(1967.12.10～1969. 2.21)
3代 尹錫範(1969. 2.21～1971. 8.21)
4代 尹祺泳(1971. 8.21～1973. 7. 1)
5代 秦熙相(1973. 7. 1～1976. 4.12)
6代 朴輔均(1976. 4.12～1977.10.20)
7代 趙東煥(1977.10.20～1979. 4.19)
8代 李貞九(1979. 4.19～1981. 7. 5)
9代 具然祐(1981. 7. 6～1982. 9.17)
10代 宋仁植(1982. 9.18～1985. 3.11)
11代 朴桂敏(1985. 3.12～1986. 3. 7)
12代 李載錫(1986. 3.8～1988. 2.10)
13代 鄭一貴(1988. 2.11～1988. 6.10)
14代 洪鍾大(1988. 6.11～현재)

5. 체육 단체

여주군내 체육단체는 총 24단체가 조직되어 체력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체육단체 및 단체장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여주군 체육 단체·임원

명 칭	단 체 장	생년월일	주 소	회원수	전화번호
사회체육위원회	김 정 열	41. 2. 26	여주읍 홍문리 75	25	2-4229
빙상경기연맹	이 종 복	44. 8. 15	〃 홍문리 75	25	2-2725
새마을체육회	김 현 달	32. 12. 19	〃 창리 154-2		2-2818
여주조기축구회	박 영 식	39. 3. 25	〃 하리 324	47	2-2782
여흥 〃	문 제 한	33. 1. 18	〃 창2리	47	2-3939
여상 〃	이 일 호	30. 7. 20	〃 하1리	24	2-3809
조 친 회	권 익 순	29. 10. 2	〃 상리 168-1	27	2-3519
	남 궁 형				2-2419
능서조기축구회	이 일 수	48. 7. 8	능서 신지리 803	25	82-4352
산북 〃	이 인 섭	56. 3. 12	금사 상품리	16	82-9991
대신 〃	박 광 식	52. 2. 4	대신 율촌3리 406	28	82-7701
여주테니스크럽	김 문 영	42. 3. 7	북내 천송리 288-1	31	2-2436
남한강 〃	강 건 이	46. 10. 27	북내 홍문리	27	2-4405
홍천 〃	김 덕 배	41. 5. 9	홍천 대당리 346	15	83-0468
청 심 정	이 호 선	29. 11. 19	여주 창리 162-44	27	2-2341
흥 인 정	윤 세 욱	25. 8. 6	흥천 계신리	32	82-9572
천 양 정	이 흥 기	33. 2. 15	금사 전북리	10	82-9970
가 야 정	이 종 만	45. 6. 25	강천 가야2리 395	19	2-3998,82-6100
여주종합체육관	김 계 진	56. 9. 20	여주 홍문리 19		2-4954
여 흥 체 육 관	공 창 능	43. 8. 13	〃 상리 136 5	80	82-2132
가남태권도장	김 낙 현	70. 10. 25	가남 태평 108		82-4090
점 동 체 육 관	김 일 용	62. 2. 10	점동면 청안1리 산7		82-7274
청 암 체 육 관	황 재 철	60. 11. 9	북내면 신접리 211		82-0221
산 호 체 육 관	황 재 철	61. 3. 30	대신면 율촌1리		82-7859
능 서 체 육 관	김 현 권	62. 5. 12	능서면 번도리 499-29		83-4254

6. 體育 施設

驪州郡內 體育施設로는 종합운동장 1개소, 축구장 4개소, 테니스장 5개소, 간이체육관 3개소, 국궁장 4개소, 골프장 1개소, 탁구장 2개소, 당구장 13개소, 볼링장 1개소, 체육공원 2개소, 학교체육시설 48개소, 등 총 84개소가 있으며 청소년과 근로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경기도 학생야영장 시설이 1987년에 착공되어 '88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체육시설 대부분이 군청 소재지인 驪州邑에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면소재지에 있어 군민체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체육시설이 마을 단위로 골고루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驪州公設運動場

驪州公設運動場은 驪州邑 下里와 月松里地內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92,529㎡(27,990평)으로 운동장 면적은 84,682㎡(25,616평)이며 진입도로 7,847㎡(2,374평)이다. 2만 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운동장은 주경기장 30,618㎡(20,000명 수용), 정구장 1,706㎡(1,000명수용), 농구장 1,364㎡(300명 수용)이며 주차장 광장34,930㎡, 진입로녹지 22,239㎡의 규모이다.

총공사비 22억 7백만원으로 1982년 착공하여 1987년까지 9억 7백만원을 투자하였고 1987년도에는 3억원을 들여 본부석과 토사스탠드 8천석을 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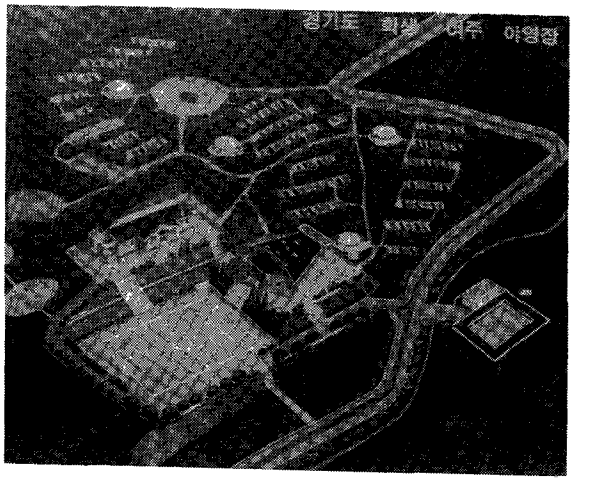
1988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다.



여주공설운동장

(2) 학교체육시설

학교 체육시설은 48개가 있는데 실내 체육관 시설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1,404㎡ 규모의 체육관과 가남면 여주상업고등학교의 600㎡ 규모의 체육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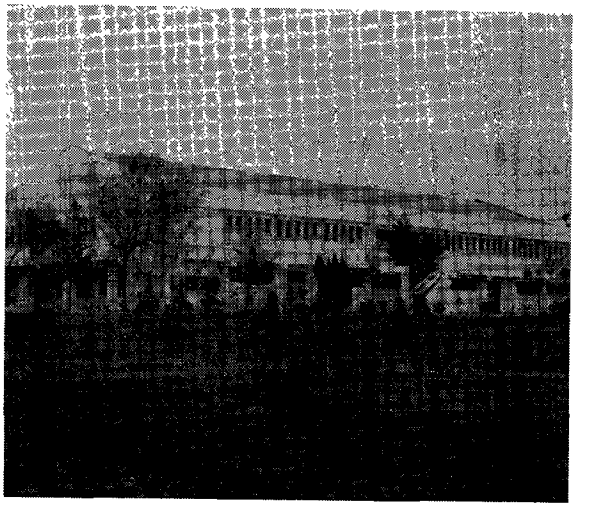


경기도학생야영장조감도

(3) 경기도 학생야영장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산81번지 마감산에 3억 7백여만원을 투입하여 210,248㎡부지에 35,650㎡의 천막촌과 관리동, 강당, 수영장, 운동장, 샤워장 등의 시설을 1988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착공하였다.

1회 수용능력 400여명으로 연간 2만 5천명의 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이 극기훈련, 정신교육을 받게 되며 강화, 용인, 포천, 양평 양영장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나 여주, 평택,



여주농고 체육관

안성, 안양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게 된다.

(4) 弓道場

여주군의 궁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국궁과 양궁이 있다. 국궁은 여주읍의 청심정, 강천면 의 가야정, 흥천면의 흥인정, 금사면의 천양정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노인들로 구성되어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양궁은 여주국민학교, 여 흥국민학교, 여주중학교, 여주여자중 학교,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 학교체육 지정종목으로 집중훈련하여 道大會, 全國大會는 물론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많은 선수들이 입상함으로써 여주 양궁의 앞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국궁의 궁도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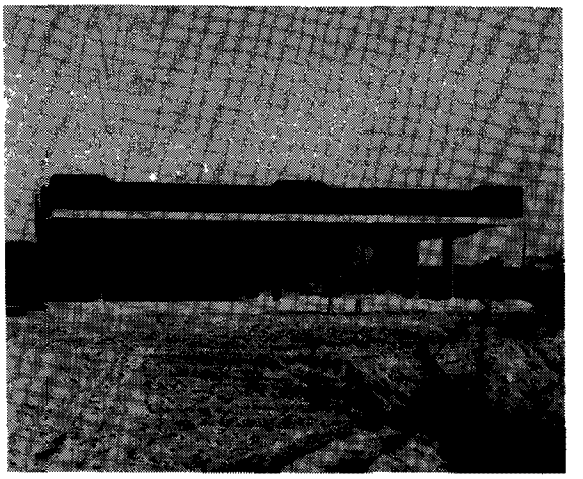
① 驪州 淸心亭

○沿 革

1968년 6월 10일 利川 永武亭 射頭 趙漢榮氏의 後授과 驪州 李鳳九氏의 주선으로 弓士를 모집하고 同年 7월 17일 組織體가 造成되어 發足

1970년 7월 18일 驪州 上里所在 驪州女子中學校 講堂에서 驪州郡 弓道會 淸心亭이 創立되었음.

1970년 10월 9일 驪州 淸心亭 主催로 全國弓道大會를 驪州江邊에서 개최.



여주청심정

1971년 淸心亭舍는 當時射頭였던 故東園 李鳳九先生이 사비를 희사, 建坪 20坪, 建築費 全額을 부담하여 上里江邊에 新築

1980년 江邊道路 新設計劃에 따라 부득이 上里 淸心亭舍를 校里 鄕校境內 舊舍屋을 뜯어 建坪 14坪으로 建立移轉함.

1987년 7월 公設運動場內에 靑心亭新舍 유치운동을 전개 건평 30여평의 현대석 건물을 신축 이전하였고, 87년말 현재 궁도회원은 43명이다.

○歷代會長 및 射頭

1代 射頭 : 李鳳九(1970. 7.17)

궁도회장 : (1971. 4. 5)박창택, 이상기, 임천순, 홍기표, 최상기

명예회장 : 김이배(1974. 7.17)

※군궁도회 정식등록(1979.12. 9)

1代 궁도회장 : 최태운(1979.12. 9~1980. 2. 6)

2代 궁도회장 : 김덕배(1981. 2. 7~)

2代 사두 : 손장희(1976. 1.16~1978. 7.16)

3代 사두 : 이봉구(1978. 1.17~1980. 1.14)

4代 사두 : 정우현(1980. 1.15~1984. 7.16)

5代 사두 : 유연수(1984. 7.17~1985. 7.16)
6代 사두 : 김장용(1985. 7.17~1987. 7.16)
7代 사두 : 김덕배(1987. 7.17~)
8代 회장 : 김효정(1987. 7.17~)

② 興仁亭

○沿 革

1978년 12월 · 興川弓道會 結成
1979년 5월 6일 開亭式 및 5個亭 親善 弓道大會 開催
1980년 8월 26일 永武亭主催 五亭親善大會 參加 優勝
1983년 3월 3일 五亭親善大會 開催
1985년 8월 24일 六亭親善大會 開催

○역대회장 사우

1대회장 : 閔達鎭
2대회장 : 安一護
3대회장 : 李鎬善
1대 사두 : 李鎬善
2대 사두 : 李鎬善
3대 사두 : 安一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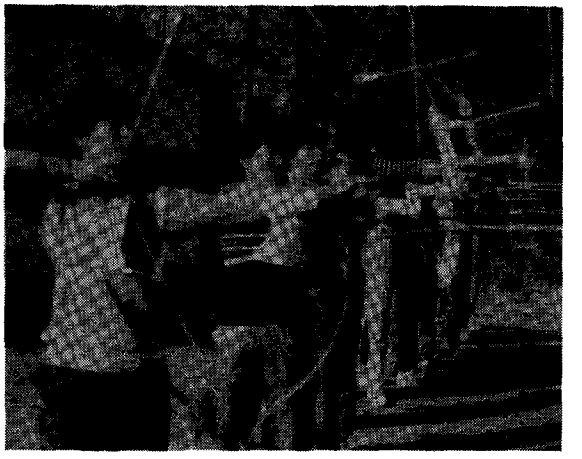
③ 伽倻亭

○沿 革

1985년 6월 淸心亭 金德培氏의 後援으로 李洪基氏 淸心亭 入會
1986년 9월 康川面 伽倻里에 建坪 10坪 伽倻亭 建立
1986년 10월 李洪基氏가 主軸이 되어 弓士모집 약 20여명
1986년 11월 伽倻亭 正式發足
1987년 10월 12일 郡民의 날 團體競技에서 面對抗 優勝, 現 사원수 20명

○역대 회장 사두

초대회장 : 이홍기
초대사두 : 김종덕


양궁

(5)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양궁부

1) 연혁

1982년 3월 교장 곽의석, 교감 강성식, 지도교사 이용진, 코치 서오석에 의하여 창단되었고 창단선수는 1명이었다.

2) 선수육성 현황

1983년에는 선수 4명을 육성하였는데 김정미는 한국체육대학에 재학중이고, 엄희주는 수원시청에서, 유미영은 주식회사 쌍방울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조해옥은 원광대학 보건대학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1986년에는 김경욱, 강숙경, 이현미, 이은경, 김미자 등 5명의 선수를 육성하였다.

3) 양궁부의 입상실적

· 1986년도

6월 전국 대통령기 쟁탈 양궁대회 30m 은메달, 60m은메달(김경욱) 7월 체육부장관기 쟁탈 양궁대회 30m 동메달

8월 화랑기 도 대표로 출전 단체 3위(김경욱, 강숙경, 박성희)

김경욱 30m 금메달, 개인종합 3위(박성희 개인전 : 동메달 수상)

10월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 50m 비공인 세계 신기록 수립 337점(김경욱)

11월 종합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 : 30m금메달, 60m 동메달 개인종합 4위(김경욱)

○1987년도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출전 : 30m. 금메달 : 50m 은메달

제5회 아시안컵 대회 출전 전적(인도 캘커타, 1988. 1.14~ 1.17)

출전자 : 김경욱(여주군 여주읍 신진리 100번지 출생)

금메달 2개(단체 30m)

은메달 1개(개인종합)

동메달 3개(50m, 60m, 70m)

세계신기록 수립 1개

개인종합 1,335점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第6章 彦文·題詠

第1節 彦 文

1. 方 言

가랑비 : 보슬비
가물음 : 가물 가뭄
그늘 : 음달
김 : 수증기
뇌성 : 뇌성
달-무리 : 달무리
번개 : 번개뿔
볕 : 햇빗
소나기 : 소낙비 소낙삐 소내기 쏘내기
싸라기-눈 : 진눈개비 진눈깨비 싸라기 싸락눈 싸래기눈
아지랭이 : 아지랑이
안개 : 앙개
회오리-바람 : 돌개바람 회오리바람
갓, 가 : 가에 가장자리 끗터리
강 : 냇가
개-골창 : 개울
개울 : 개골창 개천 냇가 또랑
거리 : 길꺼리 신장노 한길 행길
고개 : 재
고랑 : 골
고을 : 동네 마실 마을
골목 : 고:샅 길꺼리 모퉁이
구덩이 : 물꾸덩 웅뎅이
구레 : 고래
구멍 : 구녘 구녕 구멍
길 : 길 신장노 질 행길
나루 : 나루터
뉘누리 : 물살
늪 : 눕 수렁
도랑 : 또랑
돌 : 도:ㄹ 돌 돌막 돌팍
두둑 : 논뚜렁 두렁 뚝
들 : 들판 버덩
땅 : 땅 땅빠닥
마당 : 뜨락
마루-터기 : 삐얄 언덕배기 재
마을 : 동네 마실 마을
멀미 : 구역질 멀미 욕찌기
메아리 : 메아리
멧-부리 : 산꼭대기 산마루
모래 : 모새 모래
모퉁이 : 구석 구석쟁이 모서리
못 : 못 연못
무덤 : 모이 모:이 뫼 묘 무덤 산소
물가 : 물갓 강변 냇가 물가
물-결 : 물결
뭍 : 뭇 육지
바닥 : 땅바닥 밋바닥 바닥
바위 : 바우 바위
벌 : 뻘
벼랑 : 낭떠러지 낭떠러지기 벼랑 비탈 빈달 빈탈 산비얄 산비탈 절벽
봉우리 : 꼭대기 산곡대기 산등성
산-기슭 : 산기슬 산꼴짜기
산-등성마루 : 산꼭데기 산등성 산마루
샘 : 샘 샘물 우물
수채 : 수채구멍

시골 : 농촌 두메 벽지 초:ㄴ 촌
시궁-창 : 고랑창 깨골창 하수구 하수도
시내 : 개울 내 냇물 시내
언덕 : 고개 고:바이 언덕배기
여울 : 녀울 여울
우물 : 샘 샘물 움물
자갈=조약-돌 : 잔돌
재 : 고개
저자 : 시장 장
진-흙 : 조대흑 진흑
티끌 : 먼지 티갑지
가위 : 추석 한가위
가을 : 가:ㄹ 가을
가을한다 : 추수한다 타작한다
그믐-께 : 그믐께 그믐께
그저-께 : 그저께 그제 엇그저께
글피 : 글피 어끄저께
끝 : 끄트머리
끼니-때 : 식사 조석때 끼니 끼니때
나흗날>나흔날 : 나흐레 나흔날
낮 : 낮 나제
모레 : 모레
밤 : 밤중 밤쭝
봄 : 봄
사흗날>사흔날 : 사흔날 사흘 사흣날 삼일
아래-께 : 그제 어제 어제께
아침 : 새벽 식전
아흐렛날 : 아랫날 아흐래 아흐레 아흐렛날 초아흐렌날
어제 : 어저께 어제 엇그제
엊-그제 : 어제그저께 어끄저께 엇그제
여드레 : 여드레날 여드렌날 여드렛날 초여드래 초여드랜날
열흘 : 열흘
엿새 : 여쌔 엿쌔 초엿쌔
옛날 : 연전 엔날 예쩍
올해 : 금년 올 올해
요-즈음 : 요새 요줌 요즈음 요즘
으스름 : 어두침침 어두컴컴 어스름 어슴푸레하다 으스름 해거름
이레 : 이랜날 이렛날 초이랜날 초이레
이제 : 금방 금세 막방금 시방 이제사 인제 지금
이틀 : 이튼날 이틋날
잠간 : 얼릉 잠깐 쪼끔
저녁 : 저녀게 저녁때 제녁
접-때 : 에:ㄴ날 저:버네 접때
지금-곳 : 금방 금새 방금 시방 얼릉 얼른
처음 : 첨
틈 : 새:틈 틈새
훗-날 : 후제 훈날
흉년 : 숭년
가운-데 : 가운대 복판 중간 한가문데 한복판 항가운데
거기 : 거기 고기 저기 저쪽
겉 : 거죽 거테 바까테 바깟 깝데기 껍데기
곁 : 겨테 것테 여분데기 엽페
구석 : 가장자리 구석 구석지 귀탱이
녘 : 쪽
뒤 : 뒤에
모 : 모서리
속 : 소게 아네
아래 : 미태 밋바닥
앞 : 아페 압
여기 : 이짝 이쪽
오른-편 : 바른편 바른쪽
외 : 바깟
왼-편 : 왠쪽 왠편 왼쪽
위 : 꼭때기 우에 위에
이-쪽 : 요쪼게 이짜게
저기 : 저짜게 접작 조기
각시 : 마누라 부인 새댁 새악씨 색시 샥시

계모 : 새엄마 서모 이:붓더머니
계:집 : 기:집 여편네 지집
계집-아이 : 가시나 가시내 게지배: 기지배 지지바 지지배
남편 : 냄편 바깟어런 바깟양반 사내 서방
남편-형제=시-동생 : 대련님 도련님 되련님 삼춘 시동상 시동생
누이 : 누나 누님 누이 누이동생 여동생
딸 : 여식 딸 딸내미 딸래미
막내-동생 : 망내 망내동생
며느리 : 메누리 며느리 며늘아기 새아가 새아기
사위 : 사우
숙부 : 삼춘 삼촌 아재 아저씨 자근아버지
아내 : 기:집 마누라 아내 안사람 여편네 집사람
아들 : 자석 자식
아버지 : 아부지 아빠 애비
아우 : 동상 동생
아주머니 : 숙모 아주머니 아줌니 아줌마 자근엄마 자근어머니
어머니 : 엄니 엄마
어버이 : 양친 부모 어버이
언니 : 성님
오-누이 : 오누이 자매
오랍-동생 : 남동생
오빠=오라버니 : 오래비 오라버니 오라버님 오라부니
올케 : 성님 올캐
외-할머니 : 외할매 외할머니
큰-아버지 : 백부 큰아부지
큰-어머니 : 큰어머니 큰엄마
할머니 : 할매 할머니 할무니
할아버지 : 하라버지
형 : 성 형님 성님
갈보 : 양갈보 양공주 창녀
갓난-아이 : 간난애기
강짜 : 바가지극따 깡다구 깡짜
거지 : 각서리 거러지 거렁배이 거지 그지
걸귀 : 걸구 허첨배이
겁-장이 : 겁보
게으름-장이 : 게름배이 겔름뱅이 느림보
고집-장이 : 고집쟁이
곰배-팔이 : 곰베파리
곰보 : 곰보 꼼보
곱사-등이 : 곱새 곱추 꼽사 꼽추
광대 : 광대 딴따라
귀-머거리 : 귀머거리
귀신 : 귀신
그을음 : 껌장 끄시름
글 : 글발 글자 글씨 문자 문장 언문
깍정이 : 구두쇠 깍재이
꼬마-동이 : 어린내 꼬마 꼬맹이 쪼매한새끼
꾀 : 꾀 꾀보
꾸중 : 나무란다 소리야:단 야:단만는다 야:단친다 꾸지럼 꾸지람든는다 꾸지람
나 : 내 자기 저 제
나그네 : 과객 길손 길쏜 나그네 방랑객 손 떠도리 뜨네기
남 : 다른사람 타인 딴사람
내 : 연기
너 : 너 당신 자네 지
넋 : 넉 얼 영 정신 혼
년 : 년 지즈바 지지배
노-부인 : 노인 할망구
놈 : 새끼 자식 짜식
누 : 누가 누구 뉘
늙은-이 : 노인 노인내 노인네 노인장 늘그니 노:파 어르신네 영감 염감 첨지
늦 : 기미 징조 싹수
단골 : 단골
담-사리=머슴 : 나무집사리 머슴 일꾼
대장-장이 : 땜재이

도깨비 : 허깨비

도둑 : 도둑 도둑놈 도적 밤손님 양상군자 좀도둑 좀도적

돌-팔이 : 돌파리 보따리장사 장사 장똘뱅이 행상

되-놈 : 대:국놈 되놈 중국놈 때국놈 떼놈

등짐-장이 : 지게꾼

마음 : 맘 맘씨

맏 : 마지 큰형

말-더듬이 : 말더드미

멋-장이 : 머쨍이 멋쟁이

멍청이 : 돌대가리 멀대 멀때 멍텅구리 바보 밥통 빙신 숭맥 얼가니 천치 쪼다

며느리 : 메느리 아가

면장 : 면장어른

모양 : 모냥 생김새 꼬라지 꼴

무당 : 무당

문둥이 : 문뎅이

미장이 : 미쟁이

버릇 : 버르장머리 습관 행실 싸가지 싹수 싸가지업나

벙어리 : 벙어리

벼슬 : 감투 베슬

사나이=사내 : 남자 남정 대장부 머스마 사나이 사내

사투리 : 방언

새암 : 새:ㅁ 시:기 질투

색시 : 새악씨

석수 : 석공 석수 석수쟁이

소식 : 기별 소식

시집-보낸다 : 결혼한다 시집보낸다 출가시킨다 출가한다

쌍동이 : 쌍동이 쌍둥이

아이 : 깐나니 꼬마 아가 아기 아이 애기 어린애 언내 간난아기

어른 : 어르신 어르신네 어른 으르신네 으른

언청이 : 째보

얽은-사람 : 얼근배기

영감 : 영감 영감쟁이 영감태기 영감탱이

이름 : 성명 성함

이야기 : 얘기 이야기

임자 : 임자 주인 주인장 쥔네

잠 : 잠 조름

장님 : 눈먼사람 눈봉사 맹인 봉사 소경 장님

장모 : 빙모 빙모님 장모

장사-아치 : 상인 장사꾼 장사치

장인 : 자인영감 장인 장인어른

절름-발이 : 다리병신 절름바리 쩔뚝바리 쩔루기

젊은-이 : 절므니 청년

점-장이 : 점쟁이

짓 : 꼬락써니 생김새 폼 행동

침-장이 : 침쟁이

학교 : 학교 핵교

한-숨 : 한숨

헤엄 : 멱 모ㅁ 미역 수영 헤엄

홀-아비 : 호라비 호래비

홀-어미 : 과부 호래미

화냥-년 : 개년 기:생 술집여자 쌍년 창녀 화냥년

흔적 : 자국 자취 흔적

가랑이 : 가랭이

가래 : 가래

가리마 : 가르마

가마 : 가매

가선(쌍-거풀) : 쌍까풀

가슴 : 가슴팍

가죽 : 꺼죽 껍때기 껍데기

걸음 : 거름 거름마

겨드랑이 : 겨드라이 겨드랑

골치 : 골머리 골통 두통

궁둥이 : 궁뎅이 히프

귀 : 귀때기
낯 : 나짝 낫 낫짝 볼태기 상판때기
넓적다리 : 넙적다리
눈 : 눈까리 눈깔
눈-곱 : 눈꼽
눈-구석 : 눈구석
눈-꺼풀 : 눈까풀 눈꺼풀
눈-두덩 : 눈두덩 눈퉁이
눈-망울 : 눈마을
눈-매 : 눈매 눈초리
눈-부처 : 눈알 눈동자 눈똥자
눈-알 : 눈알 눈까리 눈깔
눈-초리 : 눈총
다래끼 : 다리끼
뒤-통수 : 뒷통수 디통수
뒷덜미 : 뒤떨미
등 : 등대기 등어리 등때기 등짝
땀-띠 : 땀띠
똥 : 대변 똥
만화=지라=이자 : 지라
머리 : 골통 대가:리 대가리 대갈빡 대갈통 머리 머리통
머리-털 : 두발 머리카락 머리칼 머리털
멱 : 맥살 멱
목 : 모가지 목덜미
목-청 : 목청 목소리
몸 : 몸매 몸통 몸뚜이 육신
무릎 : 고벵이 무루팍 구룹 무릎
밑구멍 : 항문 똥구멍 똥꾸녁 밋구멍 밋구녁
발 : 발 발모가지
발-뒤축 : 발뒤축 발뒤꿈치 발꿈치
발-등 : 발ㅁ
발-목 : 발목
발-바닥 : 발빠닥
발-톱 : 발톱
방귀 : 방구 방귀
배 : 배때기
버짐 : 버짐
보조개 : 볼우물 우물
복사-뼈 : 복상뼈 복상씨 복상뼈
볼기 : 궁둥짝 방데이 볼기짝 엉덩이 엉디:이
불-두덩 : 불두덩 하복부
불-알 : 부랄 불알 붕알
비듬 : 비늘 비듬
뺨 : 귀때기 볼 볼태기 볼때기 뺀닥찌 뺨 뺌때기
뼈 : 빽다구 빽따구 뼈대 뼈따구 뼉다구
사마귀 : 사마구 사마귀
삭신 : 사:지 삭신
살 : 살
살-갗 : 살갓 살깟 피부
살-결 : 살껼
살=사타구니 : 사타구니 삿추리
새끼-손가락 : 새끼손까락 약손까락 약지
손가락 : 손까락
손-바닥 : 손빠닥
손-뼉 : 손뼉
손-톱 : 손톱
수염 : 수염 시염
쓸개 : 열 쓸개 씨래
어금-니 : 아금니 어금니
어깨 : 어깨쭉지
엉덩이 : 엉덩이
옆-구리 : 여꾸리 역꾸리 엽구리
오금 : 오금
오줌 : 소변 소피 오좀 오줌
위 : 밥통
이 : 이 이빨 치아
이마 : 마빠:ㄱ 마빡 이마 이마빡
입 : 아가리 아갈통 입주둥이 주뎅이 주둥아리
입술 : 입설

잇-몸 : 잇몸
장딴지 : 장딴지
재채기 : 재채기 재치기
정강이 : 정강이 정갱이
정수리 : 머리꼭데이 정수리
젖 : 유방 젓티이 젓 젓통
종아리 : 조:아리
주근-깨 : 기미 주근깨
침 : 춤 침
코 : 꼬빼기
콧-물 : 큰물 콧물
콩팥 : 콩팟
턱 : 턱 턱주가리
팔 : 팔꿈치
허벅-다리 : 허벅다리 허벅지
허파 : 허파 폐
혀 : 샛바닥 세 세빠닥 헤빠닥 혀바닥
힘 : 심
광 : 골방 광
구들 : 구둘짱 구들짱
구레 : 고래 구들 방고래
굴뚝 : 굴뚝 연기통 연토:ㅇ
기둥 : 기둥 지둥
기스락 : 처마 추녀
기와 : 개와 갸: 기와
기와-집 : 기와집
기왓-장 : 기와짱 기왓짱
다락 : 다락
담 : 담 담장 울타리
들보 : 대들보 대들뽀
뜰 : 뜰 마당
마루 : 대청 대청마루 마루 마룽
문 : 대문 문
문-지방 : 문지방 문찌방 문턱
미닫이 : 미다지 빼다지
바람-벽 : 바람벽 바람뻑 베람빡 벼름빡
방 : 방
벽-장 : 벽장
변소 : 뒷간 뒷깐 듸깐 똥깐 똥독간 변소 자근집 잿간
부엌 : 부억
부뚜막 : 부뚜막
사립-문 : 사립문 삽장문 삽짝 쌉짝
서까래 : 서까래 석가래 석까래
시렁 : 선반 시렁
아궁이 : 보강지 부억 아궁이 아궁지
외양-간 : 마구깐 쇠양간 오양깐 외양간 외양깐
울타리 : 울타리
이웃 : 이웃 이웃찝
장독-대 : 장광 장독 장독간
지붕 : 지붕
집-마루 : 대들보 마루 용마루
징두리 : 가상자리 가생이 모서리
툇-마루 : 뒷마루 퇸마루 툇마루
가루 : 가루
간장 : 간장 장 장물
겨 : 게 겨 등개 등겨
고기 : 고기 괴기
고추-가루 : 꼬추가루
곰팡이 : 곰파이
김장 : 김장 짐장
김치 : 김치 깍두기 짐치 짠지
깍두기 : 깍두기 깍뚜기
꿀 : 벌꿀 꿀
누룩 : 누룩
담배 : 담배 댐배 연초
담뱃-대 : 곰방대 담배때 담뱃대 담뱃때 빨뿌리 빨주리
된장 : 덴장 된장 막장
두부 : 두부
뜨물 : 꾸정물 뜨물 뜸물
막-걸리 : 대포 막걸리 막껄리 탁배기 탁주

만두 : 만두
메밀 : 메물 메밀
메밀-나깨 : 메밀찌꺼기 미물찌개이
메주 : 메주
멸치-젖 : 며르치젖 멸치젖
미싯-가루 : 미수가루 미수까루
밀-국수 : 국수 국시 밀국수 칼국수
반찬 : 간 겅거니 반찬
비지 : 비지
상치-쌈 : 상추쌈 상치쌈
새우-젖 : 새우젖
소금 : 소금
소주 : 소주 쇠주 쏘주
송편 : 송편 ㅁ편
수제비 : 수제비 수지비
술 : 술
시루-떡 : 시루떡
왕겨 : 왕겨 왕개 왱겨
잔치 : 잔치
저린다 : 간친다 무친다 저린다 절군다
젖-갈 : 젖갈
찌꺼기 : 찌꺼기 찌꺼지 찌끄래기
찰-떡 : 찰떡 찹살떡 찹쌀떡
회 : 사시미 회
흰-떡 : 백설기 흰떡
가마 : 가마 가마솥 가매솥 솥
그릇 : 그륵 그릇 식기 양재기
남비 : 남비 냄비
놋-그릇 : 녹끄릇 놋그릇 놋식끼 양재기
단지 : 단지 독 뚝배기 투가리 하아리
대접 : 대접 사발 식끼 양재기 양지기 양푼 주발
도마 : 도마 도매
뚝배기 : 투가리 뚝배기 뚝빼기
바리 : 사발
밥-주걱 : 밥쭉 밥주걱 주걱
보시기 : 보시기 접시 종지기 탕끼
사기-그릇 : 사기그릇 사발
사발 : 사발
숟-가락 : 수까락 수깔 수저 숫가락
시루 : 시루
옹기 : 단지 뚝배기 하아리
쟁반 : 오봉 쟁반 차반 채반
접시 : 사라 접시 접씨
젓-가락 : 수저 저까락 저분 저깔 젓가락 젓까락
조리 : 조래미 조리
종지 : 공기 종발 종지 탱기
질-그릇 : 뚝배기 질그륵 질그릇 투가리
행주 : 행주
고름 : 고름
다래끼 : 눈다래꺼 다래끼
두드러기 : 두대래기 두두러기 두드래기 두드레기
몸살 : 몸살
문둥이 : 문뎅이 문둥이
발찌 : 종기 뽀드락지
버짐 : 마른버짐 버즘 버짐
부스럼 : 부스럼 부시럼 헌디
여드름 : 여드름 이드레미 이드름
의사 : 의원
지랄 : 발광 염병 지랄
천연두 : 곰보 마마
학질 : 말가리아 학질
홍역 : 호녁 홍역
가래=삽 : 가래 섹가래
가마 : 가마 가매
가마니 : 가마니 가마때기
가위 : 가새 가위
갈고랑이 : 각지 갈퀴
거울 : 거울 명경 색경 섹경 체경
고리 : 고래기 고리 문꼬리
고무래 : 고물개 글거이
고물 : 고물 고물딱지

고삐 : 고삐 꼬삐

곡-괭이 : 곡괭이 꼬깽이

광주리 : 광주리 다리끼 소쿠리

괭이 : 괭이

구유 : 구융

궤 : 고리짝 괘: 궤짝 농 장농

귀얄 : 풀비 싸리비

귀이개 : 귀후비개 귀쑤시개

그네 : 그네

그물 : 그물 어망 족때 투망

꽹과리 : 깽가리

끈 : 끄나불 끄나팔 끄나풀 끈 끈타불 노끈

끌 : 끌

낫 : 낫

널 : 너:ㄹ빤지 너:ㄹ판때기 널판지 늘 송판때기 판자

노 : 노 삿대 삿때

다리미 : 다래미 대리미

담뱃-대 : 곰방대 담배대 빠이뿌 빨뿌리 빨주리

닻 : 닷

대야 : 다라 대야 대와

덫 : 덧 올개미

도끼 : 도끼 독구 독기

도롱이 : 비옷 우비 우장

도리-깨 : 도리깨

돗-자리 : 도짜리 돗자리 돗짜리

두레-박 : 두레박 드레박

둥우리 : 둥우리 둥지

뒤주 : 뒤지 쌀통

또아리 : 따바리 또바리 또아리 와아리

뚜껑 : 덧게 뚜껑 뚝겅

막대기 : 막대기 막때기 작대기 작때기 짝때기

말뚝 : 말목 말뚝

망치 : 망치 장도리

매 : 매

맷-돌 : 매뚤 맷돌 맷뚤

멍에 : 멍에

면도 : 면도

모이-통 : 머기통 모시통 모이통 죽통

목침 : 목침 토막 퇴침

못 : 모다구 못

물레 : 물래 물레

바가지 : 바가지 조롱박

바구니 : 다래끼 바구니 삼태기 삼태미 소쿠리

바늘 : 바늘

바둑 : 고누 바둑 뀐

바지랑이 : 바지랑때 바지랑대

바퀴 : 바쿠 바퀴

방망이 : 방맹이 방망이

방아 : 방아 방깐

방울 : 방울

베개 : 비개

벼루 : 베루

벼-훑이 : 궁글통 탈곡끼

병 : 병

보습 : 버섬 보습

부싯-돌 : 부싯뚤

부채 : 부채

북 : 북

불-가래 : 부삽

불-집게 : 부집개

비 : 비 비짜루 비짜리 빗짜루

빗 : 빗 얼개빗 참빗 챔빗

사닥-다리 : 사다리 사닥다리 새다리

삼태기 : 삼태기 삼태미

새끼 : 새끼

서랍 : 빼다지 서랍 설합

성냥 : 성냥

성냥-갑 : 성냥갑 성냥곽

세수-대야 : 세수대야 세수때 세숫대 세숫

대야

쇠-사슬 : 쇠고랑

쇠-스랑 : 소시랑 쇠스랑 쇠시랑

수레 : 구르마 수레

숯 : 숫

써레 : 써레 쓰레

쐐기 : 쐐기

씨아 : 씨아 씨앗

어래미 : 얼개미 채 체

얼레 : 얼레

열-쇠 : 열새 자물통

올가미 : 올가미 올개미 옹노

요강 : 오강 요강 요강단지

이물 : 뱃머리

인두 : 인두

자루 : 자루 푸대

장도리 : 장도리

장작 : 장작 장작깨비

재봉-칩 : 미싱 자방틀 재봉틀

저울 : 저울

절구 : 절구통 절구:

제기 : 제:기

조롱-박 : 조롱박 쪼롱박

족집게 : 쪽집개 쪽집게 쪽집깨

종이 : 조이 종이

주머니 : 쌈지 주머니 주머이 호주머니

지팡이 : 지팽이

차표 : 차표

참바 : 바 바쭐 밧줄

키 : 채 치 키

팽이 : 팽이

표 : 표

풀무 : 풀무 풍노

피리 : 퉁수 피리

호미 : 호매이 호미

홍두깨＝방망이 : 방맹이 홍두깨

화로 : 화로 화리

횃-대 : 옷거리 횃대

흙-손 : 흑손

각띠 : 허리띠 혁띠

갖-신 : 가죽신

고무신 : 고무신

고쟁이 : 고쟁이 속옷

고깔 : 꼬깔

귀-걸이 : 귀거리

귀-주머니＝호주머니 : 속주머니 호주머니

길쌈 : 길쌈 질쌈

김＝헝겊 : 천 허:ㅇ겊 헝겊 홍겊

깃 : 깃 에리

나막신 : 게다 나막신 쓰레빠

누더기 : 누더기 누데기

다듬이-질 : 다드미질 다듬질

단추 : 단추

대님 : 댄님

동정 : 동정

두루마기 : 두루마기 두루막 두루매기 후루막

띠 : 띠 허리끈 허리띠 허리빠 혁대

마포 : 베 삼베

매듭 : 매듭 매디

모자 : 모자

무명 : 무명

바지 : 바지 쓰봉

반지 : 가락지 가락찌 반지

버선 : 버선

보자기 : 보자기 보재기

비녀 : 비내 비네

비누 : 비누

비단 : 명주 비단

삿갓 : 삿갓

솜 : 솜

신 : 신 신발

양말 : 양말 양발

올 : 오래기 오:ㄹ

옷감 : 옷감 옷깜
옷-고름 : 옷고름
옷-깃 : 옷깃
요 : 담요 요 요데기
자루 : 자루 푸대
저고리 : 저고리
짚-신 : 집세기 집신
치마 : 초마 치마 치매
포대기 : 포대기
홑-이불 : 혼니불
구슬 : 구슬 다마
기름 : 기름 지름
돌 : 돌 돌막 돌맹이 짱돌
석유 : 서규
쇠 : 쇠 쇠꼽
숫-돌 : 숫돌
자갈 : 돌자갈 자갈
자물-쇠 : 자물통
개암 : 개:금 개암 깨금
고욤 : 고얌 고염
곶-감 : 꼬깜
꽃-봉우리 : 꽃마우리 꼿보오리
꽃-송이 : 꼿소이
나리 : 개나리꼿 나리
딸기 : 딸구 딸기
똘-배 : 돌배 아구배
맨드라미 : 맨드라미
머루 : 머루 멀구
민들레 : 민들레
버찌 : 버찌: 뻣
복숭아 : 복상 복쌍 복숭아
사과 : 능금 사과
오디 : 오동 오디
오얏 : 고야 오얏
오이 : 오이
은행 : 은항 은행
진달래 : 진달래 창꼿
찔레 : 찔래 찔레
포기 : 포기 떨기
홍시 : 홍시감 홍시
가리 : 낫가리
가지 : 가지
고구마 : 고구마
고추 : 꼬추
귀리 : 귀리
깜부기 : 깜부기
껍질 : 꺼풀 껍대기 껍질
녹두 : 녹두
뉘 : 뉘
마늘 : 마눌 마늘
메밀 : 메물 메밀 모밀
무우 : 무 무수 무우
밀가루 : 밀가루
벼 : 나락 베 벼
보리 : 버리 보리
수수 : 수수
쌀 : 멥쌀 쌀 찹쌀
옥수수 : 강냉이 옥수수 옥시기
조 : 조 좁쌀
참외 : 외 차뫼 참외
팥 : 팟
피마자 : 아주까리
호박 : 호박
가시 : 까시
가시-덤불 : 까시덤불 가시덤풀 까시덩쿨
가시랭이 : 지푸라기 지푸래기
가지 : 가쟁이 가지
갈-대 : 갈대 갈때
강아지-풀 : 가아지풀
검불 : 검부적 검불
고사리 : 고사리 고비
그늘 : 그늘 음달 응달
김 : 김 짐
깍지 : 깍지 쭉쨍이

꼭지 : 꼭다리 꼭지 꼭따리
꼴 : 소풀 소꼴 꼴
꽈리 : 꽈리
나무 : 나무 낭구
냉이 : 나생이 냉이
넌출 : 넝쿨 덤불 덩굴
달래 : 달래 달롱
담쟁이 : 담쟁이
도깨비-바늘 : 도깨비 바늘
도꼬마리 : 도꼬마리
띠 : 잔디 떼 떼짱
마디 : 마디 매디
무릇 : 물곳
미나리 : 미나리
미역 : 미역
배추 : 배차 배추
버들 : 버드나무 버들
봉선화 : 봉숭아
비름 : 비듬 비름 쇠비름
뽕나무 : 뽕나무
뿌리 : 뿌래기 뿌래이 뿌리 뿌리이
상치 : 상추
섶 : 섭
싹 : 순 움 싹
씀바귀 : 씀바구 씀바귀
아욱 : 아옥 아욱
양-파 : 다마내기
우엉 : 우엉 우웡
이끼 : 바우옷 이끼 청태
잎 : 이파리 입 입사구 입사귀 입파리
조롱-박 : 도롱박
줄기 : 대공 줄거리 줄기
질경이 : 질갱:이 질경이
갈-가마귀 : 갈가마귀
거위 : 거우 거위
고니 : 황새
구구구 : 고고고 구구
기러기 : 기러기 기레기
까마귀 : 까마구 까마귀
꿩 : 꽁 꿩
달걀 : 계란 겨란 계란 달걀
닭 : 닥 달기: 달기
메추라기 : 메추리
모이 : 모이
밀알 : 미달
벼 : 벼슬
병아리 : 병아리 빙아리 뼝아리
뻐꾸기 : 뻐꾸기 뻐꾹새
소리개 : 매 솔개
소쩍새 : 두견새 소쩍새
종달-새 : 노고지리 종다리 종달새
거북 : 거부기 거북
고양이 : 고내이 고양이 고:이 괭이
꼬리 : 꼬랑지 꼬리 꽁댕이 꽁지
담비 : 담부 담비
돼지 : 대지 돼지
두더-지 : 두더쥐 두더지
마구-간 : 마구깐 오양간
멧-돼지 : 멧돼지 산돼지
범=호랑이 : 범 호라이 호래이
쇠-고기 : 소고기 쇠고기
승냥이 : 승낭이
여우 : 여수 여우 여깽이
염-소 : 염생이 염소
워리 : 도꾸 메리 오요요요요~ 워리
워:워 : 워워: 이러이러
원숭이 : 나비 원생이 원숭이 원싱이 잔나비 잔내비
족제비 : 쪽지비 쪽재비 쪽째비
쥐 : 서생원 쌩쥐 쥐
토끼 : 토깽이 토끼 퇴깽이
트기 : 튀기
가재 : 가재 까재
거머리 : 거머리 그머리 금자리 금저리

게 : 그이
메기 : 미기 메기
멸치 : 며루치 메루치 메르치 멜치 멸치
미꾸라지 : 미꾸라지 미꾸락찌 미꾸리 미꾸락지
조개 : 조가비 조갑지 조개
피라미 : 피라미 피래미
개구리 : 개고락지 개구리 깨구락지 깨구리
고치 : 고치
구더기 : 구데기 구더기
귀뚜라미 : 귀뚜라미 귀뚜래미 귀뚜리
나비 : 나방 나뱅이 나비
노래기 : 노내기 노래기
도:리-도:리 : 멀리 멀리 가지 마라 똥물 먹고 죽는다
땅-벌 : 바다리 땡삐
모기 : 모갱이 모기
반디 : 개똥벌거지 개똥벌레 반딧불
버마재비=사마귀 : 사마구 사마귀
번데기 : 번데기 뻔데기 뻔디기
벌레 : 버러지 벌거지 벌러지 벌레
벼룩 : 베루기 베룩 벼룩 빼루기
살모-사 : 살모사 살무사
송충이 : 송챙이 송충이
쉬-파리 : 쇠파리 쉬파리
이 : 서캐
잠자리 : 고추잠자리 나마리 잠자리
진드기 : 진드기 찐드기
청-개구리 : 청깨구리
가늠=대중 : 가늠 눈대중 눈어름 눈짐작 어림 짐작
길 : 질
꾸러미 : 꾸러미 꾸레미
다섯 : 다섯 댓
다음 : 다음 이따가
두름 : 두름 꾸루미
웃 : 우끔
쉰 : 쉬은 쉰
쪽 : 똥가리 쪼가리 쪼각 쪽
가끔 : 가끔 종종 간혹 이따금 혹:깐
가만히 : 가마이 가만 가만가만 가만히 살그머니 살금살금 살짜쿵 살짝 슬그머니 찬차니 찬찬히 천천히
가장 : 아주 제:ㄹ 제일 최고 최고로
갑자기 : 갑자기 갑짜기 급작스리 느닷업시
거꾸로 : 거꾸로 뒤지버 뒤지버서 까꾸로 까꿀루 꺼꾸로 꺼꿀로 꺼꾸루 꺼꿀루
거의 : 거반 거의 거지반 거진 얼추
걸핏하면 : 걸핏하면 걸핏허면 자칫하면 툭하면 까딱하면
겨우 : 가까스로 간시니 간신히 겨우 제우
결코 : 결코 그여코 기어이 기어코 끈내 끗끈내
고스란히 : 고스라니 고스란히 몽땅 전부
괜히 : 공연히 괘니 괜시리 괜히
구태여 : 구지 구태어 구태여 기여코 억지루 해필
그다지 : 그다지 그리 별로 별루
그따위 : 고따위 그까지꺼 그까진거 그따우 그따위 그따구
그렇지 : 그러치 그럿치 그자 그지
그만 : 고만 그만
그제야 : 그재서야 그제사 그제서 그제야 이제야
기왕이면 : 기왕이면
까지 : 까지 꺼정 꺼지
깜박 : 깜빡 깜짝
꽤 : 무척 엄청 제법 깨 꽤
나란히 : 나라니 나란히 똑가치
냉큼 : 냉큼 속히 어서 얼른 얼릉 잽싸게 퍼뜩 후딱 빨랑 빨리
느리게 : 느리게 느릿느릿 느께 더디게

늘 : 날마다 노상 늘 늘쌍 맨날 항상 항시

담뿍 : 듬뿍 잔뜩 깟득

더군다나 : 더구나 더군다나 더더구나 더더군다나 더우기

더러 : 가끔 간혹 더러 이따금 호:ㄱ깐 혹가다

더불어 : 가치 더부러 한테 함께

더욱 : 더더욱 더욱

도리어 : 도려 도리어 도리여 되려 오히려 외려

두루 : 골고루 두루 온통 전부다 싸:ㄱ

드디어 : 결국 드디어 마침내

따름 : 따름

똑똑히 : 분명히 확실히 똑또기 똑똑키

뚜렷이 : 버년히 선명하게 또려시 또렷하게 뚜려시

마냥(나마냥)=처럼 : 나갓치 나마냥 마냥 처럼

마다 : 마다

마저 : 마저 까지 까지도 꺼지

마침내 : 기어이 드디어 마침 마침내

만날 : 맨날

많이 : 되게 듬뿍 마니 만히 엄청나게

매우 : 굉자이 굉장히 매우 몹시 아주

몇 : 맷가지 멧 멋까지

모두 : 다 모두 전부

모조리 : 깡그리 모조리 모조리 몽땅 몽조리 전부 죄다

모쪼록 : 모처럼 부디 아무쪼록 오래간마네

무릇 : 무릇

문득 : 갑짜기 문득 문뜩

물끄러미 : 말끄러미 멍하니 물끄러미

바로 : 금방 금새 바로 바루

반드시 : 꼭 반드시

벌써 : 벌서 벌써

별나게 : 기똥차게 별나게 유독히 유별나게 특별나게

별로 : 벨로 별로 별루

부러 : 부러 역부러 일부러

비로소 : 비로서 비로소 인제사

뻔히 : 빤히 뻔히

사사로이 : 사사로이

살살 : 살살 슬슬

설마 : 설마 설마하니

손수 : 손수

쉬 : 쉬 쉽게

스스로 : 스스로 스시로

아마 : 아마

아무렇게나 : 아무따나 아무러케나 아무케나

아무렴 : 아:ㅁ 아무려면 아무렴

아주 : 아주

어서 : 빨랑 빨리 어서

어째서 : 어째서 으째서

어쨌든 : 어쨋든

어찌 : 어째 어찌

얼른 : 빨랑 빨리 속키 싸게 얼런 얼렁 얼른 후딱

얼마 : 얼마 을마

얼마나 : 얼마나 얼만침 얼만큼

왜 : 뭣때메 왜

이따금 : 가:끔 이따금

이미 : 벌써 이미

이왕이면 : 기와이면 이와이면

이윽고 : 드디어 마침내 이으꼬 이윽고

일부러 : 역부로 일부러 일부로

일찌기 : 일찌감치 일찌기

자꾸 : 자꾸 자꾸만

자주 : 자주

저절로 : 저절로 제절로 지절로

조금 : 약간 조금 째끔 쪼금 쪼끔 쬐:끔

좀처럼 : 엔가니 엥간해서 여간해 좀처럼 좀체 좀체로

짐짓 : 섬짓 짐짓

차라리 : 앗싸리 차라리

천천히 : 찬차히 찬차니 찬찬히 천처니 츤츤히

펙 : 팩 패나 제법 퍽 하마터면 하마트면

하필 : 하필 해필 허벌나게

하마 : 벌써 하마

하마터면 : 혜필

한가지로 : 하나로 한가지 한가지로

함부로 : 함부로 함부루

행여나 : 해여나 혹시나

혼자 : 혼자 혼차 홀로

혼히 : 흐니 혼히

가깝다 : 가까우니 가까워서 가참다 가참따 갓갑다 갓참다

가난-하다 : 가난하다 구차하다 궁색하다 못싼다 옹색하다

가냘프다 : 가냘프다

가늘다 : 가느다라타 가느:타다 가늘다

가득-하다 : 가득하다 꽉찼다

가볍다 : 가려워 가려워서 가려우니 가렵다 간지럽다 개럽다 개러워 개롭다 근지럽다

가볍다 : 가볍다 개법다

가쁘다 : 가뿌다

가엾다 : 가엽다 불쌍하다

가지런-하다 : 가지런하다 빤듯하다

같다 : 가트다 갓다 똑갓타

개운-하다 : 개운하다 깨꼼하다

거리끼다 : 꺼리낀다 꺼린다 꺼림직하다 께름직하다

거칠다 : 거칠다 꺼끄럽다 꺼끄러워서 꺼끌꺼끌하다 꺼끌하다 꺼칠꺼칠하다 껄끄럽다

검다 : 까마타 꺼멋따

게으르다 : 게을르다 게으르다

고달프다 : 고단하다 고달푸다 고데다 고되다 녹작지근하다 되다

곯다 : 골타

곱다 : 고와 곱다 곱살하다 예쁘다

괴롭다 : 게롭다 고롭다 괴로우니 괴로워 괴롭다

구리다 : 구리다 구린내나다 쿠리다 쿠린내난다 꾸리다

굳다 : 굿다 단단하다 딱딱하다

굵다 : 국다 굴거서 굴따

그르다 : 그르다 글러따 글렀다 글렀따

그립다 : 그립다 그리워 그리워서

기쁘다 : 기뿌다 기쁘다

길다 : 기따라따 길다 길다라타 질다

깊다 : 기푸다 깁다 지푸다 지퍼서 집다

까다롭다 : 까다롭다

깨끗하다 : 말끔하다 말쑥하다 깔끔하다 깨깟하다 깨끗하다

꺼림-하다 : 시언찬하다 깨롬허다 깨림칙하다 께림직하다

나란-하다 : 나란하다

낡다 : 날갓다 날가서 날것다

남다 : 남는다 남다 남따

냅다 : 내굽다 내웁다 냅다 매:ㅂ다 매꾸워 매우니 매웁다 맵다

너그럽다 : 너그럽다 너그러우니 너그러워 너그럽따

넓다 : 널다 널버서 널따 널찍하다

노랑색 : 노란색 노랑색 누렁색

누르다 : 노랏타 누렇타 누르스름하다 누르끼리하다

느리다 : 느리다

늙다 : 늑다 늘거서 늘따

늦다 : 느젓다 늣다 늣따

다르다 : 달르다 따르다

달다 : 달다 달다하다 달콤하다

더럽다 : 더럽다 드럽다 디:럽다 디:러워서

덥다 : 더우니 더웁다 더워 덥다 뜨겁다

두껍다 : 두툼하다 두껍다 두꺼워서 뚜껍다

두렵다 : 두렵다 무섭다

둥글다 : 동그라타 둥굴다 둥그라하다 둥그스름하다 둥글다 똥그라타 뚱그러타

드물다 : 드문드문하다 드물다

따갑다 : 따갑다 따지워 따겁다 딱근하다 때겁다 뜨겁다 뜨거우니 뜨거운

떫다 : 털따 떨버서 떨브니 떨따 뜰따

많다 : 마:니 마:이 만타 쌨다

맑다 : 막다 막따 말다 말따

맵다 : 매와 매웁다 매워 맵다

멀다 : 멀다

무겁다 : 무겁다 무거워 무거워서

무섭다 : 무숩다 미섭다

묽다 : 묵다 물따

미끄럽다 : 매끄럽다 미끄럽다

미끈하다 : 매끈하다

밉다 : 밉다 베기실타 비기실타

바르다 : 바르다 올바르다 똑바르다

반갑다 : 반갑다 방갑다

반드럽다 : 반드럽다 반질반질하다 번드르허다

밝다 : 박다 발다 발따

부끄럽다 : 남사시럽다 부꾸럽다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추접스럽다

부드럽다 : 보드랍다

부럽다 : 부럽다 부러워

붉다 : 북다 불그스름하다 불그스럼하다 뿔따

빠르다 : 날래다 속히 얼른 빠르다 빨리

빤듯하다 : 빤듯하다

빨갛다 : 빨갓다 뻘것타

사납다 : 사납다 사나와 사나와서 싸납다

새롭다 : 새롭다 새롭따

서럽다 : 서럽다 서러워 설따

세다 : 세다 시:다 쎄다

쉽다 : 수월하다 쉽다 시:워서

슬프다 : 서글프다 슬프다

시끄럽다 : 시끄럽다 시끄럽따 씨끄럽다

시다 : 새콤하다 시겁다 시굽다 시급다 시다

시시하다 : 시시하다 시지부지하다 보잘것없다

시원하다 : 선선하다 시언하다 시원스럽다 시원하다

싱겁다 : 심심하다 싱겁다 싱거워서

싱싱하다 : 생생하다 싱싱하다 쌩쌩하다

싸다 : 헐하다 싸다

쌧다 : 수드룩하다 쌧다 혼하다

쓰다 : 쓰다 씁스름하다 씨거우니 씨굽따 씨급다

쓸쓸하다 : 쓸쓸하다 외롭다 적적허다

아깝다 : 아깝다 아까와서 아까워서

아끼다 : 아끼다 아낀다 애낀다

아니꼽다 : 드럽다 매시꼽따 아니꼽다

아득하다 : 까마득하다 아득하다

아름답다 : 곱다 멋잇다 아름답다 아름답따 예뻐서 이:쁘다 참하다

아쉽다 : 아숩다 아쉽다 아십다

안타깝다 : 안타깝다

애닯다 : 애달따 애달푸다 애달프다

애처롭다 : 애처럽다 애처롭다

앳-되다 : 애띠다

얕다 : 야트다

어둡다 : 깜깜하다 껌껌하다 어둡다 어두워서 어두침침하다 침침하다 캄캄하다

어렴풋하다 : 어슴프레하다

어렵다 : 어렵다

어리석다 : 둔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얼띠다

어지럽다 : 어지럽다 어지러우니 어지러워 어지러워서 어지럽따

어질다 : 어질다 착하다

엷다 : 얄따 얄팍하다 열따 엽다
열다 : 야트다 얏따 얏다 엿다
예쁘다 : 예쁘다 이:다 이쁘다
우습다 : 우숩다 우습다
작다 : 작다 적다 짝따 째깐하다 쪼:깐하다 쪼만하다 쪼매:ㄴ하다 쪼매:ㅇ하다 쪼매하다
잘다 : 잘다
잦다 : 만타 잣다
적다 : 적다 조금이다 쩍다
젊다 : 새파라타 어리다 점다 점따
정답다 : 정답다 친하다
좁다 : 좁다 쫍다
즐겁다 : 기쁘다 재미잇다 줄겁따 즐겁다 즐거우니 즐거워
질다 : 질다 질퍽질퍽하다
짜다 : 짜겁다 짜굽다
짧다 : 짜르다 짤따 짤바서 짧다
차다 : 차겁다 차구어 차굽다 차다
춥다 : 추어 추웁다 추워 추워서 춥다
컴컴하다 : 깜깜하다 깡깜하다 컴컴하다
크다 : 커서 크다
틀리다 : 글럿다 틀려서 틀리다
파랗다 : 시퍼러타 파라타 파랏다 파랏타 퍼럿다
퍼렇다 : 퍼러타 퍼럿다 퍼럿타
푸르다 :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하얗다 : 하야타 하얏다 허엿다 허엿타
훤하다 : 환하다 훤하다
흐리다 : 흐끄무레하다 흐리다
희다 : 희다 히다
희한하다 : 야릇하다 이상하다 희한하다 히안하다 히얀하다
힘세다 : 심세다 힘세다 힘쎄다
가루다 : 가룬다 가르다 가린다
가르다 : 가르다 갈른다 나눈다
가르치다 : 가르친다 가르킨다 가리친다 가리킨다 갈친다 갈킨다
가리다 : 가리다 골루:ㄴ다
가리다 : 가린다
가리킨다 : 가르친다 가르키다 가르치다 가리키다 갈킨다
가시다 : 가신다 곤친다 부시다 씨껀다 행구다 헹구나
가져온다 : 가꼬온다 가저온다 가져온다 가지고온다 갓고온다
갈다 : 간다 갈다
감다 : 감는다 감다 깜다
감다 : 감는다 깜는다 깜다
감추다 : 감춘다 숨긴다 숨킨다
갚다 : 갑다
거두다 : 거둔다 것는다
거스르다 : 거슬린다 거스린다
건너다 : 건너간다
건지다 : 껀진다
게우다 : 개운다 게운다 구역질한다 오바이트한다 올라온다 토한다
겨누다 : 겨눈다 겨룬다
겨루다 : 겨룬다
견디다 : 견ㅁ다 견딘다 전ㅁ다 전딘다
겹친다 : 접친다 졉친다
고다 : 곤다 삼다 쌈는다 쌈다
고르다 : 골른다 고른다
곪다 : 곰는다 곰다
괴다 : 고인다 괴인다 괸다
구경한다 : 귀경간다
구르다 : 구른다 굴른다
굴러다닌다 : 굴러다닌다 굴러댕긴다. 딩구러다닌다
굴린다 : 굴린다
굽다 : 구어 구워 굽다 꾼는다 꿈는다
그슬리다 : 그슬린다 거슬린다 까실른다 끄슬린다
긁다 : 긍는다 극다 극적거리다 긍는다

기다리다 : 기다린다 지다린다

기른다 : 기른다 길른다 키운다

기울어-지다 : 기우러진다 찌우러진다 기운다 기울다 지울다 찌울다

긷다 : 긴는다 떠온다 푼다

길-들인다 : 길드린다 질드린다

김-매다 : 김맨다 짐맨다

깁다 : 김는다

까다 : 깐다 베낀다

까부르다 : 까:부른다 까분다

깍다 : 깍다 깡는다

깜작이다 : 깜박거린다 깜바긴다 깜빠긴다 깜자긴다 깜짜긴다

깨다 : 깨트린다 갠다 바순다 부순다 뽀갠다

꺼리다 : 꺼려한다 꺼리낀다 꺼린다 께름찍하다

꺼지다 : 꺼진다

꺽다 : 꺽다 껑는다 분지른다 분질른다 뿐질른다

껴안다 : 껴안는다 부등켜안는다

꼬다 : 꼰다

꽂다 : 꼰는다 꼿다

꾸다 : 꾸어준다 꿔준다 빌려준다 꾼다

꾸리다 : 뭉는다 싼다 챙긴다

꾸미다 : 꾸민다 단장한다 채린다 치장한다

꾸짖다 : 꾸중한다 꾸지람한다 꾸지름헌다 꾸진는다 나무란다 야단친다 혼낸다

꿇다 : 꾸부리:느다 꿀타

꿰다 : 꼬인다 꾀인다 뀐다 뀐다

꿰어매다 : 깁다 꼬맨다 꾀맨다 꿰맨다

끌다 : 끄러댕긴다 끄러댕긴다 끌다 끄러댕긴다 자바땡긴다 자바땡긴다

끼다 : 낀다 끼운다 찌운다

나누다 : 기른다 나눈다 농군다

나-다니다 : 까질러다닌다 나다닌다 나대닌다 나댕긴다 도라댕긴다 마실나간다 쏘다닌다

나란히-한다 : 나란히한다 똑가치한다

나르다 : 나른다 날른다 옴긴다

나무라다 : 나무랜다

남기다 : 냉긴다

낚다 : 건진다 낙끈다 낙따 낭는다 챈다

낫다 : 나아서 난는다

낳다 : 난는다 낫다 치다

내려-가다 : 내려간다

내리다 : 내린다

넘다 : 넘는다 넘친다

넘어-지다 : 너머진다 어퍼진다 자빠진다

노려-보다 : 노린다 째린다

녹다=녹이다 : 녹다 노긴다 농는다

누비다 : 누빈다

눈-감다 : 눈감다

눈-멀다 : 눈멀다

눈-속이다 : 눈쏘긴다 눈쐬긴다

눈-흘기다 : 눈흘킨다 눈흘긴다 눈흘킨다 째려본다

눕다 : 눔는다 눕다 둔눈다

늘어-나다 : 느러간다 느:러난다 느러난다

다닫다=다다르다 : 다다른다 다와간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임박하다

다스리다 : 다스린다

다지다 : 다진다

다투다 : 다톧다 싸운다

달래다 : 달갠다 달랜다 얼랜다

달리다 : 다름박질친다 다름박질한다 달린다 뛴다

담그다 : 당군다 당근다

던지다 : 던진다 떤저서 떤진다

덜다 : 덜다

덮다 : 더퍼서 덤는다 덮다 씌운다

데우다 : 덥게한다 데운다 뜨뜨하게하다

돕다 : 도운다 돕는다 돕다 해준다

동이다 : 동겨맨다 동긴다 동여맨다 동인다 묵다 뭉는다 짜맨다 쩜맨다

되다 : 된다

두르다 : 결친다 두른다 둘른다

두었다 : 둔다 뒀따

뒤-집다 : 뒤집는다 뒤집다

드린다 : 드린다 디린다

들다 : 드러간다 든다 들다

따다 : 딴다

때리다 : 때린다 팬다

때우다 : 때운다 땜질하다 땜한다 떰질한다

떨다 : 떤다 떨다

떨어-지다 : 떠러지게한다 떠러진다 떠러트린다

뚫다 : 뚜룬다 뚤른다 뚤따 뚤른다 뚤버서

뛰다 : 뛴다 뜀박질한다 토깐다

뜨다 : 뜬다

뜨다 : 뜬다

뜯다 : 뜬는다 뜻다

마르다 : 가무렀다 마른다 말른다 말린다

마르다 : 마른다 말른다

막다 : 막다 망는다 맥킨다

만나다 : 만난다 만낸다

만들다 : 만들다 맨든다 맨들다 맹글다

만지다 : 만진다 맨진다 손댄다

말리다 : 말린다

말리다 : 말린다

망치다 : 망친다 베린다 조진다 허꺼다

맡다=맡기다 : 만는다 맛다 매낀다 맷긴다

먹다 : 멍는다 먹다

멈추다 : 끈친다 끗친다 멈추고 멈춘다 슨다

메우다 : 메꾼다 메운다

모르다 : 모른다 몰른다 몰라서

모으다 : 모은다 몬다 보탠다

못-한다 : 모탄다 못한다 못해

뫼-쓰다 : 모이쓴다 뫼쓴다 묘쓴다

무너지다 : 무너진다 쓰러진다

무이다=미다 : 믿다 민다

묶다 : 동긴다 무꺼서 묵따 뭉는다

문지르다 : 문댄다 문지른다 문질른다 비빈다

묻다 : 묻는다 무더서 뭇다

물다 : 깨문다 깨물다 문다

물-들이다 : 물드린다 염색한다

뭉그러-지다=뭉개다 : 문드러진다 뭉갠다 뭉게진다 뭉그러진다

뭉치다 : 뭉친다

미역-감다 : 멕감는다 미역감다 헤엄치다

미끄러-지다 : 미끄러진다 자빠진다

밀다 : 밀친다 밀다 민다

바라-보다 : 바라본다 쳐다본다

바르다 : 바른다 발라서

밟다 : 발바서 발브니 밥따

밭다 : 밴는다 뱃다 토한다

버리다 : 내팽개친다 내꼬진다 내뻐린다 내삐린다 버린다 팽개친다

번지다 : 번진다 퍼진다

벗다=벗기다 : 번는다 벗다 베낀다

베다 : 벤다 빈다

벼르다 : 벼른다 별른다

보채다 : 보챈다

복다 : 복근다 복다 봉는다 뽀까서 뽕는다

불-때다 : 굼불땐다 불땐다

불-사르다 : 불사른다 사른다 태운다

불-지르다 : 불지른다 지른다

붐비다 : 복잡하다 복짝거린다 붐빈다

붓다 : 부엇다 부어서 분는다 붓다 붓는다 붓따

붙다 : 붓다

비비다 : 문댄다 뱌빈다

비추다 : 비친다 빗친다

비틀다 : 배틀다 비틀다 비트르다
빗다=빗기다 : 빗다 삔는다
빨가-벗다 : 홀딱벗다 빨가벗다
빨다 : 빨다 빤다
빨다 : 헝군다 빤다 빨다
빻다 : 빳따 찟다 찟타
빼다=빠지다 : 빼니 뺀다
빼앗다 : 빼앗다 뺀는다 뺏다
뽑다 : 뽑다
뿌리다 : 뿌린다 뿌리니
뿜다 : 뿜다
사귀다 : 사권다
사다 : 사다 산다 팔다
사뢰다 : 뭇다 사뢴다 아뢴다 여쭌다
사무치다 : 사모치다 사무친다
삭다 : 사킨다 상는다 썩다
살리다=살다 : 살군다 살린다
삶다 : 살마서 삼는다 쌀믄다 쌈는다 쌈따
삼키다 : 삼킨다 생킨다
성내다 : 골낸다 성낸다 승질낸다 화낸다 ㅁ깔낸다
속다 : 소가서 송는다 쏭는다 쏘가서
속다(식물을) : 속다 소까낸다 쏙다
수군-거리다 : 속딱거린다 수군거린다 수군댄다 수군수군한다 쑥덕댄다
수선-거리다 : 수선거린다 웅성거린다
숨기다=숨다 : 숨긴다 숨킨다
쉬다 : 쉰다 신다
시키다 : 시킨다 시키니
심다 : 심근다 심는다 싱군다 싱궈따 싱근다
싸다 : 싸다 싼다
쌀-산다 : 쌀산다 쌀판다 쌀팔다
쌀팔다 : 쌀판다 쌀팔다
쌓다 : 싸타
쌓이다 : 싸인다 쌔인다
썩다 : 써거서 썩다 썽는다
쏘다 : 쏜다
쏟다 : 분는다 업찌른다 쏜는다 ㅁ다
쓰다 : 쓴다
쓰다 : 쓴다
쓰다 : 사용한다 쓴다
씹다 : 씨버서 씸는다 씹다
씻다 : 시친다 씨 서 씨서서 씬는다 씬다
아뢰다 : 아뢴다 여쭌다
앓다 : 아라서 아르니 알른다 아푸다 알른다 알타
어긋-나다>어근나다 : 어근난다
어우르다 : 어우러진다 어울려서 어울린다
얹다 : 언는다 어저서 언진다 언따
얼다 : 언다 얼다 얼린다 얼크다
얽다 : 얼거서 얼근다 얼른다 엉는다 역따
엄살-하다 : 엄살부린다 엄살한다 엄살깐다 엄살떨다 깨병부린다
업다 : 어버서 엄는다
업신-여기다 : 갈시한다 괄세한다 업신여긴다 업씬여긴다 깔본다
없다 : 업따
엎드리다 : 업드린다 업뜨린다 업띠린다
에워-싸다 : 둘러싸서 둘러싼다 에워싼다
여위다 : 말른다 야윈다 여윈다 파리하다
여의다 : 여왼다
엿-보다 : 엿본다
오르다 : 오른다 올라간다
옮긴다 : 옴긴다 웅긴다
외우다 : 암기하다 암기한다 오인다 외운다 왼다
우러르다 : 우러러본다 우러른다
움키다 : 움킨다
웃다 : 운는다 웃다
웅크리다 : 움츠린다 웅크린다 쪼그린다 쭈그린다
읊다 : 을프다 을픈다 읍다
이르다 : 일른다 이른다

이삭-줍는다 : 이삭준는다 이삭줌는다
이지러-지다 : 모지라진다 어그러진다 이그러진다 이지러진다 찌그러진다
익다 : 익다 잉는다
이르키다 : 이러나게한다 이르킨다
읽다 : 일거서 익따 일는다 잉는다
잃다 : 이러뻐린다 이저먹다 이저버린다 일는다 일타
잇다 : 인는다 이어서 이으니 잇다
잊다 : 잇따
자르다 : 자른다 짜른다
잠그다=잠기다 : 잠군다 잠근다 채운다 잠긴다
잡다 : 붓들다 붓잡다 웅키다 잠는다 잡다
저:ㄹ다 : 저런다 제린다
젖다 : 전는다 젓다
졸다 : 잠잔다 존다 졸다
줍다 : 주어서 주서서 준는다 줌는다 줌따
중얼-거리다 : 구시렁거린다 투덜댄다 씨부렁거린다 씨부린다
지다 : 진다
지우다 : 지운다
짓다 : 지어서 진는다 짓다
짖다 : 짓는다 짓다
짚다 : 짐는다 집다
짜다 : 짠다
쪼개다=쪼개지다 : 가른다 쪼갠다 찌갠다
쪼그리다=쭈그리다 : 웅크린다 꾸부린다 쪼그린다 쭈그린다
쫓다 : 쫀는다 쫏따
쬐다 : 쪼인다 쬔다
찌다(식물을) : 쩐다
찍다 : 찍다 찡는다
찧다(방아) : 찌어서 찌으니 찐는다 찟타
차다=채우다 : 채운다
채우다 : 치운다
축이다 : 적신다 추긴다
춤-추다 : 춤춘다
치다 : 친다 때린다
캐다 : 캔다 판다
켜다 : 킨다
타다 : 타다 탄다
타지다 : 타진다 터진다 트더진다
털다 : 털다
퉁기다 : 퉁긴다 튕긴다 팅긴다
트다 : 터진다 튼다
판-나다 : 끈난다 끗장난다
팔다 : 낸다 판다 팔다
펴다 : 편다
품다 : 품는다 품다
풍기다 : 냄새난다 풍긴다 피운다
피다=피우다 : 피우니 피운다 핀다
핥다 : 할른다 할타니 할타서 할튼다 할따
허물-없다 : 허무럽다 허무럽따
헐다 : 무너뜨리다 허무른다 헐다
헤아리다 : 세:ㄴ다 세다 세아린다 센다 시:ㄴ다 헤아린다
헤어지다 : 갈라진다 갈린다 헤어진다
호리다 : 홀린다 꼬신다
홑다 : 홀른다 홀따 홀타
훔치다 : 훔친다 쌔빈다
흐르다 : 흐른다
흔들다 : 흔든다 흔들다
흘겨-보다 : 흘킨다 흘겨본다 째려본다
흘기다 : 흘긴다

2. 俗 談

老馬 모심듯 한다 : 빠르고도 정확하다는 뜻이다(老馬=북내면 장암리에 살던 사람으로 하루에 혼자서 모를 쪄서 3마지기를 심으면서도 못줄 없이 사방이 줄이 맞게 심었다고 함).

금동이 갈꺽듯 한다 : 거칠고 쓸모 없게 한다.

후살이 가는 년이 보리방아 찧고 갈까? : 떠나 가는 사람이 그 집을 위해서 궂일을 단속하고 가겠느냐.

가던 날이 장날이라더니 : 우연한 일치라는 뜻이다.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 못먹어서 궁둥이에 살이없어 다리가 찢어질 것 같다는 뜻.

가랑잎에 뀡알 묻듯한다 : 여기 저기 남모르게 숨겨둔다는 뜻.

가래 장치 뒤는 상감도 모른다 : 가래질할 때 장치 끝에 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

가려운 데 긁어줄 줄을 알아야 한다 : 남의 사정은 잘 알아서 동정할 줄 알다.

빵덕 어멈 팥죽 쑤듯 한다 :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떤다.

가마솥 검다고 밥도 검을까 : 사람을 겉만 보고 알 수 없다.

까마귀 먹칠해서 검어졌느냐 : 선천적이지 후천적은 아니다.

윤동짓달 초하룻날 : 절대로 불가능한 일

가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졌다 :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이 동시 발생하여 공연한 의심을 받게 됐다.

갈가마귀 떼처럼 : 떼를 지어 소란을 떤다.

가마귀도 제자식은 예뻐한다 : 제자식은 미운줄 모른다.

가마귀도 제소리는 좋다한다 : 자기 것은 누구나 좋다고 한다.

화로에 떡 구어놓고 왔나 : 오자 마자 가려고 서둔다는 말.

갈수록 태산이다 : 점점 더한다.

워하니 뛰네 : 하지 말라는 일을 점점 더한다.

건 갈이에 물대듯 한다 : 술을 잘 마신다는 말.

칠년 왕가물에 빗방울 안떨어진 날 없다 : 될듯 될듯 하면서 되는 일 없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 어느 것이 우수한지 비교해 봐야 알 수 있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가 몹시 불편하다.

개암도 과일이다 : 하찮은 것도 쓸 데가 있다.

여름 날씨좋은 것과 늙은이 근력 좋은 것은 믿을 수 없다 : 노인들은 건강이 좋다고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가을 타작에는 부지깽이도 한 몫 한다 : 바쁜 때는 누구나 같이 참여한다.

가을 부채냐? : 어째 시세가 없느냐?

가을 찬밥은 봄 양식이다 : 흔할 때 절약하는 것이 궁할 때 도움이 된다.

가을 중 싸대듯 하느냐? : 성황기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양.

가재는 게편이다 : 서로 가까운 사람이 한편이 된다.

가재 뒷걸음 치듯 하다 : 꽁무니를 빼고 달아난다.

가죽신 안 맞는 건 1년 원수요, 여편네 잘못 만난 것은 평생 원수다 : 장가 한번 잘못들면 평생을 고생한다.

가지고 있는 건 그림자 뿐이다 : 아무 것도 없다, 재산이 없다.

닭이 맨발로 다니니까 오유월인 줄 안다 : 추위를 모른다, 추위 단속을 않는다.

까치 뱃바닥 같은 소리만 한다 : 흰소리만 하는 사람(까치 뱃바다박이 희기 때문)

까투리 콩밭에만 맘이있다 : 항상 먹을 것만 생각한다, 엉뚱한 데만 맘을둔다.

잠깐오월, 미끈유월, 어정칠월, 건들팔월 : 오월은 해가 길고 지루하며 유월은 바쁜중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고 칠월은 어정어정하다 지나가고 8월은 선들 바람처럼 지난다.

着守10년이면 徵役5년이다 : 남을 가르치거나 시키려면 半은 같이 고생해야 한다는 말.

간에가 붙었다 쓸개에 붙었가 한다 : 지조없이 체면도 모르고 이로운 쪽으로만 따른다.

간이 콩알만 하다 : 몹시 겁이 나서 혼났다.

무술년 봄보리단 같다 : 무술년에 보리흉년이 들어 보리단이 아래위가 없이 베어 묶었기때문에 질서나 규격이 없어 정신없이 얽흐러진 것을 말함.

잠뱅이 입고 댓님 맨다 : 모자란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물가에 전지 산 거나 셈 흐린 놈 돈 빌려 준 것보다 낫다 : 더이상 손해갈 짓 한 것보다는 낫다.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 내게 상관 없는 일이다.

일산 장길이다 : 계속해서 허탕친다는 말. (옛날 노름판의 한가지인 채표가 있는데 36가지중에 자기가 지정해서 쓴 자가 맞으면 30배를 태워주는 노름을 할 때 그 36가지 명칭 중에 「일산」만을 언젠가는 맞출것으로 믿고 계속 지정해서 써 넣었으나 맞지 않았다. 맞추지 못하면 길이라 하는데 계속해서 맞추지 못한 것을 長길이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 가볍게 방지 할 수 있는 일을 방치 해 두었다가 크게 힘들인다는 말.

강아지 쇠뼈다구 물고 다니듯 하다 : 쓰지도 먹지도 못할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강원도 들어간 포수다 : 가면 못온다는 뜻이다.(강원도에 호랑이가 많기 때문에 사냥꾼이 들어가면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임).

삼척 냉방이다 : 강원도 삼척의 냉방처럼 차갑다.

人長之德이요 木長之敗라 : 사람은 큰사람의 덕을 보고 나무는 큰나무 밑에서 살 수 없다.

같은 떡이라도 맏며느리가 주는 떡이 크다 : 믿을 만한 사람이 주는 것이 완전하고 온실해 보인다.

외상이라면 검정 소도 잡아 먹는다 : 남의 빚을 겁내지 않는다는 말(당장 현금으로 사지 않는 것이라면 값비싼 검정소도 도살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랫다 : 돈을 벌 때 천하게 벌어도 쓸때 훌륭하게 쓰면 훌륭한 사람이다.

개꼬리 삼년 둬도 황모 안된다 : 원래 바탕이 그른 것은 오랜 세월이 가도 바꿔지지 못한다.

뒷 고래 맹꽁이 운다 : 풍년 들 길조다 (뒷고래 전답에 물이 고이면 맹꽁이가 울기 때문에 전답에 일찍 물이 괴이면 풍년이 든다는 뜻).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건드리면 반응이 생긴다.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 어떤일에 몰두하면 그것만을 생각하게 됨.

개도 기르면 은공을 안다 : 은공을 모르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개도 먹을 때는 때리지 않는다 : 식사 중에는 기분 상하지 않게 한다.

개도 미치면 주인을 문다 : 변절한 사람은 은인도 해친다.

황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았다 : 목적 이외의 우연한 성과를 보았다.

올가미 없는 개장사다 : 밑천 없는 장사를 한다, 어떤일에 준비가 없이 시작한다.

개똥 참외도 임자가 있다 : 매 물건이 모두 주인이 있다.

개똥참외 맡아놓듯 한다 : 이것 저것 모두 맡아만 둔다.

개미가 절구통 굴려간다 : 작은 힘들을 합치면 어려운 일을 성사한다.

불개미 둑에 앉은듯 하다 : 들볶이고 시달린다는 말이다.

개밥에 도토리다 : 천대를 받는다는 뜻(개는 도토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밥에다 섞어 주면 이리저리 굴리고 먹지 않고 돌아나기 때문).

개 뼈에 도금한다 : 아무 쓸데 없는 일에 비용을 많이 들인다.

개 벼룩 털듯 한다 : 돈이나 재산을 모두 탕진 했다.

빛 좋은 개살구다 : 쓸데 없는 것이 보기만 좋다.

개 목에 호패 건다 : 격에 맞지 않는 일,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떤 직책을 부여해 준다는 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 한가지 일로 두가지 소득을 본다(비슷한 말 : 一石二鳥, 도랑에 든 소다).

풀 빨래와 여자는 두드려야 부드러워진다 : 거친 마누라는 무섭게 다뤄야 한다.

개주자니 아깝고 저 먹기는 싫다 : 물건에 대하여 몹시 인색한 사람을 말함.

깨진 그릇 맞춰 본다 : 이미 잘못된 일을 회상하거나 회복해 보려고 한다.

제갈량이 헌칼 쓰듯 한다 : 허탈리 써 버린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 :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재가 났다.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 살이는 안간다 : 어지간만 해도 그런 것은 안하겠다.

왕거미 똥구멍에 거미줄 나오듯 한다 : 글씨를 한끈에 잘쓴다.

거미줄에 목을 맨다 : 절망에 빠졌을 때는 안되는 일인줄 알면서도 해본다.

사돈집 안방같다 : 거북 스럽기 짝이 없다.

거지가 정승을 불쌍히 여긴다 : 불우한 사람이 도리어 권력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동정한다.

거지는 밥그릇 소리에 잠깬다 :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있는 일에는 신경을 쓰게 된다.

거지도 바가지 장단치는 멋에 산다 : 아무리 고통 속이라도 즐거움은 있다.

제 집터가 금반형이란다 : 제 것이 제일 좋다, 제 집터가 제일 좋다.

걱정도 팔자다 : 필요없는 일에 근심하는 것은 타고난 팔자다.

건너다 보니 절터다 : 겉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넘겨 짚다가 팔 부러진다 : 짐작만 하고 어떤일을 하다가 실패본다.

감이나 홍시나 : 대동소이하다, 그게 그거다.

눈 뜬 송장이다 : 다 죽게 된 사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 한자도 모르는 문맹이다.

게 눈감추듯 한다 : 음식을 빨리 먹는다. 동작이 빠르다.

게으른 놈은 정초에 나무하러가고 게으른 년은 섣달 그믐날 빨래한다 : 남들이 마무리 짓고 쉴때 게으름 피우다가 일하게 된다.

목사면 다 목사냐? 여주목사가 목사지 : 같은 지위에서도 으뜸가는 지위가 있다.

남의 다리 긁었다 :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 남의 일을 한 폭이 됐다.

노른자다 : 가장 좋은 부분이다.

계집과 그릇은 나 돌면 깨진다 : 여자는 밖으로 쏘대면 못쓴다.

계집 때린 날 장모온다 : 공교롭게 무슨 일이 잘못되어 흉잡힐 일이 생겼을 때 남이 보게 된다.

계집의 말은 오뉴월에도 서리가 온다 : 여자가 악담을 하면 일이 낭패된다.

고무줄이다 :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

여주쌀로 선밥 지었다.
후하기가 호판댁이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참고견디면 나중에 반드시 즐거움이 온다는 말.

고수머리와 옥니박이하고는 말도 하지 말랬다 : 고수머리의 옥니를 가진 사람은 성미가 사납다는데서 나온 말.

고슴도치 잡아 놓고 범 하품하듯 한다 : 무슨일을 착수는 하였어도 일이 잘 되지 않아 안타까와 하고 있다는 말.

고양이가 얼굴을 씻으면 비가 온다 : 농촌에서 고양이의 동작을 보고 비올것을 알 수 있다는 말

고양이가 쥐 걱정해 주듯 한다 : 쥐가 걱정되는 일을 고양이가 걱정해 줄 리가 없듯이 걱정을 해줄 처지가 못된다는 뜻.

고양이 앞에 쥐다 : 무서운 사람앞에서는 꼼짝못한다는 말.

고양이 죽은 데 쥐 눈물 흘리듯 한다 : 서러워할 일인데도 조금도 눈물이 안난다는 말.

고자 처가집 다니듯 한다 : 아무 실속도 없는 짓을 한다는 뜻.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나 마른다 : 곡우때는 비가 잘 오는시기인데 이 무렵에 가뭄이 들면 그 해에 흉년이 든다는 말.

곪은 달걀 놓고 병아리 기다리듯 한다 : 아무가망없는 일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

곧이 곧대로 한다 : 조금도 타협하는 일이 없이 사실그대로 한다는 뜻.

꼴값도 못한다 : 생김새는 그럴듯 한데 행동은 못되게 한다는 뜻.

곰도 재주는 넘는다 :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한가지 재주는 다 가지고 있다는 뜻.

공것이라면 비상도 먹는다 : 돈 안주고 공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 말.

공돈은 나가는 줄 모르고 나간다 : 공으로 생긴 돈은 헤프게 쓰여 진다는 뜻.

공술은 맛이 더 있다 : 공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것으로 생기는 것이 더 좋다는 뜻.

꽁지 빠진 닭이다 : 보기가 초라하고 흉한 모습이라는 말.

꽃샘 추위에 설 늙은이 얼어죽는다 : 봄꽃필 무렵에는 날씨가 쌀쌀하여 반 늙은이가 얼어죽을 정도로 춥다는 말.

果物廛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 과실을 파는 상점 망신은 모과가 시키듯이 못난 자식하나가 집안 망신을 시킨다는 말.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 : 서로 처지가 같은 사이라야 사정을 잘 알게 된다는 뜻.

관상장이가 제 관상 못 본다 : 남의 일을 잘 해 주면서도 자기일은 자신이 못한다는 뜻.

관짜는 놈은 초상나기만 기다린다 :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불행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광에서 인심난다 : 곳간에 쌀도 많아야 남을 도와주어 인심을 얻듯이 돈이 많아야 인심도 얻는다는 말.

구관이 명관이다 : 현직관리보다 전직관리가 일을 더 잘 했다는 말로서 사람은 언제나 지나간 것을 더 좋아하고 아까와 한다는 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 사소한 방해물이 있다고 할 일을 안해서는 안된다는 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 무슨일을 어름어름하면서 슬쩍해치운다는 뜻.

口味가 당긴다 : 몹시 먹고 싶다는 뜻.

국물도 없다 :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다는 뜻.

국 쏟고 뚝배기 깬다 : 한가지 일을 잘 못하면 다른 일도 따라서 잘 못한다는 뜻.

굶어 봐야 없는 놈 사정도 안다 : 고생해 본 사람이라야 없는 사람들 사정도 안다는 뜻.

굼벵이도 지붕에서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어 떨어진다 :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가 하는 일에는 제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다는 말.

꿈에 볼까 무섭다 : 몹시 흉측하여 꿈에나마 볼까 무섭다는 뜻.

궁둥이가 무겁다 : 한번 앉으면 일어설 줄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하는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어라고 소곤거린다는 말.

귓구멍에 말뚝을 박았나? : 남의 말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

그식이 장식이다 : 늘 한가지 방법으로 변함없이 그대로만 한다는 뜻.

급하다고 바늘 허리 실 매어 쓸까? :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의 순서를 어겨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

기갈이 반찬이다 : 굶주렸을때는 반찬이 좋지 않아도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 크게 기대했던 것이 실패하게 되면 실망도 크다는 뜻.

기름 쏟고 깨줍는다 : 큰 손해를 본 다음에 사소한 이익이나마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뜻.

기름쟁이마냥 반드럽다 : 사람됨이 어수룩한 맛이 없고 몹시 약다는 뜻.

기생 오라비 같다 : 일도 하지 않고 모양만 내고 놀고 다니는 사람을 이르는 말.

긴 병에 효자 없다 : 오래 앓은 부모에게는 만병이 지치게 되기 때문에 효자노릇하기가 어렵다는 말.

길도 못가고 말 죽도 못 먹인다 : 이것도 저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뜻.

길은 갈 탓이요 말은 할 탓이다 : 言行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뜻.

나간 놈 몫은 있어도 자는 놈 몫은 없다 : 나간 사람은 일하러 갔기 때문에 몫을 남겨 두어야 하지만 자는 사람은 논 사람이기 때문에 몫을 안 둔다는 뜻.

나락 이삭 끝을 보고는 죽어도 보리이삭 끝을 보고는 죽지 않는다 : 벼는 이삭이 난 후 사십 일이 돼야 먹지만 보리는 이삭이 난 뒤 이십일만 돼도 보리죽, 꼰보리밥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삭만 나오면 굶어죽지는 않게 된다는 뜻.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져라 : 어린아이와 싸울때 나이많은 사람이 져야 한다는 뜻.

나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 : 몹시 인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봐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의 덕을 보게 된다는 말.

나무 잘 오르는 놈은 떨어져 죽고 헤엄 잘 치는 놈은 빠져 죽는다 : 재주있는 사람은 제 재주만 믿다가 실수를 한다는 뜻.

나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 :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남이 먼저 한다는 말.

나서기는 주막강아지 같다 : 길가의 주막집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만 보면 짖고 나서듯이 무슨일에나 나서서 일일이 참견한다는 말.

나이는 못 속인다 : 늙을수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쇠약해진다는 말.

나중에는 삼수갑산을 갈지라도 : 앞으로 어떤 불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현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야 말겠다는 뜻.

나중에 보자는 양반 무섭지 않다 : 싸운 끝에 화풀이를 하지않고 나중에 보자고 공갈치는 사람은 뒤끝이 없어서 무섭지 않다는 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외로운 신세라는 뜻.

난 거지 든 부자다 : 겉으로는 몹시 가난한 것 같지만 실속은 오붓한 부자라는 말.

난다, 긴다 한다 : 행동이 몹시 민첩하다는 말.

난세에 충신난다 :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애국자가 난다는 말.

낟알 하나에 땀이 열 방울이다 : 곡식은 농민의 땀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

날강도다 : 강도와 행동이 다를 것이 없다는 뜻.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 : 물건이 날아 없어지듯이 매우 잘 팔린다는 말.

날고 긴다 : 나는 재주도 있고 기는 재주도 있어서 세상을 주름잡는다는 말.

날벼락을 맞는다 : 애매하게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

날씨 좋은 것도 大事에는 큰 부조다 : 결혼식날 일기가 좋은 것도 하늘에서 큰 부조를 받은 것이라는 말.

날으는 새도 떨어뜨린다 : 권세를 몹시 부리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도 그 위엄에 무서워 떨어질 정도라는 뜻.

날은 샜다 : 일을 할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뜻.

날 잡아잡수 한다 : 무슨 말을 하든지 못들은 것처럼 아무 대답도 없이 무언으로 반항하고 있다는 말.

남대문 入納이다 : 편지를 남대문 안으로 보냈으니 그 편지가 잘갔는지 못갔는지 애매하여 행방을 도무지 알 수없다는 뜻.

남의 눈물짜서 모은 재산 오래 못간다 : 남에게 악한 짓을 하여 모은재산은 오래 못가서 망하게 된다는 뜻.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서는 피가 난다 : 남에게 해를 끼치면 자신은 보다 더 큰 해를 받게 된다는 말.

남의 다리 긁는다 : 엉뚱한 짓을 한다는 말.

남의 말하듯 한다 : 자기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말할 것을 남의 말하듯 아무렇게나 말한다는 뜻.

남의 발에 감발친다 : 자기 일 한다는 것이 남의 일만 해주었다는 말.

남의 일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 남의 일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적극적으

로 간섭한다는 말.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공연히 참견한다는 말.

남의 장단에 춤춘다 : 자기의 주견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한다는 뜻.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건 말건 참견 말랬다 : 남이야 무슨일을 하거나 아무참견도 하지 말라는 뜻.

남이 장에 가니 나도 장에 간다는 격이다 : 아무 목적없이 남이하는대로 따라한다는 뜻.

낮 도깨비 같다 : 도깨비는 밤에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나오듯이 하는 짓이 뻔뻔스럽고 해괴하다는 말.

내고장 까마귀는 검어도 귀엽다 : 제 자식은 못났어도 귀엽다는 뜻.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 웃사람이 아랫사람의 허물을 잘 보아준다는 뜻.

내 손톱에 장을 지져라 : 내 손톱에 장을 지지는 일이 있더라도 무엇으로 증명 할 수는 없으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말.

내외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 칼로 물을 베어도 흔적이 없듯이 부부간의 싸움은 바로 풀려서 화합된다는 말.

내 코가 석자다 : 내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뜻.

내 할말을 사돈이 한다 : 자기가 할일을 남이 먼저하여 자기는 할 일이 없게 되었다는 뜻.

너무 고르다가 눈 먼 사위 얻는다 : 무엇을 자꾸 고르다보면 오히려 나쁜 것을 고르게 된다는 말.

넌덜머리가 난다 : 넌더리가 날 정도로 싫증이 난다는 말.

널 뛰듯 한다 : 행동하는 것이 몹시 경솔하다는 뜻.

노랑이다 : 인색한 사람이라는 말.

노처녀가 시집을 가려니까 등창이 난다 : 오랫동안 벼르던 일을 하려니까 방해물이 생긴다는 뜻.

놀란 토끼눈 같다 :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뜻.

논 표는 없어도 일한 표는 있다 : 일을 하지않고 논 흔적은 없어도 일한 흔적은 남아있다는 말.

놀부 제사지내듯 한다 : 몹시 인색하고 고약한 짓을 한다는 뜻.

농담이 진담된다 : 농담에도 평소 생각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담으로 될 수 있다는 말.

농사꾼은 굶어죽어도 씨오쟁이는 베고 죽는다 : 농부는 곤궁해도 종자만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

농사는 명년이나 명년이나 하면서 짓는다 : 농사짓는 사람은 내년에는 잘되겠지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

놓친 고기는 더 커보인다 :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을 더 애석하게 여긴다는 뜻.

누워서 침 밭기다 : 남을 해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뜻.

누에가 뽕잎 갉아먹듯 한다 : 남의 것을 슬금슬금 다 차지한다는 뜻.

누이 좋고 매부 좋다 : 서로가 다 좋다는 뜻.

눈 감으면 코 베어먹을 인심이다 : 세상인심이 몹시 험하고 믿을 수 없다는 뜻.

눈꼴이 사납다 : 모양이 사나와 못 보겠다는 말.

눈 뜬 소경이다 : 무식하여 봐도 모른다는 뜻.

눈에다 쌍심지를 켠다 : 몹시 흥분이 되어 기를 쓰고 있다는 뜻.

눈은 보라는 눈이고 귀는 들으라는 귀다 : 사물을 볼 때는 똑똑이 보고 들을때는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뜻.

눌 자리 보고 발 뻗는다 : 가능성을 보고 일을 시작한다는 뜻.

뉘 절반에 쌀 절반이다 : 쓸 것과 못쓸 것이 절반씩이라는 말.

늙은 소가 송아지핥듯 한다 : 늙은 어미 소가 송아지 핥듯이 사랑한다는 말.

늙은이 근력 좋은 것과 겨울날씨 좋은 것은 못 믿는다 : 늙은이는 근력이 아무리 좋아도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겨울날씨는 좋다가도 돌연히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기 쉽다는 뜻.

늙은이 망령은 곰국으로 고치고 젊은이 망령은 몽둥이로 고친다 : 늙은이 노망은 잘 먹여서 고쳐야 하고 젊은이 잘못은 매로 때려 고쳐야 한다는 뜻.

늦모 내기에는 죽은 중도 꿈적거린다 : 늦모 낼 무렵에는 몹시 바쁘기 때문에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

늦바람이 용마름 벗긴다 : 늙어서 피우는 바람은 집안을 망친다는 말.

따 놓은 堂上이다 : 내버려 두어도 자기의 것이다는 뜻.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 : 제대로 잘 될 일을 그르쳤다는 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다 : 매일 똑같은 일만한다는 뜻.

다음에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없다 : 일을 미루는 사람은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말.

딸이 셋이면 문 열어 놓고 잔다 : 딸을 여럿 둔 사람은 출가시키고 나면 가산이 없어져 도둑맞을 것도 없어서 문을 열어 놓고 자도 된다는 말.

딸 죽은 사위는 불꺼진 화로다 : 불꺼진 화로가 소용없듯이 딸이 죽은 뒤 사위는 소용없다는 말.

닭 발 그리듯 한다 : 글씨쓰는 솜씨가 몹시 서투르다는 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 :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엉뚱한 수단을 써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뜻.

닭 쫓던 개 울 쳐다보기다 : 한참동안 애를 쓰다가실패를 하고 나서 남 보기가 민망하다는 뜻.

담 너머서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줄도 안다 : 가만 앉아있어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말.

담뱃대가 있으면 부시빌려 담배를 얻어 피우겠다 : 매우 인색한 사람을 이르는 말.

땀은 벼의 거름이 된다 : 농민이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곡식이 잘 된다는 말.

당나귀가 늙으면 꾀만 남는다 : 사람도 늙어갈수록 경험이 많으므로 꾀로만 일을 하려고 한다는 뜻.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 일 하기가 매우 쉽다는 말.

대가리의 피도 마르지 않았다 : 아직 어리다는 뜻.

대답 쉬운 놈이 엉덩이는 무겁다 : 말로 일 잘하는 사람이 실천력은 없다는 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속으로 해치려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 가장밉다는 뜻.

때린 놈은 길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길 가운데로 간다 : 남을 해롭게 한 사람은 뒷일이 걱정되지만 해를 입은 사람은 편안하다는 말.

때 묻은 물로 못자리 거름 하겠다 : 때가

많은 사람을 보고 하는 말.

대추나무 연 걸리듯 하였다 : 여러사람에게 빚을 많이 졌다는 말.

大寒이 소한집에 왔다가 얼어죽는다 : 대한 추위보다 소한 추위가 더 춥다는 말.

댑싸리 밑에 개 팔자다 : 편한 생활을 한다는 뜻.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 : 해줄 사람은 아무생각도 않는데 저 혼자서 다 된것처럼 알고 미리부터 기대하고 있다는 말.

덤불이 우거져야 도깨비도 모여든다 : 모든 조건이 구비돼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

뗴 꿩에 매 눈 같다 : 매우 날카로운 눈이라는 뜻.

떼어 놓은 堂上이다 : 으레 자기가 차지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말.

도끼 든 놈이 바늘 든 놈을 못당한다 : 약한 사람이 센 사람을 이길수도 있다는 뜻.

도둑놈 심보다 : 심보가 매우 나쁜 사람보고 하는 말.

도둑이 제 발이 저린다 : 죄지은 사람은 그 양심의 자극을 받아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 죄상을 감출 수 없다는 뜻.

도랑치고 가재잡는다 : 한가지 일에 두가지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말.

도루 아미타불이다 : 지금까지 애써서 한 일이 모두 허사로 되었다는 뜻.

도마 위에 오른 고기다 : 어찌할 도리없이 죽기만 기다리는 신세라는 뜻.

도망간 중은 절에나 있지 : 어디로 간지 모르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뜻.

도매금에 넘어간다 : 물건을 하나씩 팔지 않고 도매로 넘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있다는 말.

도토리 키 대보기다 : 서로 별 차이가 없는 처지인데도 서로 잘 난체 한다는 뜻.

독불장군이다 : 혼자서 아무리 날 뛰어도 아무소용이 없다는 말.

돈 독이 올랐다 : 돈 밖에 모르는 수전노라는 뜻.

돈은 돈다고 돈이다 : 돈은 사람손에서 손으로 돈다고 그 이름도 돈이라고 하였다는 말.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서는 안된다 : 부자가 되려면 재운이 있어야지 억지로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된다는 뜻.

똥과 부자는 건드릴수록 구리다 : 없는 사람이 부자와 다투게 되면 손해만 본다는 말.

동기간 인심도 쌀독에서 난다 : 친척간에도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우애가 좋아진다는 말.

동네 북이냐? : 아무한테나 얻어 맞기만 한다는 뜻.

동네 송아지는 커도 송아지라고 한다 : 늘 보는것은 크는줄 잘 모른다는 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 나쁜 놈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 같이 나빠질까봐 피한다는 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한다는 뜻.

된 서리를 맞았다 : 심한 피해를 입어 복구하기 어렵다는 뜻.

두꺼비 파리잡아 먹듯 한다 : 보기에는 둔한 것 같지만 행동이 매우 민첩하다는 뜻.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 겉으로 보기보다는 그 내용이 좋다는 말.

둘러치나 메치나 일반이다 : 어떤 방법으로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란 뜻.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잘난 사람 위에는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뜻.

뒤주에 쌀이 떨어지면 밥맛이 더 난다 : 없어지게 되면 더 생각난다는 말.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 : 겉으로는 어리석은 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엉큼한 짓을 한다는 뜻.

등신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 :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한 가지 재주는 다 가지고 있다는 뜻.

마누라가 귀여우면 처갓집 쇠말뚝 보고도 절한다 : 무엇에 반하게 되면 바른 판단력을 잃게 된다는 뜻.

마른 논에 물 대기다 : 밑천이 많이 든다는 말.

마음은 편안히 가지고 몸은 수고로와야 한다 : 마음은 편안하게 가지고 몸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는 말.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한다 : 음식을 몹시 빨리 먹어버린다는 말.

마파람에 곡식이 혀를 빼물고 자란다 : 남풍이 부는 늦여름에는 곡식이 놀랄정도로 빨리 자란다는 말.

만사는 不如 튼튼이다 : 무슨일이든지 안전한 것이 제일이다.

만석중 놀리듯 한다 : 남을 지나치게 희롱한다는 뜻.

만에 하나도 틀림없다 : 정확하여 거의 틀림이 없다는 말.

말도 사촌까지는 알아본다 : 동물도 가까운 친척은 알아보는 데 하물며 사람이 가까운 친척간의 남녀가 불의의 관계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말.

말로 떡을 하면 동네사람이 다 먹고 남는다 : 말로 음식을 하면 온 동네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 많이 주고 적게 받아 손해만 보았다는 말.

말 많은 잔치가 먹잘 것 없다 :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말하고 실상은 좋지 못하다는 뜻.

말은 꾸밀 탓이요, 일은 할 탓이다 : 말과 행동은 잘하고 못하는데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뜻.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 망아지는 제주 말 목장에서 길러야 하고 사람은 어릴때부터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뜻.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 참맛을 알려면 실제로 해봐야 알게 된다는 뜻.

말이면 다 말인가 : 꼭 쓸말을 해야 말이라는 뜻.

말이 씨가 된다 : 항상 말하던 것이 밑천이 되어 일을 성사하게 되었다는 뜻.

망둥이가 뛰니까 꼴두기도 뛴다 : 실속도 모르고 남따라 한다는 뜻.

매도 맞아 본 놈이 잘 맞는다 : 무슨일이나 경험있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된다는 뜻.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 이왕해야 할 일은 남보다 먼저 하는 것이 낫다는 뜻.

매부 좋고 누이 좋다 :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뜻.

맺고 끊는 데가 없다 : 무슨일을 과감성 있게 한다는 뜻.

머루 먹은 속이다 : 머루 먹은 것 같이 속이 시큰하다.

먹는 장사는 흉년 타지 않는다 : 음식점은 흉풍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

먹어도 살로 안 간다 : 걱정이 많아 먹어도 마르기만 한다는 뜻.

먹을수록 냠냠이요 줄수록 양양이다 : 점점 대우를 잘해줄수록 교만해진다는 말.

먹지 못하는 감 찔러나 본다 : 자신이 못 가질 바에야 심술이나 부린다는 말.

먼 데 의원은 더 용하다고 한다 : 가까운 소문보다 먼 데 소문을 더 믿게 된다는 뜻.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 먼데 사는 사촌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이해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낫다는 말.

먼지 털어 안 나는 사람 없다 : 누구에게나 잘못은 다 있다는 말.

멋 모르고 덤비다가 큰 코 다친다 : 무슨 일을 내용도 모르고 서두르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뜻.

멋 모르고 한번속지 두번 속을까? : 남에게 속는것도 한번 속지 그 다음부터는 속지 않는다는 뜻.

메기 나래에 비늘이 있겠다 : 메기 몸에는 본시 비늘이 없고 다시 생겨날 리가 없듯이 도저히 안될 일이라는 뜻.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다 : 누구에게나 전성기는 있다는 뜻.

며느리가 미우면 걸어가는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한다 : 보기 싫은 사람은 공연히 트집을 잡아 억지로 흉을 만든다는 뜻.

명태와 여자는 두드려야 부드러워진다 : 옛날 남존여비의 봉건시대에 말로 안 듣는 여자는 매질로 버릇을 들여야 한다는 뜻.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성질이 원만하지 못하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뜻.

모 농사가 반 농사다 : 모만 심어 놓으면 농사 반은 하였다는 뜻.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다 : 무슨일이나 처음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

모로가나 뒤로가나 서울만 가면된다 : 어떤수단과 방법 으로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뜻.

모르는 것 빼놓고 다 안다 : 누구든지 모르는 것을 제외하면 다 알 듯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

모르는 것이 약이다 : 알면 근심걱정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뜻.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 굶어죽게 되면 하는 수 없이 범죄도 하게 된다는 뜻.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 되지못한 녀석이 건방지고 못된짓만 한다는 뜻.

못살아도 제 팔자요, 잘살아도 제 팔자다 : 잘살고 못사는 것은 다 자기 팔자이기 때문에 어쩔도리가 없다는 뜻.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 아무소식도 없는 것이 기쁜소식이다는 뜻.

무자식이 상팔자다 :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 보다는 자식이 없는 것이 팔자가 편하다는 뜻.

문서 있는 소리다 : 체계있게 배운 잘하는 노래라는 뜻.

문지방 넘어가야 다 간 것이다 : 끝 마무리를 해야 다 한것이라는 뜻.

물과 기름이다 : 서로 융화될 수 없는 사이라는 뜻.

물 덤벙 술 덤벙 한다 : 일정한 주견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

물 본 기러기요 꽃 본 나비다 : 그리운 사람을 본 듯이 반갑다는 뜻.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다 : 애써 죽을 놈 살려 놓으니까 그 은공은 모르고 도리어 원망한다는 뜻.

뭐니뭐니 해도 구관이 명관이다 : 먼저 있던 사람이 현재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말.

미꾸라지가 용됐다 : 변변치 못하던 사람이 훌륭하게 되었다는 말.

미끈 유월이다 : 음력 6월은 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뜻.

미역국 먹었다 : 어떤 직장에서 해임을 당했다는 뜻.

미운 강아지 보리멍석에 똥 싼다 : 미운

놈은 미운짓만 가려가면서 한다는 뜻.

미운 사람이 삿갓쳐들고 인사한다 : 미운 사람은 인사해도 밉게 보인다는 말.

미운 자식 떡하나 더 주랬다 : 미운 사람일 수록 흔연히 대접하라는 뜻.

미주알 고주알 밑두리 콧두리 다 캔다 : 별의 별 것을 다 조사하여 캐 본다는 뜻.

미친 개에 물린 셈 친다 : 못된 놈에게 망신당한 것은 미친개에게 물린 폭 친다는 뜻.

미친년 널 뛰듯 한다 : 아무 재미도 없이 함부로 한다는 뜻.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뜻.

밉다니 업어 달란다 : 미운사람은 눈치도 없이 점점 미운짓만 한다는 말.

밑구멍으로 호박씨 깐다 : 겉으로 보기는 모자라는 사람같지만 속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짓을 한다는 뜻.

바늘 가진 놈이 도끼 든 놈을 이긴다 : 무슨일에나 알맞은 도구를 써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 추울때에는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차다는 뜻.

바람도 지난 바람이 낫다 : 이왕 겪어야 할 고생이라면 닥쳐오는 고생보다는 지나간 고생이 낫다는 뜻.

반가운 손님도 사흘이다 :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도 오래있게 되면 반가움을 모르게 된다는 말.

받아 논 밥상이다 :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는 뜻.

빨리 피는 꽃이 빨리진다 : 쉽게 하는 일이 오래가지 못 한다는 말.

밥 먹는 개도 때리지 않는다 :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식사중에 꾸짖거나 때리지 않는다는 말.

밭 長者는 있어도 논 장자는 없다 : 논 수입보다 밭 수입이 많다는 말.

배꼽이 웃을 일이다 : 남에게 조소를 받을 짓을 한다는 뜻.

배워서 남 주나? : 남을 위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배우는 것이라는 뜻.

백로가 희다고 속까지 흴까? :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다고 하여 속까지 얌전하다고는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

백정은 버들잎을 물고 죽는다 :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직업적 근성을 못버린다는 뜻.

백짓장도 마주들면 가볍다 : 쉬운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뜻.

뱁새가 황새걸음 따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 제 힘은 생각않고 남이 하는 일을 무리하게 따라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

뺑덕 어미 죽 끓듯 한다 : 방정맞고 변덕이 심하다는 뜻.

번개불에 콩 볶아먹겠다 : 성미가 매우 조급하다는 뜻.

벌이에도 일가가 제일이다 : 벌어먹도록 도와주는 데 친척이 제일좋다는 뜻.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 법이 없더라도 나쁜짓을 하지 않을 착한 사람이라는 뜻.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말로 옳고 그른 것은 따지지 않고 주먹질을 먼저 한다는 뜻.

뻣뻣하기는 말뚝을 삶아먹었나 :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고 몹시 거만하다는 뜻.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다 : 남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서 속만 태운다는 뜻.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 사람은 배울수록 겸손해진다는 뜻.

벼 한섬 못지는 남자 없다 : 남자의 힘은 대체로 벼 한섬은 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

별 하나 나 하나 : 무슨 물건이든 상대적으로 생겨난다는 뜻.

병신 꼴값한다 : 못난 사람이 못난짓만 한다는 뜻.

병신 육갑한다 : 못난 사람이 엉뚱한 짓까지 한다는 뜻.

병 자랑은 하랬다 : 병을 여러사람에게 알려 줌으로써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있다는 뜻.

병 주고 약 준다 : 무슨 일을 방해도 놓고 도와 주기도 한다는 뜻.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외면이 좋은 것이 내용도 좋다는 뜻.

보면 병이고 안 보면 약이다 : 안보면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속이 편하지만 보면 간섭하게 된다는 뜻.

보채는 아이 젖 더 준다 : 무슨일이나 조르는 사람에게 더 잘 해주게 된다는 뜻.

복장이 터진다 : 몹시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뜻.

볼장 다 봤다 : 하던 일이 다 틀려버렸다는 말.

봄눈 녹듯 한다 : 봄에 내린 눈은 쉽게 녹는다는 뜻.

뽕도 따고 임도 본다 : 두가지 일을 겸해서 잘 할 수 있다는 뜻.

봉사가 개천 나무란다 :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다는 뜻.

봉사 거울보기다 : 하나마나 한 짓만 한다는 뜻.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듯 한다 : 엉터리없는 짓으로 사기친다는 뜻.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이라도 자기손에 들어와야 비로소 제 이익이 된다는 뜻.

부모없는 후레자식이다 : 부모의 가정교육을 받지못한 버릇없는 놈이라는 말.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 부부싸움은 바로 화합된다는 뜻.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 속사에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는 뜻.

부자가 망해도 삼 년 간다 : 부자는 망해도 숨겨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몇년은 걱정없이 먹고 살 수가 있다는 뜻.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 : 얼굴이 복스럽게 생기고 마음씨가 너그러운 처녀라는 뜻.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다 : 성질이 매우 온순하고 행동이 어질다는 뜻.

북은 칠수록 소리가 난다 : 나쁜사람과 상대하면 할수록 손해만 늘게 된다는 뜻.

불가사리 쇠 먹듯 한다 : 매우 잘 먹는다는 뜻.

불난 데 부채질한다 : 남의 안 되는 일을 더욱 안되게 방해한다는 뜻.

불면 날까 쥐면 꺼질까 한다 : 귀여운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날까? : 원인없는 일이 생길 수 없다는 뜻.

불장난 치면 밤에 오줌싼다 :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불장난을 못하게 하는 말.

비 맞은 김에 머리감는다 : 기회가 좋을 때에 일을 해야 한다는 뜻.

비맞은 중놈 중얼거리듯 한다 : 남이 알아 듣지 못하는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뜻.

비행기 태운다 : 지나치게 추켜세워 준다는 뜻.

빈대 죽는 맛에 초가삼간 다 태운다 : 사소한 일에 분풀이하다가 큰 손해를 본다는 뜻.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 모르는 사람이

더 아는체하고 떠든다는 뜻.

빗대놓고 말한다 :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한다는 뜻.

사나운 개 콧등 아물날 없다 : 남과 잘 싸우는 사람은 자기도 항상 상처를 입게 된다는 뜻.

사나이 말은 천 냥보다 무겁다 : 사나이의 말은 한마디의 말이라도 책임을 져야하기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

사또 덕분에 나팔분다 : 남의 힘을 빌어서 자기일을 한다는 뜻.

사돈 남 나무란다 : 제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뜻.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 사돈집이 가까우면 말이 많게 되고 뒷간이 가까우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둘 다 멀어야 한다는 뜻.

싸라기 밥을 먹었나? : 반말 잘하는 사람을 보고 이르는 말.

사람나고 돈났다 : 돈이 귀중하다 해도 돈 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다는 뜻.

사람에게는 세번 때가 있다 : 사람은 일생에 좋은기회가 세번 있으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아래 사람없다 : 사람은 다 같이 평등하다는 뜻.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안다 :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 그 속마음까지 알 수 있고 물은 건너봐야 깊이를 알 수 있다는 뜻.

사람은 누구나 저 잘난 멋에 산다 : 사람은 누구나 긍지감을 가지고 산다는 뜻.

사람은 치켜보지 말고 내려다 보고 살랬다 :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살면 불평과 불만이 있으므로 못사는 사람을 보고 자위하며 살라는 뜻.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으려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

사람팔자 시간문제다 : 사람의 팔자는 시간이 가는대로 변해지기 때문에 그 앞날은 알 수 없다는 뜻.

사시나무 떨듯 한다 : 나무가 떨듯이 몸을 벌벌 떤다는 말.

사십 전 재물이다 : 경제적 기반은 사십 전에 닦아놓아야 한다는 뜻.

사위사랑은 장모라 : 처갓집에서 사위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장모라는 뜻.

사주 팔자는 못 속인다 : 타고난 운명은 고칠 수가 없다는 뜻.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공연히 질투한다는 말.

사흘굶어 도둑질 않는 놈 없다 : 아무리 착한 사람도 굶어 죽게 되면 나쁜짓을 하게 된다는 뜻.

사흘에 핏죽 한 그릇도 못 먹었나? : 힘을 못쓰는 사람을 이르는 말.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칠까? : 아무리 가난하여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뜻.

산에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 무슨일을 성공하려면 그 선행조건이 구비돼야 한다는 뜻.

산전 수전 다 겪었다 : 세상에서 해 볼 일은 다 해보았다는 뜻.

쌀독에서 인심난다 : 재물이 많아야 인심도 얻을 수 있다는 뜻.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다 : 사리에 맞지 않아 그 말을 조금도 수긍할 수 없다는 뜻.

삼십 전 致富요 이십 전 자식이다 : 돈은 삼십 전에 벌어야 하고 자식은 이십 전에 두어야 한다는 뜻.

상다리가 휘도록 차렸다 : 많이 차렸다는 뜻.

샛님 배 부르면 종의 배도 부른줄 안다 : 남의 사정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한다는 뜻.

샛님 턱 까보는 건 농우 팔아먹을 징조다

삼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 가뭄보다 장마가 더 무섭다는 말.

쌈지 돈이 주머니 돈이고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쌍심지를 돋군다 : 두 눈에 불을 켜고 덤빈다는 뜻.

새발의 피다

새 중에는 먹새가 가장 무섭다 :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라는 뜻.

생사람 잡는다 :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어서 해친다는 뜻.

생시의 마음이 취중에도 난다 : 취중에 하는 말은 평소에 간직하였던 감정에서 발로되는 말이라는 뜻.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을 굶는다 :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앞일에만 치중하고 현재 일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뜻.

서당개 삼년에 풍월을 한다 :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히 견문이 생긴다는 뜻.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부터 긴다 : 무슨 일을 당해 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먹고 어쩔 줄 모른다는 뜻.

서투른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 서투른 일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 서투른 사람일수록 자기 솜씨없는 줄은 모르고 핑계만 댄다는 뜻.

선 머슴애 같다 : 처녀가 얌전치 못하고 말괄량이라는 뜻.

선 무당이 사람죽인다 : 일이 서투른 사람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뜻.

설마가 사람잡는다 : 설마 그럴리가 없겠지 하고 믿고 있던 일이 낭패가 되었다는 뜻.

성미 급한 놈 술값 먼저낸다 : 성미가 급한 사람이 하는 일은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뜻.

세 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 세 번만 참으면 아무리 분한 일이라도 참을 수 있게 된다는 뜻.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 한번 든 버릇은 고치기 매우 어렵다는 뜻.

세월이 좀 먹을까? : 세월은 좀을 먹지 않으므로 흐름대로 흐른다는 뜻.

소갈머리가 못 돼먹었다 : 마음 쓰는 것이 못되게만 쓴다는 뜻.

소경 갓난아이 주무르듯 한다 : 무슨일을 알지도 못하고 어물어물하고만 있다는 뜻.

소경 제 닭 잡아먹기다 : 이득을 얻으려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뜻.

소금장수보다 더 짜다 : 세상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색한 사람이라는 뜻.

소나기는 오고 똥은 마렵고 허리띠는 옹치고 꼴짐은 넘어지고 소는 뛰어간다 : 일이 바쁘면서도 되는것이 하나도 없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기만 한다는 뜻.

소 닭 보듯 한다 :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게 대한다는 뜻.

소문난 잔치 먹잘 것 없다 : 소문 난 것이 소문 안 난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뜻.

소 죽은 귀신이다 : 매우 미련하고 고집센 사람이라는 말.

속 다르고 겉 다르다 :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

손님과 백로는 일어서야 예쁘다 : 반가운 손님도 여러날 되면 가는 것이 좋다는 뜻.

손님은 왕이다 : 상인에게는 손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

손바닥 뒤집듯 한다 : 손바닥을 뒤집듯이 매우 쉽다는 뜻.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

손에 쥐여 줘도 모른다 : 아주 무식하면 손에 쥐어주고 가르쳐 주어도 모른다는 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빈다는 뜻.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비 수염을 끄든다 : 철없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뜻.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쓰는줄은 모른다 : 눈에 보이는 작은 손해는 알아도 보이지 않는 큰 손해는 모른다는 뜻.

손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긴다 :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몹시 무시한다는 뜻.

쏜 화살이요, 엎지른 물이다 : 한번 저지른 일은 바로 잡을 수 없다는 말.

솔잎이 버썩하니 가랑잎이 할 말이 없다 : 어이가 없다는 뜻.

솔개 병아리 채가듯 한다 : 갑자기 남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말.

송아지 물 건너갔다 : 시기가 지나 일은 틀려버렸다는 뜻.

송장메뚜기 같다 : 쓸데없이 잘난 체하면서 뽐낸다는 뜻.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 사람은 자기 분수에 알맞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말.

솥 뚜껑에 엿 붙여 놓았나? : 왔다가 바로 가는 손님에게 이르는 말.

쇠귀에 경 읽기다 : 우둔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알아 듣지 못한다는 말.

쇠똥벌레 떠밀듯 한다 : 책임을 남에게 잘 전가한다는 뜻.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 : 무슨일이나 열이 났을때 당장 해치워야 한다는 뜻.

수박 겉핥기다 :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겉만 보고 일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 간다 : 권세 있는 사람의 친척이나 친구가 그 덕을 본다는 뜻.

수탉이 알을 낳으면 집안이 망한다 : 남자가 여자일을 간여하면 집안이 안된다는 뜻.

쑥대 밭이 되었다 : 곡식밭에 곡식은 없고 쑥대밭이 되듯이 완전히 폐허 되었다는 뜻.

쑥떡같은 소리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다 : 상대방이 설혹 말을 잘못 하더라도 내가 잘 이해하면 된다는 뜻.

숙수가 많으면 국수가 수제비가 된다 :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잘 안 된다는 뜻.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 술은 오래 된 것이 맛있고 친구는 오래 사귄 사람이 더 친하다는 뜻.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하다 : 무슨 일을 했어도 흔적이 없어 하나마나 하다는 뜻.

술은 묵은 술이 좋고 옷은 새옷이 좋다 : 술과 친구는 오래될 수록 좋고 옷은 이와 반대로 새옷이 좋다는 말.

술은 취하자는 술이다 : 술은 마신 다음에 얼큰히 취하도록돼야 취흥을 느끼게 된다는 뜻.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한다 : 다 죽어 가는 엄살을 하여 말을 한다는 뜻.

숨통이 막힌다 : 숨이 막힐정도로 상대하기가 답답하다는 말.

숫 개 앉으면 나온다 : 천성은 버리기 어렵다는 뜻.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 남이 한다고 해서 할 줄도 모르면서 덤벼든다는 뜻.

쉬 더운 방이 쉬 식는다 : 급히 서둘러서 한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

쉬파리 무서워 장 못 담글까? : 사소한 방해물이 있다고 할 일을 못할 리가 없다는 뜻.

쉰밥도 개 주기는 아깝다 : 저는 먹지 않으면서도 남 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뜻.

쉽게 단 쇠가 쉽게 식는다 : 빨리 한 일은 오래가기가 어렵다는 말.

쓰고 남을 만큼 넉넉하다 : 재산이 풍족함을 일컬음.

쓰다 달다 말이 없다 : 도무지 자기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

쓰레기와 돈은 쌓일수록 더럽다 : 재산을 모으게 되면 교만하게 되기 쉽고 인색하게 될 수 있다는 데서 나온 말.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 자기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버린다는 말.

스스로 뿌린 씨앗은 그 자신이 거둔다 : 자기가 한 일의 댓가는 자기가 받게 된다는 말.

쓴 맛 단 맛 다 보았다 : 이 세상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다 맛보았다는 말.

쓴 약이 약 되고 쓴 말이 이롭다 : 약과 말은 써야 약이 된다는 뜻.

쓸개가 빠졌다 : 소갈머리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쓸개 없는 놈이다 : 소견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

쓸개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한다 : 지조가 없음을 나무라는 말.

슬픔도 나누면 가볍다 : 슬플때는 친한 사람이 위안하여주면 덜 슬프게 된다는 말.

시거든 떫지나 말거나 시지나 말아야지 : 이리보나 저리보나 사람 됨됨이가 어느 한 군데도 쓸모가 없다는 뜻.

시대의 風潮에 따라야 한다 :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시대에 알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

씨 도둑은 못한다 : 자식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혈통을 속일 수는 없다는 말.

시루에 물 퍼붓기다 :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말.

씨를 뿌리면 거두게 마련이다 : 힘써 일하면 반드시 일한 보람이 있게 된다는 뜻.

시비는 엇갈린다 : 옳고 그른 것을 서로 다르게 주장한다는 뜻.

시세도 모르고 값 놓는다 : 물건 시세도 알지 못하고 값을 정한다는 말.

시시덕이는 재를 넘어도 새침데기는 골로 빠진다 : 겉으로 시시덕 거리던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하고 새침하고 얌전떨던 사람은 일은 못하고 만다는 말.

씨알머리가 없다 : 못된 종자의 사람이라는 뜻.

시앗 싸움에는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 아무리 부덕이 있는 여자라도 시앗간에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뜻.

시어머니가 죽으니까 아랫목이 내 차지다 : 시어머니가 죽으면 며느리가 아랫목을 차지하듯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

시장이 반찬이다 : 시장할 때 먹는 음식은 맛이 좋다는 뜻.

식전 일거리다 : 식전에 넉넉히 다 할 수 있듯이 간단한 일이라는 뜻.

식전 해장감이다 : 아침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는 뜻.

식충이다 : 일도 않고 밥만 먹고 노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신발을 꺼꾸로 신는다 : 여자가 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말로 즉 남편과 이혼한다

는 뜻.

신주 모시듯 한다 : 대단히 소중하게 취급한다는 말.

십 년 공부 도루아미타불이다 : 오랫동안 정성을 들인 일이 허사가 되었다는 말.

십년 묵은 체증도 내려가겠다 : 로래된 병이나을 정도로 기쁘다.

십 년이 하루같다 : 너무나 즐거워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뜻.

아내가 있나 자식이 있나 죽으니 묘가 있나 : 중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신세한탄 하는 말.

아는 것이 많은 것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 너무많이 아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뜻.

아는 길도 물어서 가랬다 : 무슨일이나 틀림없이 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서 해야 한다는 뜻.

아내 자랑하는 놈은 팔불출의 하나다 : 아내를 여러 사람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여덟가지 못난 짓 중의 하나라는 뜻.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있을 수 없다는 뜻.

아 다르고 어 다르다 :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

亞三六이다 : 정분이 매우 좋다는 뜻.

아야 소리도 못한다 : 괴로우면서 괴롭다는 말 한 마디를 못한다는 뜻.

아이는 칠수록 운다 : 우는 아이는 때리지 말고 달래라는 뜻.

아이도 낳기 전에 기저귀감 장만한다 :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몹시 성급하게 서둔다는 말.

아이 본 공과 새 본 공은 없다 : 남의 아이는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치사를 받기 어렵다는 뜻.

아직도 약과다 : 이 정도면 아직도 좋은 편이라는 뜻.

아침굶은 시어머니상이다 :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상을 보고 하는 말.

아침안개에 대머리 벗어진다 : 안개가 아침에 끼는 날은 햇볕이 세게 내려쪼인다는 뜻.

아침 외상을 주면 재수가 없다 : 장사하는 사람은 아침에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말.

악머구리 끓듯 한다 : 여러사람이 시끄럽게 떠들어 댄다는 뜻 * 악머구리 : 참개구리.

안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 운수 나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는 일이 없다는 뜻.

안되면 조상탓하고 잘되면 제 탓한다 : 안되는 일은 남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잘되는 것은 저 때문에 잘된다고 한다는 뜻.

안방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가면 며느리말이 옳다 : 시비는 어느 한사람 말을 듣고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

안방 샌님이다 : 늘 안방만 지키고 있는 영감님이라는 말.

안성맞춤이다 : 무엇이 맞추어 만든 것같이 잘 맞는다는 말.

안절부절 못한다 : 마음이 불안하여 초조하게 지낸다는 뜻.

앉은뱅이 里數대듯 한다 : 하지도 못할 일을 계획세운다는 뜻.

알고보니 수원 나그네라 :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

알아야 면장도 한다 : 무슨일이든지 알지 못하면 못한다는 뜻.

앓느니 죽는 것이 낫다 :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뜻.

앓던 이 빠진 것 같이 시원섭섭하다 : 고통스러웠던 것이 없어져 시원하기도 하지만 쓸데 못써 섭섭하다는 뜻.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여자가 내주장이 되어 남자일을 간섭하면 집안이 안

된다는 뜻.

앞뒤가 꼭 막혔다 :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라는 뜻.

앞집 처녀믿다가 장가 못간다 : 남은 생각지도 않는데 저혼자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된다는 뜻.

약방에 감초다 : 어떤일에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약으로 쓸래도 없다 :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도 없다는 뜻.

양반도 먹어야 양반이다 : 생활이 넉넉해야 예절을 차릴수 있다는 뜻.

양 손뼉이 맞아야 소리도 난다 : 싸움도 두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말.

양손에 땀을 쥔다 : 매우 힘드는 일을 한다는 뜻.

양지도 음지될 날이 있다 : 잘사는 사람도 몰락될 때가 있다는 뜻.

어느 개가 짖느냐 한다 : 남의 말을 들은척도 않고 있다는 뜻.

어린아이가 투레질하면 비가 온다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 어려서 어지간한 병은 어머니의 간호로 낫는다는 말.

어물어물하다 해 넘긴다 : 어물쩍 거리다 시간을 다 보내고 아무일도 못했다는 뜻.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대통장수 망신은 고불통이가 시킨다 : 못난 사람은 제 망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까지 망신을 시킨다는 말.

어미 팔아 동무 산다

어정칠월이요 동동팔월이다 : 칠월은 할 일이 없어 어정거리지만 팔월은 추수때라 동동거리며 바쁘다는 말.

어지간하면 그만 두랬다 : 어씨와 지씨는 성은 다르지만 한 자손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시비를 하지 말고 그만두라는 뜻.

어찌할 바를 모른다 : 일이 벅차서 허둥지둥 하면서도 엄두를 못낸다는 뜻.

억지 춘향이다 : 될듯 싶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뜻.

연기 번기다 : 너무 수다스럽다는 뜻.

언덕이 있어야 소도 비빈다 : 사람도 어디 의지할 데가 있어야 일을 할수 있다는 뜻.

얻어들은 풍월이다 : 정식으로 배운것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지식이라는 뜻.

업은 아이 찾아 달란다 : 자기의 잘못은 남에게 책임지우려 한다는 뜻.

없는 놈은 앓을 여가도 없다 : 가난한 사람은 밤낮없이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가가 도무지 없다는 뜻.

엎지른 물이요 쏜 화살이다 : 일이 잘못되어 버린뒤라 더이상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다는 뜻.

여덟 달 반이다 : 제달수는 채우지도 못하고 난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뜻.

여드레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놈 같다 : 일하는 동작이 너무도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 여름에 돼지고기를 많이 먹다가는 배탈이 나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뜻.

여자나이 사십이면 장승도 돌아보지 않는다 : 여자는 40이 지나면 늙기 시작 한다는 뜻.

여자는 질투를 빼면 서근 반밖에 안된다 : 여자는 누구나 질투심이 많다는 뜻.

연거푸 당부한다 : 여러번 당부한다는 말.

열놈이 지켜도 도둑 한 놈 못당한다 : 여러사람이 지켜봐도 한사람의 나쁜짓을 막기 어렵다는 뜻.

열두가지 설움중에 배고픈 설움이 으뜸이다 : 집없는 사람의 서러움이 가장크다는 뜻.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더라도 여러번 권유하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말.

열흘굶어 군자 없다 : 굶주리게 되면 점잔도 부릴수 없고 착한짓도 할수 없다는 말.

열흘 붉은 꽃 없고 십년 가는 권세 없다 : 권세나 영화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말.

엿장수 마음대로다 :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대로 한다는 뜻.

옆구리 찔러 절 받기다 : 억지로 남을 굴복시킨다는 말.

예수나 믿었으면 천당에나 갔지 : 믿지못할 사람을 믿었다가 손해만 보았다는 뜻.

오금아 날 살려라 한다 :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친다는 뜻.

오금 박는다 : 평상시에 큰소리하던 것과 모순된 것을 논박 한다는 뜻.

오뉴월 개팔자다 : 여름에 일없이 잠만자는 사람을 이르는 말.

오뉴월 거적문인줄 아나 : 겨울에 문을 열고다니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는 말.

오뉴월 곁불도 쬐다나면 섭섭하다 : 좋으나 나쁘나 하던 일을 손떼면 섭섭하다는 뜻.

오뉴월 고뿔은 개도 안 앓는다 : 여름감기는 매우 고약하다는 뜻.

오뉴월 더위에 쇠뿔 빠진다 : 매우 더운 여름을 이르는 말.

오늘 낼 한다 : 오늘 일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될것 같다는 뜻.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데는 많다 : 거지는 어느누가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곳은 많다는 말.

오리는 십리를 가도 오리다 : 무슨일을 더해도 더한보람이 없다는 뜻.

오리발 내민다 : 자기가 한일을 부인한다는 뜻.

오월농부가 8월 신선된다 : 농민은 음력 오월에는 모심기와 김매기로 고되게 농사일을 하지만 팔월에는 농한기이고 추석도 있어 신선같이 놀게 된다는 뜻.

옳고 그름을 묻지 않는다(不問曲直) : 옳은지 그른지 물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덤빈다는 뜻.

옷이 날개다 : 옷을 잘입으면 인물이 훨씬 돋보이게 된다는 뜻.

왕대밭에 왕대 난다 : 원인에 따라 결과는 결정된다는 뜻.

왜장녀같다 : 옷 맵시가 단정치 못한 사람을 보고하는 말.

외상이면 검정소도 잡아먹는다 : 외상이면 안살것도 사들인다는 뜻.

외손자를 귀여워하느니 절구공이를 귀여워하랬다 : 외손자는 귀엽기는 하지만 그덕은 보지 못한다는 말.

외 심은데 외 나고 콩 심은데 콩난다 : 인과의 법칙은 어길수 없다는 뜻.

요지경 속이다 : 내용이 복잡하여 알도리가 없다는 말.

요지부동이다 : 꼼짝달짝할 수도 없다는 뜻.

용감한 장수밑에 약한 사병없다 : 웃사람이 용감하면 아랫사람들도 다 용감하게 된다는 뜻.

용꼬리 되는 것 보다 닭 대가리가 되는 것이 낫다 : 작은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큰단체에서 꼴찌로 있는 것보다 낫다는 말.

용꿈을 꾸었다 : 매우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뜻.

용빼는 재주없다 : 아무리 힘을 다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용이 물을 얻은 격이다 : 세력있는 사람이 또하나의 군력을 얻게 되었다는 뜻.

우거지상이다 : 얼굴을 보기 흉하게 찌푸렸다는 뜻.

우는 아이 젖준다 : 보채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혜택을 준다는 뜻.

우물가에서 숭늉찾겠다 : 성미가 몹시 조급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

우물안 개구리다 : 견문이 매우 좁다는 말.

우선 발등의 불을 끄고 봐야 한다 : 우선 급한 일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뜻.

웃는 낯에 침 뱉으랴 : 좋은 낯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말을 할수 없다는 뜻.

웃는 집에 복이 온다 :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명랑한 기분으로 일을 하게 되면 모든일이 잘된다는 말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웃사람이 청백해야 아랫사람도 청백하게 된다는 뜻.

원님덕에 나팔분다 : 남의 덕으로 좋은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 원수진 사람끼리는 피하지 못할 장소에서 만나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뜻.

원숭이와 개 사이다(犬猿之間) : 사이가 매우 나쁘다는 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 부귀와 빈천은 돌고 돌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도 잘 살때가 있고 잘살던 사람도 못살게 될때가 있다는 뜻.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

이괄이 꽹가리다 : 사람의 운명이 다 되면 할 수 없다는 뜻.

이덕 저덕 다 하늘덕이다 : 사람이 살아가는 은덕중에는 하늘에서 주는 은덕이 가장크다는 뜻.

이도 안 들어갈 말이다 : 말을 해봐야 절대로 들어줄 말이 아니라는 뜻.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이다 : 사람이 잘살거나 못살거나 한평생사는 것은 매일반이라는 뜻.

이로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 귀에 거슬리는 말은 이로운 말이기에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

이마빡에 피도 안말랐다 : 아직어리고 철이나지 않았다는 말.

이 먹자는 장사요 속 먹자는 수박이다 : 상업을 할때에는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한다는 말.

이사간 집구석 같다 : 집안이 몹시 어수선하다는 뜻.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 사소하다고 깔보다가는 큰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생활에 중요한것이 빠져도 그럭저럭 다른것으로 대치해 살아갈 수 있다는 뜻.

이왕 버린 몸이다 : 더이상 버릴게 없다는 뜻.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 같은 조건이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뜻.

이웃사촌이다 : 이웃간에는 사촌같이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

이제야 처음 듣는다(今時初聞) : 나로서는 이제 비로소 듣는 다는 뜻.

이판 사판이다 : 막다른판에 더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뜻.

익은 밥 먹고 선소리 한다 : 공연히 쓸데없는 헛소리만 한다는 말.

인간 쓰레기다 : 인간사회에서 버림을 당한 사람이라는 뜻.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 한평생 산다는 것은 꿈한번 꾼것같이 짧고 허무하다는 뜻.

인왕산 호랑이가 뭘 먹고 사나 : 보기싫은 놈은 호랑이도 안잡아간다는 말.

일가 못된 것이 항렬만 높다 : 나이가 적고 촌수만 높은 일가를 접대하기가 거북하다는 뜻.

일 않는 놈이 밥 두 그릇 먹는다 :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먹는데는 더 밝힌다는 뜻.

일은 저질러 놓고 봐야 한다 : 무슨일이나 과감히 시작해야 한다는 뜻.

일자무식이다 : 글자 한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

일하는 데는 등신, 먹는 데는 귀신이다 : 일은 못하면서 먹는데는 밝힌다는 뜻.

임은 품에 들여야 맛이고 술은 잔에 차야 맛이다 : 임은 품안에 꼭드는 것이 좋고 술잔에는 술이 가득해야 한다는 뜻.

입만 아프다 : 말을 해 보았자 입만 아프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는다 : 입맛이 없어도 밥은 정상으로 먹어야 한다는 뜻.

입방아만 찧는다 :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자꾸 늘어 놓는다는 말.

입에 거미줄 치겠다 : 너무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다는 뜻.

입에 맞는 떡이 없다 : 무슨일에나 마음에 꼭드는 일은 드물다는 뜻.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 : 겨우 먹고살아나가기가 바쁘다는 뜻.

입은 말하라는 입이다 : 할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뜻.

입은 무거워야 하고 발은 가벼워야 한다 : 입은 말이 없이 무거워야하고 몸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한다는 뜻.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 무슨일이 있더라도 말은 바르게 해야한다는 뜻.

입이 열 개가 있어도 말을 못하겠다 : 워낙 잘못하였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뜻.

입추의 여지도 없다 : 빈틈이 조금도 없이 사람이 꽉차 있다는 뜻.

있는 놈이 궁상을 더 떤다 : 돈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돈이 없는 것같이 궁상을 더 부린다는 말.

있는 사람은 겨울이 좋고 없는 사람은 여름이 좋다 : 없는 사람은 겨울이 되면 월동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름이 낫다는 말.

자기집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한탄하지 않고 남의 우물 깊은 것을 탓한다 : 자기의 결함은 모르고 남만 탓한다는 뜻.

자는 범 코 찌르기다 : 그냥 두었으면 아무일도 없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서 큰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뜻.

자던 아이도 깨겠다 : 아이를 재운다면서 수다스레 지껄이는 사람에게 하는 말.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 무엇에 한번 몹시 놀란 사람은 그와 유사한 것만 보아도 겁을 낸다는 뜻.

「자시요」할때는 안먹고 「쳐먹어라」해야 먹는다 : 좋은 말로 할때는 안듣고 나쁜말로 해야 듣는다는 뜻.

자식도 품안에 들때 내 자식이다 : 자식도 자라면 부모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말.

자식없는 것이 상팔자다 : 자식이 없으면 자식으로 인한 노고가 없기 때문에 팔자가 편하다는 뜻.

자식은 애물이다 :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애만 태운다는 뜻.

자식자랑은 말아도 병 자랑은 허랬다 : 병을 고치려면 여러사람에게 자랑을 해야 좋은 약을 구할수 있다는 뜻.

자질 잘하는 며느리는 살림을 해도 가위

질 잘하는 며느리는 살림 못한다 : 자질 잘하는 며느리는 살림의 푼수를 잘따져서 생활하지만 씀씀이가 헤픈 며느리는 살림을 잘 못한다는 말.

작게 먹고 가는 똥 누랬다 : 돈을 많이 벌어들일 생각은 말고 쓰기를 아껴써야 한다는 뜻.

작은 고추가 더 맵다 :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할때 쓰는말.

작은 솥이 쉬 끓는다 : 소견이 작으면 용렬하다는 뜻.

잔치 치른 집 같다 :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것을 비유하는 말.

잘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 잘못하여 딴 곳으로 가서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말.

잘되면 술이 석잔이요 못되면 뺨이 세대다 : 중매를 잘하면 술을 얻어먹게 되고 못하면 매를 맞게 되므로 조심하라는 말.

잘 살아도 내 팔자요 못살아도 내 팔자다 : 잘살고 못사는 것은 다 타고난 팔자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

잘 집 많은 나그네가 저녁 굶는다 : 일을 너무 여러가지로 벌여 놓기만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뜻.

잘해야 본전이다 : 손해 본 것이있어 애써 일을 해도 본전 밖에 못찾는다는 말.

장가가는 놈이 불알 떼어놓고 간다 : 무슨 일을 할때 가장 긴요한 것을 잊고 간다는 말.

장기 훈수는 뺨맞아 가면서 한다 : 장기는 누구나 훈수를 하게 된다는 말.

장님들이 코끼리 더듬어 보기다 : 전체는 모르고 어느 부분만 안다는 말.

재떨이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러워진다 :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인색하고 교만해진다는 뜻.

재봤자 도토리 키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 아무리 뽐내고 뻐겨봤자 하찮은 존재밖에 안된다는 뜻.

재수가 옴 올랐다 : 재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

재주가 메주다 : 도무지 재주가 없다는 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 수고한사람은 보수를 못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는 말.

저먹자니 싫고 개 주자니 아깝다 : 인색한 마음씨의 소유자에게 이르는 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 젊어서 고생해가며 노력한 사람은 장래 잘살게 된다는 말.

점잖은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 : 점잖은 체하는 사람이 뒤로는 더 못된 짓만 한다는 뜻.

점장이도 저 죽을 날을 모른다 : 제 일은 제가 모른다는 말.

정들자 이별한다 : 만났다가 바로 이별하게 된다는 뜻.

제 논에 물 대기다 :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한다는 말.

제눈에 안경이다 : 남이 봐서는 변변치 않아도 제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는 말.

제 버릇 개 못준다 : 한번 든 버릇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

제얼굴에 침뱃는 격이다 : 자기 망신을 자기가 사서 한다는 뜻.

제 자식 길러봐야 부모마음도 알게된다 : 자신이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은덕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

조화속이다 :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는 뜻.

쪽도 못 쓴다 : 서로 겨뤄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하다는 뜻.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 : 체면도 없고 염

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

좁쌀영감이다 : 몹시 옹졸하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宗三寸보다 閔十寸의 세도가 더 크다 : 민비의 득세시 고종의 삼촌보다 민비의 십촌세도가 더 세었다는 말.

종이 호랑이다 : 겉으로만 무섭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

좋고 나쁜 것은 대봐야 안다 :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서로 대비해봐야 안다는 뜻.

좋은 것이 좋다 : 무슨일이나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뜻.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간다 : 좋은 소문은 널리 퍼지지 않아도 나쁜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된다는 뜻.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는 데로 간다 : 죄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덕을 베푼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말.

쭈그렁 밤송이가 삼년 간다 :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오래산다는 말.

주먹 구구 식이다 : 무슨일을 치밀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

주어서 싫다는 사람없다 : 선물을 주면 누구나 기뻐한다는 뜻.

주책 바가지다 : 몹시 주책이 없는 사람을 보고하는 말.

酒太白이다 : 매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하나 :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

죽 끓듯 한다 : 변덕이 매우 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 죽기아니면 살기를 각오하고 일을 한다는 뜻.

죽 떠먹은 자리다 : 무슨일을 했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뜻.

죽도 밥도 아니다 : 무슨일을 하다 말아서 아무데도 못쓰게 되었다는 뜻.

죽쑤어 개 좋은 일만 한다 : 애써 한일이 남에게만 이롭게 되었다는 뜻.

죽어라죽어라 한다 : 모든일이 악화되기만 한다는 뜻.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 : 복종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르는 말.

죽은 놈만 서럽다 : 보람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죽은 사람만 원통하게 되었다는 뜻.

죽은뒤에 청심환이다 : 이미 시기가 지난 일을 애를 써도 소용없다는 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소원 못 들어줄까 : 남의 소원은 되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

죽은 자식 나이 세기다 : 이미 지나간 일은 생각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

죽을때 「빽빽」하며 죽는다 : 죽는것도 빽이 없어서 비명에 죽는다는 뜻.

죽을지경이다 :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죽게된 지경에 이른것과 같이 일이 힘들다는 뜻.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다 : 죽지도 살지도 못하겠다는 말.

줄 초상이 난다 : 한집에서 계속적으로 초상이 난다는 말.

줄행랑을 친다 : 쫓기어 도망 친다는 뜻.

중염불외듯 한다 : 무엇을 거침없이 술술 잘외운다는 말.

중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인다 : 하는 일에는 신경쓰지 않고 돈벌이에만 신경을 쏟는다는 뜻.

줘서 싫다는 사람 없다 : 누구나 주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 고생하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오는 날이 있다는 뜻.

쥐도 새도 모른다 : 아무도 모르도록 감

쪽같이 숨겼다는 뜻.

쥐 뜯어먹은 것 같다 : 무엇이 바르지 못한 것을 이름.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한다 : 어린자식을 몹시 귀여워 한다는 뜻.

쥐뿔같다 :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다는 뜻.

쥐뿔도 모른다 : 쥐가 뿔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듯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

쥐죽은 듯하다 : 아무 소리없이 조용하다는 뜻.

지각나자 망령난다 : 일이 잘되기 시작하자마자 그릇된다는 뜻.

지껄이면 다 말인줄 아나 :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뜻.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다 : 싸움에는 비록 졌지만 이긴 사람보다 더지지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고도 이긴것이 된다는 말 즉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

지척이 천리다 : 이웃에 있어도 서로 왕래가 없다는 뜻.

지켜보는 남비는 더 안 끓는다 : 지켜보고 기다리는 일은 힘이 더 든다는 뜻.

진저리를 낸다 : 진저리가 날정도로 싫증을 낸다는 뜻.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겠다 : 덕이 조금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집과 계집은 가꿀 탓이다 : 집은 손질하기에 달렸고 아내는 가르치기에 달렸다는 뜻.

집구석이라고 바늘하나 감출 데가 없다 : 집안이 너무좁아서 무엇을 둘데가 없다는 뜻.

집 나가면 고생이다 : 비록 집이 구차해도 타향살이를 하게되면 고생이 많다는 뜻.

집도 절도 없다 : 너무 구차하여 살집이 없다는 뜻.

집에 금 송아지가 있으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당장 못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서도 샌다 : 본바탕이 그릇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본색이 드러난다는 뜻.

징역에서 땀흘려 일하면 三代가 망한다 : 죄수들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의 있게 일을하지 않는다는 뜻.

짖지 않는 개가 더 무섭다 :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뜻.

짚신도 짝이 있다 : 사람은 누구나 짝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

짚신장수 죽을 때야 아들에게 「털털」하며 죽는다 : 기술은 부자간에도 비밀을 지킨다는데서 나온말.

찧고 까분다 : 되지 못한 사람을 조롱하며 경망스런 행동을 한다는 뜻.

차라리 닭 주둥이는 될지언정 쇠 꼬리는 되지마라 : 높은 사람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데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

차일 피일 미룬다 : 이날 저날 하면서 자꾸 미루기만 한다는 뜻.

찬물도 위 아래가 있다 : 무슨 일이나 순서가 있다는 뜻.

찬물을 끼얹는다 : 좋은 분위기를 깬다는 뜻.

참새가 방앗간을 보고 그저 지날까 :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지나갈 수는 없다는 뜻.

참새가 죽어도 「짹」하고 죽는다 :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죽게되면 반항을 하게 된다는 뜻.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 아무리 분한 일일지라도 참고 너그럽게 대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뜻.

책상물림이다 : 공부만 하고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

처가집 사랑은 장모이요 시집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다 : 사위는 장모가 가장 사랑하게 되고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게 된다는 뜻.

처녀가 아이를 낳고도 할말이 있다 :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뜻.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한다 : 무슨일에 성의없이 대충대충 해치운다는 뜻.

처음이 좋아야 끝도 좋다 : 무슨일이나 처음 시작을 잘해야 끝도 잘 마무리 하게 된다는 뜻.

척하면 삼천리다 : 무슨일이나 눈치만 보면 알아야 한다는 뜻.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뜻.

천 년 만 년 살고지고 : 누구나 오래 살고 싶다는 뜻.

천둥에 개 뛰듯 한다 : 몹시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날뛴다는뜻.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 큰일도 작은 일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뜻.

천만뜻밖이다 : 전혀 생각지 않았던일이라는 뜻.

천방지축한다 : 방향을 잡지 못하고 돌아다니기만 한다는 뜻.

천생연분이다. : 하늘이 정해 준 배필이라는 뜻.

천석군이는 망해도 십년 먹을 것은 있다 : 워낙 부자는 패가를 해도 먹고사는데는 걱정 없다는 뜻.

천(만)에 하나다 : 매우 귀하다는 뜻.

철나자 노망 든다 : 어물어물 하다가 보면 한일도 없이 늙는다는 뜻.

철석같이 믿는다 : 굳은 쇠나돌이 좀처럼 변하지 않듯이 그를 꼭 믿는다는 뜻.

첫 추위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 추위를 모르고 있다가 다가온 추위는 몹시 춥게 느껴진다는 뜻.

靑山流水같다 : 말을 흐르는 물같이 거침없이 잘한다는 뜻.

청천백일에 날벼락 치겠다 :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큰일을 당했다는 뜻.

쳐다보고 살지 말고 내려다 보고 살랬다 : 자기보다 잘사는 사람만 보고 살지 말고 못사는 사람을 보아야 자위 할수 있다는 말.

초사흘 달은 부지런한 며느리만 본다 :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소한 것까지 살필 수 없다는 뜻.

초상집 개다(喪家之拘) : 얻어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닌다는 뜻.

촉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다가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

촌닭 장에 간 것 같다 : 어리둥절하게 있는 사람을 보고 하는말.

최가 성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난다 : 최씨는 독하기 때문에 최씨가 앉았던 자리에는 풀도 안난다는 뜻.

추켜주니 싫다는 사람없다 : 누구나 잘한다고 칭찬하여 주면 좋아한다는 뜻.

춥기는 사명당 사첫방이다 : 몹시 찬방을 가리키는 말.

취중에 진담 나온다 : 취중에 하는 말은 함부로 지껄이는 것같지만 실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는 뜻.

치가 떨린다 : 이가 떨리도록 매우 분하다는 말.

칙사 대접하듯 한다 : 접대를 잘한다는 뜻.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옷이 좋다 : 친구는 오래 사귈수록 친해진다는 뜻.

친구 잃고 돈 잃는다 : 친구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

칠년 가뭄에 비 아니온날 없었고 구 년 장마에 볕 안 나는 날 없다 : 지루한 고생이 있기는 하나 간간이 즐거움이 있다는 말.

칠 년 대한에도 하루만 더 참으란다 :

七得이 같다. : 일곱 달 만에 낳은 사람처럼 모자란다는 말.

칼든 놈은 칼로 망한다 : 싸움 좋아하는 놈은 싸움으로 망한다는 말.

사람중에는 경솔한 사람이 많고 키가 큰 사람중에는 싱거운 사람이 많다는 뜻.

칼로 물베기다 :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

코가 석 자나 빠졌다 : 궁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코딱지만 하다 : 코딱지 마냥 매우 적다는 뜻.

코방귀도 안뀐다 : 남의 말을 들은 척도 않는다는 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여 말하기에 달렸다는 뜻.

콧대가 높다 : 매우 거만하고 잘난척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콩나물 시루다 : 협소한 장소에 사람이 콩나물같이 들어섰다는 말.

콩 볶듯 한다 : 총소리가 요란하다는 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 무슨일이나 원인에 따라 결과는 맺어진다는 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한다 : 너무나 신용이 없어서 바른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뜻

콩이니 팥이니 한다 : 이러니 저러니 간섭을 한다는 뜻.

콩팔 칠팔한다 : 정신을 못차리고 알지도 못할 말을 지껄인다는 뜻.

쿵하면 울너머 호박 떨어지는 줄도 안다 : 가만 앉아 있어도 분위기를 다 파악한다는 뜻.

크고 작은 것은 대봐야 안다 : 크고작은 것은 비교해봐야 안다는 뜻.

큰그릇은 더디 이루어진다 : 크게 이루어질 사람은 만년에 이르러 대성한다는 뜻.

큰고기는 횟감으로 나가고 잔고기는 망태구멍으로 빠진다 : 실제 필요한 것은 남아있지 않다는 말.

큰 소가 없으면 작은 소가 큰소 노릇한다 : 웃사람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대신한다는 뜻.

큰코 다친다 :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

키작은놈 쳐놓고 안 까부는 놈 없고 키 큰놈 쳐놓고 안 싱거운놈 없다 : 키가작은 사람중에는경솔한 사람이 많고 키가 큰 사람중에는 싱거운 사람이 많다는 뜻.

타고 난 복이다 : 잘되고 못되는 것은 자신이 타고난 복이라는 뜻.

타향친구는 십년이요, 노름친구는 삼십년이다 : 타향에서 사귄친구는 나이가 십년이 많아도 벗을 한다는 뜻.

탁상에서 헛 공론만 한다 : 실천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라는 뜻.

터무니없는 짓이다 : 사실이 허망하여 실상이 없다는 뜻.

터주 대감이다 : 이미부터 전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

텃세를 탄다 : 새로 온 사람이 본 고장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뜻.

토끼 꼬리만하다 : 매우작다는 말.

토끼 잠자듯 한다 : 눈을 뜨고자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

토끼 두 마리 잡으려다 한마리도 못 잡는다 : 한꺼번에 여러일을 하다가 한가지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뜻.

통박만 잰다 : 남모르게 저 할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뜻.

티끌모아 태산된다 : 아무리 작은것이라도 많이 모으면 크게된다는 말.

파리 떼 덤비듯 한다 : 이권을 보고 모리배가 파리 꾀듯 모여든다는 말.

파리만 날린다 : 일거리가 없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뜻.

파리 목숨이다 :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라는 뜻.

팔은 안으로 굽는다 :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정이 더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는뜻.

팔자 소관이다 : 타고난 팔자라 어쩔 수 없다는 뜻.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인이 싫다면 억지로 시키지는 못한다는 말.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한다 : 자주드나든다는 말.

풀 쑤어 개 좋은 일만 한다 : 애써 일 해가지고 남의 좋은 일만 시켰다는 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 먹는것이 다 영양으로 된다는 말.

피장 파장이다 : 누가낫고 못한 것이 없고 매일반이라는 뜻.

피차가 일반이다 : 양쪽이 서로 낫고 못한데가 없이 같다는 말.

핑계없는 무덤없다 : 무슨 일이나 핑계는 댈 수 있다는 뜻.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는 뜻.

하늘 높은 줄만 알고 땅 넓은 줄은 모른다 : 몸체가 가늘고 크기만 하지 뚱뚱하지는 않다는 뜻.

하늘과 땅 차이다 :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심하다는 뜻.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 꿈에도 생각지 않던 것이 돌연히 나타났을 때 하는말.

하늘에 별 따기다 :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하늘도 기특히 여겨 도와준다는 뜻.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날수 있는 길은 있다는 뜻.

하던 지랄도 멍석 펴놓으면 안 한다 : 하던 일도 하라고 하면 안 한다는 뜻.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 : 철 모르고 아무에게나 덤비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

한가지로 열 가지를 안다 : 한가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짐작할 수 있다는 뜻.

한강에 돌 던지기다 : 무슨일을 해도 흔적도 없다는 뜻.

한강에 배 지나간 흔적이다 :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흔적도 찾아 볼수 없다는 뜻.

한강에서 뺨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다 : 분풀이를 딴 사람에게 한다는 뜻.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 남의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뜻.

한 눈으로 봐도 환하게 알 수 있다 : 한 눈으로봐도 환하게 다 알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었다는 뜻.

한물갔다 : 화려한 시절은 지나갔다는 뜻.

한 솥 밥을 먹는 처지다 : 한 솥 밥을 같

이 먹고사는 친한 사이라는 뜻.

한 술 더 뜬다 :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점점 더 한다는 뜻.

한 술 밥에 배부를까? : 무슨 일에나 처음에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

한 악처가 열 효자보다 낫다 : 아무리 악한 아내라도 자식보다 낫다는 뜻.

한 입으로 두 말 한다(一口二言) : 한번 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

한 자도 알지 못한다(一字無識) : 글자 한 자도 모르는 무식이라는 뜻.

한 치 건너 두 치다 : 촌수는 멀어 질수록 소홀하게 된다는 뜻.

함정에 빠진 범이요, 그물에 걸린 고기다 : 궁지에 빠져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 상태에 있다는 뜻.

함흥 차사다 : 심부름 보낸 사람이 오지 않을때 하는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 세상이 변할 징조가 생겼다는 뜻.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 실없이 웃어가면서 허튼 수작만 한다는 뜻.

형만한 아우없다 : 일을 처리하는데 아우보다 형이 낫다는 뜻.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 큰 일을 하려면 모험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죽은 뒤에도 빛나는 이름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는 말.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이다 : 지금과는 달랐던 옛날옛적이었다는 뜻.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 본인이 없다고 남의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

호랑이 무서워 산에 못갈까? : 무슨일을 할때 거추장스러운 것 때문에 못하겠느냐는 뜻.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위험한 지경에 있어도 침착하게 행동하면 빠져 나올 수 있다는 뜻.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 일이 커지기전에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커진 뒤에 수고를 한다는 뜻.

호박꽃도 꽃이다 : 아무리 못난 여자라도 여자는 여자라는 뜻.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 : 뜻밖에 크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말.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여 온다 : 이득을 보려고 갔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았다는 뜻.

혼사는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 : 결혼은 도와 주어야하고 싸움은 못하게 말려야 한다는 뜻.

홀아비는 이가 서 말이요 과부는 은이 서 말이다 :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도 남자는 혼자 살림을 못한다는 뜻.

홀아비 사정은 과부가 알아준다 : 남의 어려운 사정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야 안다는 뜻.

황소 뒷 걸음질하다 쥐 잡기다 : 미련하고 느린 사람도 요행히 일을 잘할 때가 있다는 뜻.

흙파서 장사하는 줄 아나 :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을 때 상인들이 하는 말

第2節 題 詠

Ⅰ. 八詠

(1) 驪州八詠

① 驪江

사가 서거정 지음

인생은 百年 안쪽
백년 마저 못 채우니
더구나 [1]진망속에 얽혀
어찌 한가로이 살랴
저! 강물를 바라보니
물 맑아 갓끈을 씻겠고
내 속에 맞는 취미없어
세속에 冷溫을 모르니
늙었노라
벼슬을 버리고
赤松 (赤松子-신선과)짝이되리

② 도주

청춘 시절 여주를 즐겼는데
40년만에 이제 다시 왔노라
樓에 올라 긴 강을 굽어보니
아! 잠시도 쉬임없네
黃鶴은 가고 못오는데
앵무주[2]에 풀만이 무성하고야
시를 쓰다 崔侯를 생각하니
걸구가 천추에 전하누나
그대 이제 가풍을 이었으니
아름다운 그 이름 물과 함께 길이 흐르리

---

1) 塵網 : 때묻고 얼크러진 복잡한 세상

2) 鸚鵡洲 : 지금 中國호북성 漢市 武昌 서남쪽에 있는 섬으로 崔灝의 黃鶴樓 詩에서 나온 말이다.

③ 팔수

패다[3]는 옛부터 이름난 숲
강가에 울창하고나
옛날 내가 돛배로 지날때
닻줄을 고목에 매었지
위로는 신선의 집
아래는 교룡의[4] 굴
머얼리 雲夢樹[5]를 생각하니
그와 서로 자랑하겠네
楚 나라에 깨[6]인사람 아닐진대
홀로 어이 어부를 보리

④ 벽사

긴 강은 하얗게 바랜 비단을 쏟는 듯
외 길은 강변을 이었네
그 옛날 벽절을 찾을때
하도 정결하여 신선인듯
보제[7]의 영정앞에 향을 피우니
오랜 세월에 구름은 한가하고
백련사를 맺지도 않고
영취[8]산에 먼저 이르른 듯
牧隱[9]을 생각함인가
옛 비석은 이끼로 얼룩졌네

---

3) 貝多 : 여주 八大數의 古名

4) 蛟龍 : 이무기와 용, 비늘달린 용 등 모두 상상의 동물. 때를 만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한 영웅을 말함.

5) 雲夢樹 : 湖北城 安陸縣 南쪽에 있는 울창한 숲인데 그 둘레가 9백리나 된다.

6) 초나라 깨인사람 : 楚 나라의屈原이 지은 漁父詞에 온 세상 사람이 모 두 취해있는데 나만이 홀로 깨어있다고 하는데서 나온 말.

7) 普濟 : 고려말의 高僧으로 여주 신륵사에서 入寂한 나옹선사를 말함. 신륵사 조사당에 영정을 봉안했음.

8) 靈鷲山 : 부처님이 처음으로 묘법 연화경을 說하신 山.

9) 牧隱 : 고려말기 三隱中에 한 사람으로 그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공민왕과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대장경을 인출하여 신륵사에 보관하도록 하고 대장각記를 李崇仁에게 명하여 짓고 승려들이 비각을 세웠으므로 나온 말.

⑤ 마암

바위 이름을 馬로 짓다니
참으로 괴이하고나
날뛰듯 저절로 힘차고
견고하여 허물어 지지 않네
물귀신 이미 혼이 두근거리는데
놀랜파도 여기서 흩어지노라
책질하여 《마암에》 다리놓고자 한다.
砥柱[10]의 공을 잇으리
다듬어 하늘을 기울이니
높은 그 이름 강변을 홀로 차지했네

⑥ 영능

橘山[11]에 象設이 엄한데
의관은 寢殿에 간직하고
높고 높은 金粟은 뫼에 자옥하고
아름다운 기운 뻗치니
八駿馬[12]는 울면서 앞을 향하듯
儀杖은 傘扇이 삼엄하네
聖主는 능을 중히 여기시고
祠官은 엄숙히 제사드리네
鼎湖에 구름은 멀리 아득한데
머리들어 황려현을 바라보네

⑦ 청심루

누각 높으니 내 마음 맑고
그 아래 물이 흘러
푸르고 깨끗하여 침 못뱉겠고
마음에 累나 씻을가
山川은 울창하게 서로 얽혀
천 리 또 만 리
망치로 황학루 부쉈다니

---

10) 砥柱의 功=옛부터 여주읍이 마암 때문에 강물이 흘러 부딪혀도 떠내려가지 않고 유지하니 그 바위의 공을 말함.

11) 橘山=王陵이 있는 山

12) 八駿馬=역사상 이름있는 말. 驪駒, 赤驥. 百兎, 驍渠, 黃輪, 盜驪, 山子, 騄等

이 말엔 내 부끄러워
호기있는 늙은 元龍
높이 티끌을 벗어나고

⑧ 연촌
사또가 오지 않았을때는
農民이 土着하지 못하더니
사또가 수레에서 내리니
풍년일세 저녁연기
좌우에 밥짓고 또 끓이고
村 노래 농악에 섞여 들리네
지난달엔 세금을 감하고
이달에 병역을 면하니
격양가 부르며 술마심이
인자한 백성이 즐기는 바로다.

八　　詠

① 驪　江
四佳　徐居正　撰

人生百年内　百年亦不滿
况嬰塵網中　何能任蕭散
瞻彼驪江水　水清纓可濯
我無適俗韻　不随時冷暖
老矣謝潛笻　行与赤松伴

② 渡　舟
小少遊黃驪　四紀今転頭
登樓府長流　慷慨無時休
黃鶴去不返　草萋鸚鵡洲
題詩憶崔侯　傑句傳千秋
君今繼家声　美名水同流

③ 八　　數

貝多古名藪　　盤欝江之許
昔我揚航過　　擊纜古槐樹
上有神仙宮　　下有蛟龍府
緬懐雲夢藪　　伯仲可誇詡
我非楚醒者　　独不見漁父

④ 壁　　寺

長江瀉匹練　　径緑江端
我昔訪甓寺　　界浄非人間
焼香普済真　　歳月雲長閑
未結白蓮社　　先到霊鷲山
懐哉李牧老　　古碣苔班班

⑤ 馬　　巖

巖以馬為名　　奇奇而怪怪
騰驤自贔屭　　堅固赤不壊
海若已悸魄　　驚儔此崩殺
我欲鞭作橋　　可忘砥柱債
終当錬補天　　高名擅江介

⑥ 英　　陵

橋山象設嚴　　衣冠蔵寝殿
岩崎金粟岡　　葱龍佳気遍
八駿嘶向前　　儀衛森傘扇
聖主重園陵　　祠官粛陳薦
鼎湖雲漠漠　　矯首黄驪縣

⑦ 清　心　樓

樓高清我心　　其下有流水
緑浄不可睡　　可以滌心累
山川欝想繆　　千里又萬里
槌碎黄鶴樓　　此語我曾恥
豪哉老元龍　　擧皐蛻塵滓

⑧ 烟　　村

使君昔未來　　田里不土着

使君既下車　豊懷烟火夕
左右旝叉粥　村謳雜農笛
去月減官租　今月獨軍役
擊壤歌衢樽　愷悌民所樂

(2)여주 八詠 崔淑精 지음

① 여강

강 비 잠깐 개니 강물이 갑자기 가득하네 바람이 돌매 물결무늬가 길고 해 나니 고기비늘이 흩어지네 누를 비록 씻지 못하나 티끌묻은 갓끈은 애오라지 씻을 만하네 흰 갈매기는 본래 일이없어 떼지어 날며 맑고 따뜻함을 희롱하네 어찌 구속을 벗어나 浩蕩하게 너와 짝하리

江雨乍晴霽　江水忽已滿　風回穀紋長　日出魚鱗散　世累雖未滌　塵纓聊可幹
白鷗本無事　群飛戲清暖　何當謝拘束　浩蕩爲爾伴

② 도주

둥둥 떠 있는 작은 조각배 여러해를 나루터에 비껴있구나 남쪽으로 맞고 또 북쪽으로 보내니 사람을 건네주느라고 조금도 쉼이 없네 파도는 산악처럼 일어나는데 가랑비 물가에 아득하네 매지도 않고 닻도 안 놓았는데 한가로이 봄가을에 떠있네 부열(傳說)이 돛대잡으면 은하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겠네

泛泛小孤舟　長年橫渡頭　迎南又送北　濟人無少休　波濤起山岳　烟雨迷汀洲
不擊亦不纜　悠悠春復秋　如操傅說楫　可遡銀河流

③ 팔대수

平林은 바라보아도 다함이 없어 강가에 잇달았네 鬱密한 건 백 년된 藤이요 우거진 건 천 년된 나무일세 족제비와 다람쥐는 집을짓고 여우와 토끼는 城을 쌓았네 기색은 멀리 아득한데 川澤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곳에 깊이 숨을 만하니 혹시 옛날의 巢父 있을지

平林望不窮　一趾連江滸　鬱密百年藤　蒙茸千歲樹　鼯鼠作家鄉　狐兎爲城府
氣色莽蒼蒼　川澤儘瀏瀏　此中可深藏　恐有古巢父

④ 벽사

강 언덕 저 건너 절이 있는데 단청이 숲 끝에 비치는구나 諸天은 下界에 벌려있는데 世尊은 중간에 안치되었네 속객의 내왕이 적으니 高僧이 길이 스스로 한가 하네 아침저녁 향피우고 비는 것은 聖壽 남산과 같음일세 문앞에 벽돌부도(浮屠)는 세월이 오래매 이끼껴 얼룩졌네

隔岸有僧舍 金碧輝林端 諸天列下界 世尊安中間 俗客少來往 高僧長自閑
晨昏祝香火 聖壽濟南山 門前甃浮屠 歲遠苺苔斑

⑤ 마암

馬巖石이 서려 또한 기괴하구나 강 흐름은 그 뿌리를 씹는데도 만고에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네 노한물결은 바야흐로 울렁거리다가 여기서 나뉘어 水勢가 점점 쇠하네 외로운 섬이 이 바위 힘 입어서 완전하니 공을 논할진대 빚을 갚기 어렵네. 남은 하나의 무지한 돌에 나는 홀로 그 견고하여 굽히지 않음을 취하네

穹窿馬巖石 盤礴亦奇怪 江流齕其根 萬古堅不壞 怒濤方蕩橘 分此勢漸殺
孤城賴以完 論功難償債 人看一頑石 吾獨取其介

⑥ 영릉

능이 서로 접했는데 오색구름은 빈 殿閣을 둘렀는데 禁禦는 산을 싸서 긴데 松栢을 강을 연하게 둘렀네 일백신령이 巖谷을 옹호하고 상서바람이 일산과 부채에서 나오네 祠官은 벼슬을 조심하여 청소하고 고을원은 깨끗이 재계하고 제사드리네 두 성인(세종부부) 가만히 도움을 내리시어 풍년의 즐거움을 이 고을에 차게 하소서

園陵正密通 五雲圍虛殿 禁籞抱山長 松栢連江遍 百靈擁岩谷 祥飆生傘扇
祠官謹酒掃 守臣潔齋薦 二聖降陰陽 豊樂通州縣

⑦ 청심루

작은 누 또한 깨끗한데 아래로 긴 강물을 당기었네 강물은 늠실늠실 흘러가는데 먼 산은 겹겹이 높았더라 삼면이 모두 비고 넓어 한 번 바라보매 아득하게 천리로세 岳陽樓도 부끄러움을 가질 만 하고 黃鶴樓도 부끄러워 할 만하네 좋은 문장들이 벽 사이에 찬란한데 올라보니 이 세상 더러움이 깨끗해지네

小樓亦瀟洒 下挹長江水 江水去沄沄 遠岫峙累累 三方儘空濶 一望渺千里
岳陽可包羞 黃鶴堪懷恥 珠璣爛壁間 登觀清塵滓

⑧ 연촌

인가는 어지러히 땅에 가득하니 울타리가 서로 바짝 붙네 뽕과 삼을 심는 것은 한 봄날이요 웃어가며 말하는 것은 동네의 저녁이네 언덕을 격하여 나뭇군의 노래를 듣고 물가에 임하니 고기잡이 피리소리를 보내오누나 풍년이 드니 굶주림이 없고 시절이 이 태평하니 부역이 드무네 熙熙하고 皞皞하여 한가지로 태평한 즐거움 누리누나

閭閒亂撲地 籬落相依着 桑麻一春天 談笑四隣夕 隔壠聽樵歌

臨汀送漁笛 歲稔無飢餓 時清稀賦役 熙熙復暭暭 同享大平樂

(3)金沙八詠

이 색

① 西山採薇(서산에 고사리캐고)
봄비는 바람따라 부슬 부슬
春山은 가는곳마다 깊구나
누가 능히 고사리캐어
伯夷[1]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나

春雨隨風細 春山到處深
何人能採薇 惹起伯夷心

② 東江釣魚(동강[2]에 고기낚고)
일찌기 생선맛이 좋다고 들었으니
모두가 가는비늘 살찐것을 말하네
가을바람 이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張翰[3]처럼 돌아가기 원하네

早聞鮮味雋 摠說細鱗肥
不待秋風起 願從張翰歸

③ 龍門斲藥(龍門에 약을캐고)
땅이 神靈하니 藥物이 좋고
山이 그윽하니 티끌이 적네
다시 묻노니 외와 대추 같은 것을

---

1) 白夷=녹을 먹지 않겠다고 아우 叔弟와 함께 삼베옷 입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 캐어 먹다 죽은 형제 즉 白夷와 叔弟를 뜻함, 의지불변

2) 東江=금사 東쪽에 있는 江 즉 한강줄기

3) 張翰=晋나라 사람으로 官職에 있으면서 가을이면 珍味를 내는 자기 고향의 농어회와 숫나물 죽을 부모에게 奉養하기 위하여 辭職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왕이 이를 훗날에는 가을바람만 일기 시작하면 수레를 내 주고 휴가를 보냈다는 고사 즉 고향생각을 뜻함.

安期生[4]이 은거 할 만 하네

地靈多藥物　山密少塵埃
更問如芯棗　安期安在哉

④ 虎谷耕田(虎谷에 밭을갈고)
평야는 모두 호부한 집이 점령하고
거치른 뙈기밭만 남았네
스스로 밭갈아 조석을 지내니
제갈공명이 살던 곳을 온듯하고나

平野牢龍盡　荒番片段餘
躬耕度朝夕　還似孔明廬

⑤ 漢浦弄月(漢浦에 달 희롱하고)
해 떨어지니 모래는 더욱 희고
구름 옮기니 물이 더욱 맑네
높은 사람 달을 희롱하는데
다만 자란생[5] 없어 흠이로구나

日落沙逾白　雲移水更清
高人弄明月　只欠紫鸞笙

⑥ 婆娑望雨(파성에 비(雨)바라고)
하늘뜻은 응당 만물을 살리고
농사일은 때 놓치지 않음에 있다.
벽담[6]에 용이 누운지 오랜데
한번 일어남이 어찌 더딘가

---

4) 安期=安期生이란 사람인데 진시왕이 해변에 가서 술마시며 휴양할 때 안기생을 찾아가 이야기로 몇 주야를 지냈는데 진시왕이 모든 것을 싫증을 느끼되 오직 안기생과의 대화는 더욱 흥미를 느껴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으나 중국 금강산으로 들어가면서 십년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진 長壽人인데 山에서 나오지 않아 진시왕은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가 살던 고향에 사당을 지어주고 향사하도록 명을 했었다. 산이 하도 험준하니 혹시 安期生이 편안히 隱居 할 만도 한 곳이라는 뜻.

5) 紫鸞笙 : 신선이 부는 피리

6) 碧潭 : 용이 사는 연못인데 누워있으면 날이 가물고 일어나면 비가 온다함.

天意應生物　農功在及時
碧潭龍臥久　一起境何遲

⑦ 長興拾栗(長興에 알밤줍고)
가을바람 처음 우수수하니
밤송이 주렁주렁
홀로 찾아감을 내 일찍 기억함은
알밤이 땅에 떨어질 때 일세

秋風初瑟瑟　栗子漸纍纍
獨往吾曾記　金丸落地時

⑧ 注邑尋梅(注邑에 매화찾네)
읊는 것은 그대로 묘사함이 적은데
재배함은 세속를 떠남이 많구나
제일 어여쁜 것은 황벽한 곳에
적막하게 姮娥[7]를 짝지우네

賦詠逼眞少　栽培離俗多
最憐荒僻處　寂寞伴姮娥

2. 金九容詩에

깨끗한 청산에 들불이 침노하니, 소나무와 삼나무가 다 타버리고 다시 마음이 상하누나 지난해 철쭉이 피던 곳 도리어 울창하게 잡목숲을 이뤘네

瀟洒青山野火侵, 松杉鎖盡更傷心
昔年躑躅花開處, 蓊鬱繙成雜樹林.

3. 李奎報

계수나무 노와 모란 배로 푸른 물결을 가로지르니 붉은 단장이 물 가운데의 하늘에 아름답게 비치네 소반에 담은 것은 배꼽둥근 게(蟹)만 보겠고 그물을 거니 목 움츠린 편(縮項鯿)을 보겠네 10리의 烟花는 참으로 그림같은데 한강의 풍월은 돈으로 논하지 아니하네 모래에 앉은 갈매기야 고기잡이 노래를 익숙하게 들었을 터이니 날아와 여울앞에 이르러 배를 피하지

7) 姮娥 : 달에서 사는 美人 달의 異名 원래는 翠의 아내에 이름, 翠가 西王母에게 請하여 얻은 不死藥을 훔쳐 마시고 仙人이 되어 달로 도망쳐 달의 精靈이 되었다고 함.

말라

柱棹蘭舟截碧漣 紅粧明娟水中天
釘盤銕見團臍蟹 掛網還看縮項鯿
十里煙花眞似畫 一江風月不論錢
沙鷗熟聽漁歌響 飛到灘前莫避舷

4. 宴集序

(1)權近

금상께서 즉위하신지 3년 辛未 11월에 우리 座主 韓山 牧隱 선생께서 나라의 恩命을 받아 서울로 朝貢하러 들어가는 길에 驪江 별장에 이르렀는데, 都觀察使 安公이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날이 이미 저물어 하늘이 밝고 달이 맑은지라, 배를 타고 中流에서 흥대로 놀다가 파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는 강에 얼음이 얼어 배가 통하기 어려웠다. 다음날 都評議使司의 공문이 이르렀는데 左代言 臣이 임금의 명령을 전하기를 「韓山君 穡이 충주, 여주 사이에 있을때 도, 관찰사는 음식을 차려서 禮로써 후대하여 보내라 하신다.」하였다. 안공이 공경히 명령을 받들고, 또 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날 구름이 음산하고 눈이 조금씩 내리면서 강의 얼음이 스스로 풀렸다. 선생이 또 안공과 배를 같이 타고 물 흐름을 따라서 내려갔다. 이때에 모시고 앉았던 사람은 簽書 種學이니 선생의 아들이고, 驪興군수 權聰은 생질이요, 近과 都事 李愚는 모두 門人이다. 잔을 올리고 수작하여 예를 차리고 서로 더불어 흡족하게 즐기는데, 구름속 달은 희미하게 밝아 하늘과 물은 아득하여 끝이 없었다. 물살은 잔잔하여 風浪이 없고 눈이 때때로 날리며 떨어지니 또한 배 가운데의 좋은 경치였다. 또 다음날 陶齋 李學士가 修文의 명을 받고 역마를 달려 이르러 또 같이 배에 올라 놀기를 이와같이 하였다. 도재는 당세의 문장대가로 선생이 시험보인 신해년 향시에 장원한 사람이다. 安公은 雙淸相公의 아들인데, 쌍청선생은 선생의 同年이므로 世交가 매우 두터웠다. 공이 일찌기 문학과 청렴과 근신함으로써 높은 벼슬을 지냈고. 이제 또 중한 선택으로 한 지방을 맡았으매 민생을 안정시켜 임금의 덕택을 펼 것을 생각했는데 더욱 선생께서 부르심을 받아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어찌 성의를 극진히 하여 聖上께서 후한 예로써 불러들이시는 뜻에 맞추고자 아니하겠는가 이것은 정성된 마음에 감동되어 얼음이 스스로 풀리어 오늘 배 가운데 즐거움을 이루어 준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驪江의 산수가 좋음은 자고로 일러 오지만, 사람의 일은 많이 뜻과 어긋나고 좋은 벗도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데 우리들이 서로 떠돌아 다니던 끝에 이 회합을 만났으니 진실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안공은 도관찰사의 위엄과 공무에 번다한 몸으로서 쉽사리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것이다. 또 하물며 仲冬 추운 때에 배를 띄우고 오늘과 같이 즐겁게 노는 것이 그 몇 번이나 있겠는가 한 자리의 손의 명망이 높음이 韓山 같고, 위엄의 무거움이 安公 같고. 文雅함이 陶齋같고, 현달한 명사들이 諸公과 같은 이들이 서로 같이 한 배를 타고 노는 것도 또한 몇번이나 있었는지 이 강이 있은 이래로 이제 겨우 있는 일이다. 近이 재주없는 몸으로 이 모임에 참여함을 얻게되어 진실로 다행한 일이라 이것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權近宴集序上即位三年辛未冬十有一月吾座主韓山牧隱先生承恩命朝京次于驪江別墅都觀察使安公設酌以慰日旣暮天郎月淸登舟中流興酣而罷詰朝江氷合舟難通越明日都評議使司牒至左代言臣博旨若曰韓山君穡在忠驪閒都觀察使其飭府傳以禮敦遣安公祗承又往置酒是日雲陰微雪江氷自釋先生又與安公同舟泝流而下時侍坐者菱書種學先生男也驪興郡守權總甥也近興都事李愚俱門人也獻酬成禮相與歡洽雲月微明天水渺漫恬波無浪飛雪時落亦舟中之一勝也又明日陶齋李學士承修文之命馳馹而至又與登舟如昨陶齋一時文章大手而先生所試辛亥解元也安公雙淸相公之嗣而雙淸先生之同年世交甚篤公早以文學淸愼敏歷華要今又以重選專制一方思輯民生以宣上德矧遭先生被徵入朝豈不欲致誠意於左右以副聖上優禮微還之意哉此其誠心所格冰自漁釋以成此日舟中樂也顧不美歟驪江山水之勝自古而稱人事多華勝友難集吾儕於流離之餘値此會合誠所難得安公以此專制之威萬務之繁亦未易而得此也又況仲冬嚴凝之時浮舟游樂如今日者不知其有幾一坐之賓望尊如韓山威重如安公文雅如陶齋通顯豪英如諸公者相與同舟又不知其有幾自有此江以來眞絶無而僅有者也近以不才復與斯會誠幸也是不可以不誌

(2)이색

여강의 形勝은 천하에 드문데 四時의 풍경이 천지의 비밀을 헤쳐 보이누나 내가 처음 와 놀때는 마침 여름철이어서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배에 불어 옷에 가득 서늘하였네 백 척 높은 郡樓에 두 눈으로 멀리 바라보니 들은 평평하고 산은 멀어 아물아물 연기가 걷히네 흐르는 강에 임해 높은 흥을 알 이가 적으니, 兪仙이 自負하던것 진실로 기롱하기 어렵네 봄꽃이 산에 만발하니 물결밑이 붉고, 가을 달은 구슬을 잠그네 하늘엔 바람조차 없는데 내 그 좋은 시절에 모두 미쳐 오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이같은 얼음얼고 눈 오는 嚴冬이랴 바야흐로 임금의 부름을 받아 스스로 기뻐 날뛰니, 바로 野鶴이 갇혀있던 장을 떠난듯 하구나 雙淸의 맏 자제 관찰사로 있고 星山 : (陶隱)과 양촌(陽村・권근)도 뜻밖에 한자리에 모였네 태수(太守・牧使)성심으로 아름다운 손을 즐겁게 하니 권하고 잔 받으며 禮를 다하여 和氣가 무르익었네 얼음이 스스로 녹고 눈이 또 오고 밝은 달이 나오려 하자 구름 또한 열리네 하늘도 우리가 오래 떨어져 다님을 가엽게 여기어 이것을 위로하고자 황금 술잔을 함께 들게 하네 뭇 양(衆陽)이 함께 나아감(彙征)이 이제로부터 시작하나니 노래와 춤 한 곡조로 春臺에 오르네

李穡詩 : 驪江形勝天下稀四時風景披天機我初來游適夏月長風吹舟涼滿衣郡樓百尺縱雙目野平山遠收煙霏流高興知者少兪仙自負誠難譏春花滿山波底紅秋月沉璧天無風我皆不及好時節況此氷雪成嚴冬與蒙賜環自踴躍直似野鶴辭棋籠雙淸震器杖鉞臨星山陽村俄會同太守戲心樂 嘉賓

獻酬成禮和氣融長氷自消雪又來明月欲出雲還開天憐我輩久流落慰此同把黃金盃衆陽進自令始歌一曲登春臺

(3)이 숭인

사상(使相 : 도 관찰사)은 威名이 크고 선생(牧隱)은 덕업이 높으시네 하늘가에 수 년 이별

했다가 강위에서 한잔 술을 같이하네 들이 넓으니 산이 그림 같고 물결은 고요한데 해는 정히 내리쪼이누나 彙征이 이로부터 시작되나니 부르고 화답함에 흥이 다함이 없구나

李崇仁詩：使相威名大, 先生德業崇, 天涯數年別, 江上一樽同, 野曠山如畫, 波恬日正洪 彙征從此始, 酬唱興無窮

(4)權近

黃驪의 산수가 스스로 맑고 기이하여 높은 冠蓋가 서로 만나매 기약이 있는 듯 하네 별당의 거문고와 노래소리는 자리가 질서있고, 긴 강의 雲月은 밤이 더디네 배를 띄우니 아득하게 은하수와 통하는듯, 날리는 눈은 부슬부슬 술잔에 떨어지네 다행이 여러분를 모시고 성한 모임 가지니 풍류와 문채가 당시에 제일일세

權近詩：黃驪山水自淸奇, 冠蓋相逢若有期, 別院絃歌蓮秩秩, 長江雲月夜遲遲, 浮槎縹緲通宵漢, 飛雪霖微落酒扈, 幸與諸公陪盛集, 風流文彩勝當時,

(5)鄭道傳

강산 雪月에 손이 루에 올라 잔을 잡고 시를 읊는 좋은 놀음 지었네 물이 줄어져 貢般은 밀어도 내려가지 않으매 여러 인부들 파서 통하니 사군(使君 관찰사)의 근심일세

鄭道傳詩
江山雪月客登樓, 把酒吟詩作滕遊
水落貢船推不下. 萬夫踈鑿使君憂

5. 型牧記 임원준

여주는 삼국때에는 본래 구구려의 骨內斤縣이었는데 뒤에 신라에게 병합되었다. 경덕왕은 이름을 黃驍라 하여 泜川에 소속시켰다. 전조 忠烈王 31년에 敬順王后 김씨의 고향이므로 여흥군으로 승격하였다. 大明 洪武 21년에 僞主 辛禑가 이 고을에 물러나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승격 황려부가 되었다가 恭讓王 원년에 다시 강등 하여 군이 되었다. 이조 세종대왕이 어머니 元敬王后의 고향이므로 특히 승격하여 都護府가 되었다. 成化 5년 戊子 겨울에 日官이 풍수설을 가지고 英陵을 옮기기를 청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睿宗 대왕이 대신에게 명하여 경기지방에 나누어 다니면서 자리를 보도록 하였더니, 바로 주 북쪽의 5리 지점에서 자리를 얻어서 점을 쳐보니, 만억년을 누릴 수 있다 하는지라, 드디어 다음해 己丑 3월 庚寅에 능을 여기에 옮겼다. 이에 이 府에 선왕의 능이 所在하므로 승격하여 주로 하고 목사와 通判을 두고 또 지역이 좁으므로 천녕현을 합하여 넓히니 인물의 번화함이 비로소 다른 고을의 번성함과 견줄 만하게 되었다. 주의 형승으로는 강물이 중원(中原-충주)의 月岳으로부터 시작하여 강원도의 五臺山의 물과 합하여 몇 백리를 흘러서 주 북쪽에 이르러 깊고 맑게 고여서 못이 되었고, 우뚝하게 뾰죽 뾰죽 푸르러 동북쪽에 진압된 것으로는 龍門山이 있고, 높고 푸르러

날으는 듯 춤추는 듯 하여 추녀와 기둥이 엿보는 듯 솟은 것은 雉岳山이 甓寺 그림자를 강속에 거꾸로 비침이요 馬巖은 강을 금후(襟喉 요충지·옷깃과 목구멍)에서 막는다 북으로 서울과의 거리는 밤낮 이틀의 路程이요 남으로는 三道를 통하는 길이 읍 밑에서 나누어 진다. 진실로 국가의 上遊를 눌렀고 京畿의 깊숙한 구역이다. 주가 승격하여 목이 되매 조정의론이 반드시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가리어 목사와 판관을 삼는데, 安公 克思와 金公 承慶이 맨 먼저 그 選任에 응하였다. 安侯가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제 부가 주로 되었으니 이것은 주의 큰 시초이다. 어찌 記를 지어 두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넓은 땅에서 여주와 대등한 것으로 주로 된 것이 그 몇인지 모르겠지만은 상서와 복을 저장하여 국가의 근본의 땅이 된 것인즉 아직 여주의 성함만 같은 것이 없다. 주의 이름난 姓으로는 漁隱 閔侍中이 聖后를 낳아 우리 태종에게 짝함으로부터 聖祖神宗이 계계 승승하여 자손에게 규모를 전해주어 만세에 편안을 내려주셨다.지금 上黨府院君 한공의 부인도 이 주의 민씨로서 우리 中宮을 낳아 우리전하의 짝이 되어 큰 운수에 응하시고. 힘써 大業을 밝히시어 태평시대를 거듭하여 여러 萬物이 氣를 토해온 즉 社稷의 長久함이 억만년 한이 없는 복조가 진실로 오에서 기초가 될것이다 하물며 이제 英陵을 옮겨놓아 만세에 國脈을 배양하는 땅이 되었다. 옛날에는 군에서 부로 승격하고, 오늘은 부에서 주가 되니 어찌 황려산천의 쌓이고 모인 기운의 발함으로써 아름다운 상서와 복과 경사의 盛大光明함이 천만세에 내려가 다함이 없을 것이 아닌가.

○任元濬堲牧記驪之爲邑在三國時本高句麗骨乃斤縣後爲新羅所幷景德王賜名黃驍領於沂川前朝忠烈王三十一年以敬順王后金氏之籍加號驪興郡大明洪武二十一年僞主辛禑遜于郡由是陞爲黃驪府恭讓王元年復降爲郡我朝世宗大王以皇妣元敬王后之內鄕特陞都護府成化五年戊子冬有日官以山家之說請遷 英陵者 睿宗大王命大臣分行畿甸以相之而乃得於州北之五里灼龜命兆卜年萬億遂以明年己丑三月庚寅乃遷 玄宮宅曆於此以府 先王陵寢所在陞爲州而置牧使及通判且以地狹合川寧縣以擴之人物之繁華始可以齒他州之盛若州之形勝則有水自中原月岳合江原五臺之水流數百里而至于州北泓澄漫汗而爲淵其屹然攢青蹙翠以鎭于東北則有龍門之山巍乎聳碧如飛如舞而闖于軒楹則有雉岳之峯甓寺倒影於江心馬岩捍水於余喉北距京師再宵晝而即達南通三道分岐路於邑下實控國家之上游而爲畿甸之奧區襟既陞而爲牧朝議必擇賢有能者以爲牧使若判官而安公克思金公承燮首應其選安候走書曰今府爲州是一大初也盍爲記会曰我 國家幅員之廣等驪爲州者不知其幾而儲祥委杜爲國家根本之地則未如驪之盛自州之著姓漁隱閔侍中誕生 聖后配我 太宗聖祖神宗繼繼承燕翼貽謀垂裕萬世今上黨府院君韓公夫人亦州之閔氏也誕我 中宮配我 殿下光膺景命懋昭大業重熙累給萬物吐氣則 社稷靈長億萬年無疆之祚實基於今日況今遷曆 英陵爲萬世培植國脈之地昔焉由郡而陞府今焉由府而爲州豈非黃驪山川扶輿磅礴之氣之發而休祥福慶威大光明之美垂千萬世而不可窮皆歟○

6. 주 열

한 조각 밝은 달이 구름끝에 솟으니 거울속에 전에 알던 안면을 만난 것 같네 쌍쌍으로 선 나무는 寶蓋의 그림자가 기울어진 듯 사면에 둘린 산은 긴 눈섭이 푸르구나 잉어는 푸른물 저쪽에서 尺素를 전하고 용은 如意珠를 암흑 한 속에서 품고 있네 시 읊기에 五更이 이르매

시가 더욱 奇絶하니 풍경으로 하여금 잠시라도 한가하게 마소

高麗朱悅詩

一輪明月湧雲端, 鏡裏如逢舊識顔 寶蓋影傾雙立樹, 修眉暈倒四回山 鯉傳尺素蒼茫外, 驪養明珠黑暗間 吟到五更更奇絶, 莫敎風物片時閑

7. 이 곡

만일 이 경치를 붓끝에 넣으려 한다면 글은 蘇東坡 黃山谷. 글씨는 顔眞卿이어야 하겠네 정부는 백성을 위하매 부역을 걱정하는데 어찌 지나는 손이 강산구경을 용납하랴 흰 물결 푸른 산은 閭閻 속이요 적안과 은하수는 伯仲 사이일세 하룻밤 루에서 잤어도 오히려 부족하니 다른날 긴 여가를 만들어 조각배를 타리라.

李穀詩 如將此景入毫端, 文要蘇黃字要顔 政爲居民愁賦役, 寧容過客賞江山
白波靑嶂閭閻裏, 赤岸銀河伯仲間 一宿樓中猶未足, 扁舟他日幷長閑

8. 이 색

病後에 여강을 몇 번 왕복하였는가 높은 시를 화답하려 하매 내 얼굴이 부끄럽네 배 띄워 놀기엔 반 삿대쯤 물이 가장 좋나니 천 겹 산은 다 보기 어렵고 밝은 달 맑은 바람은 좌우에서 오는데 흰수염과 붉은 뺨으로 중간에 앉았네 초연하게 스스로 신선의 지경이라 牧翁이 한가하지 않은가 물어보게

李穀詩 病後驪江幾往還, 欲賡高韻泚吾顔 流連最好半篙水, 登眺難窮千疊山
明月淸風來左右, 白須紅頰坐中間 超然自足神仙境, 且問牧翁閑不閑

9. 한 수

이름자가 절의 한조각 돌끝에 걸려있으니 10리에 배타고 산기슭을 살펴보네. 강가에서 웃으며 懶殘子를 이별하고 郡에 들어와 元次山을 보네. 어쩌 감히 오랫동안 손의 자리 상편에 머물러 있으리오. 오히려 작은 폐단이나마 민간에 미칠까 근심하노라 글재주 없으매 하늘이 아끼던 좋은 경치 묘사하기 어려우니 누 앞 풍경 한가하게 버려두네

韓脩詩 名掛精盧片石端, 乘舟十里撿孱顔 江邊笑別懶殘子, 郡裏來看元次山
豈敢久留居客右, 尙憂小弊及民間 非才難狀天慳處, 且放樓前風景閑

10. 정몽주

가랑비(烟雨)가득하여 온 강을 메우니 누 가운데 자는 손이 밤에 창을 여누나 내일 아침 말에 올라 진흙 밟고 갈 적에 돌아 보면 滄波에 흰 갈매기 짝이되리

高麗鄭夢周詩

煙雨空濛滿一江，樓中宿客夜開窓　　明朝上馬衝泥去，回首渚波白鳥雙

11. 이숭인

누각이 강가에 다달으니 휘여잡아 오르매 세속 정이 멀어지네 물결이 빛나는 것은 아침해가 오름이요 나무가 빽빽하니 더운 바람이 맑구나 일찍부터 강산을 즐겨 벼슬의 영화로움을 뜬구름처럼 보았네 어찌하여 낚싯대 잡던 손으로 말에 채찍질하여 서울로 향할꼬

李崇仁詩　樓閣臨江次登攀，遠世情彼光朝日　　上樹密暑風淸早，歲湖山樂浮雲組
綬榮如向釣竿手，策馬還向都京

12. 이구

일찌기 여강 위 누에 올라, 바로 쇠한 귀밑털 맑은 흐름에 비쳤네. 오늘와서 塵土는 지나간 꿈 되었으니 이슬은 고기잡이 도롱이에 가득하고 달은 배에 가득하네.

高麗李玖詩

曾上驪江江上樓，直將衰鬢照淸流　　如今塵土成閑夢，露滿漁簑月滿舟

13. 정　추

밤에 황려현에 드니 뱃사공이 자려할 때로세 물가에 가니 바람은 사나운데 누에서 자니 달은 기약이나 있는 듯 하늘이 넓은데 긴 강은 움직이고 모래는 밝은데 잡나무도 기이하구나 삼경에 맑은 휘파람을 부니 문득 물귀신도 춤을 추는 듯

鄭樞詩　夜入黃驪縣，舟入欲臥時　　渚行風作暴，樓宿月如期
天豁長江動，沙明雜樹奇　　三更發淸嘯，便覺舞馮夷

14. 정자후

北原 서쪽이요 한강 남쪽 끝이로세 내 일찌기 다락에 올라 한 번 얼굴을 폈었네 발 밑에는 넓고 아득한 강이 성곽을 둘렀는데 눈앞은 평평하고 먼 들산에 이었네 흰 구름 신선생각은 삼청(三淸一 도교의 이상향)밖이요 밝은 달 詩情은 八詠사이네 20년래 진토밑에 다녔으니 지금도 생각하는 꿈이 일찌기 한가롭지 못하네.

鄭子厚詩

北原西畔漢南端，我昔登樓一展顔　　脚底茫江繞郭，眼前平遠野連山
白雲仙想三淸外，明月詩情八詠間　　二十年來塵土下，至今思夢不曾閑

15. 설문우

온갖 경치가 指點하는 끝에 벌여 있는데 누에 오르니 저도 모르게 자주 얼굴을 돌리네 긴 강은 서로 흘러 창해로 들어가는데 겹겹이 두른 嶺은 북쪽에서 와 얕은 산을 둘렀네 그물을 뜷고 고기는 찬 비속에서 뛰고 기심잊은(忘機) 해오리는 어두운 연기사이에 서 있네 일생에 功名의 累를 벗어 버리며 푸른 부들삿갓 쓴 漁翁 역시 스스로 한가하리.

○薛文遇詩萬景森羅指點端登臨不覺屢回顔長江西去赴蒼海複嶺北來圍淺山透網魚跳寒兩裏忘機鷺立暝煙間一生脫却功名累靑蒻漁翁也自閑

16. 도원흥

10년만에 돌아와 이 난간끝에 기대이니, 미인이 응당 젊은 얼굴 변한 것을 웃으리라. 서너 발 남은 落日은 외로운 탑에 밝은데 한줄기 긴 강은 뭇 산을 안았네. 들 매(野鶻)는 멀리 단풍든 나무밖을 도는데 가는 기러기는 푸른 하늘을 공중으로 사라지네. 前輩들 뱃놀이 하던 일을 실컷 들었더니 이제는 여울 머리에 놀잇배 한가함을 보겠네.

○都元興詩十載還憑此檻端笑人應笑變朱顔兩芊落日明孤塔一帶長江抱衆山野鶻遠盤紅樹外征鴻高没碧虛間節聞前輩遊湖事今見灘頭畵舸閑

17. 서거정

다락은 백 길이나 높아 구름끝에 솟았는데 호기 있는 元龍은 옛 얼굴과 같네. 배를 옮겨 갈매기를 놀라게 하지 말아라 홀로 턱을 받치고 청산이나 보리로다. 학은 밝은 달을 따라 하늘위로 돌아갔고 용은 빛나는 구슬을 안고 물속에 조네 임금이 이 鑑湖를 주는 것은 헤아리기 어려우나 산을 사서 마침내 여기에 한가로이 살고자 하네.

徐巨正詩

樓高百丈插雲端 豪氣元龍似舊顔 莫遣移舟驚白鳥 也宜拄笏看靑山
鶴隨明月歸天上 龍抱先珠睡水間 天使鑑湖難自料 買山終欲此來閑

18. 최숙정

그림 누각 치레가 곱고도 단정한데 다시 풍월을 가지고 수심띈 얼굴을 씻네 동쪽언덕의 절은 높이 물에 임하였는데 서쪽 기슭 민가는 고요히 산을 지고 있네 굽어보고 쳐다보니 乾坤이 모두 세속밖이요 樓에 올라 강을 내려다 보니 身世가 별인간이네 다른 해 벼슬버리고 티끌 옷깃털어 죽기까지 한가하리라.

崔淑精詩

畫閣簾旌靚且端 更將風月洗愁顔 東崖佛屋危臨水 西崦民家靜負山
俯仰乾坤皆物外 登臨身世別人間 他年我欲投簪笏 抖擻塵襟抵死閑

19. 禪 坦

그대는 옛날 醉翁이 서호에서 잔치함을 보지 못하였는가 은촛불(銀燭)켜고 놀다가 이 밤 늦어서야 파하니 금잔 옥잔이 흩어져도 거두지 않았다네 또 賀監 방랑하여 회계에서 논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가벼운 노 짧은 배로 연기 낀 물가를 따라 비낀 바람 가는 비에 꽃다운 섬을 찾아갔다네 中原 牧伯이 자취를 이어 놀잇배에 북을 치며 錦江 가을에 즐겁게 노는구나, 七澤은 흰갈매기 밖에 아득하고 먼데 三山은 金鼇의 머리에 숨을듯 비칠듯 하네 簪 빼어 밤에 洞仙 문을 두드리니 푸른 눈썹 붉은 뺨이 중루를 둘렀네 중루의 노래와 저(吹)는 반 공중에 떨어지는데 달이 뜨니 황혼이 하늘빛에 그윽하구나 별빛이 희미해지고 해가 떠오르매 五馬가 총총히 떠나가니 昌黎의 월녀(越) 한 번 웃음에 삼 년을 머물었다는 詩가 우습구나

○ 釋禪坦詩君不見昔時醉翁讌西湖銀缸畫燭侵宵罷金罍玉斝散不收又不見賀監放浪遊稽山輕舟短棹追煙渚斜風細雨尋芳洲中原牧伯繼前躅畫船鼉鼓行樂錦江秋七澤微茫白鷗外三山陰映金鼇頭抽簪夜扣洞仙扉翠眉紅臉圍重樓重樓歌吹落半空月上黃昏天色幽星斗闌干火輪飛出五馬忽忽去堪笑昌黎越女一笑三年留

20. 이 색

冠蓋로 별처럼 달려 콧등에 땀이 맺히는데 한번 이 정자에 오르매 얼굴을 펴네 서늘함이 궤안에서 나는 것은 바람이 나무에 스몄음이요 푸른빛이 이 술상에 뚝뚝 떨어지는 것은 비가 산을 걷었음이네 긴 소매 가벼운 치마는 자리위에 나부끼는데 잦은 거문고와 급한 피리는 기둥사이에 벌어졌네 누가 임금 은혜 중함을 느끼지 않으랴마는 使命 받고 나온 몸이 도리어 한가한 놀이를 겸했네

李穡詩冠盖星馳汗鼻端一登於此盡開顔凉生几案風涵樹翠滴杯盤雨卷山長袖輕裙飄席上繁絃急管列楹間何人不感君恩重鞅掌還兼物外閑

또 樓記가 추녀머리에 써있지 아니함을 한하노니 이름은 누가 청심이라 하였는가 縣板 걸것을 빠트렸네 물 막는 공이 높은 것은 馬巖石이요 하늘에 떠서 형세 큰것은 용문산일세 방에 있을때 눈은 창밖에 떨어지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누웠을땐 바람이 베개와 삿대자리 사이에 오네 더욱 봄 바람과 가을 달을 보게 되면 玩賞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경치가 더욱 너그럽고 한가하리

又恨無樓記冠篇端誰名淸心闕署顔捍水功高馬巖石浮天勢大龍門山燠居雪落軒窓外凉臥風來枕簟間況是春風與秋月賞心美景更寬閑

또 지쳐서 날으는 외로운 새도 이미 돌아올 줄을 아는데 晩年의 맑은 놀음에 얼굴을 활짝 펴네 天命을 어찌 의심하랴 곧 彭澤이요 세상인연을 마침내 적으니 香山과 같구나 강호의 흥미는 三生의 밖인데 鍾鼎 功命은 한 꿈 사일세 태평을 읊조리는 것이 나의 사업이니 이제부터 스스로 號하기를 李閑閑이라 하리라

○倦飛孤鳥已知還晩景淸游得逞顔天命奚疑即彭澤世緣終淺似似香山江湖興味三生外鍾鼎功名一夢間歌詠大平吾事業從今自號李閑閑

21. 이육

잠을 깨니 銅鉦은 나무끝에 걸렸는데 물빛과 서로 더불어 쇠한 낯을 비치네 강은 벽절 구층탑 그림자를 잠갔는데 樓는 용문 천 길산을 대했네 넓으니 극히 우내(宇內 세상)없는 줄 알겠고 서늘하니 오히려 인간이 아님을 의심하겠네 괴롭게도 홍진으로 향하니 물결위에 흰새 한가함을 속절없이 부러워 하노라

○李陸詩睡起銅鉦掛樹端水光相與照衰顔江侵璧寺九層塔樓對龍門千仞山敝豁極知無宇內妻凉猶訝不人間辛勤又向紅塵裏空羨波頭白鳥閑

22. 辛碩祚

세상사 紛紛하여 하루에 몇 가지인가 樓에 오른 오늘 저녁에야 우연히 얼굴을 펴겠네 강가에 늙은 나무는 나이를 알지 못하겠는데 하늘 끝 먼 봉우리는 어느곳 산인지 신선지경을 어찌 삼도(三島 : 삼신산)밖에서 찾으랴 풍류는 도리어 五湖 사이보다 나으리 총총히 왕명을 받은 사신이라 분주하게 달려 잠간도 한가하지 못함을 어이하리

○辛碩祖詩世事紛紜日幾端登臨此夕偶開顔江邊老樹不知歲天末遙岑何處山仙境肯尋三島外風流却勝五湖間忽忽杖鉞皇華使胡奈奔馳未暫閑

23. 金宗直

배를 초가집 가시울타리 끝에 매니 물고기에 새가 어찌 일찌기 내 얼굴를 알겠는가 病에도 능히 행보할 수 있는데 조정에서 쫓겨나서야 겨우 강산 구경을 할수 있네 10년동안 세상일을 외로이 읊조리니 8월 가을경치는 어지러운 나무사이로세 잠깐동안 난간에 의지하여 북쪽을 바라보는데 뱃사공이 타기를 재촉하여 한가롭지 못하네

○金宗直詩維舟茅舍棘籬端魚鳥何曾識我顔病後猶能撰杖屨謫來纔得賞江山十年世事孤吟裏八月秋容亂樹間一霎倚闌仍北望篙師催載不教閑

24. 申用漑

강 연기 뉘엿뉘엿 붙끝에 끌리는데 강물은 맑고 맑아 파리한 얼굴 비치네 작은 배 삐걱거리는 가엔 오직 흰갈매기, 푸른 숲이 비낀 밖엔 또 푸른 산이 팔면이네 창에 좋은 경치는 두 눈안이요 찬 비소리는 일만 낙수물받이 사이로세 벼슬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은뱅이 노릇한 것을 스스로 웃나니 저 고기잡이 늙은이에게 청한함을 도맡게 하였네

○申用漑詩江烟再惹毫端江水澄澄照瘦顔細觱鳴邊唯白鳥翠林横外亦青山八窓勝景雙眸内一兩塞聲萬靁間自笑名途長蹩躠任他漁叟管清閑

25. 日本僧 梵齡

긴강은 흰비단을 펼쳐 처마끝에 접했는데 게으른 나그네 티끌묻은 얼굴을 씻을 만 하네 맑은 경쇠소리에 달이 높으니 먼 절임을 알겠고 평평한 숲에 구름이 다하니 먼산을 분별하겠네 붉은 추녀와 푸른 기와는 물속에 비치는데 모래, 새, 바람 돛은 좌석사이에 가깝네 세번 삼한에 와서 국명을 전하니 도리어 마음 한가함을 저바린 것이 부끄럽네

○日本僧梵齡詩長江飜練接簷端倦客堪醫塵土顔清磬月高知遠寺平林雲盡辨遙山朱甍碧瓦照波底沙鳥風帆近坐間三向三韓傳國命却盖孤負一心閑

26. 김주

맑은 강이 하늘끝에서 내리쏟는데 누에 올라 내려다 보매 얼굴이 비칠만 하네 통쾌하게 마시니 이태백을 맞이할 만 하고 시에 능한 이로는 일찌기 한산(韓山 이색)을 얻었네 어석버석한 소나무의 푸르름은 외로운 돛밖이요 흐느끼는 여울소리는 두 언덕사이로세 걸음을 옮겨 붉은 난간에 의지하여 한번 웃노니 어떤것이 바쁘고 어떤것이 한가한고

○金稠詩澄江來往自天端樓上登臨可照顔痛飮尺宜邀太白能詩曾是得韓山參差松翠孤帆外嗚咽灘聲兩岸間徒倚朱欄還一笑孰爲忙也孰爲閑

27. 李穡

먼 산은 긴 강 밖이요 성긴 소나무는 푸른 돌 곁이로세 절은 복된 땅에 열렸고 보제(普濟나옹)는 眞堂이 열렸네 현령은 자주 허리에 笏을 꽂고 예배하는데 산 僧은 홀로 벽을 향하고 있네 어쩌면 들 배를 불러서 맑은 휘파람으로 넓고 아득한 물을 띄울꼬

○李穡詩遠岫長江外疎松翠石傍招提開福地普濟敞眞堂縣令頻腰笏山僧獨面墻何當尋野艇清嘯倚蒼茫

28. 金九容

참나무 돛대는 갈대 여울을 돌고 소나무 배를 돌다리에 매었구나 맑은 바람은 늙은 나무에 불고 밝은 달은 긴 강에 찼네 설법하니 용도 응당 들을 것이요 참선하니 호랑이도 스스로 엎드리네 오가며 그윽한 흥이 있으니 이끼길이 배창에 접했네

○金九容詩柞棹回蘆瀨松舟繫石矼清風吹老樹明月滿長江說法龍應聽參禪虎自降徒來幽興熟苔徑接蓬窓

29. 權近

내 와서 이 좋은 강산을 사랑하여 종일토록 배를 타고 또 난간에 의지하네 물밑에는 찬란하게 절이 열렸는데 숲속에는 은은히 仙壇이 보이네 마음을 가르키는 頓教는 멀리 慧可에게서 전했고 일을 기록하는 雄文은 韓退之와 비슷하네 진중한 늙은 중은 내게 글을 하여 부지런히 종이를 주는데 글을 지어 남겨두면 뒷사람이 볼까 부끄럽네

權近詩我來愛比好江山終日乘舟又倚欄水底森羅開佛刹林間隱約見仙壇指心頓教遙傳慧載事雄文酷似韓珍重老禪勤授簡留題還愧後人看

30. 崔脩

벽절 종소리 한밤에 울리니 廣陵에서 돌아오는 손의 꿈이 처음 깨였네 만일 張口로 하여금 일찌기 여기를 지나게 하였다면 꼭 한산만이 이름을 얻지 못했으리

崔脩詩甓寺鍾聲半夜鳴廣陵歸客夢初驚若教張繼曾過此未必寒山獨擅名

31. 李奎報의 井泉寺

우리스님 물건 취하기는 청렴하나 홀로 강산에 대하여는 貪함을 꺼리지 않네 한 루를 만들어 내어 높이 우뚝하매 일만 경치를 몰아 모두 포함하였구나 밭가는 모습에 가랑비 내리니 촌 멋이 즐겁고 나뭇꾼 피리에 햇빛이 쇠잔하니 들 흥취가 거나하네 아침저녁 새소리는 문밖의 나무에서요 예와 이제 사람의 그림자는 길가 연못이로다. 구름에 붙어 돌아가는 기러기는 차례있게 앞뒤요 물에 나온 뜬 갈매기는 갑자기 둘 셋이로세 땅 품질을 모름지기 기름진 것을 볼 것이요 절 이름은 도무지 우물물의 맑고 깊음에 있네 달은 깊은 방에 한가한 중이 자는 것을 엿보고 골짜기는 빈 마루에 앉은 손의 말소리에 메아리치네 더위를 쫓는 서늘한 난간을 어찌 꼭 북쪽을 택하랴 바람이 부는 높은 집은 남향이 가장 마땅하리 갠 하늘에 놀(霞) 빛은 불보다 붉은데, 새벽주검 연기빛은 푸르기 남빛같네 일찌기 맑고 그윽함을 점령하여 그대 스스로 유쾌한데 늦게야 아름다운 명승을 만나니 내 바야흐로 부끄럽네 마음을 씻고 수도하는 結社에 들어 같이 숨을 수 있다면 늙은 근력이라도 물을 끓여 차를 다림은 오히려 감당할만하네 혹시 재미나는 話頭 있거든 때로 늙은 龐居士 불러 參究 함도 무방하리

李奎報詩吾師於物取之廉獨向溪山不忌貪幻出一樓高突兀驅來萬景摠包含耕犁細雨村情樂樵笛殘陽野興酣朝暮鳥聲門外樹古今人影路傍潭貼雲歸鷹工先後出水浮鷗忽雨三壤品須看原膴膴寺名都在井涵涵月規深室閑僧睡谷答虛堂坐客談陶暑涼軒向必北召風窺榭最宜南霽天霞色殷於火曉店煙光翠似藍早占清幽君自適晚逢佳勝我方慙洗心投社如同隱汲水煎茶尙可堪儻有話頭玅味處不妨時喚老龐參

32. 李奎報의 下北寺

아득하고 먼 연기 낀 멧부리는 만점이나 푸른데, 바라보이는 곳 어디쯤이 神京인가 한가한

구름은 잠간사이에 천가지 형상을 이루는데 흐르는 물은 늘 한결같은 소리로세 장사에 가의가 귀양 옴은 이미 정한 것이나 漳浦에 劉楨이 누운 것을 어찌 견디랴 아무도 忘憂物을 반겨주는 이 없으며 조정에서 쫓겨나온 손이 봄을 만나매 더욱 불평하네

○李奎報詩漠漠煙巒萬疊青望中何許是神京閑雲頃刻成千伏流水尋常作一聲已分長沙流賈誼更堪漳浦臥劉楨無人 乞與忘憂物逐客逢春益不平

33. 韓脩의 高達寺

20년 전이 꿈같구나 젊었을 때의 친구들은 반이나 黃泉客이 되었네 이제 高達 옛 절에 옴은 圓通 큰 복전(大福田)이 있는 때문이라네 사면의 산 병풍은 절을 둘렀는데 한개의 비석은 푸른 하늘에 기대었네 웃음과 이야기로 하루저녁에 돌아갈 길을 잊었으니 당시 妙蓮에 있던 것 같으이

○韓脩詩二十年前似夢間少年交契半黃泉今來高達古精舍爲有圓通大福田四面山屛圍紺宇一條碑石倚青天笑談竟夕忘歸路還似當時在妙蓮

34. 廉興邦

시와 술로 즐겨 놀음이 백년 가까운데 옛사람 남기신 자취 林泉에 있구나 紅塵 10년에 銀臺의 영광이여 伊菴에 한번 취하여 자는 것과 어찌 같으리

○高麗廉興邦詩詩酒歡娛近百年古人遺迹在林泉紅塵十載銀臺寵爭似伊菴一醉眠○

35. 金沙居士 枕流亭

버들그늘이 짙으매 더운 기운이 가시네 귀를 씻으니 속세의 일이 들리지 아니하는데 졸졸 흐르는 것은 단지 작은 시내소리 뿐이네

○金似居士枕流亭楊柳陰陰暑氣晴洗耳不聞塵世事潺湲只有小溪聲

36. 염흥방

보리 언덕은 높 낮고 물은 못에 가득한데, 쓸쓸한 마을이 적적하게 강가에 있네 속세에서 남으로 북으로 다니던 시끄러운 일을 흰모래가 새에게 말하여 알리노라

又麥壠高低水滿池荒村寂寂傍江湄紅塵南北紛紜事說與沙頭白鳥知

또 여강은 넓고 아득하여 용문산을 둘렀는데 언덕 맞은 편에 고기잡이 등불에 먼 마을이 있음을 알겠네 농사꾼이 밤에 돌아오매 잡말(雜言)이 없고 다만 곡식이 들에 가득하길 빌 뿐이네

又驪江渺渺控龍門隔岸漁燈認遠村田父夜歸無雜語但析禾稼滿郊原

37. 김구용

멀리 남국에 즐김이 이미 3년인데 깃발을 예천에서 금사로 옮겼네 伊菴의 유적이 있으니 침류정 위에서 책을 베고 조노라

○金九容詩遠遊南國已三年移旆金似自醴泉賴有伊菴遺迹在枕流亭上枕書眠

또 못을 파고 버들을 심고 초가정자를 지었으니 푸르름이 축축하여 개이려 하지 않네 문득 銀臺에 놀던 花月이 꿈을 깨치니 녹음에서 가끔가다 꾀꼬리소리 들려오네

○鑿池栽柳構茅亭蒼翠濛濛不肯晴忽破銀臺花月夢綠陰時有一鶯聲

또 꿈은 아직도 鳳凰池를 싸고 도는데 집을 구하고 밭을 구하여 푸른물가를 찾았네 구구히 姓字 감출 것 없다 金魚草木이 이미 알고있네

○夢魂猶繞鳳凰池問舍求田碧水湄不用區區藏姓字禽魚草木已曾知

또 조각배 짧은 노조 가시사립 두들기니 비오는 밤에 도리어 물위 마을이 아득하구나 묻노니 금사가 어느곳이뇨 등불이 숲을 격한 언덕에 깜박거리네

○扁舟短棹欵柴門兩夜還迷水上村爲問金沙何處是一燈明暗隔林原

38. 이색

천지는 끝이 없으되 인생은 끝이 있나니 浩然(李集의 字)이 돌아감은 어찌 바라겠나
驪江의 한 구비는 그림 같으니
半은 舟靑이요 半은 詩와 같네

李穡天地無涯生有涯 浩然歸去欲何之　　驪江一曲山如畫 半似丹靑半似詩

時　調

39. 古蹟巡禮 高百祿

(1)英 陵

우거진 그윽한 숲 淸風속에 고요하고

골안도 오붓코나 世宗임금 陵앞에서 大王님 거룩한 자취 옷깃여며 지도다

(2)神勒寺

1)眞平王 이룩하신 驪州璧寺 찾아드니
江언덕 五層塔은 옛 歷史를 말해주고
仁潭님 말굴레 씌워 神勒寺라 하더라

2)鳳尾山 산기슭에 자리잡은 古閣佛殿
懶翁님 銀杏나무 새소리만 지저귀니
濟衆生 多情佛心 우러러만 보노라

3)南漢江 구비쳐서 東臺바위 감도는데
九龍樓 높은다락 밤바람도 시원코나
고요히 깊어가는 밤 버제들만 지새오

(3)迎　月　樓

1)둥근달 솟아올제 달맞이도 좋으련만
馬巖에 漁燈달고 고기낚기 더 좋구나
迎月樓 부는 피리는 애절하게 들리오

2)笠巖山 아침놀에 旭日昇天 壯할시고
西山에 지는落照 五色구름 황홀코나
高樓上 四面八方을 무릅치고 보노라

(註) 1.驪州郡 世宗大王陵

40. 古蹟頌詩

李東鎔　作

(1) 英陵

世宗님 높은 뜻은 온 百姓을 사랑하심
온 世上 빛친이는 한글 頒布끼친 恩德
님 계신 英陵山川은 日月같이 빛나리

(2) 神勒寺

背後의 鳳尾山과 脚下淸流 漢江水는

四時에 景좋으니 神勒寺를 爲함인가
巖下의 金鯉魚맛은 道僧부러 하리라